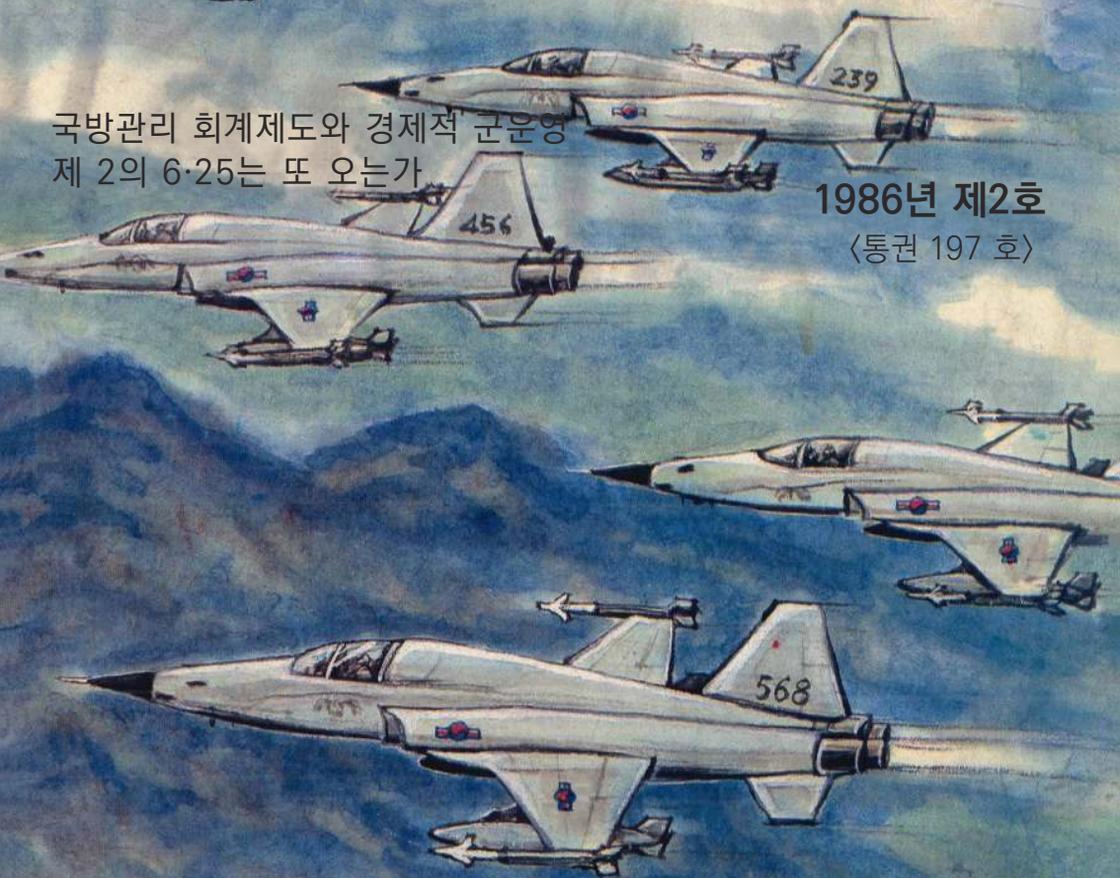


평년

국방관리 회계제도와 경제적 군운영
제 2의 6·25는 또 오는가

1986년 제2호
〈통권 197 호〉



空軍本部

空軍



趙 芝 薰

하늘이 우리의 고향,
그리고 또 하늘이 우리의 서늘,
떠나서 그리움에 우리 항시 고개 들어
하늘에 바라본다.
건물이 흙 위에 반쯤에 민중하기에
우리가 그 신이 마명의 천군에 하늘에 부다.
푸르고 밝은 하늘에 건물의 구름이
깨어나 구름에 건물의 것만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애대란
푸른 하늘을 보지 것이 우리의 소망
육신만이 되고 후된 세상을 어쩔 수가 없어서
새삼스리 마련된 은빛 영혼의 날개
그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서늘에 리 건의 구름의 하늘에
이정과 의를 저버리면
상함과 주검에
제 마음대로 바쳐서 가는 길에
하늘이 져진다.
영리의 하늘이 그대로 우리 영혼의 서늘,
아아 푸른 하늘 보,
꽃에 영의 보장, 이 땅의 하늘의 뜻에 반영이
정이라니 민이라,
하늘에 지키는 것이 사람에게
반영되고 민이라
태양이 우리의 것
저 신비의 세계도 우리의 것,
떠서 어둠 헤리니,
내 물너 하늘
저 하늘의 정열이
태양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뜨거웠다.



공사 제34기 졸업 및 임관식 ('86. 3. 19)

「.....조국(祖國)의 소명(召命)에 따라 이제 각자(各自) 임지(任地)로 향(向)하는 졸업생(卒業生) 여러분에게 본인(本人)은 철통(鐵桶)같은 영공수호(領空守護)의 책임완위(責任完達)를 당부함과 동시(同時)에 다가오는 항공우주시대(航空宇宙時代)를 이끌어 나갈 역군(役軍)으로 성장(成長)해 주기를 기대(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 대통령 각하 유시(諭示) 중에서 -

공 권

차 례

1986년 제2호
(통권 제 197 호)

- 권두언(卷頭言) 이은봉(李殷鳳) (1)

논 단 (論 壇)

- 국방자원관리제도상(國防資源管理制度上)의 관리회계(管理會計) 및 비용분석(費用分析) 개념(概念) 이병기(李炳基) (3)
- 사상적(思想的) 갈등(葛藤)과 급진적(急進的) 이데올로기 조태기 (17)
- 가정교육(家庭教育)과 사회화(社會化) 교육(教育) ... 김재은(金在恩) (30)
- 인도(印度)의 안보환경(安保環境) 박종권 (37)
- 신 제국주의론의 정체 하중수 (45)

정훈교육 자료(政訓教育 資料)

- 병영생활(兵營生活)의 명랑화(明朗化) 방안(方案) 공진구 (53)
- 동·서독(東·西獨)의 교류(交流)와 독일(獨逸)의 통일전망(統一展望) 김중숙(金鍾淑) (71)
- '86 아시안게임의 역사와 전망 김중곤 (80)
- 한국인(韓國人)의 도덕심(道德心)(선비정신을 중심으로) 이남진 (88)
- 미주한인(美洲韓人)들의 독립운동(獨立運動)과 독립군(獨立軍) 양성(養成) 임종은 (96)
- 유로 코뮤니즘의 정체(正體) 전득주(全得柱) (104)

장병문예(將兵文芸)

- 수필** 봄을 맞으며 / 고종봉 (116)
- 시** 레이다기지 예찬 / 전호명 (118)
- 연가(戀歌) / 이성호 (119)



미래(未來)의 한국공군(韓國空軍) F-16

특별기획(特別企劃) 6·25

- 내가 겪은 6·25 문종진 (121)
- 6·25와 나 조익래, 이석규, 강위철(125)
- 귀순(歸順) 조종사(操縱士)는 증언(證言)한다 (I) 정낙현 · 이웅평(133)
- 귀순(歸順) 조종사(操縱士)는 증언(證言)한다 (II) 이건순(李建淳) (141)
- 제2의 6·25는 또 오는가 홍지영 (158)

군사지식(軍事知識)

- 극초음속(極超音速) 대기권(大氣圈) 횡단기(橫斷機) TAV 한성용 (165)
- 미(美) 차기전투기(次期戰鬥機) 개발계획(開發計劃) (2) 이건순(李建淳) (170)
- 영국공군(英國空軍) 참모대학(參謀大學) 이호일 (184)
- 붉은 별들의 전략방위(戰略防衛) 구상(構想) ... 임충식(任忠植) (199)

교 양 (教 養)

- 과학(科學) / 근거리(近距離) 통신망(通信網)에 대하여 이석호(李錫浩) (205)
- 상식(常識) / 자연환경(自然環境) 조성(造成)을 위한 올바른 식수(植樹)와 조경(造景) 강준일 (213)
- 종교(宗教) / 기가 막힌 관상 이정남 (222)
- 의학(醫學) / 뇨(尿)의 생성(生成)과 이상(異狀) 이운수 (228)
- 음악(音樂) / 세계의 국가(國歌) 어떻게 만들어졌나 (2) 윤덕현(尹德鉉) (235)



○ 차례화 / 김수태(金守泰)



참모총장 부대순시('86. 1. 27)(사진)



국방부장관 공본 순시('86. 1. 24)



팀 스피리트 참가장병 환영('86. 3. 16)



군자녀 교육('86. 1. 28)



중공기 귀순('86. 2. 21)



학군단 사관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86. 2. 27)



자유중국 부총사령 공본예방('86. 2. 24)



공군대학 졸업식('86. 3. 14)



△ 제3758부대 은파
새마을 독서대학 개관
(’86. 2. 10)



▷
부산 냉동공장 화재
공군 헬기구조
(’86. 1. 12)



강인(強靱)한 정신(精神)이 필요한 시기(時期)

정훈감(政訓監) 공군대령(空軍大領)
이 은 봉 (李殷鳳)

산야(山野)가 하루하루 녹음(綠陰)으로 짙어가고 남(南)으로 훈풍(薰風)이 불어오는 가절(佳節)이다. . 이런 좋은 계절에는 우리 젊은 장병(將兵)들도 더욱 왕성한 의욕(意慾)으로 소임완수(所任完遂)에 최선을 다하리라 본다.

‘거안의조일심이려환(居安宜操一心以慮患)’-편안할 때에 마땅히 한 마음으로 위급함을 생각하라는 옛 말처럼 군인(軍人)의 직분(職分)으로서는 이처럼 평온(平穩)할수록 더욱 적(敵)에 대한 경계심(警戒心)과 긴장(緊張)을 늦출 수 없을 것이다. 근자(近者)에 알려진 것처럼 북괴공산집단(北傀共產集團)이 전(全) 병력(兵力)의 대부분을 휴전선(休戰線) 가까이 집중시키고, 미그-23 전술기와 SA지대공 미사일, 화학전(化學戰) 무기 등 대량 살상용 공격무기를 배치하면서 우리의 안위(安危)와 생존(生存)을 노리며 밤낮으로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지금까지와 또 다른 고도(高度)의 정신무장(精神武裝)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즐겁게 살아갈 권리가 있지만 거짓악속과 허위의식체계(虛偽意識體系)(Ideology)로 그 자유스러운 혼(魂)을 빼앗고, 기만(欺瞞)하여 특정목적(特定目的)의 도구(道具)로서 이용하는 그들이 얼마나 가공(可恐)스럽고 위험한지 지상낙원이라고 선전하는 그 땅이 얼마나 숨막히는 곳인지, 남북된 두 영화인(映畫人)이 서방세계(西方世界)로 극적(劇的)으로 탈출(脫出)에 성공함으로써 만인(萬人)에 노출(露出)되는 것을 보았다.

‘공산주의란 책으로 보면 아름답지만 단 하루만의 삶이라도 나에게서는 극악(極惡)스러운 경험이다’ 라는 말은 소련태생으로서 역시 자유세계로 망명(亡命)했던 첼리스트 「로스트로포비치」가 공산사회(共產社會)의 이면(裏面)을 적나라(赤裸裸)하게 표현한 것이다. ‘악(惡)은 필망(必亡)한다’는 준엄(峻嚴)한 역사(歷史)의 법칙(法則)이 우상화(偶像化) 놀음과 침략전쟁(侵略戰爭)에 광적(狂的)으로 집착하고 있는 괴수집단(怪獸集團)에 적용되지 않을리 없겠지만, 이런 역사(歷史)의 심판(審判)에 있어서 응징(膺懲)의 동인(動因)은 생존(生存)과 자유(自由)와 권

국방자원(國防資源) 관리제도상(管理制度上)의 관리회계(管理會計) 및 비용분석(費用分析)

중령 이 병 기(李炳基)
(국방부 관리정보관실)



- 목 차 -

◎ 서언(序言)

1. 국방자원관리제도(國防資源管理制度)(PPBEES)
2. 국방비용(國防費用)에 관(關)한 제(諸) 개념(概念)
3. 관리회계(管理會計) 및 비용분석(費用分析)의
기본방향(基本方向)
4. 비용분석(費用分析)의 역할(役割) 및 특성(特性)

◎ 결어(結語)

서언(序言)

국방자원관리(國防資源管理)의 기본이념(基本理念)은 자원(資源)을 운영(運營)하는 모든 국방조직(國防組織) 및 요원(要員)의 활동(活動)과 노력(努力)을 국방목표(國防目標) 달성(達成)을 위해 체계적(体系的)으로 통합(統合) 유도(誘導)하고 조정통제(調整統制)함으로써 가장 효율적(效率的)으로 군사력(軍事力)을 건설(建設)하고 운영유지(運營維持)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방자원(國防資源) 이상적(理想的)인 배분(配分)과 경제적(經濟的)인 운용(運用)을 통(通)하여 이루어 진다. 따라서 지난 3 개년에 걸쳐 범군적(汎軍的)으로 추진(推進)해 온 예산개혁작업(豫算改革作業)도 이러한 관리이념(管理理念)을 구체적(具體的)으로 실현(實現)할 수 있는 합리적(合理的)인 자원관리제도(資源管理制度)를 확립(確立)하기 위한 관리체제(管理體制) 개선작업(改善作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제 그 최종(最終) 목표과제(目標課題)인 국방관리회계(國防管理會計) 및 비용분석(費用分析) 업무(業務)가 금년부터 마무리 작업(作業)으로서 전면(全面) 시도(試圖)되고 있다. 한편 과거 10수년 간에 걸쳐 우리 군(軍)은 합리주의(合理主義)의

리(權利)를 지키려 하는 자유인(自由人)의 굳은 의지(意志)로서의 당위적(當爲的) 존재(存在)가 될 것이다.

빛나는 미래(未來)를 창조(創造)하고자 분주히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커다란 도약(跳躍)의 계기가 될 국가적(國家的) 대사(大事)도 머지 않았다. 우리 나라가 성장(成長)의 주체(主体)로서 더욱 커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주저앉고 말 것인지, 이 또한 가까운 장래에 판명될 것이다. 따라서 시련과 도전에 대한 강인(強韌)한 극복의지(克服意志)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적(精神的) 가치(價值)라고 본다. 극복의지(克服意志)는 현실(現實)을 선형적(先驗的)으로 맞아들이는 적극적 자세이며 항상 지난(至難)한 현실보다 선행(先行)하는 해결방안(解決方案)과 지혜의 제시(提示)로서 그 위기(危機)를 헤쳐 나가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주인의식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社會)와 국가(國家)의 안위(安危)야말로 개인(個人)의 행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역사적(歷史的) 체험(體驗)이 말해 주고 있다. 주인의식(主人意識)은 너와 내가 공유(共有)하는 부분에 대한 뼈저린 운명의식(運命意識), 아니 운명 의식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위기(危機)에서도 그 국민과 국가를 구원(救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상황(現狀)을 부단히 점검하고, 준비하는 계획성(計劃性)을 강조하고 싶다. 단순히 찰나적인 사고(思考)와 무계획적(無計劃的)인 행위(行爲)로서는 변화(變化)와 긴급한 경우에 당(當)하여 적절히 대응(對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든 장병(將兵)이 자신의 직분(職分)에 만족하고 자신의 과업(課業)에 대한 긍정(肯定)과 적극적인 비전을 분명히 함으로써 훌륭한 내일(來日)을 기대할 수 있다면, 머지 않은 장래 통일조국(統一祖國)의 미래상(未來像)을 이야기 해도 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식운동(意識運動)과 함께 경영관리(經營管理) 분야(分野)에 많은 관심(關心)을 기울여 어느정도 발전(發展)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군(軍)의 복잡성(複雜性)과 대규모성(大規模性) 체계적(体系的)으로 엮을 수 있는 우리의 자원관리제도(資源管理制度)를 완전히 정착(定着)시키지 못한 것은, 그간의 대부분(大部分)의 노력(努力)이 외국제도(外國制度)를 피상적(皮像的)으로 모방(模倣)하여 그 내용(內容)이 단편적(斷片的)이거나 개연적(蓋然的)인 수준(水準)에 머물렀으며, 특히 실제 자원운영결과(資源運營結果)로서 만이 피상(皮相)될 수 있는 각종 관리자료(管理資料)까지 외국(外國)으로부터 그대로 도입(導入)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정책입안(政策立案) 또는 사업계획(事業計劃) 수립(樹立)시에 민고 적용(適用)할만한 자료(資料)나 기준(基準)이 없어서 고심(苦心)한 경험이 있겠지만 사실(事實) 국방관리업무상(國防管理業務上) 가장 심각한 문제점(問題點)은 가용(可用) Data의 부재(不在)로서 이러한 관리자료(管理資料)들은 각(各) 부서(部署)의 실무담당자(實務担当者)들이 필요하다고 그때 그때 임의(任意)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성질(性質)의 것이 아니며, 관리제도적(管理制度的)으로 공인(公認)된 자료(資料)가 생산(生産)·공급(供給)될 수 있는 기본체제(基本體制)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현대적(現代的)인 경영관리(經營管理) 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료관리(資料管理), 즉 관리정보체제(管理情報體制)(Management Information System)를 주(主) 배경(背景)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자료를 기초로하여 통계학(統計學), OR/SA 등 과학적(科學的)인 분석기법(分析技法)들을 사용(使用)하고 있는 바, 복잡방대(複雜龐大)한 국방조직(國防組織) 및 자원(資源)을 효과적(效果的)으로 관리(管理)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현대적(現代的) 관리(管理)시스템을 도입(導入)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不可能)하게 되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방비용정보자료(國防費用情報資料)를 생산(生産)·제공(提供)하기 위한 관리회계(管理會計) 및 비용분석기능(費用分析機能)은 합리적(合理的)인 국방자원관리(國防資源管理) 체제정립(體制定立)의 기본요소(基本要素)이며, 예산개혁(豫算改革)의 핵심과제(核心課題)로서, 여기서 언급(言及)하는 내용은 전문적(專門的)인 회계절차나 분석방법에 관한 사항 보다는 전체(全體) 국방관리(國防管理) 차원(次元)에서 관리회계(管理會計)의 의의(意義)와 일반적(一般的)인 개념(概念)에 관하여 개략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국방자원관리제도(國防資源管理制度)(PPBEES)

군사전략(軍事戰略) 및 국방정책(國防政策) 수행(遂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軍事力) 육성(育成)을 위해서는 기본적(基本的)으로 자원(資源)의 소요(所要)가 발생(發生)하게 되는데 제한(制限)된 국방자원(國防資源)에 비해 목표소요(目標所要)가 항상 초과되고 있는 현실정(現實情)에서 자원(資源)의 효율성(效率性)을 극대화(極大化) 할 수 있도록 전력증강(戰力增強) 및 운영유지계획(運營維持計劃)을 수립(樹立)·시행(施行)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대(重大)한 당면과제이며, 이는 가장 합리적(合理的)인 자원관리(資源管理)를 통해서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원칙적(原則的)인 면(面)에서 국방자원관리체제(國防資源管理體制)를 수립(樹立)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원리는,

- 전략수행(戰略遂行) 능력(能力)의 극대화(極大化)를 목표(目標)로 군사력(軍事力) 소요(所要)를 총괄(總括)하고 제한(制限)된 자원(資源)을 필요우선(必要優先) 순위(順位)에 따라 일관성(一貫性)있게 배분(配分)할 수 있도록 중앙집약적(中央集約的) 계획을 수립하며,
- 배분된 자원의 경제적(經濟的) 집행(集行)을 위해서는 각급 관리자의 동기유발(動機誘發)로 자원사용(資源使用)에 대한 내적통제(內的統制) 및 창의력(創意力)을 보장(保障)할 수 있는 분권화(分權化) 책임관리(責任管理)를 지향(指向)하며,
- 모든 자원운영결과에 대하여는 정확한 정보(情報)의 적시 획득으로 자원운영(資源運營) 현황과악(現況把握)과 비용정보(費用情報)를 생산(生産)함으로써, 성과분석 및 비용환류(費用還流)(Feed-Back) 기능을 형성(形成)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국방자원관리제도(國防資源管理制度)는 이와 같은 원리(原理)를 국방체제상(國防體制上)에 구체적(具體的)으로 적용(適用)한 하나의 관리이론(管理理論)으로서, 그 골간(骨幹)은 기획(企劃)(P)-계획(計劃)(P)-예산(豫算)(B)-집행(執行)(E)-평가(評價)(E) 기능(機能)을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결하는 PPBEES 개념이다. 이에 관해 좀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 예상되는 적(敵) 위협(威脅)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戰略)을 수립(樹立)하고 이를 경제적(經濟的)으로 수행(遂行)할 수 있는 방향(方向)으로 군사력(軍事力) 소요(所要)를 판단(判斷)하며 국방사업에 관한 정책(政策)을 결정(決定)하는 ‘기획기능(企劃機能)’,
- 제기(提起)된 군사력(軍事力) 소요(所要)를 효율적으로 충족(充足)시킬 수 있도록 가용자원(可用資源)과 시간(時間)을 조직하여, 국방사업(國防事業)에 구체적(具體的)인 프로그램을 작성(作成)하는 ‘계획기능(計劃機能)’,
- 주어진 예산(豫算)으로 계획(計劃)된 사업(事業)을 시행(施行)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資源)을 경제적(經濟的)으로 획득·분배·운용하고 실적자료(実績資料)를 생산하는 ‘집행기능(執行機能)’,
- 위의 제(諸) 기능(機能) 및 사업(事業)을 분석(分析)하고 집행결과(執行結果)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며, 자원운영실적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分析)하여 차기계획에 Feed-Back 시킬 수 있는 표준자료(標準資料)들을 산출하는 ‘평가기능(評價機能)’, 등 각 단계의 업무체계(業務體系)는 그 기능별(機能別) 고유역할(固有役割)은 존재(存在)하지만, 모든 국방사업(國防事業)은 위의 전(全) 과정(過程)을 거쳐서 수행(遂行)되는 것이 원칙(原則)이기 때문에 각기 독립적(獨立的)으로는 완전한 기능(機能)을 발휘(發揮)할 수가 없으며, 선후과정(先後過程)이 Feed-Forward 작용(作用)·Feed-Back작용(作用)을 활발히 함으로써 P-P-B-E-E의 전체적(全體的)인 흐름이 원활한 순환체제(循環體制)를 형성(形成)했을 때에 비로소 그 목적(目的)을 달성(達成)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볼 때, 과거 국방기획제도(國防企劃制度)의 근간(根幹)

으로 삼아왔던 PPBS는 우리의 국방관리제도(國防管理制度) 발전(發展)에 많은 기여(寄與)를 한 훌륭한 계획체제(計劃體制)(PPB) 이긴 하나, 집행(執行) 및 평가(評價)(EE) 기능(機能)을 기본과정(基本過程)으로 포함(包含)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보완(補充)이 불가피 했던 것이다.

따라서 신제도(新制度)를 시행(施行)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역점(力點)을 두고 추진(推進)해야 할 과제(課題)는 합리적(合理的)인 집행관리(執行管理) 및 분석평가(分析評價)(EE)에 관한 업무체제(業務體制)를 정립(定立)하고 이를 기존(既存)의 계획체제(計劃體制)와 밀접한 연결(連結)로 완전한 국방관리순환체제(國防管理循環體制)를 구축(構築)하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관리회계(國防管理會計) 및 비용분석(費用分析) 기능(機能)을 확립(確立)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국방비용(國防費用)에 관(關)한 제(諸) 개념(概念)

가. 국방비용(國防費用)의 분류(分類)

일반적으로 군사력건설(軍事力建設) 및 운영유지(運營維持)에 필요한 자원(資源)(Resorce), 즉 인력(人力), 장비(裝備), 시설(施設), 물자(物資) 등을 획득(獲得) 또는 운용(運用)하는데 투입되는 경비를 '비용(費用)(Cost)'이라 하며, 이러한 비용을 들여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제(諸) 활동(活動)을 자원관리(資源管理) 측면에서는 '사업(事業)(Project)'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국방비용(國防費用)의 분류(分類)는 사업(事業)의 종류(種類)와 성격(性格)에 따라 구분(区分)하게 되는데, 국방사업(國防事業)에 대한 의사결정(意思決定) 및 자원배분계획(資源配分計劃) 목적(目的)에 부합(符合)되도록 체계적(体系的)이며 실용적(实用的)으로 분류(分類)되며 또한 실제 자원집행결과(資源執行結果)로부터 비용자료(費用資料)의 생산(生産) 및 집계(集計)가 용이하도록 설계(設計)되어야 한다.('국방관리회계제도'의 비용계정과목(費用計定科目) 참조).

통상적으로 국방비용(國防費用)은 투자비(投資費)와 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区分)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군사력(軍事力)의 건설사업(建設事業)과 기존(既存) 전력(戰力)의 운영유지사업(運營維持事業) 간에 한정(限定)된 국방예산(國防豫算)을 균형있게 배분(配分)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效率的) 사용(使用)으로 전력(戰力)의 극대화(極大化)를 도모하기 위한 계획목적상(計劃目的上)의 분류개념(分類概念)으로서 각각 다음과 같은 비용(費用)이 포함된다.

- 투자비(投資費)는 군사력(軍事力) 건설(建設) 및 현존(現存) 전력(戰力)의 주요 능력발전사업(能力發展事業)에 투입(投入)되는 경비(經費)로서,
 - 신규(新規) 장비획득(裝備獲得), 주요(主要) 장비성능개량비(裝備性能改良費) 및 이들 장비의 정상가동(正常稼動)시까지 시험가동(試驗稼動) 및 부대경비(附帶經費),
 - 신규(新規) 부동산(不動產)(시설물(施設物)·토지(土地)) 획득비(獲得費) 및 기존(既存) 시설

(施設)의 주요(主要) 확장(擴張)·증축(增築) 경비(經費),

- 부대(部隊) 증창설(增創設)을 위한 일절(一切)의 경비(經費),
- 전쟁지속능력(戰爭持續能力) 및 전시(戰時) 생존성(生存性) 증대(增大)를 위한 주요물자(主要物資) 획득경비(獲得經費),
- 전력자원(戰力資源) 개발(開發) 및 능력발전(能力發展)을 위한 연구개발(研究開發) 경비(經費)(‘연구개발비’는 별도 구분할 수도 있음) 등이 포함된다.
 - 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 : 앞의 투자비(投資費)를 제외하고 현존전력(現存戰力)의 상태유지(狀態維持) 및 일상활동(日常活動)(임무(任務) 및 훈련(訓練))에 소요되는 반복적(反復的)인 개념(概念)의 경비(經費)로서,
 - 인력운영유지(人力運營維持)에 따른 급여(給與), 급식(給食), 피복비용(被服費用),
 - 장비운영유지(裝備運營維持)에 따른 정비재료(整備材料) 및 유류비용(油類費用)
 - 시설(施設) 유지보수(維持補修) 및 운영관리비(運營管理費)
 - 국방조직(國防組織) 운영(運營)에 따른 부대운영(部隊運營) 및 기능별(機能別) 참모활동비(參謀活動費)
 - 전력도태(戰力淘汰)에 따른 보충자원(補充資源) 양성(養成) 또는 획득경비(獲得經費)
 - 기타(其他) 인적(人的)·물적자원(物的資源) 관리(管理)에 따른 직간접(直間接) 경비(經費) 등이 포함된다.※ 한편 ‘전력증강비(戰力增強費)’는 현행(現行) 국방체제(國防體制) 및 여건상(與件上), 대북(對北) 전력격차(戰力隔差)의 조기해소(早期解消)를 목적(目的)으로 전투력(戰鬪力) 증강(增強)에 직접적(直接的)으로 기여(寄與)할 수 있는 성격(性格)의 주요사업(主要事業)(주로 투자사업(投資事業)에 해당함)을 별도로 관리(管理)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設定)된 개념(概念)으로서,

- 주요(主要) 무기체계(武器體系)의 신규획득(新規獲得)에 따른 일절(一切)의 경비(經費)
- 주요(主要) 편제장비(編制裝備) 교체(交替)에 따른 일절(一切)의 경비(經費)
- 전쟁(戰爭) 지속능력(持續能力) 증대(增大)를 위한 전술공사(戰術工事) 및 전쟁(戰爭) 긴급물자(緊要物資) 획득(獲得)에 따른 일절(一切)의 경비(經費) 등이 포함된다.

나. 국방사업(國防事業) 및 비용(費用)에 관한 분석개념(分析概念)

국방사업(國防事業) 및 비용(費用)을 분석(分析)하는 기본목적(基本目的)은 국방비소요(國防費所要)에 대한 효율성(效率性) (經濟性 및 효과성(效果性)) 분석(分析)으로 국방자원(國防資源)의 최적배분(最適配分)을 도모하고, 집행실적분석(執行実績分析)으로 사업성과(事業成果)를 측정(測定)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방사업(國防事業)에 대한 합리적(合理的)인 의사결정(意思決定), 계획수립(計劃樹立) 및 집행(執行)을 위해서는 기획(企劃), 계획(計劃)·예산(豫算)·집행(執行)의 각 관리단계(管理段階)에서 사업별(事業別) 비용대(費用對) 효과분석(效果分析)

과 성과분석(成果分析) 업무체계(業務體系)가 정립(定立)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위해서는 비용대(費用對) 효과분석(效果分析) 및 성과분석(成果分析)을 가능(可能)케 하는 제반 전력운영 기준(戰力運營基準) 및 표준비용(標準費用) 산출(算出)·활용체계(活用體系)가 전제(前提)되어야 하는데, 현행(現行) 국방부(國防部) 직제상(職制上) 전자(前者)는 ‘평가분석(評價分析)’과 기능(機能)으로서 평가분석관실(評價分析官室)에서, 후자(後者)는 ‘비용분석(費用分析)’ 기능(機能)으로서 관리정보실(管理情報室)에서 각각 수행(遂行)하게 된다.

· 평가분석(評價分析) : 국방사업(國防事業)에 대한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직접(直接) 지원(支援)하고 효율적 자원운용(資源運用)을 유도(誘導)·촉진(促進)하는 기능(機能)으로서 사업소요(事業所要)나 집행실적(執行実績)과 비용분석(費用分析)의 전력운영기준(戰力運營基準) 및 표준비용(標準費用)을 기초(基礎)로 하여 사업종류별(事業種類別)로 전문적(專門的)인 기법(技法)을 적용하여 분석(分析)한 후 그 결과를 결심권자(決心權者)와 사업주무부서(事業主務部署)에 반영(反映)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분석목적(分析目的) 및 시기(時期)에 따라 사전(事前) 분석(分析)과 사후(事後) 분석(分析)으로 구분(区分)되며, 또한 사업종류(事業種類)와 분석대상(分析對象)에 따라 임무분석(任務分析), 기술분석(技術分析), 군수지원분석(軍需支援分析), 비용대(費用對) 효과분석(效果分析) 등으로 구분(区分)된다.

· 비용분석(費用分析) : 사업계획(事業計劃)에 대한 효과분석(效果分析)이다. 성과분석(成果分析) 이전에 투자비(投資費)·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를 막론하고 일정량의 군사력(軍事力)을 새로 건설(建設)하거나 일정량의 전력(戰力)을 일정기간 - 일정수준으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費用)이 소요(所要)되는가를 산정(算定)하여 모든 자원관리활동에 공통(共通)으로 적용(適用)할 수 있는 표준비용정보(標準費用情報)를 생산(生産)·제공(提供)하는 기능(機能)으로서, 모든 국방조직(國防組織)의 자원운영실적자료(資源運營実績資料)를 통계적(統計的)으로 분석(分析)하여 최적(最適) 기준치(基準值)를 추정(推定)하게 된다.

단(但), 여기서는 관리회계를 통한 운영유지비에 관한 비용분석만 언급하기로 한다

3. 관리회계(管理會計) 및 비용분석(費用分析)의 기본방향(基本方向)

가. 국방관리회계(國防管理會計)의 의의(意義)

흔히 ‘회계(會計)’는 경영(經營)의 언어(言語)(A language of business)’라고도 일컬어 지는데, 이는 회계(會計)가,

- 기간중(期間中) 발생한 자원거래(資源去來)를 기록(記錄)하고,
- 그 정보(情報)를 요약(要約)하여,
- 보고(報告) 및 해석(解析)하는 과정(過程)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경영활동(經營活動)에 관한 정보(情報)를 제공(提供)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의 회계실정(會計实情)을 보면 원천(源泉)은 다 같은 국방예산(國防豫

算)으로 획득(獲得), 거래(去來) 및 운용(運用)되는 자원(資源)이지만, 현금(現金)은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 물자(物資)는 군수품관리법(軍需品管理法), 그리고 시설자산(施設資產)은 국유재산법(國有財產法)에 의해 각기 다른 부서(部署)에 독립적(独立的)으로 관리(管理)되므로 인해 부대별(部隊別)로 총괄적(總括的)인 자산보유현황(資產保有現況)이나 상태파악(狀態把握)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회계행위(會計行爲) 자체(自体)가 경직(硬直)된 통제기준(統制基準)을 피하기 위해 변칙적(變則的)인 합법성(合法性)만 도모하거나, 필요시(必要時) 증거보전(証拠保全) 목적(目的)에만 급급하게 되는 경향으로, 국가재산(國家財產)의 보호(保護), 부대운영(部隊運營) 결과파악(結果把握) 및 사실비용자료(事實費用資料) 생산(生産)과 같은 군회계(軍會計) 본연(本然)의 역할(役割)이 거의 마비되므로 인해 국방자원관리(國防資源管理) 목적(目的)에는 전혀 활용(活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解消)할 수 있는 제도로써 관리회계(管理會計)는 지금까지의 개별법정회계(個別法定會計)를 일원화(一元化)하여 현금예산(現金豫算), 물자(物資), 장비(裝備), 시설(施設), 인력(人力) 등 모든 자원(資源)에 대하여 일정 시점(時點)에서의 현황(現況)과 일정 기간중(期間中)의 운영(運營)(거래(去來)·소모(消耗)·가동(稼動)) 실적(実績)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들을 체계적(体系的)으로 기록(記錄)·집계(集計)·분류(分類) 함으로써, 각급 관리자(管理者)가 필요로 하는 부대운영자료(部隊運營資料)를 제공(提供)하여 효과적인 자원관리업무(資源管理業務)를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취지(根本趣旨)가 있다. 그러므로 관리회계(管理會計)의 주체(主体)는 자원관리단위(資源管理單位)(비행단급(飛行團級)) 부대(部隊)로서 대내외적(對內外的) 모든 자원거래(資源去來) 증빙서와 개개(個個)의 자원소모(資源消耗) 기록카드가 사전(事前) 설정(設定)된 계정과목(計定科目)에 의거 자원종류별(資源種類別)·임무(任務) 및 기능별(機能別)·사업별(事業別)로 기존(既存) 자산현황(資產現況)과 함께 총괄집계(總括集計) 및 분류(分類)되므로 인해

- 기간중(期間中) 부대운영결과(部隊運營結果) 및 비용분석(費用分析)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生産)하며,
- 부대(部隊) 지휘관(指揮官)이 지휘(指揮)와 관리(管理)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 부대별(部隊別) 예산편성(豫算編成) 및 청구거래제(請求去來制)에 의한 군수관리기능(軍需管理機能)을 촉진(促進)하여 단위부대별(單位部隊別) 책임관리제도(責任管理制度) 시행(施行)의 기초(基礎)를 확립(確立)하는 중요(重要)한 역할(役割)을 한다.

이러한 관리회계(管理會計)를 시행(施行)함에 있어서 절차상(節次上) 크게 두가지 원리(原理)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약간 전문화된 감(感)이 있으나 이를 간략하게 소개(紹介)하면, 첫째, 단일가치계산(單一價值計算)의 원리(原理)로서 각양각색의 재산변동(財産變動)을 질서정연하게 기록(記錄)·계산(計算)하기 위해서는 제(諸) 형태(形態)의 재산(財産)에 대한 공통(共通) 척도(尺度)가 필요한데 보유자산현황(保有資產現況)이나, 자원(資源)의 거래(去來) 및 변동(變

動)이 모두 표준가격(標準價格)으로서의 단일화폐가치(單一貨幣價值)로 환산기록(換算記錄)하여야 한다. 둘째, 대차대조(貸借對照) 및 평균(平均)의 원리(原理)로서 조달원천(調達源泉)에 따른 자본(資本)(대변(貸邊) : 장부 우(右)변에 기록사항)과 투하(投下)된 자본(資本)의 존재형태(存在形態)에 따른 자산(資産)(차변(借邊) : 장부 좌(左)변에 기재사항)의 증감변화는 거래(去來)의 이중성(二重性)에 의해 상호(相互) 같은 액수의 거래요소를 수반하게 되며, 차(借)·대(貸)의 회계(會計)는 각각 일치한다.

나. 비용자료생산(費用資料生産) 및 분석(分析) 개요(概要)

· 비용분석(費用分析) 대상(對象) 및 범위(範圍)

국방비용분석(國防費用分析)의 대상범위(對象範圍)는 투자비(投資費)·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를 막론하고, 국방예산(國防豫算)이 투입(投入)되는 전분야(全分野)에 해당되지만 관리회계(管理會計)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비용자료(費用資料)는 일부 연구개발(研究開發) 또는 생산기관(生産機關)의 주요사업별(主要事業別) 비용(費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에 관한 자료이기 때문에 당분간 운영유지비에 국한(局限)해서 비용분석(費用分析)을 실시(實施)할 예정이므로 여기서도 이에 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주요(主要) 투자사업(投資事業)에 관한 비용(費用)은 대부분이 해외구매사업(海外購買事業)으로서 반복적(反復的)인 성격(性格)이 아니므로 표준비용(標準費用)을 산정(算定)하는 자체(自体)로서는 별다른 의미(意味)가 없고 사업별(事業別) 비용대효과분석(費用對效果分析)이 동시(同時)에 수행(遂行)되는 것이 상례(常例)이므로 이는 평가분석(評價分析) 또는 투자사업계획(投資事業計劃)시에 정확(正確)한 시장가격정보(市場價格情報)를 획득(獲得)함으로써 가능(可能)하며,

이때 고려해야 될 수명주기비용(壽命週期費用)(Life-cycle Cost)은 기(既) 보유장비(保有裝備)는 관리회계자료(管理會計資料)로서, 신규장비(新規裝備)는 외국정보자료(外國情報資料)에 의존(依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투자사업관리(投資事業管理)에 대한 업무(業務)는 중앙부서(中央部署)의 비교적 소수의 전문가(專門家)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가 있으며 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처럼 복잡대(複雜龐大)한 업무(業務)는 아니다.

그러므로 자원관리단위부대(資源管理單位部隊)의 관리회계자료(管理會計資料) 즉, 부대별(部隊別) 자원보유현황(資源保有現況), 각종(各種) 자원소모실적(資源消耗実績) 및 장비가동(裝備稼動) 등 기타 운영실적을 토대로 산출(算出)되는 비용계수(費用係數) 및 표준비용(標準費用)은 다음과 같다.

- ① 각급(各級) 전력단위부대별(戰力單位部隊別) 창설비(創設費) 및 운영유지비(運營維持費)
- ② 신분별(身分別), 계급별(階級別), 특기별(特技別) 연간(年間) 인당(人當) 유지비(維持費)
- ③ 일정기간 - 일정운영수준당 장비모델별 대당유지비(台當維持費) 및 단위운영량당(單位運營量當) 비용(費用)(비용계수(費用係數))

- ④ 시설(施設) 용도별(用途別), 구조별(構造別) 단위면적당(單位面積當) 평균(平均) 유지보수비(維持補修費)
- ⑤ 교육과정별(教育課程別) 교육원가(教育原價) 및 인당양성경비(人當養成經費)(교육부대(教育部隊))
- ⑥ 주요(主要) 정비작업종류별(整備作業種類別) 정비원가(整備原價)(군수부대(軍需部隊))
- ⑦ 주요(主要) 제품별(製品別) 생산원가(生産原價)(연구생산기관(研究生產機關) 또는 군수부대(軍需部隊))
- ⑧ 기타(其他) 주요임무(主要任務) 또는 훈련종류별(訓練種類別) 비용(費用)
- 비용분석요소(費用分析要素) 및 구비조건(具備條件)

국방운영유지비용(國防運營維持費用)은 각 국방조직이 주어진 임무활동(任務活動)을 위하여 인원(人員)·장비(裝備)·시설(施設) 등 전력자원(戰力資源)을 운영(運營)하는데 현금(現金)·물자(物資) 등의 소모자원(消耗資源)을 사용(使用)함으로써 발생된다. 따라서 비용분석(費用分析)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은 “어떤 임무(任務)에, 어느 정도의 전력자원(戰力資源)을 운영(運營)하는데, 얼마 정도의 소모자원(消耗資源)을 사용(使用)했는가?”를 파악(把握)·분석(分析)하고 이들 자료들을 종합(綜合)하여 추후(追後) 국방관리목표(國防管理目標)에 필요한 보편적(普遍的)인 기준(基準)값들을 추정(推定)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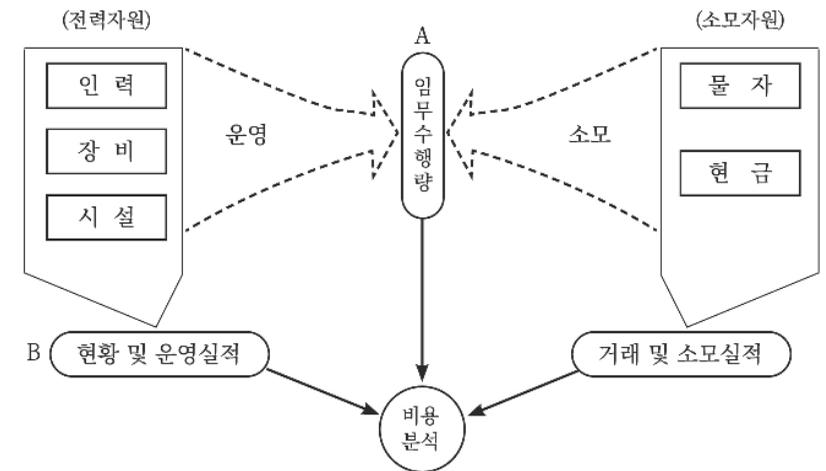


그림 1. 운영유지비 분석개념

은 기초자료들이 요구된다(그림 1 참조). ① 임무달성도(任務達成度) 또는 임무수행량(任務遂行量)

② 전력자원(戰力資源) (인력(人力)·장비(裝備)·시설(施設) 등)의 보유량(保有量), 상태(狀態) 및 사용실적(使用実績).

③ 소모자원(消耗資源)(물자(物資)·현금(現金) 등)의 거래(去來) 및 용도별(用途別) 소모실적(消耗実績)

한편, 위와같은 자료들을 생산하여 비용분석(費用分析)이 수행(遂行)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要件)들이 사전(事前)에 갖추어져야 하며 또한 이들은 국방부에서부터 단위부대 실무부서(實務部署)에 이르기까지 전군적(全軍的)으로 통일(統一)과 표준화(標準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① 총체적(總體的) 국방비용구성요소(國防費用構成要素) 분류(分類)

전력단위부대별(戰力單位部隊別) 비용(費用)을 비롯하여 비용분석(費用分析)을 통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비용(費用)에 관하여 각각의 사용목적(使用目的)과 자료의 종류 및 발생분야에 따라 전체내용을 구성하는 세부요소를 합리적으로 분류함으로써 포괄적이며 체계적으로 기초자료가 생산되고 의미있게 집계(集計)·분류(分類)·분석(分析)되어야 하는데, 통상 기능별·임무활동별·사업별(事業別)·자원종류별(資源種類別) 및 직(直)·간접요소별(間接要素別)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게 되며, 이는 관리회계(管理會計)의 계정과목(計定科目)과 비용요소처리기준(費用要素處理基準)의 표준화된 세부 분류기준에 의해 통일적(統一的)으로 정(定)하여 진다.

② 정확(正確)한 기초자료생산(基礎資料生産) 및 효과적(效果的) 자료관리체제(資料管理體制) 구축(構築)

비용분석(費用分析)의 생명(生命)은 한마디로 자료의 정확성(正確性)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용종류별로 기초자료를 생산함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일체의 누락 또는 중복됨이 없이 기록집계(記錄集計)되어야 하며, 종합된 기초자료는 동종(同種) / 동급(同級) 부대별(部隊別)·기능별(機能別)·사업별(事業別)로 재분류(再分類) 및 비교분석(比較分析)될 수 있도록 전산처리(電算處理) 및 반영구적(半永久的)으로 보관(保管)됨으로써 항상 활용(活用)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 과학적(科學的) 분석방법(分析方法) 및 모델적용 : 산출(算出)하고자 하는 비용의 종류와 자료의 성격(性格)에 따라 과학적(科學的)이면서도 실용성(實用性)이 있는 방법(方法)과 기준(基準)을 설정(設定)·적용(適用)하여 기초자료들 검증(檢證) 및 취사선택(取捨選擇)하고 비용종류별로 최적(最適)모델을 적용하여 대표값(계수 또는 표준치)을 산출함으로써, 비용발생에 작용된 상관변수(相關變數)들의 기여도(寄與度)와 신뢰도(信賴度)가 입증(立證)되는 동시에 전력자원(戰力資源)의 수명주기(壽命週期) 및 용도(用途)에 따른 비용의 변동추세(變動趨勢)

까지도 파악될 수 있어야 한다.

다. 비용자료(費用資料)의 전산처리(電算處理) 개요(概要)

국방운영유지비에 관한 자료관리 업무는 그 규모나 성격상(性格上) 이미 수기식처리(手記式處理)의 한계(限界)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전산화처리(電算化處理)가 전제(前提)되어야 하는데, 비용자료의 전산처리과정(電算處理過程)은 크게 2단계(段階)로 구분(区分)하여 자원관리단위부대(資源管理單位部隊)의 기초자료생산과정(基礎資料生産過程)과 이들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종합하여 각군본부(各軍本部) 또는 국방부(國防部)에서의 종합처리과정(綜合處理過程)으로 이루어진다.

· 기초자료(基礎資料) 생산(生産) : 자원관리단위부대(資源管理單位部隊)의 관리회계(管理會計)를 통한 비용분석(費用分析) 기초자료(基礎資料)의 생산(生産)은,

① 부대 자원거래증빙서와 각종 자원 사용실적 기록카드를 분개(分介)하여 전산입력전표(電算入力伝票)를 작성(作成)하고,

② 개별입력(個別入力)된 전표가 비용분류코드, 자원분류코드 및 부대분류코드 등 기설치(既設置)된 전산보조화일에 의거 보유자원현황(資源現況)과 자산이력(資産履歷)이 Up-Date되고, 예산 및 물자와 제반 내용이 상세하게 순서대로 분류기록되는 부대자원관리(部隊資源管理) 기본화일을 작성하며,

③ 각종 기본화일들이 연계처리되어 부대운영 및 내용분석 기초자료가 되는 관리 목적별 자원현황(資源現況) 및 비용(費用)이 출력양식(出力樣式)에 의거 집계처리하는 분석보고서(分析報告書)화일을 작성(作成)하는 등의 과정(過程)으로 되는데, 단위부대에서는 모든 입출력(入出力) 자료의 첨삭(添削)(인위적(人爲的))이 일체 금지되며, 사실대로의 실적치(実績値)와 그에 대한 원인분석(原因分析)만 따르며 된다(그림 2 참조).

· 종합집계(綜合集計) 및 분류(分類) : 모든 자원관리단위부대(資源管理單位部隊)에서 생산(生産)·보고(報告)된 기초자료(基礎資料)를 접수한 각군본부(各軍本部) 및 국방부(國防部) 비용분석 전담부서의 종합처리(綜合處理)는,

① 기설치(既設置)된 부대분류코드, 비용분류 코드 및 자원분류코드에 의거 동종(同種)/동급(同級)

부대별(部隊別)로 자원현황 및 비용종류별로 비교 검토 될 수 있도록 유형부대별(類型部隊別) 분류처리(分類處理),

② 분류된 비용종류별로 각종 표준비용 및 계수산출공식과 해당 전력운영기준(戰力運營基準)을 적용하여 목적하는 비용을 산출하며, 출력(出力)된 자료를 최종분석하여 합리적(合理的)인 값을 추계(追計)하는 과정으로 이루어 진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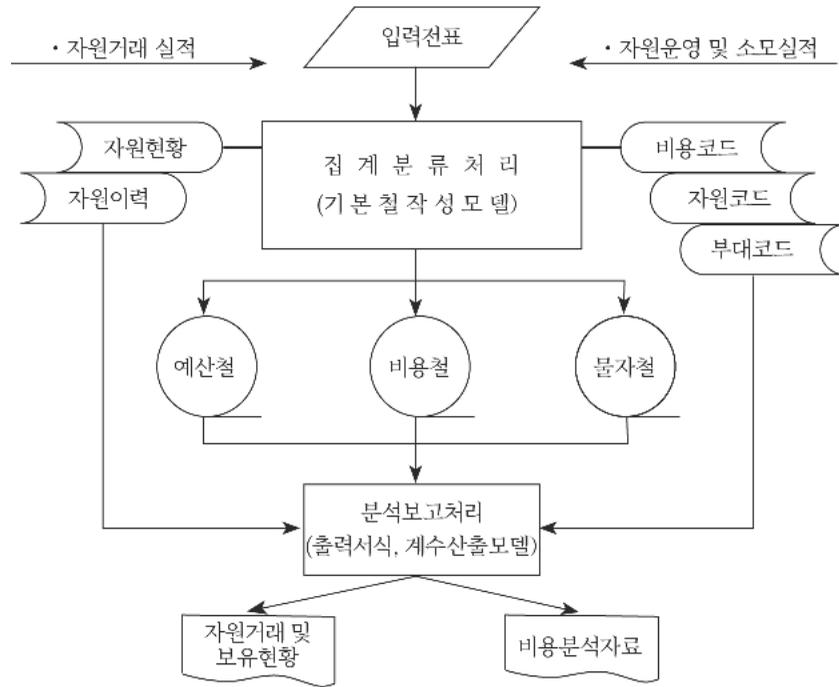


그림 2. 부대관리회계 전산처리 개요

4. 국방비용분석(國防費用分析)의 역할(役割) 및 특성(特性)

앞에서도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지만, 한마디로 해서 비용분석(費用分析)이란 국방자원(國防資源) 운영결과자료(運營結果資料)를 분석하여 합리적(合理的) 자원관리를 위한 비용정보(費用情報)와 기준(基準)을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비용분석(費用分析)을 통하여 산출되는 비용정보자료(費用情報資料)는 국방관리정보(國防管理情報)(MIS)의 핵심기능(核心機能)으로서,

첫째, 국방정책(國防政策) 및 사업(事業)에 대한 의사결정(意思決定), 계획수립(計劃樹立) 및 예산편성(豫算編成) 등의 자원배분(資源配分)과, 자원의 운용통제 및 사업평가를 위한 비용기준(費用基準)을 제공(提供)하며,

둘째, 장비(裝備) 및 시설(施設) 등 주요(主要) 전력자원(戰力資源)에 대한 수명주기비용(壽命週期費用) 산정(算定)과 경제적(經濟的)인 도태시기(淘汰時期)를 결정(決定)하도록 하며,

셋째, 단위부대별(單位部隊別) 분권화(分權化) 자원관리기능(資源管理機能) 강화(強化)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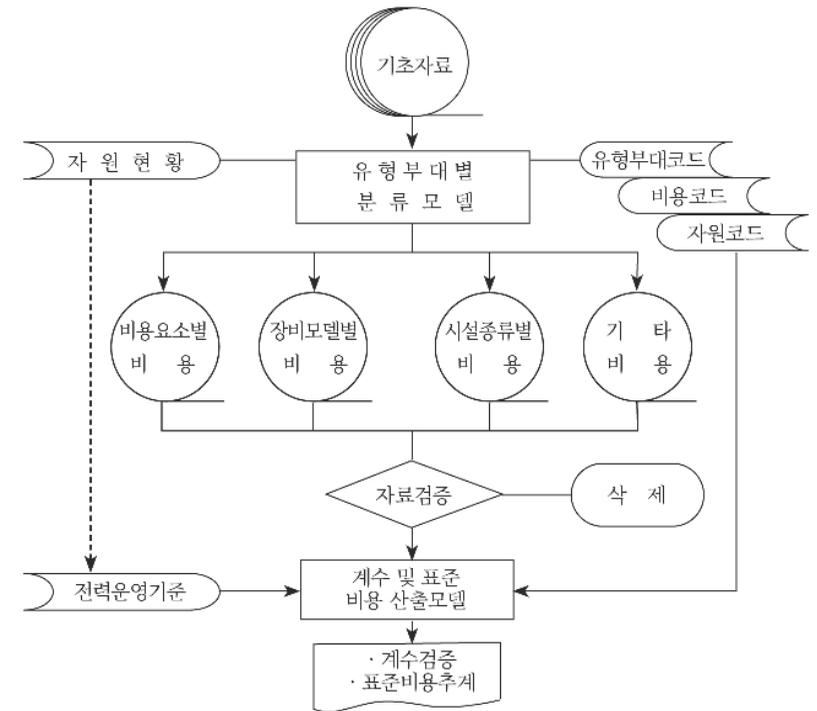


그림 3. 비용분석자료 종합처리 개요

효율적(效率的)인 군수관리(軍需管理)를 촉진(促進)하는 동시에 전반적(全般的)인 국방관리업무(國防管理業務)의 표준화(標準化), 능률화(能率化) 및 체제합리화(體制合理化)에 기여(寄與)하는 커다란 역할(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비용분석기능(費用分析機能)이 갖는 일반적인 기능별임무(機能別任務)와 다른 주요특성(主要特性)을 살펴보면, 첫째, 모든 국방자원, 조직 및 기능을 총망라하여 사업과 비용을 분류하여 자료를 산출하여,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의 모든 관리기능부서 및 부대에서 공통으로 이를 적용하기 때문에 종합체계적(綜合体系的)이며, 총체성(總體性)을 가지며,

둘째, 복합적(複合的)인 자료로부터 하나의 표준을 산정하고 과거의 경영실적을 토대로 미래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전산(電算)을 비롯한 경영학, 통계학, OR/SA 등 학문적 이론(理論)과 분석기법(分析技法)들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학성(科學性)과 진취성(進取性)을 가지며,

셋째, 생산된 자료와 계수는 전산에 의해 반영구적(半永久的)으로 보관(保管)하면서, 새로운 자료의 생산(生産)과 여건(與件)의 변화(變化)를 고려하여 기존자료와 계수(係數)를 계속적으로 수정·보완 함으로써 새로운 비용(費用)을 산출하기 때문에 지속성(持續性)을 가진다.

결언(結言)

국방운영유지비(國防運營維持費)는 자원(資源)을 실제(實際)로 운영하는 수많은 국방조직과 요원들의 참여로 관리되기 때문에 자원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計劃)과 통제력(統制力)을 행사할 수 있는 단위부대(單位部隊)의 자원관리(資源管理) 역할(役割)이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까지는 제반 여건, 특히 우리의 관리제도적(管理制度的)인 불합리성(不合理性) 때문에 자원(資源)의 효용가치(效用價值)를 높이는데 관심이 부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원운영결과에 대한 실적자료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심지어는 부대관리자(部隊管理者)가 자기부대에 얼마만큼의 자산(資産)을 보유(保有)하고 있는지, 연간 얼마만큼의 예산을 사용하는지 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改善)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원관리체제(資源管理體制)를 분권화책임관리제(分權化責任管理制)로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각급 관리자가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그 실적(実績)으로 정확(正確)한 분석(分析)과 평가(評價)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이러한 체제(體制)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요원들이 참여하고 합리적(合理的)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예산개혁작업(豫算改革作業)은 이러한 취지하에서 제반관리제도를 현대화(現代化)하는 동시에 전군적(全軍的)인 참여운동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궁극의 목표과제(目標課題)로 국방관리회계(國防管理會計) 및 비용분석제도(費用分析制度)를 시도(試圖)하게 된 것인데, 이는 그만큼 복잡(複雜)하고 어려운 과제(課題)이기 때문에 몇 단계 사전 준비과정을 거쳐 마무리 작업(作業)으로서 시행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국방자원관리제도 발전의 기반(基盤)이 될 관리회계와 비용분석 기능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상급부서에서는 본 제도의 방법 및 절차를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성있게 보완·정립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단위부대 실무요원들은 본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기초자료 생산에 최선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상적(思想的) 갈등(葛藤)과 급진적(急進的) 이데올로기

조 태 기(趙泰基)

〈인천 전문대 교수 : 정치사상(政治思想)〉



- 목 차(目次) -

1.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2. 젊음의 특징·정체성(正體性)·갈등·사회발전(社會發展)
3. 급진적(急進的) 좌경사조(左傾思潮)
4. 결어(結語)

1. 문제(問題)의 제기(提起)

인간(人間)은 본시 사유(思惟)하는 존재(存在)이다. 그 사유(思惟)를 통해 주위세계에 대한 인간(人間)의 만족과 불만,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슬픔 등을 표현한다.

사유(思惟)란 인간이 그의 이웃과 사회 그리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매개(媒介)이며, 인간이 그의 주위세계에 대해서 갖는 태도를 형성한다.

일상적인 삶에서의 사유(思惟)는 단순하기도 하나, 반면에 여러 논리(論理)는 단계를 거쳐 진행되기도 한다. 즉 “삶이 괴롭다”. “나쁜 사회(社會)” 등을 직접적인 사유라고 한다면, “왜 나의 삶이 불행하며, 보다 나은 사회(社會)를 위해서는 왜 현존(現存)의 조건(條件)이 개선(改善)되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政治)·사회체제(社會體制)의 변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논리적(論理的) 사유(思惟)가 일어나며 이 진술은 진정한 삶에 대한 철학(哲學)과 그 실현(實現)을 도모하는 어떤 이론(理論)을 전제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유가 체계(體系)를 갖추게 되면 그것은 곧 정치사상(政治思想)이 되고, 한 집단(集團)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정치적(政治的) 목표(目標)달성에 이념(理念)의 구실을 하게 되면 그것은 「이데올로기」라고 불리워진다.1)

그런데 현대인(現代人)은 바라건, 바라지 않건 간에 이데올로기의 홍수 내지 포화상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現代)를 「이데올로기의 시대(時代)」라고 말한다.

이데올로기는 그 낱말의 의미부터가 언제나 인간행위(人間行爲)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온

것이 사실이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지나간 시대와는 판이한 양상으로 현대(現代)의 전쟁(戰爭)은 이데올로기의 전쟁(戰爭)이며, 현대집단(現代集團)의 갈등은 곧 이데올로기의 갈등이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본질(本質)이나, 그 영향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없이는 현대정치(現代政治)에 대한 연구(研究)는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2)

그런데 이데올로기란 현존(現存) 또는 미래의 사회를 위해 바람직한 정치(政治)질서를 설명하고 정당화(正当化)하는 신념체계(信念體系)일 뿐만 아니라 인간(人間)의 본성(本性)과 목적(目的) 그리고 그의 존재양식(存在樣式)을 충족시키는 조건 등에 관한 규범적인 기본 전제도 포함한다.

그러나 어떤 이데올로기도 그 이데올로기가 형성된 역사적(歷史的)·사회적(社會的) 제약(制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변화하지 않는 상황(狀況)이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지식(知識)은 변하고 발전하며, 이데올로기도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나 모든 이데올로기의 주장자들은 그들 이데올로기의 보편성(普遍性)을 강조함으로써 그 이데올로기를 편협(偏狹)하고 경직(硬直)된 것으로 만들어 인간(人間)의 비판이성(批判理性)을 혼미하게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제(諸)이데올로기를 인간의 참다운 자아실현(自我實現)을 가능케 하는 사회질서에 대한 철학(哲學)과 이론(理論)에 기초하여 비판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니고 있고 지닐 수 있는 「사상적 갈등-특히 우리의 젊은 세대(世代)가 수용하고 있고 또한 표출하고 있는-」과 급진적 좌파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젊음의 특징-정체감(正體感)·갈등·사회발전(社會發展)

젊음의 특징이 개방적(開放的) 소박성(素朴性)과 순진성(純真性)이 진취적(進取的) 개혁의지(改革意志)와 조화(調和)롭게 섞여 있으며, 그것이 이념이든, 의견이든, 혹은 주장이든간에 이질적(異質的)인 것을 포용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對話)할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답답한 현실(現實), 그 현실(現實)에 뒤엉켜 있는 부조리(條條理)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힘이 곧 젊음의 표상(表象)임도 분명(分明)하다. 젊음이들이 창조적(創造的)인 돌파구를 자유(自由)롭게 형성(形成)할 수 있는 사회(社會)가 곧 살아 있는 개방체제(開放體制)인 것이며, 그야말로 “멋진 사회(社會)”³⁾라는 견해 또한 필자도 공감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작금에 표출되어진 대학생(大學生)의 사상적(思想的) 갈등의 전이(轉移)과정과 그 발현이 무엇인가 개방체제(開放體制) 속에서의 순(順)기능적 측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즉 그 발현이 종래의 시위(示威)라는 학생운동(學生運動)의 차원을 완전히 떠나, “민주화(民主化)”라는 미명하에 공공기관을 점거한 다음, 화염병, 각목, 쇠파이프 등을 마구 사용하면서

방화까지 자행하는 등 「폭력투쟁(暴力鬪爭)」을 공공연히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최근에 표출된 학생운동(學生運動)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달라졌고 「민주쟁취(民主爭取)·민중해방(民衆解放)·민족통일(民族統一)」을 이념(理念)으로, 「민주(民主)·민중(民衆)·민족(民族)」을 구호(口號)로, 「민중민주주의(民衆民主主義)」를 목표(目標)로 하는 일련의 유인물(전학련(全學聯)연합심포지움 자료집 : 참고문헌 22권까지 표기된 69면(面), 일보전진·깃발 I호 : 18면(面), II호 : 26면(面), 민주선언 : 제1호(85. 9. 13)부터 제8호, '85년 중간호(85. 12. 20)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실천양상도 「우리들의 상황인식이…… 비판적, 변혁적 화석이 되기 위해서는 인식 자체가 혁명적(革命的) 사건에 의거해야 하는 것이다. 인식이란 곧 실천(實踐)임을 명심하자. 올바른 학생단은 인식적 실천(實踐)을 통해서만 획득되어지는 것임을 상기하자4)」라고 선언하면서, 그 주장도 단순한 학내문제나 학원 자율화 등의 요구에서 벗어나 사회혁명(社會革命)을 선동하고, 체제(體制)까지 들먹이는 「강력(強力)한 실천(實踐) 이데올로기적인 색채」를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마치 '60년대-정확히 말하면 소화(昭和) 30년(年) (1955년) - 일본(日本)에서 문제시되었던 제(第)2차(次) 용천사건(瀧川事件)에서 있었던 학생운동의 내용과 흡사하며 <① 학생자치의 문제 ② 반미적(反美的), 반자본주의적(反資本主義的), 반제국주의적(反帝國主義的)인 정치운동적성향(政治運動的性向) ③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고 중앙의 지령에 따른 통일적(統一的)인 행동양식 5), 더 나아가 노동자(勞働者), 도시빈민(都市貧民), 농민(農民) 등과 운동권 학생들이 연대를 형성하는 이른바 「노(勞)·학(學)연대투쟁」의 양상으로까지 발전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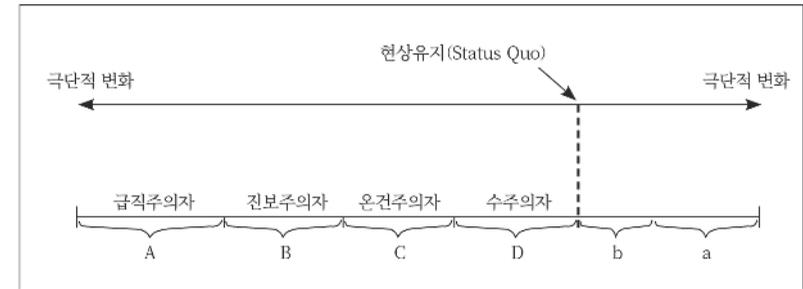
학생소요에서 제기되는 이슈도 처음에는 「민주화(民主化)」였던 것이 이제는 「민족해방(民族解放)·「민중주의혁명(民衆主義革命)」 등 급진적이고 과격한 것은 물론 현 헌법의 단순한 개정(改正)이 아니라 「기존헌법과의 단절 속에서」 6)이를 전제로 「삼민통일(三民主義)헌법」의 제정을 선동하면서, 그들의 사상적 갈등을 좌파(左派)이데올로기에서 해결해 보려는 성향(性向)마저 농후해 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란 다양(多樣)한 의견이나 이견(異見)을 사실로서 인정하고, 경쟁적(競爭的) 정당(政黨)의 활성화(活性化)된 정책대결을 전제로, 의견과 이견(異見)을 선의의 줄다리기와 대화(對話)를 통해 집약(集約)해 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는 침묵이나 무관심보다 훨씬 값진 것이어서 「좀 시끄러운 소리는 오히려 정치발전(政治發展)의 신음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民主主義)는 적법절차에 따른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 의회제도(議會制度)를 바탕으로, 민의수렴과 정책수렴을 통해 국민의 내부적 갈등을 극(極) 소화(小化)해 나가는 것을 그 요체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사회(社會)이건 갈등은 있게 마련이며 진보파(進歩派)와 보수파(保守派)는 있게 마련이다. 미국(美國)에도 있고 서구(西歐)에도 있다.

즉 갈등과 사회발전(社會發展)의 연계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대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표(表) 1) 정치적(政治的) 스펙트럼(Political Spectrum)⁹⁾



현재의 사회에 극도로 불만족스러워 그것의 변화를 위한 덜 극단적인 제안들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급진주의자(急進主義者)는 사회(社會)의 즉각적이고도, 근본적(根本的)인 변화 <Radical : 급진주의적 좌경의식이라는 용어는 본래 그 어원이 뿌리(Radix)에서 유래하여 ‘뿌리채 뒤엎는 성향’을 가짐>을 좋아한다. 바꿔 말하면 모든 급진주의자(急進主義者)들은 「혁명적(革命的) 변화(變化)」를 좋아한다.

동시에 그 체제(體制)의 변화를 「폭력적(暴力的)」 수단에 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으로 자기들을 통제(統制)하는 정치체제(政治體制)를 반대하기 때문에 법(法)을 존중하기는 어려운 집단(集團)이 되고 만다.¹⁰⁾

이러한 맥락에서 급진적(急進的) 좌경사상(左傾思想)을 분석해 보면 주로 1) 신제국주의론(新帝國主義論)과 신식민주의(新植民主義) 2) 네오·마르크스주의와 신좌파운동 3) 종속이론(從屬理論)과 급진적(急進的) 기독교(基督教) 신학사상(神學思想)(사회복음의 신학(神學)·희망의 신학·혁명신학(革命神學)·해방신학(解放神學)·한(恨)의 신학(神學)·억눌린 자의 신학(神學)·변두리 사람의 신학(神學)·민중신학(民衆神學) : 넓은 의미의 세속화(世俗化) 신학(神學)¹¹⁾ 등이 그 주류(主流)를 이룬다.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나라 대학생(大學生)의 사상형성에 어떻게 접목(接木)·변이되었는지를 간추려 보려고 한다.

첫째, 네오·마르크스시즘¹²⁾ 이란 소련, 동구(東歐) 그리고 서구(西歐) 등에서 마르크스의 초기(初期) 저작에 나타난 「인간중심주의사상(人間中心主義思想)」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견해를 말한다... 따라서 마르크스주의(主義)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는 사상들의 집합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스탈린주의(主義)와의 분리(分離)¹³⁾를 전제로 「젊은 마르크스」의 인간주의적(人間主義的) 측면을 강조하는 “Return to young Marx 또는 Return to the writings of young Marx”를 지칭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요컨대 이 사상의 요체는 기존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자본주의를 포함한 비공산주의체제

첫째는, 「갈등이 없는 사회(社會)」-이른바 전체주의가(全體主義家)에서는 공식(公式) 또는 관제(官製)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에 통제(統制)되어 갈등의 표출(表出)은 악덕(惡德)이며, 강압(強壓)된 함구가 미덕(美德)으로 맹신되어, 마치 「무덤 속의 안정(安定)」일 수밖에 없는 상태, 바꿔 말하면 폐쇄적 전체주의사회(全體主義社會)는 특히 젊은 세대(世代)에게 오로지 동조(同調)와 복종(服從)을 강요하기 때문에, 젊은이의 정체(正體)(identity)도 그들 스스로가 애써 찾기 보다 이미 고정화(固定化)되고 화석화(化石化)된 이념을 「위로부터」 일방통행적으로 물려받게 된다.

그래서 오로지 체제(體制)를 경직하게 강화 하는데 동원(動員)되고, 혹사 당한다. 결국 교육(教育)은 없고, 교화(教化)(Indoctrination)만이 있을 뿐이다. 결국 정치적(政治的) 교화(教化)를 통해 철저한 동원체제하(動員體制下)에서 젊은이들을 꼭둑각시처럼 주조(Mould)해 내는 사회(社會)이다.

둘째는, 「분명(分明)히 있는 갈등을 현실로서 인정하고 풀어나가는 사회(社會)」-오히려 갈등이 사회발전(社會發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그 갈등을 점진적 개혁(改革)을 통해 풀어가면서 보다 바람직하게 성숙되어 가는 상태,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60년대부터 시작된 의욕적인 근대화(近代化)작업 (급속한 공업화(工業化) 내지 산업화(產業化))의 부산물(副産物)인 심각한 불평등(不平等), 혜택의 공정(公正)한 분배(分配)들, 원활히 동반하지 못한 경제성장(經濟成長), 근로자(勤勞者)의 열악한 조건 등에서 유래되는 사회정의(社會正義)에 대한 원망(願望) 등의 갈등이 분명히 있음을 전제로 의회제도내(議會制度內)에서의 점진적 개혁(改革)을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사회(社會)이다.⁷⁾

문제는 「분명히 있는 갈등을 풀어나가는 사회(社會)」 안에 있는 대학생(大學生)의 사상적 갈등의 표출(表出)이 「문제제기」 8)의 차원(次元)이 아닌, 「문제야기」의 경지에 이르러, 그것도 「문제야기」 내지 「문제의 해결」을 급진적(急進的) 좌경사상에 흡사한 이데올로기에 근거하려는 성향(性向)은 마땅히 철저한 학문적(學問的) 분절(分折)과 건전한 비판적(批判的) 시각(視角)의 여과를 거친 후 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개관된 전체하에서 우리나라 대학생(大學生)이 수용하고 있는 급진적(急進的) 좌경사상(左傾思想)의 원류(源流)를 간추리고자 한다.

3. 급진적(急進的) 좌경사조(左傾思潮)

본래 보수(保守), 온건, 진보 및 급진적(急進的) 사상(思想)의 구분이 확연한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표(表) 1)에서 나는 「정치적(政治的) 스펙트럼(Political Spectrum)에 준거해서 요약하고자 한다.

즉 정치적(政治的) 스펙트럼에서 사람들은 현존(現存)하는 정치체제(政治體制)(현상)에 있어서의 변화(變化)에 대한 태도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급진주의자(急進主義者)는

(非共產主義體制)를 공격하는 「한쪽에만 날이 달린 칼」이라면, 네오·마르크스주의(主義)는 공산주의 일당체제(一黨體制)와 자본주의체제를 동시에 공격하는 「양 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① 마르크스주의는 휴머니즘이라고 정의(定義)함으로써 ② 마르크스주의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시켜 ③ 비공산세계(非共產世界)의 젊은 지성(知性)에게 네오·마르크스주의적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마르크스사상 자체는 좋은 것인데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현공산주의일당체제(現共產主義一黨體制)도 “개혁”하면,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體制)로 변형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게 하며, 소련과 동구(東歐)에서의 반체제(反體制)운동의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① 마르크스이론체계(體系) 가운데 일부분(一部分), 특히 1848년 이전의 마르크스사상만을 준거집단으로 할 때 이론 체계상(體系上) “부분(部分)을 전체화(全體化)”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즉 「마르크스주의(主義)는 휴머니즘」이라는 슬로건은 기만적 단순성(Deceptive Simplicity)의 대표적 표현이다.

다시 말하면 마르크스사상의 핵심은 자본주의 사회의 혁명적(革命的) 변혁(變革)(...only by the forcible overthrow of all the existing social conditions), 즉 사회혁명(社會革命) 이론이다. 소비에트·마르크스주의자의 사회비판의 주무기가 「착취」인데 반(反)하여 Neomarxists는 「소외론(疎外論)」을 이용하여 후기자본주의적(後期資本主義的) 복지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②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노동분업(勞動分業) 등 경제적(經濟的) 요인(要因)을 소외(疎外)의 원천(源泉)으로 단정함으로써 단일인과론(單一因果論)(Monistic explanation of causes) 내지 경제결정론(經濟決定論)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③ 「이제까지의 역사는 인간소외(人間疎外)의 역사(歷史)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소외(疎外)는 마르크스가 정의(定義)한 「사회주의(社會主義)(현(現) 소련·동구(東歐) 사회주의와는 다름)에 이르면 극복(克服)된다」고 강조한다. 물론 구체적(具體的) 대안(大案)이나 실천적 행동강령은 결여된 채 현실사회(現實社會) 비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할 뿐이다.

요건대 가장 경계해야 할 측면은 「Marxism is Humanism」의 공식만을 내세워 마치 반공(反共)이 잘못된 것인양 역(逆)기능을 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 1960년대에 젊은이의 이견(異見)과 반항(反抗)이 요원의 불꽃처럼 구미사회(歐美社會)와 신생제국(新生諸國)에 번졌던 이른바 「신좌파운동(新左派運動) : New left movement」 14)를 들 수 있다.

즉 신좌파는 ① 체제(體制)안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좌파자유주의자들과 구별된다. ② 대의정치(代議政治)(기존질서 내에서의)의 의존을 거부한다. ③ 직접행동(Direct action) - 항의, 데모, 횡방, 극단적인 경우에는 물리적(物理的) 폭력(暴力) 등을 강조한다. 물론 여타의 혁명운동과 마찬가지로 신좌파운동도 그 양상이 몹시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

는 어렵지만 앞의 특징을 바탕으로 간추려 보면 ① 이 운동의 참가자들이 주로 학생과 지식인들 및 청년들이었다는 점 ② 이 운동은 대부분 후진국(後進國) 보다는 풍요를 구가하는 선진국(先進國)들에서 일어났다는 점 ③ 신좌파의 동기면에서 그것은 선진산업사회(先進產業社會)에 만연된 부조리에 대한 비판세력으로 대두되었다는 점 등이다.15)

특히 신좌파가 도입한 급진적(急進的) 전통의 가장 중요한 인물(人物)이 마르쿠제(H. Marcuse)16)인데 그의 「일차원적(一次元的)인 인간(人間)(One-dimensional man)」이란 저서에서 바람직한 혁명적(革命的) 변혁의 세력을 ① 서방(西方)의 소외(疎外)된 인텔리겐차 ② 천대받는 사람들, 특히 미국의 흑인들, ③ 유럽, 특히 프랑스의 재각성된 혁명적(革命的) 좌파 ④ 제3세계의 혁명(革命)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신좌파운동의 영향 중 대학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요인(要因)은 ① 현실(現實) 사회(社會) 비판(批判) ② 사회(社會)의 기존(既存)질서의 변혁주체의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17)

셋째, 종속이론(從屬理論) 및 그 이론에 근거한 급진적 기독교사상.

세계 제2차대전 후 반식민주의(反植民主義)의 사조와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각성에 따른 신생독립의 제3세계국가들은 정치적(政治的) 독립(대등한 주권)과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공정한 배분) 등에 주목하게 되었다. 전후(戰後) 서구사회과학자(西歐社會科學者)들, 특히 미국(美國)의 사회과학자(社會科學者)들은 이러한 종속(從屬)관계-정치적(政治的)으로는 명목상 독립하였지만, 경제적(經濟的)으로는 지배·종속관계에 있다는 것·가 “개발도상국의 후진성”에 기인한다고 주장, 그것을 불식시키는 길은 저개발국가의 근대화(近代化) 성취가 급선무임을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즉 “서구적(西歐的) 모델”의 조속한 답습이나, 서구화(西歐化)의 촉진을 재촉하게 되었다. 그것이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혹은 확산모델(Diffusion model)로 등장하게 되었다.

확산이론에 의하면 근대화(近代化) 촉진은 그 논리적(論理的) 결과(結果)로 낡은 전통적인 후진지역에 서구(西歐)의 자본(資本)·기술(技術)·제도(制度) 등을 확산(擴散)시키는 「적하이론(滴下理論)(Trickle down theory)」에 의하여 후진지역은 근대화 상황으로 전진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확산모델이나, 근대화이론(近代化理論)은 “변형된 지배(支配)·종속(從屬)관계”의 유지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판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아준거적(自我準拠的) 분석이론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탐구의 정치경제적(政治經濟的) 조류를 통틀어 종속이론(從屬理論)이라고 지칭한다.18)

그러나 종속(從屬)이론에 대한 견해와 시각은 너무나 다양(多樣)하다. 특히 이중에서도 네오·마르크스주의적인 흐름으로 파악되는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데, 이는 급진적(急進的)인 시각을 가진 종속론자(從屬論者)인 경우 특히 그러하다. 이제 프랑크19)의 다음과 같은 명쾌한 주장 한마디는 그 종속이론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즉 「나는 과거에 있어서 저발

전을 초래했고, 현재에 있어서도 계속 저발전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세계적이며 일국적인 자본주의(資本主義)라고 믿는다」라는 전제하에 종속극복(從屬克服)의 방안은 노동자(勞動者)와 농민에 의해 착취계급인 자본가계급(資本家階級)을 타파하고 자본주의(資本主義) 정치를 파괴시키는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인 것이다」

그러나 제3세계는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技術)·자본(資本)·제도(制度)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과 사실상 현실적으로 선진국(先進國)의 기술의 우월성을 외면(外面)할 수 있는가(단절의 무모성) 하는 문제와 「아민(Amin) 교수가 한국, 대만 등 아시아의 신흥공업국(NICS)은 라틴아메리카와는 달리 중진국(中進國) 진입가능성이 있음」20)을 시사한 면도 고려에 넣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독교관이 성서(聖書)나 전통(傳統)보다는 ① 역사적 실재(實在) 역사적 현실상황(Context)에 비추어 성서를 해석하는 방법과 더불어 시작하여-오늘의 삶에 대한 관심(Not what is beyond, but what is here 또는 here and now)과 세속적(世俗的) 삶의 현장-② 사회과학(社會科學) <남미에서의 종속이론(從屬理論), 사회분석 도구로서의 Marxism 이론-계급투쟁, 프롤레타리아 혁명론(革命論), 솔(Richard Shaull)의 모택동 전술을 수렴한 혁명신학(革命神學) 등>의 도움을 끌어들이어 남미의 교회와 정부에 맹렬한 항거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해방신학(解放神學)」의 영향이다.21)

즉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The Oppressed)들을 해방(解放)하기 위한 운동(運動)의 이론적(理論的) 기반이며, 토착화 신학 이후에 나온 소위 신학(神學)의 컨텍스트츄얼리제이션을 바탕으로 프락시스(Praxis)에 역점을 둔 신학(神學)이며, 교회(教會)의 울타리 안에 갇혀진 신학(神學)이나 신학적(神學的) 교과서에서 나온 신학(神學)이 아니라 삶의 현장(現場)에서 그리고 역사(歷史)와 사회(社會)의 지하(地下)에서 태어난 실천적(實踐的) 행동적(行動的) 신학(神學)이어서, 이것을 게릴라신학(神學)이라고도 한다.

물론 현세(現世)의 삶의 현장(現場)에서 제나름대로 짙어진 인간적(人間的)인 그리고 정치적(政治的)·사회적(社會的) 문제들과 힘겨운 투쟁(鬪爭)을 벌이면서 이것을 기독교적(基督的)인 차원(次元)과 신학적(神學的) 바탕에서 해결해 보려는 열렬한 노력(努力)을 배제하거나, 나름대로의 성서적(聖書的) 전거(典據)를 오류로 단정하지는 않으나, 문제는 ① 이분법적(二分法的) 사회분석(社會分析)(Dichotomy) <사회를 부르조아와 프롤레타리아로 이분(二分) : Marx의 「Two great hostile camps」 (양대(兩大)진영)> 22) ② 계급투쟁(階級鬪爭)의 불가피성23) ③ 폭력(暴力)에 의한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의 적실성24)에 대한 신뢰 등이다.

즉 ① 죄로부터의 인간의 해방(解放) ② 남미의 사람을 억압하는 구조로부터의 해방(解放) ③ 저발전과 종속(從屬)으로부터의 남미 해방(解放)25) 등을 그 요체로 하면서 전통적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자칫 「계급투쟁을 전제로 폭력적 혁명을 통한(Orthopraxis) 사회주의혁명(社會主義革命)에 기초한 정치(政治)·경제적(經濟的) 해방」으로 전이될 개연성이

지어지게 된다.

끝으로, 근자에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는 넓은 의미의 「민중(民衆)이데올로기」26)의 문제점이다.

본래 「민중(民衆)」이란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좌경이나 급진은 물론 아니다. 민중(民衆)·민주(民主)·민족(民族)이란 말, 그 자체는 나무랄 것이 없다. 민중(民衆)이란 본시 「관자(管子)와 같은 고전(古典)에도 나왔고, 「맹자(孟子)」에는 그말을 거꾸로 「중민(衆民)」이라고도 했다. 27)

물론 말의 뜻과 쓰임은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특히 「이념어(理念語)가 될 때 더욱 그러하다. 문제는 「이념어(理念語)가 되어버린 「민중(民衆)」의 계급주의적(階級主義的) 측면이다. 즉 ① 일단 「적(敵)」과 「아방(我方)」을 철저하게 양분(兩分)시키고 있다.28)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단 7대계급(階級)((매판 독점자본, 신중산계급, 중소상공업자, 부농, 빈농, 노동자, 도시빈민)으로 나누되 「민중(民衆)」은 지배·피지배관계에 있어서 3계급(階級)(노동자, 빈농, 도시빈민) 만이라는 전제다. 따라서 「적대적(敵對的) 분류(分類)」는 투쟁(鬪爭)을 전제한 것이며, 투쟁(鬪爭)은 필연코 어느 일방의 「필멸(必滅)」과 타방의 「필승(必勝)」을 목표로 한 것이며, 이는 「완승(完勝)」과 「완패(完敗)」적 사유를 큰 기둥으로 삼고 있음이 분명하다. ② 「민중 민주주의(民主主義) 민족혁명론(民族革命論)」과 「민족적(民族的) 정통성(正統性)」의 문제이다.

즉 민족(民族)의 정통성(正統性)을 좌파운동에 가담하였던 인사(人士)들에게만29) 촛점을 맞추고 있는 인상이 짙다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주체(主體)는 한민족이며, 정통성(正統性)은 주체(主體)의 재결합(再結合)에 있다」라는 당위론적(當爲論的) 전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다」, 이 이론의 검증은 대한민국(원천국가(國家) 또는 총괄국가)→대한민국 임시정부→대한민국(현 대한민국의 기미건국으로부터의 연속성)→국제사회의 승인(1948. 12. 12 UN 총회결 의 제195호 II) 등의 사실(史實)은 존재론(存在論)적인 대답의 객관적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 좌경이데올로기에 의거한 일부 대학생들의 유인물은 대한민국정부를 「친일적(親日的)·매관자본, 반(半)봉건적 토착지주층(土着地主層)과 부일(附日)관료층을 계급(階級)기반으로 반공적(反共的) 친미적(親美的) 정권수립을 요구하는 미국(美國)과 부착함에 따라 성립된 정권」으로 규정하고 「학생운동은 정치권력(政治權力)의 획득을 위한 비타협적(非妥協的) 정치투쟁(政治鬪爭)」이어야한다는 논리(論理)에까지 비약하고 「기존의 헌법과의 단절 속에서 민중적(民衆的) 정의(正義)와 민주적(民主的) 기본질서」 운운(云云)하면서 기존체제를 뿌리째 뒤엎는 「혁명적(革命的) 속성」을 노정하고 있다.

4. 결론(結論)

현대사회(現代社會)(특히 우리나라의 분단(分斷)상황, 급속한 공업화, 전통윤리의 흔들림,

개방사회의 역(逆)기능 등)가 사회갈등의 대단한 파동을 겪고 있음은 사실이다.

문제는 「분명(分明)히 있는 갈등」을 ① 점진적 내지 진화적 과정·방법(Evolutionary process)으로 사회안정의 바탕 위에 가능한의 국민적 합의(National concensus)를 통해 풀어나가는 슬기를 집약·표출할 것인가, 아니면 ② 혁명적(革命的) 변화·변혁(Revolutionary change)에 의존하여 체제(体制)의 뿌리마저 흔드는 과격한 프락시스(Praxis: 실천(實踐))의 역(逆)기능을 감수할 것인가의 선택이 우리 국민 모두의 앞에 놓여 있다.

이제 대학생(大學生)은 「지적(知的) 편견」-민중혁명의 선동은 계층(階層)간의 화합(和合)보다는 적대감·양심과 증오 등의 유발→계층간의 대립의 첨예화→생산과 성장의 위축→사회불안 조성-에서 벗어나 「행동(行動)에 앞선 창조적(創造的) 사고(학리(學理)와 주의(主義)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연구의 대상이지 움직일 수 없는 신조(信條)는 아니다)에 전념하며 <학생(學生)은 정치인(政治人)일 수 없다> 30」, 이제 대학(大學)도 흥역은 짧을수록 좋다.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학원이 「국가(國家)전복의 기지」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문자 그대로의 자율대학(自律大學)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어야겠다.

끝으로 「과거의 역사를 비판(批判)할 수는 있지만 재판할 수는 없다」라는 시각에서 체제내(體制內)의 안정(安定)과 발전을 도모해 보려는 자가성찰(自家省察) <여·야, 국민 모두의>을 필요로 하는 웬 지보(地步)에 이르렀음을 깨닫기로 한다.

주해석(註解釋)

- 1) 한국사회과학연구소(韓國社會科學研究所) 편(編), 「현대(現代) 이데올로기의 제문제(諸問題)」, (서울: 민음사(民音社), 1978), 서문(序文), P. 참조.
- 2) Frederick M, Watkins; “The age of Ideology”, political thought - 1950 to the prese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64), pp.vii-viii (Preface).
- 3) 한완상(韓完相), 「현대사회(現代社會)와 청년문화(青年文化)」, (서울: 법문사, 1974), pp.3-4. 머리말.
- 4) 서울대 민주학우, 「깃발」 제 I 호: 1984. 8. 31, p. 3.
- 5) 고판정현(高坂正顯), 「학생운동의 허상(虛像)과 실상(實像)」, (단국대학 문화진흥위원회 역(譯), 1984), pp. 34~ 40 참조.
- 6) 서울대학교 민주선언 제1호 (1985. 9. 13) 창간호, 「민주제 개헌과 민중 민주화운동」, 제하(題下), P. 5
- 7) 조태기(趙泰基), 「대학(大學)의 제자리: 급진적 좌경사상의 성향분석(性向分析)」, (경인일보(京仁日報), 1985. 8. 26). 한완상(韓完相), 앞의 책, P. 22 참조. 「청년문화(青年文化)에 있어서 개혁적(改革的) 인간상(人間像)과 질서지향적 인간 간의 조화를 역설하고,

한국과 같이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 사회구조적 분화(分化)가 심각한 단절현상을 유발시키는 사회에서는 비록 호두와 같이 딱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심(中心)이 어느 정도 잡힌 정체(正體)의식(正體意識)이 필요함」을 명기하고 있다.

8) 중앙일보, 「학생은 문제제기에 그쳐야 한다」(1985. 5. 25일자(日字)), 제3면, 「대학생들의 ‘미문화원(美文化院) 점거사건’ 이렇게 본다: 이기택, 이명박, 이상희, 임방현 <여·야, 실업계, 교수> 의 좌담, 주요 골자를 간주리면: 「제기한 문제를 너무나 단번에, “몸부림을 쳐서라로” 승부를 내리는 자세는 민주주의(民主主義)의 발전에 위태롭다」. 「(운동권) 학생들이 ‘변화의 논리(論理)’를 주장하면, ‘안정(安定)의 논리(論理)’도 주장하는 계층(階層)이 있음을 인정해 주는 아량과 포용력이 필요하다」·「복잡하고 전문화된 산업사회에서 대학생(大學生)이 현실 정치(政治)문제를 재단하거나 좌우할 입장은 아니다」·「내말을 안 들으면 상대방은 독재라고 여기는데, 비민주적(非民主的) 심성(心性)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9) 신복룡·조태기 외(外) 역(譯) 「현대정치사상(現代政治思想)」(서울: 평민사, 1985)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Their origins and impac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1984). p. 66

10) Ibid, p. 73 참조. 특히, 진보주의자(進歩主義者)와 급진주의자 간의 법(法)과 그 체제(體制)에 대한 근본적 태도의 상정, 세목(細目).

11) 조태기(趙泰基), 「해방신학(解放神學)과 정치(政治)이데올로기」(서울: 현대 사회연구소, 현대사회(現代社會) 봄호 1984), PP. 61 - 78 참조, 특히 Marcuse의 영향을 받은 Richard Shaull 의 혁명신학(革命神學)의 세목(細目): p. 63의 주(註) 6 참조. 「술」의 게릴라적 혁명전략의 분석(分析)은 p.65.

12) Richard T. De George, The New Marxism(New york: 1968)과 J. M. Bochenski et al.(ed)Guide to Marxist Philosophy (Chicago: The Swallow press, 1983)를 근거로 작성한, 김갑철(金甲喆), 「Neo-Marxism의 본질(本質)과 기능(機能)」(건국대 부설, 현대이념 비교 연구회, “현대 이념 연구, 제2집 1984), pp. 67-81 참조, 즉 1932년 초기 저작 「The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과 The German Ideology (1845)」이 출간(出刊)되고 나서부터 Neo-Marxism이라 부르는 제3의 경향이 출현하였다.

13) 스탈린주의와의 분리(分離)를 내세우는 것은 1956년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黨大會)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의 격하 또는 탈(脫) 스탈린주의를 역설하여 스탈린의 잔악한 독재-대숙청 등을 담은 연설 「개인숭배(個人崇拜) 및 그 유해(有害)한 제(諸) 결과(結果)」 참조.

14) Edward. J. Bacciocco, Jr, The New left in America : Reform to Revolution, 1956 to 1970 (California, Hoover Institute Press, 1974), 「1960 : 미국(美国) 신좌파의 기원」, pp. 21-28, 「신좌파의 정신」 pp. 29-86 등 참조.

15) Max Mark, Modern Ideologies(New York: St. Martin's press, 1973), pp. 210-212 참조.

16) 빌헬름 라이히(Wilhelm Reich), 에릭프롬(Erich Fromm), 허버트·마르쿠제(Herbert Marcuse) 등 독일 프랑크푸르트학과 및 그의 동료들, 프랑스의 초현실주의적 전통과 앙리·르페브르(Henri Lefebvre) 같은 혁명적(革命的) 마르크스주의자(主義者)들의 비판적(批判的) 사조(思潮) 등이다.

17) 김갑철(金甲喆), 「신(新)좌파운동 : 이데올로기와 행동강령」, 현대이념연구 제3집(集), (건국대학교 부설, 현대이념연구회, 1985), pp. 33-45 참조.

18) 염홍철, 「현대(現代)급진사상」, (현대사회와 전통사상의 연계성 모색 : '85건국대학 국민윤리 전담교수 연수회, 국민윤리학회, 1985. 8. 26-29), p. 23.

19) A. G. Frank, on Capitalist Development (Bombay : Oxford Univ. press, 1975) p. 107 참조. Antony Bewer, Marxist theories of Imperialism (Routledge Kegan & Paul, 1980), p. XI 참조.

20) 「한국의 발전과 종속이론(從屬理論)의 쟁점」(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국제학술회의, 1985. 6월(月), 아민(Amin) 교수의 발언 요지 참조).

21) 조태기(趙泰基), 「현대사회(現代社會)와 경제윤리(經濟倫理)」: 산업선교와 노동운동(국민윤리교육의 현실과 그 과제 : 국민윤리학회, 서울·경기지회 워크샵, 1985, 6. 29) p.45. 전통적 시각에서의 기독교사상과의 비교는, 조태기(趙泰基), 「해방신학-정치이데올로기의 성향을 중심으로-」, 현대이념연구 제2집 (건국대학교 부설, 현대이념연구회, 1984). pp. 1-3 참조. John R. W. Stott,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Falcon, London, 1975) (서정운역, 현대기독교 선교, 대한 기독교 서회, 1982) P. 137 참조.

22) Juan Luis Segundo, Liberation of Theology, (Maryknoll, New York : Orbis Books, 1976), p.14. Gustavo Gutierrez, A Theology of Liberation, (Maryknoll, New York : Orbis Books, 1973). pp. 272-73 우리말 해설의 상세한 내용은, 고범서, 「해방신학(解放神學)」(서울, 범화사(汎和社), 1985) pp. 101-105.

23) Juan Luis Segundo, 같은 책. p. 14, Gutierrez, 같은책, p.273 고범서, 같은 책. pp. 105 - 110.

24) Gutierrez, 같은 책, p. 276. 고범서, 같은 책, pp. 111-114 참조. 특히 솔(Richard Shaull)의 이론과 호레스(Camilo Torres) 신부(神父) 등의 이론과 실천의 혁명적 투쟁사례의 상세한 내용은, 조태기, 「해방신학-정치이데올로기 성향을 중심으로-」, pp. 99-102,

pp. 111-113 참조.

25) Thomas G. Sanders, "The New Latin American Catholicism", in Donald Eugene Smith(ed), Religion and Political Modernization,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1974), pp. 294-295.

26) 조선일보, '85. 7. 19 1면, 조태기, 「대학(大學)의 제자리」(경인일보(京仁日報), '85. 8. 26), 김태환, 「민중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자유공론(自由公論), '85. 10월호(月號)). pp. 90-93 참조.

27) 학문적(學問的) 분석접근(分析接近)은 아니지만 민중(民衆)·민족(民族)·민주(民主), 「삼민(三民)」이 등장하게 된 간략한 배경과 그 쓰임새의 흥미있는 설명은, 「한국일보」, 1985. 7. 20. 제 일면(一面) 「지평선(地平線)」참조.

28) Karl Mark and Fredevick Engels, Manifesto of the Communist party, (New York : International Publishersco., Inc., 26th Printing., 1985), p. 9 「Two great hostile camps : Society as a whole is more and more splitting up into two great hostile camps, into two great, classes directly facing each other : Bourgeoisie and Proletariat : 양대적대(兩大敵大) 진영론(論)」.

29) 김창순, 「공산주의 민족이론과 정책 비판-전환기의 사상-」, 부록 I, 「역사로 본 한인공산주의(운동)」, pp. 115-214, 부록 II, 「기록으로 본 북한 김일성」, pp. 215-255 등 참조. 특히 「광복(光復) 40년-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1>」, 동아일보 1985. 8. 5. 제5면, 윤형섭 <공동토론 참석자 : 김정흠, 노재봉, 박용욱, 박우희, 송복, 안병영, 유영임, 윤사순, 윤형섭, 이효재, 조순, 차경주, 대표집필 윤형섭>. 김학준, 「역사(歷史)는 흐른다-한민족 동질성 회복 캠페인, <29>」, 조선일보, 1985. 7. 26. 제5면. 「우리 역사를 보는 눈-일부 젊은이의 우려되는 해방후사(史) 인식-」, 동아일보, 1985. 8. 7. 제2면 사설. 「왜 민족적 정통성(正統性)을 회의케 하는가」, 경향신문, 1985. 7. 25. 제2면 사설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30) 장일조(張日祚), 「정치(政治)의 현장이 된 캠퍼스」(월간조선(月刊朝鮮), 1985. 12월호(月號)) pp. 135-141. 특히 「학생은 정치인(政治人)이 아니다」, pp. 136-7. 「사상의 혼미와 계몽적 자유(自由)는 별개」. pp. 139-40

목숨바쳐지킨조국 별공으로빛내가자

가정교육과 사회화 교육

- 가정(家庭)의 달을 맞아 -

김재은
(이대 교육심리학과 교수)

- 목 차 -

1. 가정교육은 교육의 원형
2. 현대가정의 교육적 과제
3. 현대가정이 해야 할 교육적 기능
4. 가정교육은 사회화 교육



1. 가정교육은 교육의 원형

극히 적은 수의 불행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사람은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가정 속에서 삶을 끝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가정을 인생의 요람이요, 동시에 무덤이라고 하게 된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면, 어디고든 교육은 이루어진다. 예를들면 농사를 짓고 사는 농경민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고,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갈무리를 하는 방법을 자기 후배들에게 가르쳐서 대를 이어 생업에 종사하게 한다. 옷의 원료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직조를 하는지를 가르쳤다. 집은 어떻게 짓고, 연료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주고 가르쳤다.

유목민들은 대개 말타는 방법, 몰이하는 방법, 동물의 가죽 벗기는 방법, 동물의 고기 요리하는 방법, 나아가 동물의 가죽으로 공예품을 만들고, 물물교환으로 장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한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른들을 어떤 식으로 존중하고, 어떤 규칙을 지켜야 하고, 연장자나 연하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고 종족의 신과 자연의 신에게 어떤 제사를 어떤 식으로 올려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막고 어떤 식으로 피하고, 어떤 식으로 무기를 만들며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는지도 배우게 된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자기네 조상(부모)이 가르쳐준 바에 따라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구실을 다하는 셈이다.

오늘날의 사회도 그 구조에 있어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교육방법이 달라졌거나, 교육하는 사람이나 매체가 달라졌을 뿐, 2세들이 배우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즉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사회의 제도와 법을 배우고,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배우는 점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그런데 옛날에는 몇 10년 몇 100년이 지나도 사회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니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변화가 있을 턱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10년만 지나도 한 세대가 지나갈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내용이나 방법에 변화가 오고 있고, 또 필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다. 옛날에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을 가정 안에서 가르쳤는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이 거의 모두 가정 밖에서 가르쳐지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면 가정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몇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가정이란 부모와 그 자녀로 구성되며, 앞서는 어른인 부모는 자라나는 자녀를 보호할 책임이 있고, 한 사람의 건전한 어른이 되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가정이란 생명을 이어주는 혈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운명적인 관계란 점이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다는 점이다. 비록 부부가 이혼한다해도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어떤 인위적인 관계(예를들면 아이를 유기해서 남의 집에 양자가 되어가서 그 양부모의 성을 따르다해도)로서 끊을 수가 없는 생명적인 관계이다.

셋째로, 가정은 자녀를 생산해서 대를 잇는 기능을 여전히 유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간혹 미혼자가 인공수정으로 임신을 하거나 양자를 들인다해도 그런 대를 잇는 관계는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가정의 자녀양육의 기능과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만 주로 말하려고 한다.

2. 현대가정의 교육적 과제

가정이 해야 할 여러가지 일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자녀를 생산(대를 잇는 일)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고 그가 장차 살아갈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문화전승, 자립적 인간)일 것이다. 그런데 이런 교육적 기능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한 것이 사실이다.

첫째,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습관을 철저히 길러 주었다. 예를들면 혼자서 옷입고 벗기, 대소변 가누기, 대소변 처리하기, 음식 흘리지 않고 먹기, 음식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먹기,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어른께 문안드리기, 일 열심히 하기, 어른에게 존대말쓰기 등을 비교적 잘 가르쳤다. 그런데 이런 기본습관의 교육에서 오늘날의 가정은 소홀히 하고 있거나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 대소변 가누기만은 비교적 잘 훈련을 시키고 있지만 그 나머

지 기본습관은 잘못된 점이 많다.

예를들면, 음식을 먹을 때도 투정을 해도 비교적 잘 들어 주지를 않으나, 가려 먹으면 야단은 치지만 아이들이 대개는 이기게 되고 부모는 그 편식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굳것질을 시키질 않나, 아이들이 사달래는 인스탄트식품을 대개는 사주질 않나, 식사 한 가지만 가지고도 편식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영양상태가 한쪽으로 기울고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 어른에게 경어를 쓴다거나 공손히 대한다거나 하는 것도 대체로 안 되어 있고, 옷입고 벗는 것만해도 혼자서 못하고 꼭 어른들이 시중을 들어주어야 한다거나 하는 습관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로, 옛날에 가정에서 가르치던 도덕교육이 오늘날의 가정에서 거의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다.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사 철저히 잘하기, 부모에게 효도하기, 동생을 사랑하고 형을 따르기,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 갖기, 근면성, 성실성, 검약정신, 협조하기, 희생정신 같은 것은 거의 못가르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협력보다는 경쟁에 몰두하는 사람, 정직보다는 요령부리기, 근면성보다는 게으름피우기, 검약보다 낭비가 조장되고 있는 가정분위기 속에 살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는, 옛날에는 가정 안에서 결혼 후에 살아갈 준비를 시켰다. 여성으로 말한다면 결혼식과 첫날밤 지내기, 시부모·시동생·시누이 대하기, 요리하기, 의복만들기, 음식갈무리하기, 농사짓기 등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은 이런 모든 기능적인 훈련은 거의 시키지 않는다. 남자에게도 그런 교육을 했다. 특히 직업교육을 비교적 철저히 했다. 오늘날은 가업을 잇는 경우란 극히 드물어서 직업교육은 고등학교 이상에서나 시키게 되어 있다.

네째로, 옛날에는 가정에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덕성교육을 했다. 우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인내성의 교육, 겸손의 교육, 중용지도의 교육, 충성심의 교육 같은 것을 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에서는 이런 인격교육은 별로 하는 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현대가정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가를 뚜렷이 밝히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추구해 가야 되겠다.

3. 현대가정이 해야할 교육적 기능

앞에서 옛날 가정에서 했던 일 중 오늘날의 가정에 결여된 점등을 밝혔는데, 그렇다고 옛날 가정이 하던 일을 되풀이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옛날에는 그 사회가 요구하던 바를 반영해서 교육을 했던 것만큼 오늘날의 가정교육은 오늘날의 사회가 요청하는 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의 가정이 해야할 교육적 기능은, 첫째, 기본습관을 좀 더 철저히 가르쳐야 할 일, 둘째, 건강습관과 스포츠교육, 셋째, 가정내의 질서지키기, 넷째, 중요한 덕목(德目)의 함양, 다섯째, 민주사회에 적응할 시민적 자질함양, 여섯째, 직업준비에 대한 교육 등이 될 것이다.

첫째,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꼭 해야 될 일은 아이들에게 기본습관을 좀 더 철저히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까닭은 이 기본습관이란 어릴 때 들여놓으면 평생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을 길러놓으면 커서는 좀처럼 수정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는 너무 늦지않게 자고,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고, 스스로 청소하고, 세수하고 잠옷 챙기고 하는 습관부터 들여야겠다.

그런데 흔히 보면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두들겨서 깨우고, 일어나고난 후에도 부모나 가정부가 이불을 개고, 옷을 입혀주곤 하는데, 이런 것을 모두 스스로 하도록 권장할 일이다. 식사를 할 때에는 고루고루 먹고 깨끗이 자기 몫을 먹는 습관과 주는대로 불평않고 먹을 수 있는 잡식성(雜食性)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어 세계의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쪽 음식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을 것이다.

자주 이 닦고, 목욕을 자주하고, 운동하고 하는 습관, 추위와 더위를 이길 수 있고 튼튼한 피부를 갖도록 하는 것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매우 필요한 습관이다. 특히 커서 세계를 누비고 다닐 때 더운 지방이나 추운지방이나를 막론하고 기후를 이길 수 있고 능력을 갖는데 꼭 필요한 조건일 것이다. 스포츠를 통해서 몸을 기능적으로 사용하면 위급할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으며, 또 협동정신과 용기와 공정한 정신을 갖게 하는데도 중요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꾸미는 습관은 우리가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문명적으로 살아가는데도 중요한 몫을 할 것이다. 문명인일수록 몸가짐도 깔끔하게, 옷매무새도 깔끔하게, 생활주변환경에도 청결하게 가꾸는 생활일 것이다. 일생동안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해가는데 어릴 때의 청결에 대한 습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밖에도 기본습관에 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면관계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다.

다음은 가정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질서 지키기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즉, 아버지, 어머니는 어른이고 어버이고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사랑하고도 존경해야 한다. 그럼에도 요즘은 그저 친구처럼만 다루려는 경향이 엮보인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호칭도 함부로 쓰고, 말도 함부로 하고, 부모옆에서의 거동도 불손하고, 정제하지 못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20세나 되는 대학생이 아버지에게 “아빠” 하지를 않나, 고등학교 학생이 아버지에게 “당신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덤비지를 않나, 이런 인간관계의 무질서는 결국 사회의 무질서를 낳게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태도, 부모에 대한 태도, 언니나 누나와 오빠나 형에 대한 태도, 동생에 대한 태도 등을 때때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중요한 덕목(德目)을 가르쳐야 되겠다는 것이다. 옛날 유자자평서(儒者自評書)인 소학(小學)이나 동몽선습(童蒙先習)이나 명심보감(明心寶鑑)을 보면 주로 삼강오륜(三綱五倫)이 주축이 되고 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사회에 어울리는 덕목(德目)을 발견하고 정립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남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와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태도, 남의 의견도 자기 자신의 의견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 집단이 토론을 통해 합의한 것이면 자기의 견과 안 맞아도 승복하는 태도, 이런 것을 민주적 덕목에 넣을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정신, 정의, 권리주장 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이행, 협력, 준법정신 같은 덕목은 현대사회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질서지키기와 법을 지키기와 위에서 이미 말한 그런 특질들을 기르는 일이 중요하다. 이 사회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남과 더불어 살아야 되므로 많은 종류의 사람과 넓게 사귀는 능력도 아주 중요한 민주시민의 자질이 될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네 가정이 너무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직업에 대한 준비이다. 직업에 대한 준비는 직업교육을 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직업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주고 그쪽으로 자기의 적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격려해주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이 현대가정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가정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가정교육과 사회화 교육

가정은 교육적으로 보아 크게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보호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개방의 기능이다. 보호의 기능이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나 물결, 부조리, 건전하지 못한 것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녀들이 크면 어차피 사회로 진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준비를 시켜주는 이른바 사회화의 기능이다.

사회라는 데는 아이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잡다한 불순요소들이 많이 있다. 여러가지 범죄도 있고 비인간적인 것, 비문화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 비교육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강력한 물결이 되어서 대중홍보매체를 타고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물결에서 자녀들을 보호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하려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생활경험과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교육매체 등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교육적인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부모자신이 이 사회의 어두운 것, 불순한 것, 비윤리적인 것들을 그대로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다면 아이들은 그것들을 소화시킬 능력을 갖기도 전에 좌절하고 심성(心性)이 파괴되고 정신이 오염되고 말 것이다. 그런 점에서 부모는 방파제와 같은 구실을 한다고 할 수가 있다. 거친 세파(世波)를 차단해서 부드럽게 완화된 물결만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깨어지고 제구실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차츰 이 사회의 실존적(實存的) 모습에 접근해가게 된다.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어울리게 이 사회의 역사나 제도나 규격이나 구조에 가까이 접근해 가야한

다. 언제까지나 방파제인지 내해에 안주해 있을 수가 없다. 배는 항구(부모)를 떠나야 하고 항해를 하거나 고기잡이를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배는 제구실을 할 수가 없다. 거친 물결을 헤치고라도 항해를 강행해야 한다. 그러자면 자연 항해술을 완벽하게 익혀야 할 것이다. 이것이 곧 사회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에서의 사회화 교육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 저 바깥사회가 반드시 비교육적이거나 비문화적이거나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므로, 아이들 스스로가 그런 잡다한 사회현상 중에서 바람직스러운 것과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는 TV프로 중 젊은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유해한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프로들을 선별해서 볼 수 있고 판단능력 같은 것을 길러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둡고 추잡한 것이 있다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소화시켜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유해한 것을 배척하는 힘을 길러주는 면을 들 수가 있다. 이것은 사회화 교육의 소극적 면이라고 보겠다.

또 다른 한 면은, 이 사회가 어차피 자기가 살아야할 운명적인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회의 역사나 제도나 법률이나 전통적인 문화나 행동양식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정상적인 시민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사회가 민주사회라면 민주사회의 시민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정이 이 두가지 사회화 교육을 다 감당하기에는 역부족(力不足)인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교육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다. 특히 그 사회의 역사나 제도 법률 전통을 부모들이 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가정이 곧 민주사회의 척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부모는 어른이지만 부당하게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나거나 무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나 가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모두에게 맡겨진 직책을 다 제대로 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에 관해서는 책임과 동시에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거나 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사회화교육은 부모의 본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부모자신이 민주시민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도 민주시민이 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화교육의 이 두번째 측면에 관한 한은 부모가 최상의 교사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교육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될 것이다

현·충·일

호국영령 받들어 충의전통 이어가자



1985년(年)

인도(印度)의 안보환경(安保環境)



- 목차 -

- ◎ 서언(序言)
 1. 인도(印度)의 정치(政治)
 2. 인도(印度)의 국방(國防)
 3. 인도(印度)의 경제(經濟)
- ◎ 결론(結論)

준장 박 종 권(朴鍾權)
〈제5315부대〉

서언(序言)

2000년대(年代)를 바라보며 세계(世界) 속의 한국(韓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들의 시각(視角)에 비춰지는 오늘의 인도(印度)는, 과거의 역사(歷史)와 문화(文化), 그리고 종교(宗教)로 엮어진 원색적(原色的)이며 외형적(外形的)인 모습보다는 빈곤(貧困)과 후진성(後進性)을 탈피(脫皮)해 가면서 비동맹운동(非同盟運動)의 맹주국(盟主國)으로서 제삼세계(第三世界)를 주도(主導)하여 미·소 양대진영에 외교적(外交的) 도전(挑戰)을 감행하고 있는 동적(動的)이며 내재적(內在的) 실상(實像)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민족(多民族)·다언어(多言語)·다종교(多宗教)의 갈등으로 내적(內的) 안보위협(安保威脅)이 극심(極甚)한 가운데서도 묘(妙)한 조화(調和)를 유지하며, 세계 최대(最大)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정치체제(政治體制)를 자부(自負)하면서도 3대(代)에 걸친 가족정치(家族政治)가 행(行)해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經濟的)으로는 사회주의(社會主義) 혼합체제에서 점진적으로 자본주의(資本主義) 개방체제(開放體制)로 전환하고 있는 인도(印度)를, 현지(現地)에서 1년간 직접 체험하면서 나름대로 그들 체제를 이해(理解)하고 파악하는데 너무도 복잡하고 이질적(異質的)인 요소(要素)들이 많았었다.

한편 '80년대(年代)에 들어서면서 한(韓)·인(印)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여 오늘날 인도(印度)는 가장 시장성(市場性)있는 우리의 수출대상국가의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85년도(年度)부터 시작된 제7차 5개년 경제계획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표본(標本)으로 하여 진퇴(進推)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印度)에 대한 우리의 지식(知識)과 정보(情報)는 역사(歷史)·지리(地理)·문화(文化) 등 정적(靜的)인 자료에만 치중(置重)되었으며, 정치(政治)·경제(經濟)·군사(軍事)·외교(外交) 등 국가안보(國家安保)와 사회역학적(社會力學的)인 동적분야(動的分野)의 지식에는 상당히 어두웠으며 제한(制限)된 일부(一部) 전문분야(專門分野)에서나 약간 다루어지는 정도에 불과했다.

외교적(外交的)으로는 비동맹국가(非同盟國家)들을 이끌면서 국제적(國際的) 지위(地位)는 크게 신장(伸張)시켜 왔으나 국내적(國內的)으로는 인구억제(人口抑制)·경제발전(經濟發展)·인종(人種)과 종교문제(宗教問題) 해결(解決) 등 정치적(政治的)·사회적(社會的) 난제(難題)들을 안고서도 2000년대를 향(向)하여 매진하고 있는 인도(印度)에 관하여 우리는 보다 정확(正確)한 지식과 다각적(多角的)인 분석(分析)이 필요(必要)할 것 같다.

이 글은 필자(筆者)가 인도국방대학원(印度國防大學院)에서 13개국(個國) 군장성(軍將星), 인도의 고급군관(高級軍官) 및 행정관리(行政官吏)들과 같이 1년간 안보연구과정(安保研究課程)을 이수하면서, 인식(認識)되고 수집된 인도의 정치(政治)·군사(軍事)·경제(經濟) 등에 관한 제반 자료들을 1985년(年)을 중심(中心)으로 요약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1. 인도(印度)의 정치(政治)

가. 정치상황(政治狀況)

1984년(年) 10월(月) 31일(日) 시크교도(수상경호원 2명 포함)에 의한 인디라 간디 수상의 암살 사건은 1947년 인도독립(印度獨立) 이래 힌두교도와 시크교도 간에 최악(最惡)의 유혈사태(流血事態)를 빚었으며 수상 장례식을 전후하여 일어난 힌두교도들의 폭동은 뉴델리를 비롯한 인도 전역 80 여개 도시(都市)로 확산되어 무차별 살육(殺戮)과 방화(放火)로 인해 2,146명의 시크교도가 살해(殺害)되고 뉴델리에서만도 3만여 명이 집을 잃는 등 인종간(人種間)·종파간(宗派間) 치명적(致命的) 충돌(衝突)로 인도 근세사에서 최대(最大)의 정치적(政治的)·사회적(社會的) 혼란기를 맞이하였는데 '85년의 정치상황(政治狀況)은 이러한 혼란의 여파로 점철되어 왔다.

인디라 간디의 뒤를 이어 자일 싱 대통령의 지명(指名)으로 새 수상에 취임한 라지브간디는 조기 총선(早期總選)을 실시하여 집권의회당이 총 의석 544석중(席中) 410석을 차지하는 압도적인 승리로 새로운 내각책임정부(內閣責任政府)를 일단 출범시켰는데, 이는 수상암살에 따른 충격적인 동정(同情)을 이용한 집권여당(執權與黨)의 선거전략(選舉戰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총선거시(總選舉時)에 전국(全國) 22개 주(州) 가운데서 Punjab 주(州)와 Assam 주(州)는 인종(人種) 및 종파간(宗派間) 불화(不和)와 주(州) 자체의 사회불안(社會不安)으로 선거(選舉)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Gujarat 주(州) 또한 천민특혜(賤民特惠) 쿠퍼 문제로 인한 6개월 간의 유혈폭동은 라지브 간디 새 내각의 정치발전(政治發展)에 커다란 장애요인(障礙要因)들로서 그 내용을 좀더 설명하면

• 먼저 Punjab 주(州)는 시크교도들이 Kharistan국(國)으로서의 완전분리 독립주장(獨立主

張)에 따른 시위(示威) 및 조직적(組織的) 테러행위는 계속적인 사회소요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바, 라지브 간디는 이들에 대한 인내(忍耐)와 설득(說得)으로 '85년 9월에는 주(州) 선거를 실시하는 등 무마작업에 어느 정도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으며,

• Assam 주(州)는 1965년 인·파 전쟁(戰爭) 이후 파키스탄 난민들을 비롯한 변방 유민(流民)들이 Assam 주(州)로 모여들어 오늘날은 경제적(經濟的)·사회적(社會的) 지위(地位)가 크게 부상(浮上)되므로 인해 원주민(原住民)들의 이주민(移住民)에 대한 거부현상(拒否現狀)이 심화(深化)되어 상호간 기본권리투쟁(基本權利鬭爭)을 유발(誘發)한 것 인데 이에 중앙정부(中央政府)가 개입(介入)하여 1971년 2차 인·파전쟁(戰爭) 이전의 이주민(移住民)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이주민(移住民)에게는 영주권(永住權)만 부여한다는 원칙으로 타협점을 찾아 주선거(州選舉)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 그리고 Gujarat 주(州)는 마하트마 간디 출생주(出生州)로서 무저항운동의 시발지(始發地)인 동시에 하층계급의 사회적 특혜(特惠)가 가장 높은 곳인데 6개월간 난동(亂動)의 주 쟁점은 천민계급(賤民階級)에 대한 특수전문직(의사·법률가·엔지니어 등)의 대학입학 배분율쿠퍼를 하향조정(下向調整)하라는 일반대중의 요구투쟁(要求鬭爭)으로서 군대와 중앙경찰의 개입사태(介入事態)까지 몰고 왔으나, 특혜 쿠퍼의 조정(調整)으로 수개월전 폭동이 진정되고 일단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

나. 정치적(政治的) 과제(課題) 및 전망(展望)

라지브 간디 수상은 취임이래 모든 정책(政策)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전면 재검토 및 평가로 제반 계획을 재정립함으로써 7차 5개년계획 조정·교육정책확립·사회계획 실천방안 정립·행정법 간소화·수출입 규제완화 등 일부 비판 가운데서도 인도의 고질적인 병폐와 문제점들을 치유(治癒)하는 체제(體制) 개선(改善) 노력을 경주하여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어가고 있다.

현행 인도정부의 최대 정치과업(政治課業)은 7억 5천만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난과 무지(無知)의 대중(大衆)을 구제(救濟)하여 사회적(社會的) 생산활동(生産活動)에 참여시키고 분배(分配)의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들 본질적인 정치과제는 후진국(後進國) 및 개도국(開途國)의 공통적(共通的)인 문제이지만 거대한 인구때문에 인도는 특히 심각하게 부각되는 것 같다.

한편 인도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자부(自負)하고 있지만 독립 이후 40여년간 사실상 일가족 통치하(統治下)에 이끌려 왔으며, 약체의 정당(政黨)은 일반대중의 여론수렴(輿論收斂) 기능이 저조하고 언론(言論)의 자유(自由)는 있으나 그 영향력은 극히 미온적이다.

일부 정치가(政治家)들의 지적수준(知的水準) 및 정치적(政治的) 안목(眼目)은 상당히 앞서있긴 하지만 공공기관(公共機關)의 늦은 행정처리(行政處理), 공무원(公務員)의 태만(怠慢)과 업무(業務)의 비능률성(非能率性)은 일대 쇄신(刷新)이 불가피하고, 부(富)의 첨단에 있는 상류층과 절대빈곤의 하부층간 빈부격차(貧富隔差) 해소(解消), 무한정 번식하고 있는 인구증가(人口增加)의 억제(抑制), 인종(人種)과 종파(宗派)간의 화합(和合), 중앙정부(中央政府)의 행정권(行政權) 강화 등이 현 정부의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단결을 호소하며 정치제도의 발전, 부정부패의 일소 및 대중적인 삶의 향상을 주창(主唱)하는 신임 라지브 간디 수상의 새로운 정치감각에 국민적인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2000년대의 인도는 현대과학 및 산업기술의 효과적인 도입(導入)과 풍부한 인적(人的)·물적(物的) 자원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데 성공한다면 경제자립(經濟自立)의 단계를 넘어 제3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부상(浮上)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인도(印度)의 국방(國防)

가. 안보환경(安保環境)

인도대륙(印度大陸)은 약 330만km²로 세계 7위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길이가 가로 세로 공(共)히 3,000km가 넘는다. 변방 접경국가로는 서북에서부터 파키스탄, 중공, 네팔, 부탄, 버마, 방글라데시의 6개국과 접하고 있고 동(東)으로는 벵갈만(灣), 서(西)로는 아라비아 해(海), 그리고 남(南)으로는 인도양(印度洋)으로 둘러싸여 육지 변경 총 거리 15,200km, 해안선은 총 5,700km 이다.

따라서 방대(龐大)한 국토와 인구는 지역국가간(地域國家間)의 관계형성(關係形成)에 상당한 영향력(影響力)을 발휘하여, 부탄왕국의 방위책임도 인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네팔·버마·방글라데시는 역사적(歷史的)·지리적(地理的)으로 인도안보상(印度安保上) 전혀 위협적 요소가 없다. 동남방(東南方)에 위치한 스리랑카는 인도(印度)의 안보환경(安保環境)에 뚜렷한 영향은 주지 않지만 스리랑카에 정착(定着)한 인도의 Tamil 원주민(原住民)이 스리랑카로부터 독립주장(獨立主張)을 하고 있어서 양국 정부간 주권침해(主權侵害)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나 국가안보적(國家安保的) 차원(次元)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중공(中共)과도 북부지방 영토문제(領土問題)로 갈등은 있으나 히말라야 산맥의 천혜적인 방어벽 때문에 군사적 안보(安保)측면에서 볼 때 국지적(局地的) 국경분쟁(國境分爭) 이상의 깊은 충돌은 없을 것으로 낙관적(樂觀的)인 견해가 지배적(支配的)이다.

한편 파키스탄은 지난 30여년간 인도의 안보(安保)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적대시(敵對視)해 왔으며 Kashmir 영토권(領土權) 문제로 두차례(1947, 1965)의 전쟁과, 방글라데시 독립문제(獨立問題)로 1971년 한차례의 전쟁을 치루었는가 하면, 최근에도 파키스탄의 급격한 군비증강(軍備增強)으로 인도안보환경(印度安保環境)의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印度) 역시 군(軍)의 장비현대화(裝備現代化) 및 전력증강(戰力增強)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양국이 공(共)히 핵무기(核武器) 생산(生産)여부까지 논쟁(論爭)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나. 군사외교(軍事外交) 및 군비현황(軍備現況)

1980년대에 있어서 인도(印度) 외교정책(外交政策)의 기초(基調)는 강대국(強대國)과의 균형외교(均衡外交)와 비동맹주의(非同盟主義)이지만 주변국가의 안보환경(安保環境)과 정세변화(情勢變化)에 유연성 있게 대응발전(對應發展)시키고 있으며 특히 파키스탄은 인도(印度)의

군사외교(軍事外交) 및 국방정책(國防政策) 수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는 3차례에 걸친 인·파 전쟁과 아직도 UN 감시하에 있는 휴전상태(休戰狀態) 및 영토분규(領土紛糾)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이다.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도는 파키스탄을 억제(抑制)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속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으며 특히 미국의 군사원조에 힘입은 파키스탄의 공군현대화(空軍現代化)에 충격받은 인도는 '84~'85 2년 동안에 각 분야에 걸쳐 현저한 군비증강(軍備增強)을 이룩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불란서로부터 Miraju 2000 다목적 항공기 구입으로서 지난 6월부터 1차 계약분 40대가 단계적으로 인수되고 있으며 Miraju 4000도 '88년 도입계획(導入計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국으로부터는 Jaguar 전투기와 Harrier 함재기를 78년부터 인수(引受)해 오고 있고 '86년에는 해상초계 헬기(機) Seaking을 도입하며, 독일로부터는 잠수함 4척(2척 도입·2척 기술생산)을 86년 구입계획으로 있다. 또한 인도(印度)의 항공기 생산능력은 급진적으로 발달하여 MiG-21, 23, 25, 27과 불란서 헬기(機) Alatte II 및 영국 수송기 HS-748을 기술생산하고 있으며, MiG-29도 85년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도입계획하는가 하면, 3군(軍) 전력증강의 균형(均衡)을 위해 최신형 소련탱크(T-72)의 추가도입, 장갑차 및 대포의 생산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해군의 유일한 항공모함(航空母艦) VIKRAN호(號)가 추가하여 3~4척의 항공모함(航空母艦) 도입계획(導入計劃)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의 무기체계(武器體系)는 다국적(多国籍)이며 동서(東西) 양진영의 무기가 공존(共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도의 군사외교(軍事外交) 및 향후 무기체계관리(武器體系管理)가 우리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미국으로부터의 군사무기(軍事武器) 원조(援助)나 도입(導入)은 아직 없었으나 최근 인도의 국영항공회사(國營航空會社)(HAL)가 설계하고 있는 경량급 전투기의 엔진을 미국 GE사(社)로부터 도입(導入)을 내정(內定)한 사실은 양국간 획기적인 군사외교관계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도(印度)의 군비증강(軍備增強)을 위한 친서방외교(親西方外交)로의 부분적 방향전환은 엿보이고 있으나 아직은 소련에 대한 군사 의존도(軍事依存度)가 타국(他國)에 비할 바가 못된다.

그리고 파키스탄과의 안보(安保)에 관련된 외교관계(外交關係)는 상호불신(相互不信)의 팽배(澎湃)로 호전(好戰)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예상되며 특히 '85년 9월 파키스탄의 핵보유능력(核保有能力) 개발추진(開發推進)에 신경이 곤두선 인도(印度)는 자체(自体)의 핵무기(核武器) 생산(生産) 여부를 두고 정치적(政治的)·외교적(外交的) 명분(名分)에 논란이 일고 있어서 파키스탄의 불가침조약(不可侵條約) 제의(提議)에도 불구하고 양국관계는 계속 소원(疏遠)하다.

다. 방산능력(防産能力)과 전망(展望)

인도(印度)는 1960년대부터 방위산업(防衛産業) 중심(中心)으로 중공업(重工業) 육성(育成)에 힘을 써서 비록 중소기업과 일반공업분야는 낙후되어 있어도 항공기(航空機)·군함(軍艦)·전차(戰車)·대포(大砲)·레이더·인공위성(人工衛星)·컴퓨터 분야(分野)는 중공(中共)에 이어 제3세

계의 선두(先頭)에 나서고 있어서 이는 인도(印度)에 대한 보편적(普遍的) 인식(認識)을 완전히 달리해야 할 정도인데, 항공기(航空機)는 Bargalore의 Hindustan- Aeronotic LTD에서 종합 조립과 시험 비행을 하면서 남부(南部) 주(州) 5개 지역으로 분산하여 엔진·동체 및 날개·통신·전자 등을 각기 전문적(專門的)으로 분업화(分業化)하여 개발하는 동시에 도입(導入) 항공기(航空機)의 대부분은 기술생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남부지역의 Madras는 중공업(重工業)의 중심지로서 전자 및 대포공장, 자체건설에 의한 거대한 정유공장(精油工場) 및 원자력발전소(原子力發電所) (인도 전역은 총 6개소)가 있으며, 199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군력 증강을 위한, 조선소(造船所)는 Bombay에 있는데, 그곳의 Mazagon Dock는 200년의 역사(歷史)를 가진 전함공장(戰艦工場)이지만 설비와 규모는 대단한 것이 못되었으며, 인도는 현재까지 5개의 인공위성(人工衛星)을 외국(外國) (소3·미2)에서 발사하였는데 1990년에 자체발사(自体發射)를 목표로 설계 중에 있다.

지긋지긋 비핵운동(非核運動)을 주창(主唱)해 온 인도(印度)가 핵무기(核武器) 생산(生産)의 당위성(當爲性)을 찾기는 곤란한 입장이지만, 최근 파키스탄의 핵무기운반(核武器運搬) 및 생산능력(生産能力) 개발추진(開發推進)을 맹렬히 비난함으로써, 국민감정을 자극시키는 것은 핵무기(核武器) 생산(生産)의 불가피성을 찾으려는 것으로 분석(分析)되며 인도(印度)의 방위산업과 원자력에너지 개발능력을 감안하면 핵무기개발(核武器開發) 기초체제(基礎體制)는 이미 구비(具備)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한편 인도의 '86년 국방예산은 GNP의 약 4%(중앙정부예산의 33.5%) 수준으로서 공군(空軍)과 해군력(海軍力) 증강(增強)에 역점(力點)을 두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국력신장(国力神張)과 군사력(軍事力) 증대(增大)로 인해 계속적인 군비증강(軍備增強)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인도(印度)의 기본군사전략(基本軍事戰略)은 '80년대의 공세적방위전략(攻勢的防衛戰略)에서 90년대는 부분적억제전략(部分的抑制戰略)으로 전환(轉換)을 시도하고 있다.

3. 인도(印度)의 경제(經濟)

가. 경제구조(經濟構造)와 최근동향(最近動向)

인도(印度)의 경제체제(經濟體制)는 지금까지 사회주의혼합경제체제(社會主義混合經濟體制)를 유지해 왔는데 풍부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경제(經濟)의 자족성(自足性)을 갖지 못한 것은 농업의존에 의한 산업화(産業化)의 낙후(落後)에 기인한 것으로 최근까지 경제발전이 침체되어 개인소득 270불 정도로 세계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요 중공업(重工業)은 국영기업체로 정부(政府)가 주도하고 있으며 낙후된 경영관리 및 높은 관세로 시장가격(市場價格)은 높고 국제경쟁력은 매우 약한 실정이다. 반면 소모성 공산품(工產品)과 자동차·면직물·전자제품 등의 중소기업(中小企業)은 사기업체(私企業體)로서 최근 급속한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政府)는 국영기업체(國營企業體)를 단계적으로 사기업화(私企業化)하려는 정책(政

策)을 입안하고 있으나 그간 사기업육성정책(私企業育成政策)의 부재(不在)로 아직 그 준비가 따르지 못하고 있는 단계이다.

한편 인도정부(印度政府)는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생산증대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시설 현대화·산업투자 증대·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무역확대·단계적 수입자유화 등 자유경제체제로 그 궤도를 수정해 왔으며 '80년대에 들어서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면서 산업현대화(産業現代化)를 위한 기술도입과 설비투자(設備投資)에 IMF, ADB, IBRD의 차관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최근 인도의 산업통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 곡물생산은 연간 1억5천만톤으로 '84년에 약 9% 증가하여 2천만톤 이상의 비축능력을 확보하였으며
- 광공업 분야에서는 전반적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특히 철강 매장량은 126억톤(세계 2위), 석탄 880억톤(세계 6위), 원유 150억톤에 이르고 있는데 최근 이들 생산량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 어업 자원은 인도양, 벵갈만, 아라비아해에 풍부한 어장(魚場)을 갖고 있어서 연간 어획고가 300만톤에 달하고 있으나 기술 및 장비의 낙후로 근해어업(近海魚業)에 의존하고 있으며
- 외채현황(外債現況)은 '84년에 200억불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 '84~'85 경제성장률은 4.5%로서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

나. 무역정책(貿易政策)

인도는 경제규모에 비해 대외무역(對外貿易) 규모는 작은 편으로 국민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약15%에 불과하나 자유개방경제체제(自由開放經濟體制)로의 수정(修正)에 따라 점차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무역대상국(貿易對象國)으로는 미국, 소련, 영국, 일본 등인데 '78년부터 계속된 수입목표의 가격급등, 생산성 저하에 따른 대외경쟁력(對外競爭力) 악화(惡化) 및 교역조건(交易條件)의 불리(不利)로 무역수지가 계속 악화되어 '84년에는 약55억불의 무역적자(貿易赤字)를 내었다. 그리하여 각종 수출진흥정책과 석유·비료·철강·시멘트 등 수입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경쟁력과 강화를 위해 선진기술(先進技術), 설비(設備) 및 기자재(機資材) 도입 등 수입자유화정책으로 중장기적인 무역확대정책(貿易擴大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결론(結論)

전 세계를 통하여 인도(印度)처럼 국내사정(國內事情)이 복잡다양한 국가는 없을 것이며, 거기에 인도 정치(政治)의 어려움이 있다. 엄청난 인구(人口)와 기하급수적인 증가현상, 심각한 인종(人種)과 종교(宗教)의 갈등, 행정의 손이 못미치는 빈곤(貧困)과 무지(無知)의 대중(大衆), 반중앙정부적(反中央政府的) 주(州)들과 지역(地域)마다 상이(相異)한 수백가지의 언어(言語)

로 인한 행정(行政)과 통치문제(統治問題) 등 수많은 난제(難題)들이 얽혀 있지만 인도(印度)는 결코 포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모든 것을 내적(內的)으로 수용(收容)하면서 거대한 코끼리의 모습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움직여 가고 있다.

라지브 간디가 이끄는 인도정부(印度政府)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中央集權體制)를 지향(指向)하면서 범국민적 화합(和合)과 단결(團結)로 모든 대중이 생산과 분배의 사회활동(社會活動)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2000년대에는 풍부한 인적물적(人的物的) 자원(資源)을 바탕으로 경제적(經濟的) 자립(自立)은 물론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浮上)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정치적으로는 금년부터 일부 분쟁지역의 정치적 과제를 마무리짓고 정상적인 의회정치체제(議會政治體制)로서 집권의회당(集權議會黨)의 일당정치(一黨政治)가 지속될 것이며 군사력(軍事力) 또한 장비현대화에 집중하여 공군력(空軍力)의 현저한 증가와 핵무기(核武器)의 생산체제(生産體制)로까지 발전해 나감으로써 파키스탄을 장도(莊倒)하려 할 것이다.

한편 외교적(外交的)으로는 소련과의 유대를 지속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으로 경제(經濟)·군사(軍事)·문화교류(文化交流)를 증대시켜 양대국(兩大國) 사이에서 인도(印度)의 외교적(外交的) 지위(地位)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중공(中共)과도 우의적(友誼的) 국교발전(國交發展)으로 인도양(印度洋) 주변 국가를 위시한 서남(西南)아시아와 나아가서는 제3세계를 완전히 주도(主導)하는 힘의 국가로 부상(浮上)하려는 인도(印度)의 기본정책(基本政策)과 목표(目標)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망(展望)된다.

화합으로 맞은 손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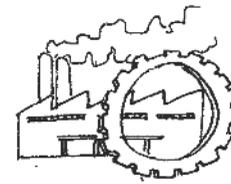
웃으면서 돌아간다

신(新) 제국주의론(帝國主義論)의 정체(正體)

- 학원가의 반미성향을 중심으로 -

소위 하종수

(제9785부대)



목 차

- I. 서론
- II.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그 관계
- III. 신제국주의론의 등장
- IV. 제국주의의 순수이론
- V. 남북대립과 주한미군
- VI. 결론

I. 서론

근래에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는 이른바 학생운동에 관한 기사를 대하면서 대다수 시민들은 착잡함과 동시에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관심의 초점은 그들의 과격한 폭력행사에 집중될 뿐 사실상 더욱 근저에 자리잡고 있는 그들의 사상적 무장, 말하자면 신좌경사상¹⁾이라 통칭되는 그들의 이론적 명분에 대하여는 무관심 내지 무지한 형편이다.

일전에 어떤 시위주동학생이 확성기를 들고, 미제국주의 타도, 주한미군 철수를 운운하는 장면을 TV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충격을 받은 국민들도 많겠지만, 과연 저들의 주장하는 제국주의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들 자신도 막연히 정치, 경제면에서의 속국화라고만 규정할 뿐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걸 보았다. 어떤 분석가에 따르면²⁾ “현재 학생운동 명목화에 실제로는 「한국혁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학생운동주도자들이 제작, 유포시키고 있는 문서들에 의하면, 민족해방 명분하에 반 외세 투쟁을 표방하면서 반미구호를 앞세워 반 제국주의 논리를 전개하며,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발전단계인 것으로 독단한 레닌의 「제국주의론」의 논리를 그대로 도식적으로 인용하고 국토분단과 분단고착화의 책

임을 전적으로 미국에 전가하며, 미군의 한국방위 역할을 민족분단, 민족말살의 기본요인으로 왜곡할 뿐만 아니라 한국민족, 특히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반미 의식화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날 학생운동의 반미성향을 심각히 진단해 볼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 과연 학생들이 말하는 제국주의란 무얼 의미하는가? 학생들의 반미구호는 어떤 의미와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학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주한 미군은 제국주의 정책의 산물이며, 또 실제로 제국주의적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II. 레닌의 제국주의론과 그 한계

1916년에 저술된 레닌의 제국주의론에 의하면 제국주의란 자본주의 발달의 최종단계이며, 이러한 시기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생산과 자본의 집중에 의한 독점자본이 형성되고, 둘째,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이 결합하여, 금융 지배계급이 형성되며 세째, 상품수출보다 자본수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네째, 독점자본가들이 전쟁을 일으켜 세계의 영토를 분할하고 지배계급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국주의는 기생적이고 사치방자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전에 사멸해 간다는 것이다.³⁾ 레닌은 이러한 시기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상정하고 있는데 그의 말대로 그 시기는 유럽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이 절정에 이른 때였다.

레닌의 결론을 보노라면 그 박진감있는 이론의 전개와 실제 세계사의 흐름과의 일치성으로 인하여 그대로 믿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학창시절 어느 학우가 이 이론을 제시하면서 레닌의 예언에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단에는 똑똑하다는 녀석이 어떻게 그토록 무지할 수 있을까 하고 이론의 황포라 할까, 어떤 이론에 몰입하다 보면 그 주변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린다는 걸 실감케 되었다. 생각해 보자.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1916년에 쓰여졌고 그때는 이미 전쟁이 한창이던 때가 아닌가? 어떻게 지나간 사실의 서술이 예언이 될 수 있는가? 문제는 아무 비판없이 이론을 수용하면서 오히려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위적 유추까지도 서슴치 않은 데 있다 하겠다. 어쨌든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당시대의 상황을 여러 가지 정치 역학-이들테면 프로이센의 호전성과 유럽 열강간의 알력-에서 찾지 않고 자본주의의 체제상 모순에서 구하려 했던 바에야 레닌 자신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위대한 예언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한가지 해프닝으로 웃어 넘길 일이 아니라 사상적 비판에 앞서 이렇게 이론 자체에 대한 오해가 없나를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나의 경험으로도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장된 극소수 운동권 학생을 제외하고는 많은 시위학생들의 대부분은 맹목적 정의감에 불타는 그 순수함으로, 또는 막연한 엘리트로서의 책임의식으로 시위에 임할 뿐 이데올로기 자

체에 대하여는 그들 스스로도 혼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흔히 보았다. 레닌은 자신의 정치목표였던 폭력적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는 전략전술에 시각을 맞추었으므로 그의 제국주의론에서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역사 현실의 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치목표 달성을 위한 선전활동과 전략개발이 중심이 될 뿐이다.⁴⁾

III. 신제국주의론의 등장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가 정치적 독립을 쟁취했으나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기술의 낙후와 토착자본의 미성숙으로 여전히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자 레닌식의 제국주의론으로서는 더 이상 비판할 수 없게 된 구미열강의 자본주의체제가 이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비판되기 시작하는 이른바 신제국주의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신생독립국에서 새로이 성립된 정치권력도 저개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극복하기 위한 명분으로서 구식민 지배자에 대한 중요성을 불러 일으킬 필요성이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소련 공산당 이론가들은 제3세계와 구식민지배국 사이의 정치, 경제적 관계를 신식민주의 혹은 신제국주의라 명명하였다.⁵⁾ 즉, 과거의 제국주의가 정치적 지배관계의 바탕 위에서 경제적 예측관계를 유지하였음에 비하여 신제국주의는 정치적 지배를 수반하지 않고 고서도 경제적 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제3세계국가 지도자들에게는 대단히 적절한 논리와 명분을 제공하였으므로 소위 비동맹 운동의 기수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스카르노, 이집트의 나세르, 가나의 앙크루마 등은 서방을 비방하는데 이러한 논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신식민주의 또는 신제국주의가 크게 주목을 받게된 데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제국들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에 대한 기대의 좌절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을 상대로 한 소련의 국제전략과 시간적으로 일치-1950년대-된 데에 있다. 따라서 시대적 필요에 따라 성급히 나타난 이론이 체계적 일리가 없기 때문에 신생 독립국이 서방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비방될 수 있는 내용은 모조리 신식민주의 내지 신제국주의 현상으로 표현되었다.⁶⁾ 즉, 정부차원이나 민간수준에서 서방진영이 신생국에 제공하는 모든 원조계획, 서방 각국이 해외에 갖고 있었던 각종 기지들, 서방진영 자체 또는 과거 식민지역과 식민모국 사이의 각종 협력체제, 신생 독립국 내의 각종 분리주의 운동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내세우던 신생국의 지도자들이 정변 등을 통하여 국제정치무대에서 사라지고⁷⁾ 정치현실을 신식민주의론으로는 더이상 해석할 수 없게 되자 신식민주의 또는 신제국주의라는 구호는 일단 제3세계 정치지도자들의 관심에서 떠나게 되고 문제 상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론가들에 의하여 논의되게 되었다.

IV. 제국주의의 순수이론(바란, 맥더프론)

1.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미군의 한국주둔에 대하여 시위학생들은 종종 제국주의 산물로 규정하고 마땅히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는 근거로서 흔히들 폴·바란과 해리·맥더프 등의 신제국주의 이론을 원용하는데 학생들에게는 이것이 지극히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오히려 각광받는 듯하다. 바란과 맥더프의 이론을 비판하기에 앞서 먼저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아무도 부인 못할 남북의 첨예화된 군사적 대립 등이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이나, 여러 가지 오히려 고향의 위협성도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순수한 이론으로서의 바란, 맥더프론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바란”이 주장하는 선진 자본주의론의 내용을 보면 8), 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생산관계의 구조적 특징 때문에 국민 총 생산량이 일반적으로 이 생산에 필요한 제비용을 상회하여 초과이익, 즉, 잉여가 만들어진다. 경쟁단계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잉여를 생산에 재투자하지만 이미 독점단계에 도달한 선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 이윤율이 최대가 되는 점에서 투자를 억제하게 된다. 이는 수요를 감소시켜 만성적인 수요부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잉여의 흡수는 1930년대와 같은 경기침체를 막기 위하여 비생산적 낭비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낭비적 형태의 잉여 흡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이 군사비 지출이라는 것이다.

거대한 액수의 군사비 지출은 바로 제국주의 정책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제국주의적 팽창정책의 주역은 국가가 아니라 민간기업인데 이들 독점 다국적 기업은 상품수출보다도 자본수출에 역점을 둔다고 한다. 상품수출의 경우 수지균형상 비슷한 양의 상품수입이 수반되므로 잉여흡수의 문제를 크게 돕지 못하는 반면, 자본수출은 필연적으로 상품수출까지 동반하게 되므로 잉여흡수면에서 크게 효과가 있다고 “바란”은 주장한다. 또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이윤보장을 위하여 교역 상대국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압력을 가하도록 자국정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압력활동을 위하여 군사시설유지, 해외원조, 기술지원 등등에 대한 방대한 규모의 지출이 요구되는데 “바란”의 경우 제국주의가 의미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방대한 국가지출을 수반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하여 “바란”은 몇가지 중요한 가설을 바탕으로 하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 체제는 그 성격상 생산량 보다 소비가 밀둘게 되고 이 성향 때문에 위기를 맞게 된다는 소위 저소비의 이론이다.

이 이론은 이것저것 생각할 것 없이 경험상으로도 전혀 근거가 없지만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조차도 가장 설득력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우기 미국이 갖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과 세계적 차원에서의 군사체제가 “바란” 자신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은 해외 투

자가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또 국내 잉여를 처리하기 위해 유지된다는 논의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또 우리의 경우 오로지 미국기업의 보호를 위해 주한 미군이 존재하는가? 아니 도대체 인간 상호간의 모든 유기적 관계를 모두 착취돼 피압박으로 매도해 버린다면 마르크스 이론가들이 구상하는 사회주의 파라다이스에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모든 결합관계가 무시되는 단절의 세계만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바란”의 견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결점은 공산진영의 군사적 확장에 대한 해명이 없다는 것이다. 군사력 확장이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자의 이익 옹호에서 오는 것이라면 소련의 군사력 확장과 아프가니스탄 침공과 같은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3. “맥더프론”의 제국주의론은 이론적으로 “바란”의 논지를 거의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 가설에 대한 비판은 “바란”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맥더프론”에서 크게 주목되는 것은 미국 외교정책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려 했다는 점과 집단 안보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전자의 경우 미국은 이미 세계차원의 전략 수립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제간섭 등 부정적 사실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맥더프론”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단편적 사례와 통계를 제시하면서 제국주의 체제의 조직자 또는 지도자로서의 미국의 역할은 미국이 세계금융질서의 수도국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국주의 팽창의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정부의 군사, 외교, 원조정책들이 동원된다는 것이다.10)

그의 비판의 중심내용은 미국의 과거 대외정책이나 또는 현재의 정책이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미국에서도 광범위하게 시인되고 있는 사실인데 미국이란 나라도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로 역시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하나의 국가다.

미국이 세계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아무런 과오나 비판의 여지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미국은 천사들이 모여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는 인간이 본디 이기적 충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 출발하므로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모든 이기적 행태에 비난의 화살을 퍼붓고 있지만 과연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 자국의 국가이익의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사회주의적 위선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V. 남북대립과 주한미군

남북대립의 의미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찾을 수 있으나 역시 냉엄한 정치체제의 논리를 고려할 때 군사적 대결의 성격을 제외한다면 어떤 주장도 현실성없는 주장이 될 것이다. 군사적 대결에서의 패배는 사실상 모든 논쟁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뿐이다.

신제국주의론자들의 국제협력비판론은 사실상 주한미군의 철수문제와도 연결된다. 명분론

상으로는 외국군대가 자국영토 안에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명예스러운 일인지 모르나, 이 건 한국분단과 남북군사대결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에서 연유하는 것이라. 물론, 미군의 한국주둔 목적에는 제국주의론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인 기업의 보호도 포함될지 모르지만 이 보호의 의미를 한국정부에 대한 압력수단으로써 이해한다는 것도 무리이다.

미군의 한국주둔이 미국의 선심에서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의 국가이익과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괴의 남침 억제력의 상징이란 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VI. 결론

이상에서 근래 일부 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서 논의되고 있는 신제국주의론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철수주장까지의 이론적 맥락을 더듬어 보았으나 역시 과학적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비판은 불가능하였다. 때로는 이론만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복합적 유기관계를 아무 주관적 확신없이 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론면에 있어서는 마르크시즘 또는 신좌경사상가들의 논리가 탁월한 점도 일부 있다. 실제로 신좌경사상가들이 지적하는 것을 혁명의 주체 세력으로는 급진적 지식인과 예비 엘리트계층인 학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노동자 농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고전적 마르크시즘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 이유로서 그들은 노동자, 농민은 무지하여서 착취와 피압박을 느끼지 못할 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미 불만계층이 아닌 그들에게 폭력혁명이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노동자 농민이 불만을 가지게 되지 않았다는 점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결코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적 소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체제는 역사발전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복지, 사회보장면에서 괄목할 변화를 보이면서 마르크스의 이론처럼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된 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좌경사상가들이 주체세력을 바꾸면서까지 그들의 사상과 이론을 수호하려는 저의는 바로 이제 더이상 그들의 논리로서는 현실세계의 현재상황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바람직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988년 평화적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안정과 경제면에서의 뚜렷한 회복전망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복지사회건설의 욕구가 팽배된 상황이다. 그러나 극소수이긴 하지만 급진적 개혁을 부르짖는 과격한 학생운동은 그 질적 성격으로 볼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를 던져 주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마르크시즘에 기초한 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미상불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정치, 경제면에서의 막대한 손실까지도 우려되는 형편이다. 상황이 이러한에도 우리는 계속하여 방관만 하면서 그들의 자제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그들이 주장하는 통칭 신좌경사상이라는 네오마키즘, 종속이론, 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등은 이미 50~60년대 서방세계를 풍미하다가 스스로 사멸해 버린 이미 낡은 이론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론들이 왜 뒤늦게 우리 나라의 영역에 수용되어야 하는가? 불순세력에 의한 고의적 치환임을 의심치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이고도 고립된 공산정권이라는 북괴와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취 볼 때, 이러한 책동에 오히려 동조하는 듯한 일부 세력들에 대해선 깊은 실망과 환멸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서도 그들은 역사의 주역임을 자처하는 바 과연 그들이 역사를 책임질 수 있겠는가 반문해본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미문화원사건 담당재판부의 혼계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11)

「의사표시의 폭력화는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 전체의 노력을 역행시킬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대안없는 주장은 무책임함을 의미하고, 무책임한 주장은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적절치 못한 주장이다. 학원을 뛰쳐나와 거리를 향하고, 정치를 향한 학생은 이미 학생의 신분을 떠난 것이다. 모든 사물과 사회현상은 상대가 있고, 그 상대의 사정과 나의 사정이 조화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적인 나만의 존재의 강변은 민주시민으로서 적절한 주장이 못된다. 그것이 폭력적인 수단에 의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25년간에 걸친, 국가시책에 대하여 폭력적인 테모로 대처하려고 하는 의사표시 방법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하고, 국민 모두가 제 자리를 찾아 그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

주해석(註解釋)

1) 1960년대를 전후하여 등장한 좌파에 치우친 사상들로서 현존의 우리체제를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이를 파괴시킬 목적하에 구성된 일체의 혁명적인 이념체계를 통칭하는데 여기에는 종속이론,해방신학, 신마르크스주의, 신제국주의론, 매판자본론 및 신좌파운동 등이 있고 여기에 덧붙여 공산주의 그 자체의 변용이라고 볼 수 있는 유로코뮤니즘이 있다.

2) 자유공론 85-9 월호 p. 51 「의식화, 과격화 행동의 실태와 문제점」 홍성문

3) 「제국주의-자본주의의 최고단계」 레닌(1916)

4) 자유공론 82-9 월호 p.106 「제국주의론 비판」 박용상

5) “신식민주의” “신제국주의” 또는 “경제적 제국주의”라고도 한다. 1961년 카이로의 제3차전 아프리카 인민대회에서는 신제국주의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식민주의란 신생국이 정치적 독립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아있는 식민지체제를 말한다. 이들 신생제국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기술적 힘에 의한 간접적이고도 교묘한 지배의 희생물이 되어 왔다.”



- 6) All-African People's Conference 결의문 (1961).
- 7) 나세르를 제외하고는 앙크루마, 수카르노 등은 모두 쿠데타에 의해 실각되었다.
- 8) 바란의 선진 자본주의론은 사실상 1950년대 또는 그 이전의 주로 미국경제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9) 다만 기왕의 마르크스주의가 신생국 문제연구에 게을리한 데 비하여 신생국 문제를 정식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은 그의 학문적 공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 10) 사실상 그의 논의는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론에 합당한 사례와 통계를 각 사건이 갖는 구체적 맥락을 무시한 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외교정책의 전제상을 왜곡하고 있다.
- 11) "2000년"지 85-11월호. p. 74에서 재인용.



병영생활(兵營生活)의 명랑화 방안(明朗化 方案)

- 하사(下士)와 병(兵)의 관계정립(關係定立) -

소령 공진구
(제5672부대)

- 목 차 -

- I. 서론
- II.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의 중요성
- III.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분석
- IV. 발전방향
- V. 결론

I. 서론

제2차 세계대전후의 미·소 양국을 정점으로한 자유, 공산진영의 양극체제가 오늘날 다극화 체제로 전환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현상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북괴의 위협이 상존(常存)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속에서는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의 힘으로 보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온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자주국방태세를 갖추어 나가 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국민의 호국외지 고양이 국력증강의 한 요소로 대두되게 된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2천년대를 향한 국민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군사력을 물질전력 위주로 무작정 증강시킬 수 없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물질전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북괴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군의 정신전력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와같이 복귀의 무력도발과 정치·사상적 도전을 받고 있는 반면 유형전력상의 제한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정신전력의 강도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민족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정신전력은 계획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지도·육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위한 연구는 더욱 세분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같은 정신전력의 중요성에 비추어 현재 우리 군내에 잔존(殘存)하고 있는 하사와 병간의 갈등 원인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 하사와 병간의 관계 재정립을 위해 단위부대의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상경하애와 상호신뢰의 기풍을 진작시켜 명랑한 병영생활을 도모하고 나아가 정신전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의 중요성

1. 군 조직내에 미치는 영향

정신전력이란 “모든 장병들이 투철한 군인정신의 바탕 위에서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여된 임무를 능동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의지력으로서, 신념(信念), 사기(士氣), 단결(團結) 및 군기(軍紀)를 그 핵심요소로 한다.”고 정의되어 있다.¹⁾

정신전력을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정신」이란 군인정신을 의미하며 「전력」이란 전력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전력이란 바로 군인정신의 전력화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신전력은 ① 휘하 각개 장병에게 군인 정신을 배양함으로써 ② 지휘관을 핵심으로 전 부대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화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전력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속성 속에 집단성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력이란 원래 집단과 집단의 전쟁에 있어서의 전투수행능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개인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규합해서 집단의 힘, 즉 조직화된 힘으로 만들지 않으면 개인각자로서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집단의 신념이 사기로 행동화되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임무수행을 위한 단결심이 부족하다면 정신전력은 조직화된 집단 의지력으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신념이 사기에 의하여 행동화되었다 하더라도 군 특유의 질서의식인 군기가 없다면 역시 오합지졸의 모임에 불과한 부대가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정신전력의 구성요소인 신념, 사기, 단결 및 군기는 상호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정신전력의 구성요소가 가지는 구조적, 기능적 관계를 생각할 때 군 전투력의 강약을 좌우하는 정신전력의 측면에서 부대단결을 저해하고 군 위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하사와 병간의 갈등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며, 향후 올바른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국민정신교육과의 연계성

정신교육이란 보통 과학·기술교육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과거부터 실시해온 개성교육, 인격교육, 도덕·윤리교육, 인간교육, 시민교육, 정치적 사회화교육을 총칭하는 말이며, 보통의 경우 지(知), 정(情), 의(意)의 조화로운 발달을 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말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 국민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실천의지를 단련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덕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국민정신교육’에는 애국·애족하는 심성과 정신에 강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국민정신교육에는 인간·도덕교육이라는 보편적 측면에 애국·애족이라는 특수한 측면이 추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국민정신교육은 국가의 안전과 발전, 민족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국민의 정신 자세, 즉 국민의 가치관, 신념, 덕성과 실천의지를 심어주는 교육이다.²⁾

따라서 소극적인 자세를 갖는 인간을 국가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사람으로 기르려는 교육이 국민정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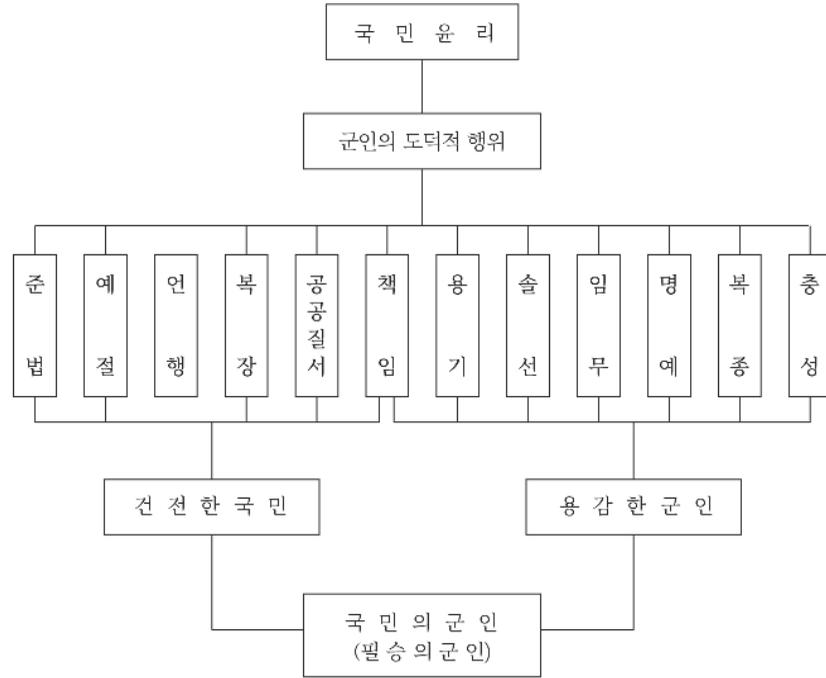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또 ‘위대한 한국’을 건설하려는데 도움이 되는 현실인식, 감정상태, 실천의지를 심어주며, 그 목표에 부합하는 국민의 문화풍토나 사회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이다.³⁾

도덕은 우리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어떤 인간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에 관한 것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양식을 규율하고 있으며, 모든 인간이 그 도덕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도덕적 행위라 하고, 이때 비로소 조직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이라는 집단에서도 국민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도덕과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군인으로서 준수하여야 할 도덕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들어 단정한 복장, 올바른 자세, 절도있는 동작, 친절한 예의, 공중질서의 숭선수범과 군인으로서의 행동 등 사회인보다 더 많은 규범을 행동화하여야 한다.⁴⁾

인간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통제받기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행위를 스스로 행하는 군인은 준법정신, 협동심, 숭선수범, 용감성, 책임감있는 인격적 군인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정신전력을 극대화하는 길이 된다. 정신전력은 특수한 교육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라기 보다 평소의 병영생활과 훈련 속에서 생성되는 하나의 전투적 요소라고 생각할 때 <도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덕적인 군 생활은 장병들을 전투행위에 있어 필승의 신념을 견지한 군인으로 육성하여, 정신전력의 극대화는 물론, 나아가 건전한 국민의 자질을 길러 그 인격을 완성함으로써 국민정신교육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도표-1>



III.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분석

본 장에서는 1985. 5. 31 공군 제○○○○부대 장병 201명(장교29, 영의하사관43, 영내하사44, 병85)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하사와 병간 갈등의 실태

<도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장병들이 하사와 병 두 계층간의 갈등을 경험한 바 있고, 또 지금도 잔존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양계층간 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주관적 인지도(主觀的 認知度)를 조사한 결과 80%이상의 장교 및 하사관들이 이러한 갈등은 내무생활의 명랑화나 지휘질서확립에 매우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병들의 경우에는 내무생활 명랑화의 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60%정도 밖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며, 특히 지휘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도표-2>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의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의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의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갈등의 경험	26 /	33 /	40 /	53 /	2 /	6 /	3 /	20 /	1 /	3 /	1 /	14 /
	89.7	76.7	90.9	62.3	6.9	13.9	6.8	23.5	23.5	7.1	2.3	14.1
갈등의 실제 인정	9 /	18 /	23 /	35 /	11 /	15 /	18 /	33 /	4 /	8 /	2 /	12 /
	31.0	41.9	52.3	41.2	37.9	34.9	40.9	59.2	13.8	18.7	4.3	14.1
내무생활 명랑화 지해	23 /	38 /	37 /	54 /	6 /	5 /	7 /	18 /	0 /	0 /	0 /	9 /
	79.3	88.4	82.2	63.5	20.7	11.6	15.9	21.2	0	0	0	10.6
지휘질서 문란	25 /	35 /	41 /	33 /	2 /	7 /	2 /	32 /		1 /	1 /	19 /
	86.2	81.4	93.1	38.8	6.9	16.3	4.5	37.6	5.9	2.3	2.2	22.3
고질적으로 해결불능	4 /	3 /	7 /	30 /	22 /	39 /	35 /	55 /	5 /	1 /	2 /	12 /
	13.8	9.1	13.9	23.3	75.9	90.7	79.5	64.7	10.5	2.3	4.5	14.1

<도표-3>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의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의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의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언어나 호칭 문제	20 /	35 /	37 /	45 /	6 /	7 /	3 /	21 /	3 /	2 /	0 /	27 /
	69.0	81.4	82.2	52.9	20.7	16.2	6.8	35.6	10.3	4.6	0	31.7
간접 배제 욕구	11 /	22 /	23 /	39 /	11 /	15 /	18 /	30 /	7 /	5 /	1 /	16 /
	37.9	81.4	51.1	45.9	37.9	34.9	40.9	33.2	24.1	11.6	2.2	13.6
내무반 주도 권 획득	6 /	14 /	11 /	8 /	12 /	26 /	7 /	61 /	9 /	5 /	3 /	13 /
	20.7	32.6	24.4	9.4	41.5	60.3	15.9	71.8	31.0	11.6	6.7	18.8
군계급 체계의 모순	13 /	11 /	26 /	35 /	11 /	24 /	2 /	14 /	3 /	7 /	6 /	16 /
	51.7	25.5	37.8	64.7	37.9	55.9	4.5	16.4	10.3	16.2	13.3	18.3
고참병의 신송	16 /	31 /	36 /	9 /	6 /	9 /	35 /	66 /	6 /	4 /	5 /	10 /
	35.1	70.1	80.0	10.6	20.7	20.9	79.5	77.6	20.7	9.3	11.1	11.3

여기서 사병들이 하사를 상급자로 생각하지 않으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계층이 해결불가능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문제해결에 밝은 면을 보여주고 있다.

2. 갈등의 원인

〈도표-3〉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상호언어와 호칭사용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욕구와 고참병의 신병에 대한 신중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도표-3〉의 분석결과에서는 병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하사와 병간 상호 구타사고에 관련된 병들의 비공식면담결과에 의하면 이것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병들이 이 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사병들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책임한 자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외에도 군계급체제의 모순에도 상당수의 응답자가 긍정하고 있는데 타문항과 관련하여, 이는 하사의 학력과 나이에 관련된 의견으로 판단된다,

〈도표-4〉는 갈등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한 언어나 호칭문제를 좀더 분석해 본 것이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교 및 하사관들은 병들이 하사에 대하여 확실한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병의 경우에는 이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실정이다. 그러나 나이에 따른 존칭을 사용함으로써, 계급과는 별도의 질서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다만 뒤에 분석되는 문항29(도표-8 참조)의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볼 때 하사의 병에 대한 인격 모독적인 언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사병들이 하사들에게 고참병에 대하여 존칭을 사용할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은 군 계급질서를 인정하려는 자세가 부족한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특히 〈도표-5〉에서와 같이, 병이 하사의 학력이나 지식수준에 관계없이 하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데는 일반적으로 긍정하고 있으나, 나이 어린 하사에 대한 복종이나 절대적 복종에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정을 하고 있음은 병의 계급존엄성 및 복종심이 부족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의 계급구조 및 상하 질서관계에 대한 인식정도를 좀 더 분석해보면 〈도표-6〉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병의 계급존엄성 및 복종심 부족의 단면을 엿볼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군계급질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 지휘질서확립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군경력에 대한 인식상태를 분석해보면 〈도표-7〉에서와 같이 병들은 군대가 오직 경력에 의하여 질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는 하사들이 고참병의 경력을 어느 정도 인식해 줌으로써 상호 이해의 장(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장교와 하사관들은 병의 지나친 자기경력 주장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도표-8〉에 의하면 하사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는 이유없는 집합, 구타 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도표-4〉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병의 하사에 대한 존중	24 / 82.7	43 / 100.0	43 / 95.6	41 / 48.2	1 / 3.4	0 / 0	1 / 2.2	28 / 32.9	3 / 10.3	0 / 0	0 / 0	16 / 18.8
하사의 병에 대한 존중	14 / 46.2	22 / 75.9	26 / 86.2	69 / 81.1	13 / 44.8	17 / 37.8	14 / 31.8	8 / 9.4	2 / 6.8	3 / 6.9	3 / 6.8	8 / 9.4
나이에 의한 존칭 사용	3 / 10.3	7 / 24.1	1 / 2.2	33 / 33.9	21 / 72.4	34 / 79.0	41 / 93.1	21 / 24.7	5 / 17.2	2 / 4.6	0 / 0	31 / 39.4

〈도표-5〉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병은 하사에 게 절대 복종	25 / 86.2	36 / 83.9	35 / 79.5	13 / 15.3	5 / 17.2	6 / 15.9	6 / 15.3	33 / 64.7	1 / 3.4	1 / 2.3	2 / 4.5	17 / 0.2
학력, 지위에 복종	22 / 75.9	33 / 16.8	34 / 71.3	42 / 50.4	1 / 3.4	2 / 4.6	0 / 0	17 / 20.0	5 / 17.2	7 / 16.3	7 / 15.9	25 / 29.4
학력, 지식수 준에 관계없 이 복종	17 / 58.6	31 / 72.1	23 / 52.3	20 / 23.5	4 / 13.8	6 / 13.9	4 / 8.9	19 / 22.4	5 / 27.6	6 / 13.9	8 / 18.2	43 / 36.3
병보다 어린 하사 존대	16 / 55.1	34 / 79.1	23 / 52.3	25 / 29.4	10 / 34.5	7 / 16.2	14 / 31.1	45 / 52.9	3 / 10.3	2 / 4.6	6 / 13.6	13 / 17.6

<도표-6>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계급 질서 문란 입단	22 / 75.9	41 / 95.3	28 / 86.4	36 / 42.4	3 / 10.3	0 / 0	4 / 9.1	31 / 36.5	3 / 36.5	2 / 4.7	2 / 4.5	18 / 21.2
계급에 따른 행동	23 / 79.3	35 / 81.4	34 / 77.3	43 / 50.6	4 / 15.8	7 / 16.3	10 / 22.7	24 / 28.2	2 / 6.9	1 / 2.3	0 / 0	8 / 24
상관에의 복종	24 / 82.8	25 / 58.1	40 / 90.9	49 / 57.6	3 / 10.3	6 / 20.7	1 / 2.3	21 / 24.7	2 / 6.9	2 / 4.7	2 / 4.5	13 / 15.3
계급 이외의 특권 불인정	26 / 89.7	34 / 79.1	40 / 90.9	48 / 36.5	3 / 10.5	6 / 20.7	3 / 6.8	16 / 18.8	0 / 0	2 / 4.7	1 / 2.3	21 / 24.7

<도표-7>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하사의 병의 경력 인정	18 / 62.1	23 / 53.4	30 / 68.2	74 / 87.1	10 / 34.5	16 / 37.2	11 / 0.25	5 / 5.9	1 / 3.4	4 / 9.3	1 / 2.3	6 / 7.1
병의 지나친 경력 주장	20 / 69.1	32 / 74.4	39 / 88.6	12 / 14.1	5 / 17.2	6 / 14.1	4 / 9.1	57 / 67.1	4 / 3.4	4 / 9.3	1 / 2.3	12 / 14.1
군대는 경력 이 최우선	2 / 69.1	0 / 0	3 / 6.8	15 / 17.6	25 / 86.2	40 / 93.0	39 / 88.6	43 / 50.6	2 / 6.8	2 / 4.7	2 / 4.5	27 / 81.8

<도표-8>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직무 수행 능력 부족	8 / 27.6	4 / 9.3	7 / 15.9	19 / 22.4	19 / 65.5	35 / 79.6	34 / 40.0	21 / 35.6	2 / 6.0	2 / 4.7	1 / 2.3	32 / 37.6
이유없는 집합이나 구타	1 / 3.5	2 / 4.7	1 / 2.3	17 / 20.0	17 / 38.6	37 / 36.0	14 / 16.5	30 / 33.2	11 / 37.9	3 / 10.3	39 / 88.6	34 / 65.5
공사 구분 부족	6 / 20.7	7 / 16.3	4 / 9.1	48 / 56.5	19 / 65.5	29 / 61.4	19 / 22.4	61 / 71.8	4 / 13.8	2 / 24.1	0 / 0	18 / 21.2
부당한 명령 지시	4 / 13.8	2 / 4.9	1 / 8.3	42 / 49.4	21 / 41.4	36 / 88.4	25 / 29.4	14 / 16.4	13 / 44.8	3 / 69.8	2 / 4.5	17 / 0.2
병의 인격 무시	1 / 3.5	1 / 2.5	1 / 2.3	44 / 59.8	21 / 72.4	40 / 93.0	26 / 30.6	66 / 77.6	7 / 24.1	2 / 4.7	2 / 4.5	15 / 17.6

3. 갈등의 원인종합

이상에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하사와 병간의 주된 갈등의 원인은 언어나 호칭사용 문제, 고참병의 신승, 하사의 연령 문제, 상호 간섭배제 욕구 등의 순으로 분석되며 병의 하사에 대한 계급인정, 계급에 대한 존엄성, 군위계질서의 수용자세가 부족하다는 점과 하사의 지휘 및 업무처리에 있어 병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병들이 악용하여 하사에 게 반발함으로써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상급자의 편견이나 무관심, 일방적인 하사두둔이 문제해결의 악화를 조장하고 있으며 또한 하사와 병, 두 계층의 상호이해와 인격존중이 결여되어 관계정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V. 발전방향

1. 계층별 의견

<도표-10>은 하사와 병간의 갈등의 해소방안에 관한 각 계층의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집단이 대화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라는 데에 가장 높은 합의율을 보이고 있다.

<도표-9>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자존심에 의한 갈등	4 /	4 /	3 /	28 /	22 /	37 /	33 /	36 /	4 /	2 /	3 /	23 /
	6.9	9.3	11.4	30.6	73.9	56.0	79.5	42.4	3.4	4.6	6.3	27.1
상급자의 편견에 의한 갈등	6 /	7 /	13 /	36 /	15 /	23 /	23 /	31 /	6 /	7 /	6 /	13 /
	20.7	16.3	28.5	42.4	31.7	65.1	56.6	36.5	20.7	13.6	13.6	21.2
상급자의 무관심	4 /	12 /	26 /	13 /	21 /	26 /	14 /	59 /	4 /	5 /	4 /	12 /
	13.3	27.9	59.1	15.3	72.4	60.5	31.8	69.4	13.8	11.6	9.1	14.1
상급자의 하사두둔	4 /	2 /	2 /	64 /	21 /	39 /	39 /	14 /	4 /	3 /	1 /	7 /
	13.3	4.7	4.5	75.2	72.4	90.7	33.6	16.3	13.8	6.9	2.3	15.9
동일 내무반 사용	12 /	21 /	27 /	43 /	12 /	16 /	16 /	33 /	5 /	5 /	1 /	9 /
	41.4	43.3	61.4	30.6	41.3	37.2	36.4	41.2	7.2	11.6	2.3	10.6
하사의 병제재권 부재	20 /	57 /	40 /	7 /	4 /	3 /	4 /	57 /	3 /	2 /	0 /	21 /
	33.0	36.0	93.0	3.2	13.8	6.9	9.1	67.0	17.2	4.6	0	24.7

그러나 병들이 대화만을 주장하는 반면, 상급자들은 제재의 강화와 대화를 병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장교, 하사관은 모두 쌍방 처벌이 효과가 없다는 것에 강한 긍정의 의견을 보인 반면 병들은 부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점은 처벌을 혼자 받을 수 없다는 이기적인 발상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외에도 절대다수가 하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상급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2. 향후 추진방향

여기서는 본 연구자가 본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양계급의 갈등을 단위 부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나름대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하사와 병간의 새로운 인간관계형성

주기적으로 내무반별로 사전에 선정된 주제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접근하는 내용이 아닌) 를 가지고, 준사관급이상 장교 또는 토론경험과 설득력이 풍부한 영외하사관이 참석하여, 긍정적 사고합의를 위한 유도 및 강평을 실시하는 직장단체회의 등을 이용하여 대화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하사·병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동시에 군 전투력형성에 저해되는 요소(이기심 등)를 스스로 인식, 배제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진행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할 것이다.5) 또한 대대 및 부(전대) 주관의 내무반별 체육활동(구기 등)의 강화로 단결심 및 전우애 함양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6)

<도표-10>

<인원/비율>

응답별 계층별 질문별	긍 정				부 정				보 류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장교	영외 하사관	영내 하사관	병
병의 복종심 배양	20 /	25 /	32 /	4 /	5 /	11 /	7 /	69 /	3 /	7 /	3 /	12 /
	68.0	38.1	72.7	4.7	17.2	25.6	15.9	81.2	10.3	16.3	6.8	14.1
현실적 제대권 부여	20 /	35 /	42 /	6 /	4 /	5 /	1 /	34 /	5 /	3 /	0 /	22 /
	68.0	2.3	96.4	7.1	13.8	17.2	2.3	63.5	17.2	6.9	0	25.9
쌍방 처벌의 효과 전무	7 /	38 /	35 /	42 /	18 /	5 /	5 /	10 /	4 /	2 /	0 /	33 /
	24.4	88.4	86.4	49.4	62.1	17.2	11.4	11.3	13.8	4.9	0	35.8
처벌의 강화	16 /	23 /	23 /	8 /	8 /	8 /	11 /	62 /	5 /	4 /	9 /	15 /
	33.1	52.3	52.3	9.4	27.6	27.6	25.0	72.9	17.2	9.3	20.3	17.6
두집단의 대화	19 /	22 /	31 /	71 /	6 /	14 /	9 /	5 /	4 /	7 /	2 /	9 /
	65.5	51.1	70.5	83.5	20.7	48.3	20.4	5.9	13.8	16.3	4.5	17.6
하사들의 노력만으로 해결불능	25 /	35 /	38 /	54 /	4 /	6 /	3 /	17 /	2 /	2 /	4 /	14 /
	79.3	81.4	86.4	63.5	13.8	20.7	6.3	20	6.9	4.7	6.8	16.4

나. 각급 지휘관, 참모 및 영외장병의 관심 제고

당사자인 하사의 노력만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각급 지휘관·참모 그리고 영외장병들의 관심 속에서 적극적인 선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갈등의 원인분석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상급자는 단계급질서에 대한 병의 복종심 고취와 상경하애의 기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조직내에 있어서의 단결 및 전우애 고양의 필요성, 부대에 함양을 목표로 단결강화활동 및 지도활동을 실시해야 하며, 둘째, 군기확립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심이 배양되도록 교육하고, 2차적으로 자발적인 복종심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병들에게는 법규에 의하여 이행을 강요함으로써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군고유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한다.

세째로 영외하사관의 병에 대한 편견 및 인격무시와 관련한 가혹행위를 근절하고, 업무처리에 있어 하사와 병의 구분없이 공정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상호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 기타

현실적으로는 하사에게 병에 대한 제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아울러 하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야간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취학권장, 새마을 독서대학 운영 등)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군에서 요구하는 초급간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장병들의 가치관변화를 어떻게 적절히 다루느냐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 현대군이 직면하고 있는 급변하는 환경 중에서도 사회·문화적 변화의 영향은 정신전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군의 전통과 관습 등에 대한 장병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며, 군의 긍지와 사기 등 정신전력의 제문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인간의 심리와 태도, 행동을 복잡하고 미묘하게 변질시키고 있다.

따라서 생산성과 효율성이라는 목표지향적인 군조직의 공통변수 속에서 최대공약수가 어느 정도 작용하느냐에 따라 집단적 생산성이 도출된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현대사회 속에서 군이 요구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많은 노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집단과 개인의 관계 재정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떠한 집단에서나 그 구성원 사이에는 일정한 관계가 성립되며 그 관계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 집단의 결속과 사기 및 효율성이 결

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집단이란 상이한 개성을 가진 개개인의 모임이기 때문에 개인차와 욕구 및 이에 수반되는 복잡한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사와 병의 관계 재정립은 부대 내의 인간관계를 협동적이고 우호적인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집단의 단결과 효율적인 집단기능의 발휘를 가능하게 하는 전투력 형성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주해석(註解釋)

- 1)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 1983, p 25.
- 2) 한승조(韓昇助), “국민정신교육의 방향”, 국민윤리연구12집.
- 3) 상계서(上揭書)
- 4)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1976.
- 5) 한기우(韓琪愚), “인간관계 개선에 따른 정신전력실천모형의 연구”, 정신전력연구 제 4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3, p. 185.
- 6) 유한동, “체육과 종교가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휘성공사례집, 국방부, 1979, p. 49.

참고문헌

1. 국방부, 정신전력지도지침서, 1983.
2. 한승조(韓昇助), “국민정신교육의 방향”, 국민윤리연구 1집.
3. 국방부, 군인복무규율, 1976.
4. 한기우(韓琪愚), “인간관계 개선에 따른 정신전력 실천모형의 연구,” 정신전력연구 제 4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3.
5. 유한동, “체육과 종교가 정신전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지휘성공사례집, 국방부, 1979.
6. 육군본부, 전장의 실대와 전투지휘, 1980.
7. 박종수, “효과적인 정신문화방안”, 정신전력연구 제2호, 국군정신전력학교, 1981.
8. 김순대, “인간관계훈련의 실제”, 정신전력연구 제5호, 국군장신전력학교, 1984.
9. 강동인, “장병심성개발을 위한 집단상담연구”, 지휘성공사례 및 논문집, 국방부, 1982.

영내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을 위한 설문

(5 전비 정훈관실)

참 고 자 료

대 상	장교, 영외하사관, 영내하사, 병
복 무 구 분	장기, 단기 연령 만 () 세
군생활경력	입관후 () 년 () 개월
학 력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고교, 중학교) 졸업 (대학, 전문대학, 고교, 중학교) 재학 또는 중퇴

※ ○ 표 또는 숫자 기입

1. 본 설문 조사는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으로 상경하애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병영생활의 명량화를 도모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신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2.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평소 경험하고, 생각하고 있는 내용들을 열거한 것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느끼시는대로 소신껏 해당란에 “V”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혀 그렇지 잘모르 그런편 정 말
그렇지 않 은 겠다. 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보기) 웃으면 복이와요 () () () () ()

전 혀 그렇지 잘모르 그런편 정 말
그렇지 않 은 겠다. 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 나는 하사와 병의 갈등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 () () () () ()
(장교의 경우 : 부하 사병간에 갈등이 있다고 판단된다)
- 우리 내무반의 하사와 병간에는 갈등이 있다. () () () () ()
- 상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사와 병의 갈등은 일어나도 할 수 없다. () () () () ()
- 하사와 병의 갈등은 내무생활 명량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 () () () ()
- 하사와 병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휘 질서의 문란으로 전력이 약화될 것이다. () () () () ()
- 실제로 하사와 병간에는 갈등이 심하지 않으나, 상급자들의 편견이 이를 심화 시키고 있다(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 () () () ()
- 군대의 계급질서를 문란케 하는 언행은 어떠한 이 유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 () () () ()
- 하사와 병의 갈등은 고질적인 것으로 해결 불가능 하다. () () () () ()
- 하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언제나 병 때문 이다. () () () () ()
- 군대의 계급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항상 계 급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없다. () () () () ()
- 하사와 병간의 갈등은 주로 언어나 호칭문제에서 일어난다. () () () () ()
- 군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의 명령이나 지 시에 따라야 한다 () () () () ()
- 병이 하사를 호칭할 때는 “○○하사님”으로 해야 한다. () () () () ()
- 하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병에게 존대말을 써야 한다. () () () () ()
- 하사는 병의 경력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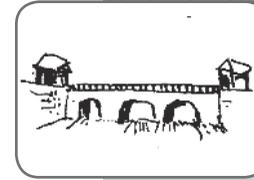
전 혀 그렇지 잘모르 그런편 정 말
그렇지 않 은 겠다. 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 16. 병이라고 해서 하사에게 반드시 복종할 필요는 () () () () ()
없다.
- 17. 하사와 병이 같은 내무반(병동)에서 함께 생활 () () () () ()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자주 일어난다.
- 18. 간섭받지 않고 편하게 생활하고자 하는데서 하 () () () () ()
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난다.
- 19. 하사와 병의 갈등은 내무반 주도권 싸움일 뿐 () () () () ()
이다.
- 20. 하사와 병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은 상급자(장교 () () () () ()
나 영외하사관)의 무관심 때문이다.
- 21. 하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군계급 체계 () () () () ()
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 22. 병들이 필요없이 자신의 군경력을 세운다. () () () () ()
- 23. 하사와 병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명령 () () () () ()
에 불복한 병에 대한 제재권이 하사에게 없기 때
문이다.
- 24. 하사와 병의 직무 수행능력이나 행동에는 차이 () () () () ()
가 없기 때문에 계급을 인정할 수 없다.
- 25.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하에 하사들이 이유없이 () () () () ()
집합이나 구타가 많다.
- 26. 하사들이 공적 업무와 사적감정을 구별하지 못 () () () () ()
하고 있다.
- 27. 하사들의 명령이나 지시에는 부당한 것이 많다. () () () () ()
- 28. 하사들의 병에 대한 지휘와 관련한 말이나 태도 () () () () ()
는 따를 필요가 없다.
- 29. 하사들이 병의 인격을 무시한다. () () () () ()
- 30. 군대는 오직 경력이 우선해야 한다. () () () () ()
- 31. 학력이나 지식 수준이 병보다 못한 하사에게 복 () () () () ()
종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치 않는다.

전 혀 그렇지 잘모르 그런편 정 말
그렇지 않 은 겠다. 이다. 그렇다.
않다. 편이다.

- 32. 나이 어린 하사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병에게 () () () () ()
존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 33. 군에서의 생활은 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기 때 () () () () ()
문에 편하게 시간만 보내면 된다.
- 34. 군대생활은 적당히 눈치와 요령으로 하면 된다. () () () () ()
- 35. 구타가 없어졌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요 () () () () ()
령이 없기 때문이다.
- 36. 병에 비해 학력이나 나이가 어린 하사가 있다는 () () () () ()
것은 계급 부여 기준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 37. 상급자(장교나 영외하사관)들이 하사를 너무 두 () () () () ()
둔한다.
- 38. 병의 하사에 대한 반발은 고참병의 압력 때문이 () () () () ()
다.
- 39. 하사와 병의 갈등의 유일한 해결책은 병의 복종 () () () () ()
이다.
- 40. 병이 하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것 () () () () ()
은 효과적인 제재방법이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
다.
- 41. 하사와 병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을 모 () () () () ()
두 동등하게 처벌하는 것은 예방효과가 없다.
- 42. 처벌을 지금보다 강화한다면 하사와 병의 갈등 () () () () ()
은 조금은 해소될 것이다.
- 43. 하사와 병의 갈등은 두 집단의 대화로서 해결해 () () () () ()
야 한다.
- 44. 하사들의 노력만으론 하사와 병의 갈등을 해소 () () () () ()
할 수 없다.
- 45. 군대이지만 계급 이외의 군생활 경력이나 기타 () () () () ()
이유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 하사와 병의 관계정립에 대해 여러분이 평소 느끼고 계신 발생원인,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상세히 기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동·서독(東·西獨)의 교류(交流)와 독일(獨逸)의 통일전망(統一展望)

- 목 차 -

1. 머리말
2. 동·서독(東·西獨) 교류(交流)의 배경
3. 동·서독(東·西獨)의 교류현황(交流現況)
4. 맺음말(獨逸)의 통일전망(統一展望))

소령 김 종 속
(제3591부대)

1. 머리말

독일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2차대전의 부산물로 강대국에 의하여 국토가 양분되어 동(東)·서(西)진영의 경계선에서 국제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분단지역이 자유민주주의체제(自由民主主義體制)와 공산주의체제(共產主義體制)로 대립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은 국토분단이라는 정치적 공동운명에 처해 있지만 분단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분단지역 간의 교류에서는 많은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승전 연합국에 의하여 4개지역으로 분리점령되었으며 동서 양진영의 세력권으로 구분 관리되었는데 이는 독일이 끊임없이 주변국가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계평화 유지라는 측면에서의 연합국에 의한 강제적 분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는 연합국에 의하여 패전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인위적 38선이 사용되어 고착되었는데, 분단은 오히려 패전국인 일본이 감당해야 할 일이다.

통일(統一)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은 13세기에 걸쳐 단일민족(單一民族), 통일국가(統一國家)를 형성하여 왔고, 정치·역사·문화의 동질성은 민족주의의 바탕으로 통일은 민족사적(民族史的)인 정치지상과제라 할 수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명목상으로 서독의 기본법이 통일추구를 정치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 유럽의 현상변화를 의미하는 독일의 통일을 강대국에서 원치 않는다는 점을 서독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對) 동독과의 관계개선은 유럽의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동독은 1974년 개정된 헌법에서 사회주의 통일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국토통일을 공식으로 포기한 결과가 되었다.

한국과 독일은 분단과정과 통일개념에 있어서 상이한 점도 있지만, 경제적 교류 및 협력면에서 독일은 부러울 만큼 제(諸) 교류의 양(量)과 질(質)이 확대되어 있다. 이는 동·서독 국토분단이 심각해지면서 양독(兩獨)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 무역이었는데 강대국간의 냉전체제에 불가피하게 휩쓸리면서도 한가닥의 연결선을 유지해 보자고 하는 양독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의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최근 남북한간에는 경제회담, 체육회담 등 대화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동(東)·서독간(西獨間)의 교류의 배경 및 그 과정, 그들의 통일노력을 살펴 보는 것은 앞으로 평화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화에 임하는 자세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2. 동(東)·서독(西獨) 교류(交流)의 배경

동(東)·서독(西獨)의 교류와 협력(協力)은 2차대전 이후부터 4대국관리에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추진되어 오다가 1972년 12월의 동·서독 기본조약체결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서독간의 관계발전은 「선교류(先交流)·후관계정상화(後關係正常化)」라고 하는 과정을 밟은 것이다. 그러나 양독(兩獨)이 상호교류를 하는 데는 적지 않는 문제들이 수반되었다.

첫째는, 서독이 동독을 국가로 승인하는 문제였다. 동독은 서독과 서방세계로부터 국가로서의 승인을 얻기 위해 경제교류나 교통문제 등에서 서독으로는 수락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교류의 절차나 방법들을 까다롭게 하기도 하였다.

둘째는, 동(東)·서독(西獨)교류로 비롯될 수 있는 자유사상의 유입을 동독이 우려한 나머지 각종 교류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 점이다.

셋째는, 서베르린을 서독의 영역으로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 동(東)·서독(西獨)간에 심한 의견대립을 보인 점이다. 동독은 서베르린을 서독의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서독은 자기들 영토의 일부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세가지 문제점은 동·서독접근과 교류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으나, 서독의 「브란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타협점을 모색하였다.

「브란트」 수상은 1969년 10월 28일 시정연설에서, 서독(西獨)은 동독(東獨)을 국제법상으로 승인할 의도는 없다고 하면서도 「독일 내에서의 두 국가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브란트」는 「만일 독일 내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서로 외국이 아니라 이들 서로의 관계는 다만 특별한 성격이다」고 말함으로써 동(東)·서독(西獨)은 외국이 아닌 특별관계임을 밝혔다.

이러한 서독의 사실상의 동독승인은 동·서독관계 정상화와 이로 인한 교류, 협력의 증대를 가져오게 한 동인(動因)으로 작용하였다. 서독은 분단상태를 해소하는 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동독(東獨)과 활발한 접촉을 전개하여 긴장완화와 신뢰 및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한편 유럽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믿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동(東)·서독(西獨) 기본조약(基本條約) 제(第)7조(條)에 의하면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은 쌍방의 관계를 정상화함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문제를 조정한다. 쌍방은 본조약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리고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 과학, 기술, 교통, 법률, 체신, 보건, 문화, 체육, 환경정화 기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발전 증진시킬 용의가 있음을 선언한다」고 되어 있다.

3. 동(東)·서독(西獨)의 교류현황(交流現況)

동(東)·서독(西獨)은 1972년 12월, 기본조약(基本條約)을 체결한 후 1983년 12월 말까지, 상호교류 협력에 관해 약 13개에 달하는 협정(協定)이나 의정서(議定書)를 체결 또는 조인하였다.

그리하여 동(東)·서독(西獨)은 이러한 정부차원의 협정에 기초해서 교역, 왕래, 행정 및 사법상의 협조, 학술, 체육, 문화교류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같이 동(東)·서독(西獨)은 비록 국토가 분단되어 있을지라도 인적(人的), 물질(物的), 문화적(文化的)인 각종 교류를 증대시켜 왔으며 이는 민족의 이질화를 방지하고 외적(外的) 변화가 독일에 유리할 때에는 평화적으로 통일(統一)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내독관계성(內獨關係省) 빈델 렌 장관(長官)의 말과 같이 “동독국민(東獨國民)들이 서독국민(西獨國民)들과 같이 자유(自由)를 향유할 수 있을 때 통일(統一)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분단국의 분단해결책은 당장 단일 민족국가(民族國家)를 형성하기 보다는 분단(分斷)된 양편의 국민(國民)들이 동일한 자유(自由)와 존엄성, 권위를 인정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통일(統一)의 첫단계가 된다.”는 말 속에는 바로 그들의 통독정책(統獨政策)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인적 교류

동·서독은 4대국(大國)의 명령(1946. 10. 29. 명령 63호)에 따라 분단된 동(東)·서독간(西獨

間)의 교통왕래가 베르린 봉쇄기간(封鎖期間)(1948. 7. 18~1949. 5. 12)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다.

그후 동독(東獨)은 「연금생활자(年金生活者)의 서독방문허용(西獨訪問許可)(1964. 9. 9)을 법령(法令)으로 공포(公布)하면서 노동력이 없는 노인들의 서독방문(西獨訪問)을 허용(許可)함으로써 다시 제한(制限)된 인적교류(人的交流)가 시작되었다.

1972년(年) 5월(月) 26일(日)에 체결된 「동행협정(通行協定)」에 의하여 자유로운 교통왕래(交通往來)가 이루어짐으로써 인적교류(人的交流)는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1) 동독주민(東獨住民)의 서독방문(西獨訪問)

동독주민이 서독을 방문할 때는 통행료(通行料)를 받지 않고 아무런 제한(制限)없이 방문(訪問)하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방문기간은 30일(日)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친척(親戚)의 결혼, 장례식 등 애경사(哀慶事)에는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중요한 가족행사(家族行事) 참석을 위한 여행편의규정(旅行便宜規定)」을 만들어 방문기회(訪問機會)를 확대시켰다.

(2) 서독주민(西獨住民)의 동독방문(東獨訪問)

<표(表) 1> 동독(東獨)주민의 서독(西獨)·서베를린 방문자 현황(現況) (1984. 5 현재)

년도(年度)	연금생활자(年金生活者) 서독(西獨) 및 서베를린 방문자(訪問者)	기타동독주민(其他東獨住民) 서독방문자(西獨訪問者) 서베를린 제외(除外)	비 고(備考)
1979	1,369,288	41,474	
1980	1,554,764	40,455	
1981	1,563,961	36,667	
1982	1,553,873	45,790	
1983	1,462,949	64,025	
1984	637,608	22,345	1~5월(月)까지 통계(統計)

서독주민은 년간(年間) 30일간(日間)의 동독방문이 동독정부에 의하여 허용된다. 동독의 허가만 얻으면 방문목적, 방문지역에 따라 동독 지역을 여행할 수 있고, 가족 친척을 자유롭게 상봉할 수 있다. 서베를린시민(市民)의 동독 방문은 1일체제 비자(VISA) 를 얻어 당일 아침 6시부터 24시까지 방문할 수 있다.

그밖에 상업, 문화, 체육, 종교 등의 행사로 동독정부(東獨政府)의 초청이 있을 때는 제한없이 방문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자 발급시(發給時) 수수료(5DM)와 통행료(通行料)(방문거리에 따라), 방문 일수에 따른 강제환금(強制換金)(1H 25DM)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동(東)·서독(西獨)의 인적교류(人的交流)는 단순한 상호방문(相互訪問)에 그치지 않고 이주(移住)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민(移民)에 관한 기본협정(基本協定)」에 따라 매년 4천명에서

1만 2천명까지 이주(移住)가 합법적(合法的)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1983년(年)에 8천명이 이주(移住)해 왔고, 1984년(年)에는 1월에서 5월까지 2만5천명의 이주자(移住者)가 왔다. 이들은 모두 이산가족이 아닌 단순한 이주자(移住者)도 많았다.

동독이 서독이주를 허용(許可)하는 속사정은 인도적(人道的) 요청(要請)이라는 대의명분(大義名分)을 과시하여 선전효과(宣傳效果)를 얻으면서 동독내(東獨內)의 불평불만이 많은 불순세력(不純勢力)을 제거하여 일거양득(一舉兩得)의 효과(效果)를 거두는 동시에 「교육비반환(教育費返還)에 의한 외화획득(外貨獲得), 경제적 도움이라는 실리추구(實利追求)의 목적(目的)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表) 2> 서독(西獨)주민의 동독(東獨)·(제3국)방문 및 서베를린 교통왕래현황(육로)

년도(年度)	서독주민(西獨住民) 동독방문(東獨訪問)	서베를린 교통왕래 현황(육로)	비 고(備考)
1979	2,923,212	18,577,060	
1980	2,746,273	19,409,605	
1981	2,088,213	19,562,450	
1982	2,218,486	19,522,571	
1983	2,219,868	20,130,830	
1984	913,451	7,939,755	1~5월(月)까지 통계(統計)

나. 경제 교류(交流)

경제교류(經濟交流)분야에서는 1952년도에 3억마르크에 불과했던 양독(兩獨)교역량이 1980년도에는 그 30배인 약 90억마르크(45억 달러)까지 늘어났다. 이것은 서독의 연간 총 무역량의 약 2%, 동독 총 무역량의 10%에 달하는 것이다.

그후 1983년도에는 쌍방교역이 68억 6,000만달러로 전년대비 8%가 증가되었다. 더우기 서독은 동독주민의 생활개선과 민족동질성 유지에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해 동독(東獨)의 대서독(對西獨)태도를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인 통독기반(統獨基盤)을 다져나갈 목적으로 동독(東獨)에게 무이자(無利子) 차관(借款)을 제공하고 있다.

서독(西獨)은 「콜」 정부(政府)출범 이후 지난 '83년 7월, 10억 「마르크」(3억 5,000만달러) 규모의 대동독무이자(對東獨無利子) 신규차관(新規借款) 제공문제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교역면에서 아직도 동독측의 정치적 의도와 이에 따른 각종 통제조치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기는 하나 해마다 양적(量的)인 증가를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표(表) 3〉 내독교역(內交易) 중 물품교역 총액 <단위 1백만마르크>

연 도	서 독 수 입	서 독 수 출	총 액
1979	4,790.0	5,090.0	9,880.0
1980	5,578.0	5,293.0	10,871.0
1981	6,050.6	5,575.1	11,625.7
1982	6,639.3	6,382.3	13,021.6
1983	6,878.2	6,947.1	13,825.3
1984	7,732.4	6,403.1	14,135.4
1985. 1	646.2	585.8	1,232.0

다. 체육교류(體育交流)

양독(兩獨)간의 스포츠교류는 1955년 초의 서독(西獨)의 독일스포츠연맹과 동독(東獨)의 독일체조연맹 사이의 접촉으로 다른 부문의 교류보다도 활발하였다. 이 접촉으로 동(東)·서독(西獨)은 1956년의 멜번올림픽대회를 비롯하여 1960년의 로마올림픽대회, 1964년의 동경(東京)올림픽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였다. 단일팀의 국호(國號)는 독일(獨逸)(Germany)로 하였으며, 국가(國歌)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중 「아름다운 신(神)들의 불꽃」으로 하였고 국기(國旗)는 흑(黑)·주(朱)·황(黃)의 3색(色)에 올림픽 마크를 넣는 기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東)·서독(西獨)의 스포츠협력은 동독(東獨) 체육인이 대거 서독(西獨)으로 탈출하는 계기가 되어 단일팀 구성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쌍방지역을 오고가는 친선교환경기만을 지속시키고 있다.

1968년 서독(西獨)은 1972년에 열릴 예정인 「뮌헨올림픽대회(大會)」에 동독(東獨)의 참가(參加)를 허용(許容)하였고, 그 외에 서독(西獨)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國際大會)에 동독(東獨)의 참가(參加)는 물론 서독내(西獨內)에서 동독(東獨)의 국기계양(國旗掲揚)과 국가연주(國歌演奏)를 허용(許容)함으로써 동(東)·서독(西獨) 체육관계(體育關係)는 다시 정상적인 교류단계(交流段階)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4년(年) 「체육관계(體育關係) 규칙(規則)에 관한 의정서(議政書)」의 합의(合意)에 따라 체육교류(體育交流)는 한층 더 높은 단계(段階)로 향상되었다.

1982년 한해만 하더라도 쌍방 사이에 78건의 교환경기가 개최되었으며 여기에 800여명의 체육인들이 참가하였다.

라. 체신교류(遞信交流)

동(東)·서독(西獨)은 우편, 전화를 통한 체신교류를 계속 증진해 왔다.

1970년까지 수동식 전화가 34회선(回線)에 불과했으나 점차 증설되어 1984년 현재 장거리 직통전화회선이 1천 5백 17회선으로 연간통화 수가 2천 3백여만 통화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68년 「우편, 전화소통료 청산협정」에 따라 우편물의 교류도 활발하게 되었다.

동·서독은 상호간의 우편, 전화소통을 국외우편으로 취급하지 않기로 하고, 다시 「우편·전화협정(1976. 3. 30)」을 체결함으로써 국외수수료(國外手數料), 세관용내용설명서(稅關用內容說明書), 국제전신에 필요한 수속을 생략하도록 간소화시켜 편리하고 원활한 체신교류의 정상화(正常化) 방안(方案)을 마련하게 되었다.

서독(西獨)은 동독(東獨)에 대하여 매년 8천 5백만 DM의 체신요금을 지불했으며, 1983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2억 DM씩 체신요금을 지불하도록 새로운 협정(協定)을 맺었다.

마. 학술·문화교류(交流)

양독(兩獨)간의 학술, 문화 교류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독(東獨) 작가인 「하이더 뮐러」, 「페터 하크스」 등의 작품들이 서독(西獨)의 연극무대에서 상연되고 있다. 1979년 3월, 서독(西獨)에서 초빙해 온 동독(東獨)감독인 「하리 부크빗츠」는 바이마르 국립극장에서 뮐렌마투의 작품 「노부인의 방문」을 상연했는데, 이 공연실황이 동독(東獨)텔레비죤 방송에 의해 중계까지 된 적이 있다.

또 기본조약(基本條約)체결 이전부터 동독(東獨)의 연극단과 오케스트라가 정기적으로 서독(西獨)에서 초청공연을 가져왔다.

동독의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서독의 「본」을 비롯한 수개 도시에 와서 음악회를 연주하였고 역시 동독의 전통깊은 「토마너」 합창단은 서독 전역에 걸쳐 20회 이상의 공연을 하여 관중들의 관심과 갈채를 받았다.

또한 서독(西獨)의 「요헨 브라우더」 밴드단은 1977년 한 해에 19회에 걸친 동독(東獨) 순회 공연을 실시하여 동독(東獨)주민들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은 일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독(東獨)의 문예작품들이 서독(西獨)에서 출판허가를 받고 대량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동독(東獨)도 서독(西獨)의 현대문학에 대한 출판인가권을 획득하고 있다.

동독 내에서 서독문예작품의 발행부수는 그다지 많지는 않으나 동독인들의 강렬한 욕구때문에 삽시간에 매진된다.

양독(兩獨)학자들의 접촉빈도도 지난 수년간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동독(東獨)의 대학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서독(西獨)대학의 초청에 의해 세미나와 강연회 등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독(西獨)교수들이 동독대학에 초청을 받아 가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리 흔하지 않다. 또한 서독(西獨) 내의 학교나 기관이 동독에서 넘어 온 사람에 대한 성적표, 시험, 졸업, 자격증에 관한 서류를 동독(東獨)의 해당기관에 요청하면 송부해 주고 있다.

바. 기타 교류(其他 交流)

1983년 「문화협정(文化協定)」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문화(文化)·예술분야(藝術分野)는 보다 폭넓은 교류(交流)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인(言論人)의 교류(交流)는 현재 Bonn시(市)에 동독언론인 6명이 주재하고 있고, 반면 TV, 라디오 방송 등, 17개기관의 19명(名)의 특파원이 동독(東獨)에 파견되어 취재활동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예술공연, 음악감상회, 연극 발표회, 미술전시회 등, 수많은 문화(文化), 예술분야(藝術分野)의 각종(各種) 행사(行事)를 통한 교류(交流)를 실시하고 있다.

4. 맺음말(독일(獨逸)의 통일전망(統一展望))

동(東)·서독(西獨)의 통일논쟁(統一論爭)은 동서해빙(東西解氷)이라는 국제정치(國際政治)의 추세 속에서 「동(東)·서독(西獨) 기본조약(基本條約)」이 체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통일실현(統一實現)을 역사적(歷史的) 과제(課題)로 미루고, 분단(分斷)으로 인한 고통, 민족(民族)의 이질감(異質感)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교류(交流)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잠정적(暫定的)인 해결(解決)의 길을 모색해 가게 되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동(東)·서독(西獨)이 통일(統一)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독(西獨)은 전독일(全獨逸)을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를 토대로 한 통일(統一)을 실현하려는 것이 기본정책(基本政策)이기 때문에 동(東)·서독(西獨)은 서로 유리한 통일여건(統一與件)만 조성된다면 그 어느쪽도 독일(獨逸)의 통일성취(統一成就)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편다는 기본방침(基本方針)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東)·서독(西獨)은 통일(統一)에 대한 내외여건(內外與件)이 유리하게 성숙되면 다시 통일논의(統一論議)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이다.

서독(西獨)은 장기적인 통일정책(統一政策)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① 동(東)·서독(西獨) 국민(國民)이 하나의 독일민족(獨逸民族)이라는 귀속감정(歸屬感情)을 지속하도록 청소년(靑少年)의 민족교육(民族教育)에 힘쓴다.

② 증대(增大)되는 동독방문(東獨訪問)을 계기로 동독주민(東獨住民)에게 물질적(物質的) 도움을 주어 동포애(同胞愛)가 지속되도록 힘쓴다.

③ 동(東)·서독(西獨)의 긴장완화(緊張緩和)와 평화정착(平和定着)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④ 동구공산제국(東歐共產諸國)과의 유대(紐帶)를 긴밀히 하여 친선도모(親善圖謀)와 상호협력(相互協力)에 힘쓴다.

이와 같이 서독(西獨)은 동방정책(東方政策)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하여 동(東)·서방(西方) 구

주제국(歐洲諸國)들의 평화적(平和的) 주변환경을 조성한 바탕 위에서 독일통일(獨逸統一)에 대한 부정적 자세가 완화될 때 통일(統一)을 성취해 보겠다는 장기적(長期的) 구상(構想)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변정세에 못지 않게 국내적인 문제(問題)로서 국민(國民)들 사이에 신뢰회복(信賴回復)이 시급하고, 자기의 주변환경과 운영에 대하여 인식(認識)이 같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이해(利害)가 같다고 하는 운명공동체의식(運命共同体意識)의 공감대를 맺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국민적(國民的) 통합(統合)이라는 문제가 영토적(領土的) 통합(統合)에 선행(先行)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동(東)·서독(西獨)은 불편없는 상호교류(交流)와 협력(協力)으로서 신뢰회복(信賴回復)과 공존공영(共存共榮)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민족사(民族史)의 과제(課題)인 조국통일(祖國統一)을 성취시켜야 할 우리에게 남북대화(南北對話)와 교류증진(交流增進)의 난제(難題)를 목전(目前)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동(東)·서독(西獨)의 문제는 많은 상이점(相異點)이 있는 가운데 많은 공통점(共通點)도 있다는 사실(事實)에 유의하여 많은 교훈(教訓)과 참고적인 방식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완전무결 영공 수호

휘날리는 오륜 깃발



'86 아시안게임의 역사와 전망

소령 김 종 곤
<국군체육부대>



1. 아시안게임의 역사

1950년 6.25동란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을 당시 저멀리 인도의 뉴델리에서 제1회 아시안게임이 처음 시작되었다.

그후 한국은 1952년 7월 24일의 제2차 아시아경기연맹 평원회의에서 홍콩, 월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 1954년 3월 1일 제2회 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참가하게 되었다.

한국은 6.25동란 후 외화사정이 극히 어렵던 때여서 논란을 벌인 끝에 8개 경기종목 중 6개 종목(육상, 역도, 복싱, 레슬링, 축구, 농구)에만 81명을 출전시켰다.

그후 4년을 주기로 하여 아시아청년의 영원한 전진(Ever onward)을 표어로 내걸고 스포츠 외교인 아시아의 축제행사로 '86년 서울아시안게임까지 10회를 걸어오고 있다.

2. 한국의 첫출전과 그 에피소드

1954년 5월 2일 하오 2시, 불벌터위 속에서도 제2회 아시안게임의 주경기장인 필리핀 마닐라의 리잘메모리얼 스타디움에는 1만여명의 관중이 운집해 있었다. 1천 5백미터의 남자육상경기가 치러어질 예정이었다. 각국을 대표한 8명의 건각들이 스타트 라인에 다가섰다.

그중에는 한국의 최윤철, 배희조와 강력한 우승후보인 일본의 무로야도 끼어 있었다. 준비자세에 이어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를 신호로 이들은 일제히 내달았다. 선두주자는 뜻밖에도 배희조였다. 순식간에 20~30m 앞서 치달는 배희조를 보자 무로야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순간 그의 다리에도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최윤철은 무로야의 뒤에서 보조를 잃지 않고 뒤쫓고 있었다.

그러나 배희조는 잡힐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았다. 무로야는 더욱 스피드를 내기 시작했다. 400m트랙 한 바퀴 반을 돌아 600m지점쯤에서 무로야는 마침내 배희조를 따라잡았다. 관중들의 열화같은 박수갈채 속에 선두로 치달았다. 최윤철은 여전히 20~30m 뒤쳐져 그를 뒤쫓았다. 배희조는 두 바퀴째 돌면서 기권하고 말했다. 이제 레이스는 절반을 넘어섰다. 세 바퀴와 4분의 3을 돌아야 끝인하는 1천 5백m 중 두 바퀴반까지도 선두와 2위간에는 20~30m의 간격이 유지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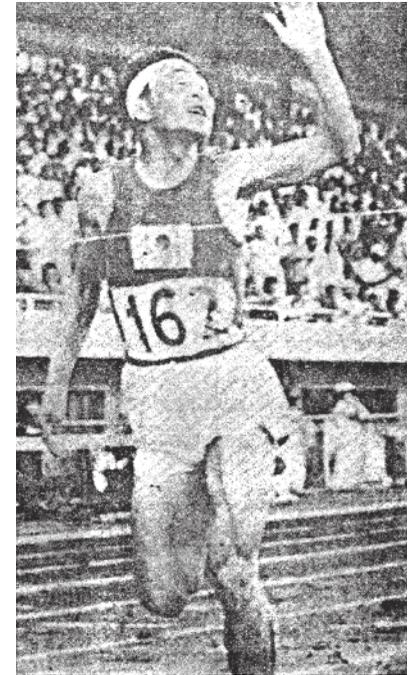
그러나 이때 무로야의 스피드가 급격히 떨어졌다. 배희조를 따라잡느라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한 그의 다리는 눈에 보일 정도로 힘이 빠져 있었다. 순간 최윤철의 발놀림이 빨라졌다. 세 바퀴를 돌아 커브를 접어들 때쯤 이미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무로야도 다시 스피드를 냈고 최윤철도 뒤질세라 힘껏 달렸다. 30초간 관중석은 열광의 도가니를 방불케 했다. 골인지점을 몇m 앞두고 최윤철이 조금 앞서기 시작했다. 드디어 골인, 최윤철이 간발의 차로 1위로 골인, 대회 첫출전에 첫금메달을 따낸 순간이었다. 이는 36년간의 식민지생활을 겪은 그에게 있어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일본선수를 꺾고 우승한 것은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일이었다.

한국은 제2회 아시안게임에 첫출전하여 금 8, 은 6, 동 5개로 종합 3위를 달성했다. 아시아에서 스포츠강국으로서 출발 청신호를 보여 주었다.

그후 한국은 아시안게임에서 일본, 중공과 함께 아시아의 스포츠강국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제10회 아시안게임을 우리 서울에서 거행하게 된 것이다.

3. '86서울아시아경기대회

서울아시안게임은 아시아인의 큰 잔치일 뿐 아니라 대회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9월 20일(토)부터 10월 5일(일)까지 16일 동안 열리는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는 경기 종목이 25개로



◆ 최윤철선수가 육상남자 1천5백m에서 우승, 마닐라하늘에 첫번째 태극기를 휘날렸다. 이를 신호로 한국은 금8, 은6, 동5로 첫출전에 종합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올렸다.

가장 많고 대회사상 가장 많은 35개국의 참가가 확실시 되고 있다. 참가대상국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가입된 36개 회원국에서 북한이 불참가능성이 높으므로 35개국이 될 전망이다.

1982년 뉴델리대회 때의 21개 경기종목에 태권도, 펜싱, 볼링, 유도 등 4개 종목이 늘어난 것이다. 초창기대회에는 육상, 수영, 테니스, 하키, 농구, 배구, 축구, 복싱, 레슬링, 역도와 동계종목이 포함되었으나 수차에 걸친 현장개정으로 동계종목이 삭제됐고 서울아시아올림픽평의회총회에서 오는 3월 삿포르(일본)에서 제1회동계아시안게임을 창설했다.

<표 1> 10회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수 및 한국의 획득희망 메달

경 기	종목별 금메달수					희망메달 수			
	남	여	오픈	혼성	계	금	은	동	계
육 상	23	19	0	0	42	3	8	13	24
수 영	18	16	0	0	34	1	3	8	12
양 궁	6	6	0	0	12	9	3	6	18
배드민턴	3	3	0	1	7	3	2	1	6
농 구	1	1	0	0	2	1	1	0	2
볼 링	6	6	0	0	12	3	4	2	9
복 싱	12	0	0	0	12	7	2	3	12
사 이 클	7	2	0	0	9	5	3	1	9
승 마	0	0	6	0	6	2	2	2	6
펜 싱	6	2	0	0	8	2	3	3	8
축 구	1	0	0	0	1	1	0	0	1
골 프	2	0	0	0	2	1	0	1	2
체 조	8	6	0	0	14	1	3	4	8
핸 드 볼	1	0	0	0	1	1	0	0	1
하 키	1	1	0	0	2	1	0	1	2
유 도	8	0	0	0	8	4	2	2	8
조 정	5	3	0	0	8	1	2	2	5
사 격	18	8	4	0	30	4	4	4	12
탁 구	3	3	0	1	7	0	2	2	4
태 권 도	8	0	0	0	8	8	0	0	8
테 니 스	3	3	0	1	7	4	2	2	8
배 구	1	1	0	0	2	1	1	1	2
역 도	10	0	0	0	10	2	2	2	6
레 슬 링	20	0	0	0	20	6	5	5	16
요 트	0	0	5	0	5	0	1	1	2
계	171	80	15	3	269	71	55	65	191

※ 오픈종목이란 남녀구별없이 출전하는 종목.
 ※ 혼성종목은 남녀가 짝이 되어 출전하는 종목.

이번 대회의 25개 경기종목은 서울과 경기일원(성남, 시흥, 광주, 고양, 수원, 용인) 및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32개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별도의 연습장도 58개가 사용된다.

서울아시안게임은 25개종목에 걸쳐 269개로 '82년 제9회 대회의 199개보다 70개가 늘어났으며 대회사상 가장 많은 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종목별로는 육상이 42개로 가장 많고 수영 34개, 사격 30개, 레슬링 20개, 체조 14개, 양궁, 볼링, 복싱이 12개순이다. 올림픽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단체종목 보다는 개인종목이 노다지다. 269개 경기를 성별로 나누면 남자종목이 171개, 여자종목이 8개, 남녀구별없는 오픈종목이 15개, 혼합종목이 3개로 되어 있다.

또한 서울아시안게임에 동원되는 운영요원은 기획, 관리에서 경기진행, 안내까지 6만 5천 1백 71명에 달하며, 이중 83%인 5만 4천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총당되어 선수와 임원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하도록 뒤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들 운영요원 중 개폐회식요원이 20,399명, 경기운영요원이 15,945명, 의무요원이 2,113명, 행정지원 및 기타요원이 26,704명이다. 자원봉사자들을 대회에 활용한 것은 '83년 에드먼턴유니버시아드대회와 '84년 LA올림픽에서 큰 효과를 보았으며, 우리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서울올림픽에도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는 우리민족의 협동과 애국심의 총정임을 알 수 있다. '86아시안게임의 선수단입장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군의 국가이름에 한글호칭을 확정하여 한글호칭의 가나다순에 따라 입장한다. 그리고 주최국인 한국은 맨마지막에 입장케 된다.

서울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3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대제전을 맞아 입장수입 확보와 최대관중의 참여유도를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

'86아시안게임의 예상관중과 종목별 인기도 순위는 도표 2와 같다.

4. 서울아시안게임의 전망

한국스포츠는 인기구기종목에서는 그런대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메달이 많이 걸린 육상, 수영 등 기본기록종목에서는 약한 허점을 보이고 있다.

오는 '86아시안게임 5개 기록경기에서 한국이 노리는 금메달은 모두 18개, 이중 양궁이 8개이다. 이들 5개 종목의 금메달 총수가 128개로 269개의 금메달 총수의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이 양궁을 제외한 다른 기록경기에서 얼마나 뒤져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서 이 5개 기록경기의 한국기록과 아시아 및 세계수준을 비교하여 '86아시안게임에서의 금메달수를 전망해 본다.

▲ 육상

한국이 '86아시안게임 육상에서 목표로 하는 메달수는 금3, 은8, 동13으로 이의 달성은 쉽지 않다.

한국이 '86육상에서 건질 수 있는 확실한 금메달은 장재근(해태타이거즈)의 200m 하나 뿐이다. 지난해 5월 전국중별선수권에서 아시아신기록(20초73)을 세워 한국육상에 청신호를 올렸던 장재근은 고오베유니버시아에서 값진 동메달(20초 78)을 차지하며 세계수준급의 선두로 도

〈표 2〉 ◇ '86아시안게임 예상관중수' ◇

종 목	관중석 규모	총판매가능 좌석수	예상관중 (무료석포함)	예상 유료 관중	인기도 순위	
육 상	69,967	314,852	72,557	37,574	6	
수 영	4,528	77,431	34,311	25,710	7	
양 궁	1,500	5,400	2,380	1,780	17	
배 드 민 턴	(13,662)	110,663	15,403	3,018	24	
체 조	13,662	49,184	20,564	15,198	4	
농 구	12,631	238,726	81,415	54,890	2	
볼 링	450	2,430	4,097	3,827	15	
복 싱	7,701	62,379	23,642	16,712	5	
사 이 클	5,975	26,888	4,848	1,861	20	
승 마	4,769	34,337	9,130	5,315	10	
펜 칭	7,094	73,846	10,183	3,089	22	
축 구	동대문	30,000	556,783	175,328	144,831	1
	잠 실	(69,967)				
	부 산	30,000		114,992	94,990	
	대 전	26,610		65,336	53,972	
	대 구	24,000				
광 주	24,000					
골 프	2,000	7,200	3,135	2,335	21	
핸 드 볼	5,145	37,044	9,251	5,135	14	
하 키	21,262	229,630	28,498	2,984	23	
유 도	4,216	15,178	18,996	17,301	13	
조 정	23,720	62,829	4,586	905	19	
사 격	2,284	14,390	4,238	2,640	18	
탁 구	5,728	41,242	13,148	8,566	9	
태 권 도	2,916	10,498	4,641	3,475	11	
테 니 스	15,889	171,602	34,836	15,770	8	
배 구	6,837	141,526	60,149	44,424	3	
역 도	3,312	29,808	7,307	3,995	25	
레 슬 링	4,410	31,752	11,310	7,782	16	
요 트	-	-	-	(무료)	12	
개 폐 회 식	(69,967)	101,256	139,934	111,256		
계	360,156	2,445,874	974,215	689,335		

※ 괄호안은 경기장 중복

약했다. 이어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다시 아시아신기록(20초 41)을 세우며 우승, 올해 대회에서 커다란 이변이 없는 한 200m의 금메달은 장재근의 것이라곤 걸 입증했다. 김종일(동아대)의 멀리 뛰기도 금메달을 기대할 수 있다. '82년 뉴델리대회에서 금메달(7m 94)을 잡았던 김종일은 자신의 최고기록 (7m 98)이 중공의 유옥황이 보유한 아시아기록(8m 14)에 16cm가 뒤져 있다.

세단뛰기의 박영준(한체대)은 금메달에 근접한 선수, 박선수는 작년 9월 아시아선수전에서 한국신기록(16m 35)을 세우며 중공의 텡홍신(16m 38)에게 3cm의 간발의 차로 금메달을 양보했었다.

▲ 수영

아시아수영강국을 노리는 중공의 세찬 물살이 한국과 수영강국 일본을 위협하고 있다. 34개의 금메달이 걸린 수영에서 우승을 겨냥하고 있는 중공은 최근 유럽에서 전지훈련을 가지며 각종대회에 출전, 놀라운 성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82년 뉴델리대회에서 금3, 은10, 동8개를 획득, 일본(금21, 은12, 동7)에 이어 종합 2위를 했던 중공은 서울아시안게임에서 수영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현상황에서 한국은 수영종목 총 금메달수 34개 중 금1, 은3, 동8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하나의 금메달조차 전망이 불투명하다.

한국이 금메달 후보로 내세운 남자점영 200m의 방준영은 제2회 아시아수영선수권대회 이종목에서 홍콩선수와 공동 금메달을 획득했으나 이때 방선수의 기록(2분 6초 28)은 한국신기록임에도 불구하고 '85년 일본랭킹 9위에나 해당할 뿐이다. 일본의 최고기록은 2분 2초 72였다. 뉴델리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에 오른 최윤희 여자선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시아대회 최고기록 3개(배영2, 개인혼영200m)를 갖고 있으나 이미 일본선수들은 최선수의 기록을 돌파했다.

▲ 양궁

한국이 국제대회에서 강세를 보여 온 양궁은 금메달숫자가 예전의 4개에서 이번 '86아시안 게임부터는 12개로 늘어나 문자 그대로 한국의 메달박스로 될 전망이다. 12개 부문 중 한국의 양궁대표팀은 8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서 한국은 남녀단체전은 석권했으나 남녀개인전은 은메달에 머무르고 말았다. 남자개인전은 일본에, 여자개인전은 북한에 넘어갔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기록은 아시아, 오세아니아주기록을 모두 능가하는데다 홈코트의 잇점이 작용하기 때문에 호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짙다.

▲ 사격

사격은 30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황금어장이나, 한국은 4개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을 정도로 아시아 각국의 사격수준은 뛰어나다. 지난 '82뉴델리대회에서 한국은 11개의 금메달 중

급3, 은3, 동5개를 따내 그런대로 체면을 유지했었으나, '86년아시안게임에서는 공기총종목이 대폭등장해 남자부문에서 18개, 여자부문에서 8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축전을 벌일 것이 예상된다.

▲ 역도

토틀기록을 비교할 때 체급마다 대략 30~85kg의 엄청난 수준차를 보이고 있다. 경량급에서 중량급으로 갈수록 편차는 더욱 벌어진다. 가장 근접한 것이 52kg급으로 전병관의 한국최고기록(232.5kg)이 30kg차로 불가리아의 테르지스키 (23세)가 보유한 세계최고기록(262.5kg)에 접근하고 있어 아직 17세인 어린 전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중량급(110kg 이상급)에서 한국최고기록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이민우는 이란선수 테이무리가 보유한 아시아최고기록에 인상은 15.5kg, 용상은 7.5kg 총계 25kg이 각각 뒤져 있다.

한국은 금메달박스인 기록 5경기에서 최소한 16개 이상을 확보하여야 체급경기인 태권도, 복싱, 유도에서 금메달을 휩쓸 경우 2위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이 중주국으로서 세계정상인 만큼 8체급 전체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는 최대 절호의 메달박스종목이다.

▲ 복싱 및 유도

12개의 금이 걸려 있는 복싱은 7 개의 금메달을 예상하고, 유도는 일본의 강세를 누르고 있는 현실판으로 보아서 8개의 메달 중 4개의 금메달의 제패는 무난하다고 본다.

▲ 체조

14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 체조는 중공이 남녀에, 일본이 남자종목에서 세계정상급으로서 우리로서는 남자마루운동부문에서 한층식만 금 1개를 바라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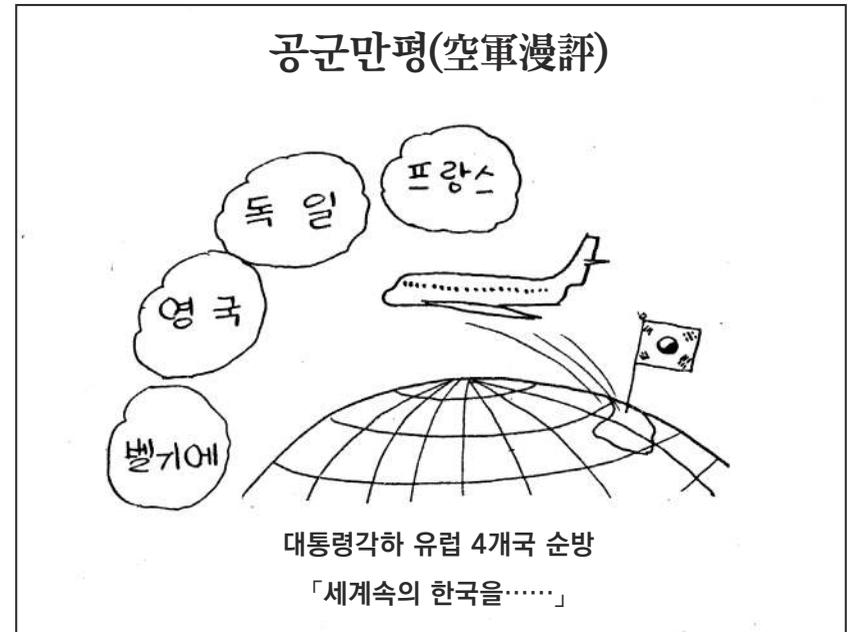
▲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는 중공에 밀려 금메달획득이 곤란하고, 테니스는 7개 전종목에서 금메달 획득을 목표하고 있으며, 배드민턴은 남녀복식, 혼합복식 및 남자단체전에서 금메달획득이 기대된다.

▲ 구기종목

구기종목에서 금메달이 예상되는 것은 축구, 여자농구, 남자배구, 여자하키 등이며, 은메달이 기대되는 것은 남자농구, 여자배구 등이다.

▲ 기타 종목



펜싱은 남자에빠개인과 단체전의 금메달이, 조정에서는 남자의 무타페어, 승마는 장애물비월의 개인과 종합에서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요트는 메달전망이 흐리며, 골프는 개인전이든 단체전에서 1개의 금이, 볼링에서는 3개 정도의 금메달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9회뉴델리아시안게임 때 획득한 금메달 28개의 2.5 배수인 71개의 금메달획득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는 태권도가 새로운 경기로 채택되고, 유도 및 양궁의 급성장, 전통적인 복싱과 배드민턴, 사이클, 하키, 테니스가 눈부신 비약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종전에 초강대국으로서 자랑해 오던 육상과 수영이 중공에 밀리고 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중공이 전 종목에 걸쳐서 비약적인 스포츠강세로 한국은 중공에 이어 일본을 제치고 종합 2위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홈그라운드인 잇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86서울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달성함으로써 아시아 스포츠파도의 새로운 장을 열어 다가오는 '88서울올림픽대회의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마련하리라 전망된다.



국민정신 교육(國民精神 教育) 9대덕목(9大德目)

한국인(韓國人)의 도덕심(道德心)

- 선비정신을 중심으로 -

- 목 차 -

I. 머리말

II. 선비정신의 기본덕목

1. 충의(忠義)
2. 효(孝)
3. 성(誠)
4. 경(敬)
5. 신(信)
6. 공(公)

III. 맺는 글

소령 이 남 진
(공본 정훈감실)

I. 머리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오랜 역사를 전개해 오면 거기에는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원동력은 그 민족의 특징적인 문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슬기롭게 시련을 극복하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은 오천년에 가까운 오랜 역사를 영위해 오면서 숭한 격변을 겪으면서도 독자적인 민족 문화를 형성하여 왔으며, 커다란 외침(外侵)도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하여 왔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하여 가장 큰 역할을 하여 온 원

동력은 “선비정신”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기에 “선비는 나라의 원기(元氣)”(사국지원기(土國之元氣))라고 하였으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선비는 역사를 이끌어 온 중요한 존재임이 틀림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선비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선비들에게 강조되었던 덕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선비정신의 기본덕목

1. 충의(忠義)

충의(忠義)란 나라와 대의(大義)를 위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정신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외침(外侵)을 받아 왔으나 그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 외적을 물리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임진왜란과 구한말에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들이 대부분 선비들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라도 삼례(參禮)역에 나붙은 의병격문에는,

임금이 옥을 보면 신하가 죽는 것이 의리이니 충의를 다하여 목숨을 바칠 날을 당한 것이다……. 무릇 충군애국(忠君愛國)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달 27일까지 삼례역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쏟아지는 눈물을 닦으며 동향 동지들에게 거듭 고한다. 우리들이 평소 배운 것이 무엇이며 강론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신하로서 충(忠)에 죽고 자(子)로서 효(孝)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여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병에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또한 구한말 유림(儒林)의 태두(泰斗)였던 면암(勉庵) 최익현(崔益鉉)(1833~1906)은 이른바 을사보호조약(1905)으로 주권이 상실되자 전국의 선비들에게 격문(檄文)을 보내어 거의(義)의 뜻을 천명한 뒤 의병을 일으켜 일제에 대항하였다. 그가 일제에 붙잡혀 대마도에 유배된 후 일인(日人)들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끝내 굶어죽은 것은 선비의 충의정신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예인 것이다. 최익현(崔益鉉) 외에도 유인석(柳麟錫)·이은찬(李殷贊)·이강년(李康年)·허위(許蕤) 등 많은 의병장들이 자기 일신상의 일은 잊고 오직 나라의 위태로움만을 걱정하여 의(義)로운 순국의 길을 걸었다.

그래서 박은식(朴殷植)은 「독립운동지혈사(獨立運動之血史)」에서 “의병(義兵)은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이다”라고 하였다.

이들 의병의 거의를 주도한 인물들이 선비였고 이 선비들이 지닌 충의(忠義)의 정신이 난국을 극복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니 “선비는 곧 우리 민족의 국수(國粹)”인 것이다.

또한 일찌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비를 죽일 수는 있지만 그들을 욕되게 할 수는 없다”(사가살(士可殺) 부가욕(不可辱))고 하였다. 이 말은 선비들의 의리(義理)·지조(志操)·청백의식(淸

白意識)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비들은 항상 선비로서의 전형(典型)을 다 갖추고 몸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죽음 앞에서도 떳떳하게 대의(大義)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가 있었다. 그것은 이해를 돌보지 않고 자신의 소신에 따라 죽음도 불사한다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

사화(士禍)가 한창일 때 연산군은 수 많은 선비들에게 사약을 내리고 사람을 시켜 어떻게 죽 더냐고 살피게 한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선비들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사약을 마시고 죽어 갔다.

이와같이 나라와 대의를 위하여 “살신성인(殺身成仁)”하는 선비의 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온 으뜸가는 정신이라 하겠다.

2. 효(孝)

우리나라 미풍양속의 하나이며 교육적 전통의 하나는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다. 물론 조상을 숭배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 우리나라 만이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효(孝)의 정신이 더욱 가꾸어지고 다듬어져 하나의 생활방식으로서 행하여져 왔다.

신라의 “국학”에서는 「논어(論語)와 「효경(孝經)」이 필수과목으로서 선비의 덕행과 지식을 쌓는 입문서였고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 속에 내재되어 가정도덕규범으로 발전되었다.

그렇기에 율곡(栗谷) 이이(李珥)(1536~1584)는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선비가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백행(百行)이 있어도 효(孝)와 제(梯)가 본이 되며 죄가 삼천이 있어도 불효가 가장 큰 죄이니, 어버이를 섬기는 자는 반드시 거(居)에 경(敬)하여 순순히 받아들이는 예를 다하고, 양(養)에는 구체(口体)의 봉(奉)을 다하고, 병에는 근심하여 의약의 방을 다하고, 길으로는 슬퍼하여 신중(慎終)의 예를 다하고, 제사에는 엄하여 추원(追遠)(조상의 덕을 추모하여 제사지 낸다는 외에 : 필자주(註)의 성(誠)을 다 하여야 한다. 온정, 정성(定省)과 출고(出告)하는 반면에 하나도 성현의 가르침을 좇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고, 만일 부모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정성을 다하여 웃으면서 아뢰고 점점 도리로서 말하며, 안으로 내 몸을 돌아보아 행실에 불비한 것이 없고 시중에 덕을 온전히 하여 소생에 욕됨이 없는 연후에 능히 사친(事親)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효(孝)는 선비의 모든 행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으며 근본이 되는 것이었다. 물론 효(孝)가 반드시 선비에게만 중요시된 것은 아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 임금 역시 마찬가지로 효(孝)를 행함에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조 초기의 학자였던 양촌(陽村) 권근(權近)(1352~1409)은 태종에게 올린 글(수창궁재상서(壽昌宮災上書))가운데 그 옛날 순(舜)임금의 지극한 효성을 본받아야 한다면서 군왕으로서 수양할 바 그 첫째가 독성효(篤

誠孝)라고 하였다.

이처럼 효(孝)는 선비에게 있어서 행동의 근본이 되는 것이었고, 또한 선비는 일반 백성은 물론 임금에게까지도 효(孝)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당위적인 생활규범이 되게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3. 성(誠)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자녀들에게 참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왔다. 그래서 율곡도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뜻에 성(誠)이 없으면 서지 못하는 것이요, 이(理)에 성(誠)이 없으면 능히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정성을 다 해야 비로소 뜻도 서게 되고 진리도 깨닫게 되며 기질에 변화도 가져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만큼 성(誠)은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이다.

그래서 「대학(大學)」에서는 성(誠)에 대하여 “성(誠)이라는 것은 하늘의 도(道)요, 성(誠)이 되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道)이다” (성자(誠者) 천지도(天之道), 성지자(誠之者) 인지도(人之道))라고 하였다. 사람이 뜻을 세워 그 뜻을 이루려면 선참(성실)되어야 하며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인 것이다. 율곡은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선비가 먼저 참되지기 위한 몸가짐을 갖는 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작성(作聖)할 뜻을 세우면 반드시 구습을 벗어버리고 한결같이 향학에 뜻을 두라. 신행(身行)을 단속하여 평상시에 일찍 일어나고, 의관을 반드시 바르고 단정하게 하며, 용모를 반드시 점잖게 하며, 시청(視聽)을 반드시 단정히 하며, 거처를 반드시 공손히 하며, 보립(步立)을 반드시 바르게 하며, 음식은 반드시 절조있게 하며, 사자(寫字)를 반드시 공경히 하며, 책상을 반드시 바르게 정돈하며, 방안을 반드시 깨끗이 하라. 항상 구용(九容)으로 몸을 가져야 할 것이니, 족용(足容)은 무겁게, 수용(手容)은 공손히, 목용(目容)은 단정히, 구용(口容)은 가만히, 성용(聲容)은 고요히, 두용(頭容)은 깨끗이, 기용(氣容)은 점잖게, 입용(立容)은 덕스럽게, 색용(色容)은 씩씩하게 하며, 예(禮)가 아니거든 보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듣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거든 동(動)하지 말라. 이른바 비례(非禮)란 것은 조금이라도 천리(天理)에 어긋나면 곧 비례가 되는 것이니 대강들여 말하자면 창우(倡優)(광대 : 필자주(註)의 부정한 빛과 속악(俗樂)의 음비한 소리와 더럽고 교만한 희롱과 유련(流連)하고 황망(慌忙)한 놀이를 더욱 근절해야 한다.

이처럼 참된 사람이 되는 방법으로서 선비의 몸가짐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옛날 우리나라 선비들의 흐트러짐이 없는 자제와 대쪽같은 기개도 이러한 교육의 결과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성(誠)의 덕목은 선비정신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이다.

4. 경(敬)

경(敬)이란 예(禮)를 숭상하고 남을 존중하는 덕목이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컫어져왔다. 우리나라 문화계 가운데 국보 제1호인 남대문의 현판에는 “송례문(崇禮門)”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예의를 숭상하라는 가르침도 되는 동시에 승례가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임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하겠다.

성리학(性理學)에서는 거경궁리(居敬窮理)가 강조되었다. 이는 항상 자기 수양에 힘쓰고 진리를 궁구하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경(敬)이란 자기자신을 수양하는데 있어 준엄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교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퇴계(退溪) 이황(李滉)(1501~1570)은 자기수양에 엄격했음은 물론 남을 존중하고 젊은 후진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바르게 평가하고 또 존중하는 매우 중요한 경(敬)의 경지를 보여주었다. 퇴계보다 35세나 아래인 23세의 율곡이 퇴계를 예방했을 때 퇴계는 율곡의 비범한 인품을 알아보고 “옛 성인이 말하기를 후생(後生)이 가외(可畏)라 하였는데 참말 그렇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퇴계의 경(敬)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다.

또한 율곡은 선비의 경(敬)하는 자세에 대하여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진덕(進德)하고 수업하는 것은 오직 독경(篤敬)에 있으니 경(敬)에 두렵지 못하면 다만 공언(空言)일 뿐이다. 모름지기 겉과 속이 여일하여 조금도 간단이 없고, 언어에는 교양이 있고, 행동에는 법이 있으며, 낮에는 하는 것이 있고, 밤에는 얻는 것이 있어야 하고, 일순에도 존(存)이 있고, 일식에도 양(養)이 있어야 한다. 용공(用功)이 비록 오랜지라도 효과 있기를 구하지 말고 오직 날마다 꾸준히 부지런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이것을 힘쓰지 않고 다만 번박한 설화로 몸을 문채(文彩)내는 장식만 삼는 자는 선비의 적(賊)이다. 어찌 두렵지 않으랴.

이처럼 선비는 예를 숭상하고 남을 존중하며 자기 수양에 힘쓰는 경(敬)의 사람이 될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5. 신(信)

대쪽같은 선비의 절개라는 말도 있듯이 옛부터 선비의 절개란 목숨과도 바꿀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여말 선초에 정몽주 같은 본 선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도 끝끝내 불사이군(不事二君)하여 고려조에 대한 절의(節義)를 지킨 목은 이색(季穰 : 1328~1396)이라든가 야은 길재(吉再 : 1353~1419) 같은 선비의 절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이성계의 조선건국에 참여함으로써 절의면에서 흠이 있다고 평가되는 권근(權近)은 기회있을 때 마다 절의를 강조한 것이 주목된다. 그는 아들에게 “신(信)한 즉 망녕되지 않으며 성의를 가지고 그 뜻을 굳게 지켜 스스로 변경하지 말라”고 가르쳤던 것이다. 그는 또 태종

에게 올린 글 가운데서 여섯가지 중 두 가지는 “포절의(褒節義)와 “행여제(行厲祭)”로서 그 중심되는 덕목은 신(信)에 관한 것이었다. 즉 절의있는 사람을 포상해야 된다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고려조를 위해서 끝끝내 절의를 굽히지 않았던 정몽주와 김약항(金若恒)의 경우를 들기도 하였다. 또 위령제를 거행하여 나라를 위해 몸바친 영령들을 추도하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신(信)이란 사람 인(人) 번에 말씀 언(言)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말이란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야 신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은 말을 삼가하라고 가르쳐 왔다. 언행(言行)에 대하여 율곡은 「학교모범(學校模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가 유행(儒行)에 힘쓰려면 모름지기 언행을 삼가야 한다. 사람의 허물은 대개 말로써 되는 것이니 말은 반드시 충신(忠信)하여서 반드시 할 때만 하고, 허락을 중히 하고, 목소리를 엄숙히 하고, 농담을 하지 말고, 싸움을 말며, 문자나 의리에 유익된 이야기만 하며, 거칠고 잡된 말이나 시정비리의 말 같은 것은 입에 내어서는 안 된다. 친구를 부추겨 공담(空談)으로 날을 보내고 시정(時政)이나 논하고 남위 장단이나 비교하는 것은 일에 해를 끼치는 것이니 마땅히 경계하라.

고 선비들에게 훈계하였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선비에게 절개와 지조를 중히 여겼던 것이다.

6. 공(公)

공(公)이란 사사로움이 없고 공평무사함을 뜻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예부터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이는 합리적인 교육의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책임기를 권면하여 집집마다 큰 소리로 책임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고 이를 자랑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세계에 으뜸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왕성한 교육열은 선공후사(先公後私)의 마음, 숭문사상, 그리고 사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심성을 키우는데 이바지하였다.

율곡은 선비의 독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비는 항상 마음을 존(存)하여 사물의 이기는 바가 되지않게 하고 모름지기 이치를 궁구하여 선(善)을 밝힌 연후에야 당연히 행할 길이 분명히 앞에 나타나서 가히 진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道)에 들어가는 이치를 궁구하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고 궁구하는데는 글을 읽는 것보다 먼저할 것이 없으니 성현의 용감하신 자취와 선(善)의 본받을 만한 것과 악(惡)의 경계할 만한 것들이 다 글에 있기 때문이다. 무릇 독서하는 이는 반드시 단공(端拱)하고 바로 앉아서 공경히 책을 대하여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뜻을 극진히하여 정확하게 생각하고 익숙히 연구



하여 의취(義趣)를 깊이 이해하되 구절마다 반드시 실천할 방법을 구할 것이다. 만일 입으로만 읽고 마음으로 체득하지 못하여 몸으로 행하지 못하면 글은 글이요, 나는 내가 되고 말 것이니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먼저 소학(小學)을 읽어서 부모를 섬김과 형을 공경함과 스승을 높임과 벗을 친하는 도리에 일일이 자세하게 음미하여 힘써 행해야 할 것이다. 무릇 독서는 반드시 한 책을 숙독(熟讀)하여 뜻을 다 알고 관통하여 의심이 없는 연후에야 다른 책을 읽을 것이며 많이 읽기를 힘써 바쁘게 넘기지 말라.

이처럼 선비에게 있어서 독서는 책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수양의 길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천리(天理)가 무엇인지 밝히려 하였고 잠시도 천리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힘썼던 것이다. 권근(權近)이 그의 아들에게 “공(公)하여 사(私)가 없고 마음이 밝고 욕심이 없으며 일이 지당하게 나오게 되니 이것이 이른바 정직이다”라고 한 것 역시 공(公)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III. 맺는 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은 그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이 있는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온 원동력은 “선비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비정신이 형성되는데는 선비에게 여러가지가 강조되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는 여섯가지 덕목 즉, 충의(忠義), 효(孝), 성(誠), 경(敬), 신(信), 공(公)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덕목이 묘합(妙合)을 이루면서 육화(肉化)되어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신명(身命)을 바쳐 난국을 극복하고, 대의(大義)를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는 대쪽같은 기개의 선비정신을 형성하였고, 동시에 우리의 특징적인 민족문화를 형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선비정신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추구한 이상적인 인간정신이었고 또한 역사를 통하여 전개되었던 구체적인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하겠다.



미주(美洲) 한인(韓人)들의 독립운동(獨立運動)과 독립군(獨立軍) 양성(養成)

- 목 차 -

- I. 서언(序言)
- II. 대한인(大韓人) 국민회(國民會)와 그 활약상(活躍相)
- III. 흥사단(興士團)과 동맹수련운동(同盟修鍊運動)
- IV. 미주(美洲)의 군인양성운동(軍人養成運動)
- V. 부인회(婦人會)의 독립후원(獨立後援)

중위 임 중 은
(제5315부대)

I. 머리말

조국(祖國)이 일제(日帝)로부터 광복(光復)을 되찾은지 어언 40여년이 지났지만, 해방(解放)은 연합국(聯合國) 승리(勝利)의 산물(產物)인 것처럼만 여기고, 기실 역사(歷史)의 음지(陰地)에서 독립(獨立)을 위해 헌신(献身)했던 선열(先烈)들의 활동(活動)은 아직껏 잘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감이 있다.

특히 국내(國內)나 만주(滿洲), 중국(中國)에서의 활동(活動)보다는 미주(美洲)에서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이 그 활약상에 비해 자료나 기록이 빈약한 편이다.

그러나 미주(美洲)에서 풍습(風習)과 언어(言語), 사고방식(思考方式)이 워낙 다른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은 다음에서 소개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대한인(大韓人) 국민회(國民會), 흥사단(興士團), 부인회(婦人會) 등의 각종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不拘),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더우기 항일운동사(抗日運動史)에 특기(特記)할 만한 사실은 하와이, 미국 서부

등에서는 군인양성(軍人養成)에서 힘썼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미주(美洲)의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소개함으로써 당시 의사(義士)들의 굳건한 기상과 협동정신(協同精神), 조직력 등을 배우기에 충분한 것이라 본다.

II. 대한인(大韓人) 국민회(國民會)와 그 활약상(活躍相)

1908년(年) 3월(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인환(張仁煥), 전명운(田明雲)에 의한 스티븐즈 저격사건이 일어나고, 그들이 현지 미국정부와 언론기관의 우호적인 대우를 받게 되자 미주에 살고 있던 교포들의 항일 의식은 크게 고무되었다.

이에 박용만(朴容萬), 이승만(李承晩), 윤병구(尹炳求) 등은 그 해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콜로라도주 덴버시(市)에서 애국동지 대표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마침 그곳에서 열리는 미국 민주당(民主黨) 대회(大會)와 때를 같이 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음모를 규탄하고 한국의 자주독립을 민주당 지도자들에게 호소하여 미국 정계(政界)의 관심과 동정을 얻으려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아울러 해외 각지의 한국인 단체(團體)를 규합하여 조국의 독립 옹호에 일치단결하여 행동통일을 기하자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대회를 계기로 범미주항일단체(汎美洲抗日團體) 결성의 기운이 크게 고조되어 마침내 1909년 2월 1일 국민회(國民會)가 탄생되었다.

그리하여 국민회(國民會)는 「교육(教育)과 실업(實業)을 진흥(振興)하여 자유, 평등을 제창하며, 동포의 영예를 증진하고, 조국의 독립을 회복함」이라는 목적 아래 미본토에 북미지방 총회를 두어 각 지방회를 통할하게 하고, 해외 한인들을 망라하려고 했다.

1909년 4월에는 북미지방 총회에서 황사용과 방화중을 특파하여 멕시코지방 총회를 설립하고, 5월에는 미주와 하와이지방 총회의 공동결의로서 정재관, 이강 등이 만주(滿洲)를 순행(巡行)하고 이상설은 러시아 쪽을 순방하면서 독립운동을 촉진했다. 또 국민회는 ‘신한민보(新韓民報)’와 ‘신한국보(新韓國報)’ 등의 기관지도 발간하였다.

1910년 이 나라의 주권(主權)이 일제(日帝)에 짓밟히자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는 한·일 합방(合邦)을 부인하고 민족의 독립을 선언하는 공동대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 연합통신으로 발표하였다.

1. 우리는 만고(萬古)의 치욕적 일(日)·한(韓) 병합을 부인하며 그에 관한 왜적의 일절행사(一切行事)를 배척함.
2. 우리는 대한민족(大韓民族)이요, 왜적의 부속민이 되지 않을 것을 맹서하며, 소위 「일·한 합방(日·韓合邦)」은 우리 민족의 의사로 된 것이 아니고 왜적의 위협적 위조(僞造)인 것임.
3. 우리는 한국(韓國)의 국호(國號)와 국기(國旗)를 보장하며 왜적을 축출할 때까지는 8월 29일을 국치일(國恥日)로 기념하여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새롭게 함.

4. 한국과의 조약상 의무가 있는 각국 정부에 공첩(公牒)을 보내서 한·일합병 부인(否認)의 이유와 일본이 우리의 원수인 사실과 국제상 관계가 있을 경우에 대한인 국민회가 재미 한인을 대표할 것을 알게 하기로 함.

1911년에는 다시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해외 독립단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북미·하와이·만주·시베리아 등 4개 지방총회를 두었으며 멕시코와 쿠바에도 지방회를 두었다. 이후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는 망명자치정부(亡命自治政府)로서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조국 광복운동과 동포의 안녕보장을 확보하기에 힘썼으며, 재미동포가 이를 지지하였다. 중앙총회장은 안창호, 백일규, 윤병구 등이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에 있어 미주에서 중심체제의 역할을 다하였다. 1913년 6월 20일에는 회장 이대위(李大爲)의 이름으로 미국무장관 브라이언에게 「재미 한인을 일인과 같이 대우하지 말며, 한인에 관한 문제는 한인사회에 교섭하기 바란다」는 요청을 하여 긍정적인 회답을 받았다.

이와 같이 독립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게 한 다음 1914년 3월 5일에는 캐나다 정부의 관허장(官許狀)을 얻어 회원의 안녕을 보장하고 비영리적인 사업을 경영하도록 하였다. 그뿐 아니라 하와이지방총회는 1915년까지 자치규모가 확립되어 하와이 정부로부터 신용경찰권(信用警察權)을 위임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하였으며 경찰행정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용만(朴容萬)의 환영을 받으며 1913년 2월 7일 감리교 평신도 대표로 파견된 이승만이 하와이에 온 후부터 국민회 내부에서 파란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1918년 11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미 대통령 윌슨의 평화원칙이 발표되고, 프랑스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되자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는 미주·하와이·멕시코 등 각지에 연락하여 재미 한인 전체 대표회를 열고 광복운동 방침을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이승만, 정한경, 민찬호(閔瓚鎬)를 임명하였으나 출국허가를 얻지 못하여 끝내 참석하지 못하고 다음해 1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약소국(弱小國) 동맹회(同盟會)에 민찬호가 참석하였다.

그런데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승만은 「한국이 일본의 속박을 벗고 자유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한국이 완전한 정부를 설립하고 내치(內治)와 외교(外交)의 권리가 있을 때까지는 국제연맹위임통치(國際聯盟委任統治)에 붙어서 보호를 받게 해 달라」는 소위 위임통치 청원서를 강화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윌슨대통령에게 송달함으로써 독립운동계의 분열을 초래하였다.

그러던 중 1919년 3월 국내에서 3.1 운동이 전개되자 이 소식을 들은 대한인 국민회는 3월 15일 미주, 하와이, 멕시코 재류동포 전체 대표회를 개최하고 독립선언식을 거행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1915년 이래 국민회와 이승만 사이의 불화는 1919년 구미위원부(歐美委員部) 조직 이래 더욱 악화되어 끝내는 1921년 하와이지방 총회가 국민회에서 이탈하여 교민단(僑民團)으로 독립하는 불상사가 일어난다.

III. 흥사단(興士團)과 동맹수련운동(同盟修鍊運動)

흥사단(興士團)은 구한국 말엽부터 민족운동과 신문화운동을 전개하던 신민회(新民會)의 후신(後身)으로서, 1911년 9월 안창호(安昌浩)가 도미하여 하상옥, 정도원, 강영소 등과 더불어 동맹수련운동(同盟修鍊運動)을 시작함으로써 그 설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5월 13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장래 지반(地盤)을 국내로 결정하고, 흥사단을 설립하여 항일 투쟁의 장기적인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주요사업은 ① 동맹수련으로 영재(英才)를 배양하며, ② 그 정신에 적합한 이상촌(理想村)을 건설하여 민족의 생활모범이 되며, ③ 민성(民性) 혁신에 필요한 민중운동을 전개하여 장래 사업의 준비 역할을 기도하는 것 등이었다.

그리하여 1917년 1월부터 북미실업회사(北美實業會社)를 조직하고 주금(株金) 9만 5천달러를 모집,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사를 시작하였다.

흥사단 이사장에는 민찬호(閔瓚鎬), 의사장(議事長)에는 한승곤(韓承坤)이 선출되어 활약하였다.

1919년 5월, 안창호가 임시정부(臨時政府) 내무총장이 되어 상해(上海)로 가게 되자, 그는 상해에서도 흥사단 극동 임시위원부를 설치했는데, 특히 이광수(李光洙)는 흥사단을 과학적으로 조직화하여 명사(名士)와 장래성 있는 청년들을 다수 입단시켰다.

IV. 미주(美洲)의 군인양성운동(軍人養成運動)

하와이를 비롯한 미국 서부연안과 멕시코에 이주하고 있던 한인들은 항일 운동사에 특기할 만한 활동을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주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은 1883년 5월 19일 한·미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뒤부터이다. 그 해 7월 주미대사 민영익(閔泳翊)이 최초로 도미하였고, 그 후 공사(公使) 박정양(朴定陽)을 비롯하여 갑신정변(甲申政變)의 망명객 서광범(徐光範), 박영효(朴泳孝), 서재필(徐載弼) 등과 유학생 유길준(兪吉濬), 윤치호(尹致昊), 김규식(金奎植), 이강(李剛) 등이 건너갔다.

그러나 정식 이민(移民)이 건너간 것은 1902년 11월 20일 제정 공포된 수민원관제(綏民院官制)에 의해 그해 12월 제1차 하와이 이민 1백 1명이 한국을 떠나 이듬해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한 때부터라고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하와이 이민은 1903년부터 1905년까지 도합 7천 2백 26명이 66차에 걸쳐 하와이에 정착하였으나, 그들의 대부분은 토지를 잃고 나라를 등진 영세 농민들이었다.

그러나 하와이 이민과 때를 같이 하여 윤병구(尹炳求), 안창호(安昌浩), 정한경(鄭翰景), 이승만(李承晩), 박용만(朴容萬) 등이 건너가 하와이와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애국적인 문화

사회운동을 전개하여 한인 교포의 단결과 문화,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이들은 강력한 항일 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해서는 많은 군사훈련 단체가 생겨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사관생도를 양성, 독립 항쟁에 크게 공헌하였다. 미국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 군사훈련이란 결코 용이하지 않은 문제이며, 많은 난관이 따랐으나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미국 시민의 동정과 미국 정계(政界) 및 종교계 등에서 많은 협조를 얻어 당국의 양해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애국 동맹단과 하와이의 대동 공진단에서는 무예 장려문을 발표하여 동포의 무예 정신을 고취하고 「체조 요지」를 출판하여 반포하는 등 청년들의 군사훈련을 장려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 한국 군인출신으로서 이민되어 온 동포가 미본토 및 하와이에 5백 여명 가량 있었고, 멕시코에는 2백 여명이 있어 이들이 교련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미주 교포의 훈련은 1910년 10월 3일부터 클레어먼트에 의용 훈련대를 조직하고 매주 3일 저녁 군사훈련을 시작하였고, 8일에는 롬폭에서도 의용훈련대를 조직하였다.

그 해 11월 10일에는 캔자스시(市)에 소년병 학교를 조직하여 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12월 5일에는 와이오밍과 수페리어에서 청년병 학원을 조직하여 매일 저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하와이 교포들의 훈련은 처음에는 대동공진단이 각 지방에 양성소를 설치하고 군사훈련을 시작하였으나, 얼마 후 국민회 안에 연무부를 설립하는 한편, 다수 교포가 거류하는 지방마다 군사훈련을 시작하여 매일 저녁 청년교포들이 목총을 메고 교련을 받았으며 그 수는 2백여명이 었다.

이 외에도 많은 군사훈련 단체가 활동하였는데, 그 중 몇 개의 주요 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네브레스카 소년병 학교의 활동이다.

미주 네브레스카에서 유학하던 박용만이 커니 농장과 학생 노동계약을 맺고 학생들에게 일을 얻어주고 있었는데 이 때 지방 당국의 양해를 얻어 소년병학교를 설립하고 사관 양성을 시작하였다.

1910년 6월 헤스팅스대학 학장의 후원으로 교실과 운동장을 사용하게 된 뒤부터 학교조직이 확장되었는데 이때 교장은 박용만이었고, 학생은 27명이었다.

이 소년병학교는 1912년 9월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는데, 졸업생 수는 13명이었다. 이는 학생들이 방학 때를 이용하여 낮에는 농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목총을 메고 훈련하며 농장에 일이 없는 때에는 학반에서 군사학을 강습하면서 3년만에 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해 11월 교장 박용만이 하와이로 가자 네브레스카 소년병 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

둘째, 멕시코 승무학교(崇武學校)는 1910년 11월 17일 멕시코의 메리다에서 이근영, 조병하, 이순근 등의 발기로 설립되어 사관 양성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학생 수가 1백 18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학교가 확장되던 때, 마침 그곳 멕시코에서 혁명이 일어나 학생들 대부분이 가족을 따라 피난하거나 전쟁에 참가하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군사 교육을 계속하지 못하고 1913년 3월 폐교하고 말았다.

셋째, 국민군단(國民軍團)의 활동이다. 1914년 6월 10일 하와이, 오후루, 가할루 지방에 있던 아후마두 농장에서 설립된 국민군단은 네브레스카에서 돌아온 박용만의 노력으로 대한인 국민회 하와이 지방 총회의 연무부 사업을 확장한 것이다.

안원규와 박종수는 리비회사와 계약한 1천 5백 에이커의 파인애플 경작 도급을 기부하고 임응천,한태경, 한치운, 이치영 등이 와이아와에서 농업에 종사하여 번 그 해의 수입을 기부하여 군단의 재원을 삼게 하였다.

미국 영토 내에서는 외국인의 군사활동이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나 하와이 군사령부가 이를 묵허하는 대신 군재(軍材)는 미국 제품을 사용되 다만 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목총을 사용하였다.

국민군단이 학도들의 기숙을 제공하며 제복소(製服所)를 설치하여 군복을 용달하였고, 교련 기구는 사관의 단총 (45식(式)) 39정과 군도 10자루, 나팔 12개, 북 6개, 목총 3백 50정과 병학 교과서(영문서적(英文書籍)) 28종이 있었다. 이들은 농장주인에게 목재를 얻어 영문(營門)을 세웠으며, 1914년 8월 29일 낙성식에서는 6백여명의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단 학생들의 선서식을 거행하였다.

학도 1백 3명으로 시작된 국민군단은 이때 3백 11명으로 늘어났으며 설비는 적었으나 완전한 군대였다. 이제 국민군단의 조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군단 사령부

단장 : 박용만, 부관 : 구종권, 태병선, 서기 : 백운택, 장재, 최순서

2. 군단 경리부

부관 : 노훈, 박승선 : 회계, 이성근, 장부 : 정인수, 군의 : 홍중훈

3. 제복소 주임

소대장 : 김성옥, 김승운

4. 병학교 주임

단장 : 박용만, 대대장 : 박종수, 대대 부관 : 최창영, 정교 : 정명렬

5. 훈련대 주임

대대장 : 박종수
 부관 : 이둔환, 허용
 중대장 : 김세근
 부관 : 이성근
 부위 : 김치명, 조봉운
 참위 : 임성우, 전종운
 정교 : 방재순, 임순용, 김순근
 소대장 : 박춘식, 강태순, 한응순
 참위 : 안경식, 이상호, 김예준, 김성옥, 김용팔, 한경선
 하사 : 김상호, 윤희중, 이태홍, 서순백, 백운서

6. 별동대 주임

노백린, 김성옥, 허용, 이복희, 이상호

7. 나팔수 및 고수

이제원, 강달제, 강운학, 백운경, 차성질, 김용환, 이창규, 이봉용, 김백화, 최태제, 김중환
 국민군단의 학생들은 야외에서 훈련을 받고, 학반에서 군사학을 공부하는 한편, 때때로 실전(實戰)을 방불케 하는 작전연습을 하였으며, 차례로 농장에서 일을 하여 독립군 편성의 기대가 높아졌으나, 1916년 10월에는 국민군단의 경작 계약이 만료되고 더구나 그 농토의 토질이 좋지 않아서 농사를 폐지하였기 때문에 군단은 적합한 곳을 얻지 못하고 사관양성 사업을 중단하였는데, 국민군단이 중단된 후에 한인의 군인양성 사업이 일반적으로 중지되었다.

국민군단의 재정은 파인애플 경작 도급과 의연금으로 운영되었는데 그 총액이 7만 8천 6백 52달러 25센트이고, 2년동안 군단 경비로 지출된 금액이 5만 8천 4백 42달러 25센트이었으며, 잔여금 2만 2백달러는 원동군사자금(遠東軍事資金)으로 적립되었다.

V. 부인회(婦人會)의 독립후원(獨立後援)

1908년 5월 23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재미 한인들이 자녀들의 국어교육을 장려하고 동포간의 친목을 증진하며, 교육사업을 후원하기 위한 목적아래 설립된 한국 부인회가 재미 부인회 조직 및 운영의 효시인 것이다.

한국 부인회는 1914년 1월 12일 하와이, 가와이, 골로아 지방에서 지회를 결성하고 5월 2일에는 선교사 노볼 목사를 통하여 서간도 재난동포 구제금 2백 달러를 송달하였다.

1917년 3월 17일에는 새크라멘토 지방에 있던 부녀들이 대한인 국민회 사업을 후원하며 가

정 일용품의 일본 물품 배격을 목적으로 한인(韓人) 부인회(婦人會)를 조직하였는데 초대회장은 양재현이었다.

1919년 3월 2일에는 중부 캘리포니아주 덴버지방의 부녀들이 신한(新韓) 부인회(婦人會)를 조직하고 회장에 강원신을 선출하였다. 신한 부인회는 부녀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나아가 대한인 국민회의 광복운동을 후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같은 해 3월 28일에는 로스앤젤레스 지방의 부녀들이 동포간의 친애(親愛)를 도모하고 식료품을 절약하여 독립운동 후원금을 마련, 송달할 목적으로 대한(大韓) 친애회(親愛會)를 조직하였고, 멕시코의 메리다지방 거류 부녀들도 대한인 국민회의 조국 광복운동을 적극 후원하기 위하여 대한부인애국회를 결성하였다.

그런데, 부인회에서도 국내의 3.1독립운동에 자극되어 3월 15일 하와이 각 부녀 대표자 41명이 호놀룰루에서 공동대회를 갖고 조국독립운동을 후원하기로 결의하는 한편, 4월 1일에는 대한부인구제회(救濟會)를 결성하였다.

이후 7월 10일에는 덴버,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윌로우시지방의 대표들이 캘리포니아주 덴버지방에 모여 공동결의로서 대한(大韓)여자애국단(女子愛國團)을 설립하고 대한인 국민회의 인준을 얻었다. 이들은 김혜숙(金惠淑)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독립운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참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1920년 2월에는 애국 성금 5백 달러를 상해 임시정부에 송금하는 한편, 독립운동을 미주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상해에까지 뻗쳐 여성단체로서는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하와이의 대한부인구제회는 임시정부와 외교 위원부에 후원금을 보내고 만주의 대한(大韓) 군정서(軍政署)와 대한 독립군 총사령부에 출정 군인 구호금을 보내 적극 지원하였고, 3.1운동때 사상(死傷)한 애국지사 가족들에게는 구제금 1천 5백 달러를 보내는 등 독립운동 후원에 크게 기여하였다.



유로코뮤니즘의 정체(正體)

- 목 차 -

- I. 서론(序論)
- II.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과 기원(起源)
- III. 유로코뮤니즘의 공통(共通)된 정치이념적(政治理念的) 내용(內容)
- IV. 유로코뮤니즘의 세력현황(勢力現況)
- V. 평가(評價)

전 득 주(全得柱)

(송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I. 서론(序論) : 유로코뮤니즘의 정체(正體)란?

유로코뮤니즘이란 말은 아직 우리의 정치문화(政治文化)에서는 아주 생소한 단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韓國)의 일부 지식층(知識層)에게는 이데올로기에 심취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유로코뮤니즘이 사나운 이빨을 감춘 신사로 변장한 이리떼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본(本) 원고(原稿)는 이러한 유로코뮤니즘의 이론적(理論的) 내용(內容)을 이해하고 비판(批判)을 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본(本) 논문(論文)은 제(第)II장(章)에서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을 파악하고 유로코뮤니즘이 어떻게 형성(形成)되었나를 알아보며 제(第)III장(章)에서 유로코뮤니즘의 공통(共通)된 정치이념적(政治理念的) 내용(內容)을 분석(分析)해 보며 제(第)IV장(章)에서는 유로코뮤니즘에 속하는 공산주의(共產主義) 정당(政黨)이 어떠한 나

라들이며 그 세력(勢力)은 현재 어떠한지 일별하고 마지막 장(章)에서 유로코뮤니즘을 평가(評價)코자 한다.

II.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과 기원(起源)

유로코뮤니즘(Eurocommunism)의 개념(概念)은 1975년(年) 이태리의 보수파(保守派) 언론인(言論人)인 프라네 바르베리(Frane Barberi)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使用)되었다는 것이 지배적(支配的) 견해(見解)이다.

이처럼 '70년대(年代) 중반(中盤)에 생성(生成)되었던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은 처음에는 현 유로코뮤니스트들(즉 이태리, 스페인, 프랑스, 스웨덴, 유고 등)에 의해서 사용(使用)되는 것을 그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 인기도(人氣度)가 점차 높아지자 결국은 이 개념(概念)을 받아들여 사용(使用)하기에 이르렀다1).

유로코뮤니즘에 있어서는 그 이념(理念)이 어느 블록에 속하는 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重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식(認識)의 관심사(關心事)는 유로코뮤니즘이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를 신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민주주의(民主主義)가 사회생활(社會生活)의 모든 영역(領域)에 확산되고, 노동조합(勞動組合)들은 그들의 권익(權益)을 옹호하기 위하여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權利)를 가지며, 정부(政府)나 기타 기관(機關)으로부터 독립된 힘으로 머무르며, 야당(野黨)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모든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자유권(自由權)을 보장해 줄 것을 주장(主張)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을 보다 정확히 이해(理解)하기 위(為)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事項)에 유념(留意)해야 한다 :

첫째,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은 마치 모든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유럽에서 이를 지지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단지 10개도 안 되는 서구(西歐)의 공산당(共產黨)만이 유로코뮤니즘에 속하고 있고 기타 서구(西歐)의 공산당(共產黨)들은 소련(蘇聯)은 혹(或)은 중공(中共)의 노선(路線)을 걷고 있다.

둘째,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은 그 이데올로기적 측면(側面)에서 볼 때, 순수한 유럽적 현상(現象)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非)유럽지역들인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공산당(共產黨) 이데올로기들로 유로코뮤니즘의 제이념(諸理念)과 많은 공통점(共通點)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은 소련공산당(蘇聯共產黨)이 취하고 있는 일반노선(一般路線)이나 중공통제기구(中共統制機構)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그들의 주요 정책지도자(政策指導者)들이 필요할 때에 평등한 입장에서 회동(會同)하며 각(各) 정당(政黨)마다 상이한 노선(路線)과 목표(目標)를 가지고 있고, 특히 대내(對內) 및 대외정책(對外政策)에 있어서는 그들 각국(各國)의 실정(實情)에 따라서 강조점(強調點)이 달라진다는 것이다2).

그러나 유로코뮤니즘을 연구(研究)하는 학자(學者)들은 유로코뮤니스트들의 정강정책(政綱政策)의 여러 부문에서 일정한 공통점(共通點)과 그들의 자율성(自律性)을 발견(發見)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바, 유로코뮤니즘의 개념(概念)은 일반적(一般的)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定義)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유로코뮤니즘은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측면(側面)과 소련 공산주의(共產主義)를 개혁(改革)하겠다는 측면(側面)에서 정의(定義)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주의적(民族主義的) 공산주의(共產主義) 개념(概念)은 소련(蘇聯)이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 라는 기치(旗幟)아래 국제공산주의(國際共產主義)를 그들의 대외정책(對外政策)의 도구(道具)로 이용(利用)했다는 사실(事實)을 인식하고, 소련(蘇聯)이라는 통제기구(統制機構)로부터의 해방(解放)을 의미하며, 개혁적(改革的) 공산주의(共產主義)란 소련(蘇聯)으로부터의 해방(解放)뿐만 아니라, 1917년에 행해진 소련식(蘇聯式) 폭력혁명(暴力革命)에 의한 정권탈취방식(政權奪取方式)을 포기(拋棄)하고 서구(西歐)의 정치문화(政治文化)나 전통(傳統)에 맞닿는 비폭력(非暴力)·민주적(民主的) 방식(方式)을 통한 정권(政權) 쟁취(爭取)를 의미(意味)한다.

우리가 유로코뮤니즘의 역사적(歷史的) 기원(起源)을 찾는다면 제(第)2차(次) 세계대전전(世界大戰前)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태리와 프랑스의 공산당(共產黨)은 각각 독일(獨逸) 나치와 이태리의 파쇼와의 투쟁(鬪爭)에서 그들의 민족(民族)과 국가(國家)를 구원하기 위해 다른 비(非)나치 및 비(非)파쇼 세력(勢力)들과 세력(勢力) 연합전선(聯合前線)을 폈으며, 1944년~1947년 간에는 그들 국가(國家)의 새로운 헌법제정(憲法制定) 및 연립정부수립(聯立政府樹立)에도 참여했던 경험이 있다.

이 기간 동안에 유로코뮤니즘의 일반적 구호(口號), 서구(西歐) 뿐만 아니라 동구(東歐)에서까지도 각 민족(民族)마다 독자적(獨自的)인 방식(方式)을 통한 사회주의(社會主義) 건설(建設)이었다. 그러나 스탈린(Stalin)이 1947년에 코민포름(Cominform)을 유고의 수도(首都) 벨 그라드에 창설(創設)하여 소련주도하(蘇聯主導下)의 공산주의(共產主義) 세력(勢力)을 형성(形成)함으로써 유로코뮤니즘의 민족주의(民族主義) 운동(運動)도 그 막(幕)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공산주의(共產主義) 내부(內部)의 주요(主要) 사건(事件)들은 유로코뮤니즘의 형성(形成)에 결정적(決定的) 영향을 주었다.

첫째, 소련(蘇聯)의 통제(統制)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의 여건(與件)과 현실(現實)에 맞는 사회주의(社會主義)을 건설(建設)했던 유고의 성공(成功) 케이스이다.

둘째, 소련공산당(蘇聯共產黨) 제(第)20차(次) 전당대회(全黨大會)(1956)에서 후르시초프(Nikita Khrushchev)는 스탈린 격하운동선언(格下運動宣言)과 평화적(平和的) 방법(方法)에 의한 사회주의(社會主義) 건설가능성(建設可能性)을 시사(示唆)했다는 점이다³⁾.

그 결과(結果) 소련에 종속(從屬)되어 있던 동구(東歐)의 공산당(共產黨)들이 탈종속화(脫從屬化) 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것이 바로 1956년(年)에 일어났던 폴란드와 헝가리에서의

반소봉기(反蘇蜂起)이었다. 이러한 반소봉기(反蘇蜂起)는 소련의 군사개입(軍事介入)으로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후 모스크바는 다시 모든 공산국가(共產國家)의 고삐를 휘어잡고 소련식(蘇聯式) 사회주의(社會主義) 모델을 취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서구(西歐)의 몇몇 국가(國家)들의 공산당(共產黨)들은 소련식(蘇聯式) 사회주의(社會主義) 건설(建設)모델로의 복귀를 원(願)치 않고 자기(自己)나름대로 공산주의이론(共產主義理論)을 개발(開發)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로코뮤니즘에 영향을 준 사건(事件)은 <체코정권(政權)의 자유화(自由化) 운동(運動)>(1968)과 <소련(蘇聯)의 체코침공>(1968) 및 <칠레 군부(軍部)에 의한 아헨데 정권(政權)의 인민전선(人民戰線)의 붕괴>(1973) 를 들 수 있다.

소련의 체코무력침공(武力侵攻)은 유로코뮤니스트들(특(特)히 프랑스, 이태리 공산당(共產黨))의 비난의 대상(對象)이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들은 보다 결속된 협력(協力)을 하게 되었다.

또한 칠레의 아헨데 정권(政權)의 붕괴로 사회주의(社會主義)의 진정한 길은 인민(人民) 속의 방대한 동맹(同盟)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고, 소수 혹은 과반수의 찬성과 지지만으로는 사회주의건설(社會主義建設)을 위한 평화적(平和的) 정권유지(政權維持)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터득하게 되었다⁴⁾.

이러한 상기(上記) 네 가지 사건(事件)들은 유로코뮤니즘의 전략(戰略)과 노선변경(路線變更)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結果) 1970년대 그들의 주요 대내전략 및 노선변경(路線變更)은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1972년 프랑스의 공산당(共產黨), 사회당(社會黨) 및 극좌파(極左派)는 당초 공동계획(共同計劃)의 실천(實踐)을 위해 연합전선(聯合戰線)을 형성(形成)했으며 1981년 프랑스 대통령(大統領)선거 후 사회당(社會黨)과 연정(聯政)에 참여(參與)까지 했다.

둘째, 1973년 이태리 공산당(共產黨)이 기민당(基民黨)과의 연정(聯政)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위 역사적(歷史的) 타협전략(妥協戰略)이 선포되었다.

셋째, 스페인에서 독재자(獨裁者) 프랑코의 서거 이후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의 수립에 공산당(共產黨)이 참여했다.

넷째, 1976년 여름에 동(東)베를린에서 개최(開催)되었던 구라파공산당대회(共產黨大會)에서 이들 나라의 공산당(共產黨)들은 소련을 위시한 동구(東歐) 공산당(共產黨)들과 이념적(理念的) 대결(對決)을 노골화시켰다는 점(點)이다.

이와같이 유로코뮤니즘은 그들 각국의 민족적(民族的) 전통(傳統)과 정치문화(政治文化)에 맞지 않는 소련식 공산주의(共產主義) 모델을 배척하고 그들의 여건(與件)과 실정(實情)에 맞게 개혁(改革)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改革)도 다음과 같은 국내정치적(國內政治的) 동기요인(動機要因)이 없었다면 불가능(不可能)했을 것이다.

스탈린 격하운동(格下運動)을 전후(前後)하여 이태리 및 프랑스 공산당(共產黨)에 대한 이

태리와 프랑스의 국민지지도(國民支持度)는 정체상태(停滯狀態)에 있었고, 그 당원수(黨員數)도 하향추세(下向趨勢)에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상기(上記) 두 공산당(共產黨)은 노동자(勞動者) 계급(階級) 이외의 다른 계층(階層)들의 지지(支持) 획득(獲得)없이 정권쟁취(政權爭取)를 위한 과반수(過半數) 지지(支持)를 결코 얻을 수 없다는 인식에 도달(到達)하게 되었다5).

III. 유로코뮤니즘의 공통(共通)된 정치(政治) 이념적(理念的) 내용(內容)

대부분의 유로코뮤니스트들이 정치이념적(政治理念的) 측면에서 나타난 공통점(共通點)으로 내세우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자율성(自律性)과 동등권(同等權)이다. 모든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세계(世界) 공산주의운동(共產主義運動)의 통일된 중심체의 존재를 부정한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의무화된 일반노선(一般路線) 즉, 통일적으로 조정되는 중앙기관(中央機關)과 교과서(教科書)를 반대한다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자기들이 갖는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형태가 존재해 왔으나 각국(各國)마다 공산당(共產黨)의 상이(相異)한 조건과 환경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소련(蘇聯)이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를 배격한다. 소련(蘇聯)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는 국경(國境)을 초월해서라도 단결(團結)해야 한다는 마르크스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있어서는 소련(蘇聯)에 의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통일을 정당화(正當化)하려는 시도이며 소련에 의한 세계(世界)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반면에 유로코뮤니즘은 각 공산당(共產黨)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여 실현시키는 권리(權利)를 갖고 있으며 더우기 그들은 각국(各國)의 전통(傳統) 즉, 경제(經濟)·정치(政治) 및 문화적(文化的) 특수성(特殊性)의 토대 위에서 소위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원칙(統一原則)을 옹호·지지하고 있다. 공산당(共產黨)들, 즉 지배공산당(支配共產黨)이든 비지배공산당(非支配共產黨)이든 간에 그들의 관계는 절대적(絶對的) 평등(平等)과 내정(內政)에 대한 상호불간섭(相互不干涉)에 기초를 두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스크바가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國際主義)> 대신에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각 정당(政黨)의 동등권(同等權) 독립(獨立)과 자주(自主)의 토대 위에서 상이(相異)한 여러 나라의 공산당의 자의적(自意的) 합의(合意)라는 의미에서 <국제적(國際的) 연대(連帶)>라는 개념의 사용을 더 원하고 있다6).

둘째, 사회주의(社會主義)에로의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길이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폭력적 혁명>이나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등 소련(蘇聯)의 사회주의(社會主義) 건설(建設) 방법론(方法論)을 단호히 거부한다. 그들에 의하면 1917년의 소련혁명은 모든 나라와 모든 시기에 특히 민주주의적(民主主義的) 전통(傳統)을 가지고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들에게 사회주

의에로의 과도적(過渡的) 방법(方法)으로서는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변화된 사회상황(社會狀況), 변화된 사회조건(社會條件)들 변화된 계급세력(階級勢力)과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 전통(傳統)의 의미는 사회주의(社會主義)에로의 과도기의 새로운 형태를 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주의에로의 가는 민주적(民主的) 길이라는 그들의 사상은 다당제(多黨制)의 인정, 즉, 모든 정당(政黨)이나 정치집단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인정하고 보통, 직접 및 비밀선거제의 정기적 실시를 통한 권력장악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그들의 복안은 의회제도(議會制度)의 새로운 해석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회(議會)는 레닌이 한 때 말한 것처럼 부정(不正)과 비리(非理)를 위한 자본주의(資本主義) 계급(階級)의 꼭두각시나 사회주의의 제국을 억누르는 수단이 아니고 사회주의에로의 전환과정(轉換過程)에 있어서, 또 사회주의의 장래를 위해서 과도기 동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생활(政治生活)의 주요한 제도(制度)로 인정한다7).

셋째, 한 공산당(共產黨)의 지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광범한 동맹정책(同盟政策)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유로코뮤니즘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주의에로의 민주적(民主的) 길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수단으로서 어디까지나 다른 사회정치(社會政治) 및 세계권적(世界權的) 세력(勢力)과 광범한 동맹정책(同盟政策)을 각 세력(勢力)의 대화와 자주(自主) 및 상호관용(相互寬容)을 토대로 추구해야 한다.

소련(蘇聯)을 중심으로 한 동맹정책(同盟政策)과의 기본적인 차이란 소련이 세계 공산주의에서 공산당(共產黨)들의 동맹정책을 위한 공산당(共產黨)들의 하나의 지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련을 위시한 공산주의에서는 공산당(共產黨)만이 그의 경제(經濟), 정치(政治), 사회(社會) 비판(批判)에서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다른 정당(政黨)이나 정치집단(政治集團)들은 그 일에 예속되어 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이러한 공산당(共產黨)의 지도적(指導的) 역할(役割)을 포기하고 동맹(同盟)내에서 그들의 당(黨)을 다른 정당(政黨) 및 정치조직(政治組織)과의 동등한 동반자로서 간주하고 있다8).

넷째, 마르크스주의의 개방(開放)과 대화(對話)이다. 동등한 동반자간의 동맹(同盟)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요구한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소련 형태를 통일된 세계관으로서 부인하고 있다. 소련식(蘇聯式)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의 교의(教義)와 소련 자신에게 이로운 해석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과거(過去), 현재(現在), 미래(未來)에 있어서 모든 민족(民族)에게 통용(通用)되는 자연(自然), 사회(社會) 및 인간(人間) 사유(思惟)의 일반적(一般的) 학문(學問)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련식 이데올로기를 거부하고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개념 대신에 과학적(科學的) 사회주의(社會主義)에 대한 기본문제들을 누구나 토론(討論)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에 생명을 바치지 않아도 입당(入黨)을 원하면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9).

다섯째, 소련(蘇聯)과 동구(東歐)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무비판적으로 소련 및 동구(東歐) 지도층의 모든 발전, 대책 및 성명서(聲明書) 등을 환영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정책(政策)으로 만드는 것을 거절한다. 친소(親蘇) 공산당(共產黨)은 소련(蘇聯) 그리고 그와 동맹을 맺고 있는 동구제국(東歐諸國)의 상태를 진정한 사회주의(社會主義)라고 부르며 그들의 사회주의(社會主義) 모델을 추종하고 있다. 그러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소련의 10월 혁명과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社會主義) 국가(國家)의 건설(建設)을 인정(認定)하지만 소련의 전반적인 발전을 그들의 귀감으로 삼으려 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동구(東歐)에 있어서 경제·정치권력의 과도한 중앙집권화(中央集權化)와 관료화를 비판한다. 뿐만 아니라 동구(東歐)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과 그 침해를 신랄히 비난한다. 소련의 체코 침공(侵攻)(1968)이나 폴란드의 노동자(勞動者) 반란(叛亂) (1970, 1976) 및 폭동에 대한 소련의 억압정책도 비난하면서, 1982년까지의 폴란드 사태를 두고 소련을 반박(反駁)하고 있다(10).

여섯째, 다원적(多元的), 민주적(民主的) 사회주의(社會主義) 모델을 표방하고 있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소련을 비롯한 동구제국의 공산체제(共產體制)가 너무나 독점적(獨占的)이고 독재적인 중앙집권적(中央集權的) 및 관료주의적(官僚主義的)이라고 비난하면서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의 전통을 가진 유로코뮤니즘은 그러한 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모든 민주적(民主的) 자유권(自由權)과 모든 국가사업(國家事業)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주의(社會主義) 모델을 변호하고 있다.

일곱째, 레닌의 당구조(黨構造)의 부정(否定)이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은 소련 및 동구의 당구조를 거절한다. 특히 현재 실천되고 있는 레닌의 당이론(黨理論)을 배척한다. 다시 말하면 레닌의 민주적(民主的) 중앙집권주의(中央集權主義) 원칙(原則), 즉 명령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하향식(下向式) 명령체계(命令體系)를 가지며 어디까지나 혁명적(革命的) 엘리트 당(黨), 강철과 같은 당규율(黨規律), 모든 당원의 이데올로기적 확신하(確信下)에서 모든 조직(組織), 즉 노조(勞組), 청년단체, 협동조합(協同組合), 문화단체(文化團體)들은 공산당(共產黨)의 지도부에 예속되어야 하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할 의무를 진다는 민주적 중앙집권주의(中央集權主義)(Democratic Centralism)을 반대한다는 것이다(1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로코뮤니스트들의 대외정책(對外政策) 목표는 모스크바의 대외정책(對外政策)과 상이(相異)하다.

첫째, 소련의 중공비난(中共非難) 및 중국(中國), 공산당(共產黨)에 대한 비난선전(非難宣傳)은 유로코뮤니스트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있다.

둘째, <평화(平和)와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條約機構)와 <전쟁(戰爭)과 자본주의(資本主義)를 위한 투쟁을 대변하는 나토 기구(機構)>와의 대립상태(對立狀態)를 유로코뮤니스트들은 거부하고 있으며 유고를 비롯한 몇몇의 유로코뮤니스트 당들은 비동맹(非同盟)을 옹호하고 있다. 이태리 공산당(共產黨)과 스페인 공산당(共

産黨)은 군사적(軍事的)으로 구주대륙(歐洲大陸) 분단(分斷)을 극복하여 점차적으로 군사기지(軍事基地)와 외국군대(外國軍隊)의 구주주둔을 철수시키며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 관계에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유로코뮤니스트들은 동구권에 대한 소련의 지배를 비판(批判)하고 있다.

넷째, 장차 구주(歐洲)에서 미(美)·소(蘇)의 양 블록을 깬다는 유로코뮤니즘의 장기적(長期的) 목표와 함께 이태리 및 스페인 공산당(共產黨)을 위시한 몇몇 공산당들은 구주(歐洲) 공동체(共同體) 내에서 구주통합(歐洲統合)을 지원할 준비를 갖추었다. 그러나 그들은 구주공동체 내에서 그 기구의 민주화(民主化)와 固家的, 국가적(國家的) 독점력(獨占力)의 축소(縮小)를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은 이태리나 스페인 공산당보다는 덜 강력한 입장이지만 이를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이와 반대로 영국공산당(英國共產黨)(영국노동당(英國勞動黨)의 좌파(左派)와 마찬가지로)은 영국(英國)의 구주공동체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日本) 공산당은 자민당(自民黨)과 함께 이차대전(二次大戰) 이후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쿠릴열도(列島)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나토에 대한 입장도 변했다. 이태리 공산당(共產黨)은 그들의 최종목표(最終目標)가 미(美)·소(蘇)의 블록을 극복하는데 있지만 그들은 현재의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구주와 세계의 일부에서 미(美)·소(蘇) 간의 군사전략적(軍事戰略的) 균형(均衡)이 존재하는한 그들은 주의깊게 그리고 현실주의적(現實主義的)으로 그러한 균형을 계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개개(個個)의 국가들이 이쪽 저쪽의 군사기구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것은 현실주의적(現實主義的)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태리의 나토 탈퇴(脫退)는 국제긴장완화과정(國際緊張緩和過程)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키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공산당은 나토에서 프랑스의 동맹의무(同盟義務)를 등한시하지 않을 것이지만 동맹(同盟)의 틀 안에서 그들의 최대한의 독립을 유지(維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선언(宣言)하였다(12).

VI. 유로코뮤니즘의 세력(勢力) 현황(現況)

일반적으로 유로코뮤니즘의 세력(勢力)은 사실상 다른 정당(政黨)에 비해 미미하며 현재(1984)까지 이 지구상에서 독자적으로 정권(政權)을 장악한 유로코뮤니스트 정당(政黨)은 없다(13).

유로코뮤니스트 정당(政黨)에는 구주(歐洲)내에 6개 정당(政黨)(이태리 공산당(共產黨), 스웨덴 공산당, 영국 공산당, 스페인 공산당, 프랑스 공산당, 그리이스 공산당)이 속하지만 이 외에도 2개의 공산당(共產黨)을 더 언급할 수 있는데 이들 정당의 경우는 그들이 지난 시기의 사회주의적(社會主義的) 과정에서 더이상 <공산주의적(共產主義的)>이란 표현을 그들의 당정강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덴마크의 사회주의(社會主義) 인민당(人民黨)과 아이슬란드의 인민연맹(人民聯盟)이다.

유로코뮤니즘이란 맥락에서 비유럽 지역 공산당들이 또한 언급되어야 하는데 이는 유로

코뮤니즘이란 개념이 얼마나 모순적인가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이들은 일본(日本) 공산당, 호주 및 베네주엘라 공산당(共產黨)이다. 약 40만 당원(黨員)을 갖고 있는 일본(日本) 공산당은 1976년 선거에서 약 10.4%의 지지율을 획득할 수 있었고, 계속 유로코뮤니스트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비교적 소규모이지만 베네주엘라 공산당(共產黨)과 호주 공산당도 유로코뮤니즘의 맥락 속에서 언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베네주엘라 공산당은 19기년 친소적(親蘇的)인 공산당으로부터 분리해 나와 <사회주의(社會主義)를 향한 운동(運動)>이란 명칭하에 활동해 왔다. 프랑스 공산당은 약 50만의 당원을 가지고 있으며 소련의 영향권 밖에서 두번째로 강한 공산당(共產黨)이다.

프랑스 공산당(共產黨)은 1981년 5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사회당 대통령 후보 미테랑을 지지함으로써 그 반대급부(反對給付)로 사회당(社會黨) 내각에 4명의 공산당원(共產黨員)을 입각(入閣)시킨 경해도 갖고 있다.

기타 이태리 공산당은 유로코뮤니스트당(黨)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당원(黨員)을 가지고 있으며 (160만(萬) 당원(黨員)), 중앙(中央)에서 기민당(基民黨)과의 연정(聯政) 수립에 실패했으나 지방(地方)에서는 지방의회(地方議會)를 장악한 것이 상당한 수에 달한다. 1976년 총선거에서 이태리 공산당(共產黨)은 34.4%의 득표율을 보여 집권의 문턱에까지 접근하였으나 1970년대 말을 고비로 그 기세가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스페인 공산당(共產黨)은 프랑코 사망 이후 그의 사망이 가져온 정치적(政治的) 공백(空白)을 메우기 위해 세력신장을 꾀했으나 1977년 선거에서 9.4%의 지지(支持)밖에 획득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오히려 그 당세가 약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0년 초(初)부터 폴란드에서의 <자유노조(自由勞組)>의 탄압(彈壓)으로 공산주의(共產主義)의 허구성을 노출시켰던 사태는 서구(西歐) 정치풍토(政治風土)에서 유로코뮤니즘의 미래(未來) 전망(展望)을 더욱 흐리게 하고 있다.

유로코뮤니즘의 세력(勢力) 분포(分布)에 관한 보다 상세한 기타 사항은 다음 도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V. 유로코뮤니즘의 평가(評價)

유로코뮤니즘은 동구(東歐)는 물론 서구(西歐)에 대한 도전(挑戰)으로서 자본주의(資本主義)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동구(東歐) 공산주의사회에서도 신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이 소련(蘇聯)의 지배권(支配權)을 부인하고 사회주의(社會主義)를 위한 민주적 길을 걸으며 그 결과 세계(世界) 공산주의운동(共產主義運動)에서 모스크바의 독점적(独占的) 지위(地位)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련과 동구제국의 관료적이고 독재적(獨裁的)인 체제에서는 결정적(決定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도 유로코뮤니즘의 사회주의 모델이 동구제국의 국민에게 더 강한 매력을 주고 그들 스스로가 개혁(改革)과 인권운동(人權運動)을 주

도하는 새로운 활력소(活力素)가 되게 하여 관료적 권력(權力)의 지위까지도 흔들여 버릴지도 모르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西方)의 의회민주주의(議會民主主義) 제도(制度)에 있어서도 유로코뮤니즘이 구주공동체의 정치(政治)·경제적(經濟的) 통합(統合)과 북대서양 조약기구(北大西洋條約機構)(NATO)에 부정적 영향을 두려워 하고 있으며 유로코뮤니스트들이 차기(次期) 정권(政權)을 노리고 있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소비에트식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의미에서 경제(經濟)와 사회질서를 변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美國)을 비롯한 보수주의자(保守主義者)들은 유로코뮤니즘을 매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시(注視)하고 있으며 미국(美國)은 미테랑 프랑스 사회당 당수의 대통령 당선에 즈음하여 프랑스 내각(內閣)에 공산당원 4명이 입각(入閣)한 것을 가장 반대했다. 많은 서방(西方) 지도자들은 구주(歐洲)의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들이 자유세계(自由世界)를 파괴하기 위한 <가면(假面)을 쓴 폭군> 혹은 <트로이의 목마(木馬)>라고 부르고 있다.

동구제국에서도 유사한 비판이 유로코뮤니스트들에게 가해지고 있다. 한 체코의 공산당(共產黨) 지도자는 유로코뮤니스트들을 자본가(資本家)의 사주(使喚)에 의해 국제공산주의의 분

<표(表) 3> 내독교역(內獨交易) 중 물품교역 총액 <단위 1백만마르크>

	정 당 명 (政黨名)	당원수 (단위: 천명(千名))	선거투표 지지율	비 고
1	이탈리아 공산당(共產黨)	1,800	34.4%(1978)	소련분락 밖의 최대의 공산당(共產黨) 1950년부터 독립정당(獨立政黨)으로 부상(浮上)
2	스웨덴 공산당(共產黨)	16	4.8%(1976)	1964년 새로운 코스로 진입(進入)
3	영국(英國) 공산당(共產黨)	25		의회대표(議會代表) 없음
4	스페인 공산당(共產黨)	200	9.4%(1977)	1968년 이래 신정책(新政策)
5	그리스 공산당(共產黨)		2.7%(1977)	1968년 반(反)소탕파 형성
6	프랑스 공산당	700	21.3%(1978) 11%(1980)	1920년 구주공산당에 접근(接近) 현재 프랑스내각(內閣)에 4명(名) 입각(入閣)
7	덴마크사회주의 국민당(國民黨)	11		정당명을 과거 공산당에서 현(現) 당명으로 개칭
8	아이슬란드 국민동맹(國民同盟)	215	18.3%(1974)	정당명을 과거 공산당(共產黨)에서 현재(現在)의 당명으로 개칭
9	일본(日本) 공산당(共產黨)	400	10.4%(선거전)	유로코뮤니즘에 정통(正統)함
10	호주 공산당(共產黨)	미상(未詳)	미상(未詳)	반소노선 및 유고와 관계개선
11	베네주엘라 사회주의운동 (社會主義運動)	미상(未詳)	6%(1978)	1971년 반소노선(反蘇路線)



열(分裂)을 조장하는 자들이라고 신랄히 비난했다. 독일 공산당(共産党) 당수 (서독(西獨)) 헤르베르트 미스 (Herbert Mies)는 유로코뮤니즘을 서방(西方)의 우파(右派)에 속하는 사회민주주의자의 무기(武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공통적인 것은 동(東)·서(西) 양대진영(兩大陣營) 모두 유로코뮤니즘을 상대진영의 교묘한 위장전술(偽裝戰術)이요, 기만작전이라고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⁴⁾.

유토피아와 현실의 갈림길에서 다원주의적(多元主義的)·민주적(民主的) 서구사회(西歐社會)에서 그들의 자구책(自求策)으로서의 유로코뮤니즘 이데올로기는 그들이 정권(政權)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 현재에 있어서 폭력혁명(暴力革命)은 부정하고 있으나 까릴리오의 저서인 「구주(歐洲) 공산주의(共産主義)와 국가(國家)」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자본주의(資本主義) 체제의 변혁을 위한 그들의 전략을 간파한다면 유로코뮤니스트들의 민주주의(民主主義)에 대한 전략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유로코뮤니스트들이 공산주의(共産主義)의 실현이라는 그들의 최종 목표를 갖고 있는 한 그들이 불확실한 목표를 심취되어 언제 어디에서 평화적(平和的) 수단에 의한 정권탈취전략(政權奪取戰略)에서 폭력전략전술로 전환할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데에 그 문제점이 있다. 만약 인간이 완전하고 특히 완전(完全)한 지배자(支配者)가 있다면 불안정한 피지배자들을 완전화(完全化)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공산주의사회(共産主義社會)의 실현이 가능할지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의 유한자(有限者)이며 존재론적(存在論的) 비극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完全)한 사회(社會)(공산사회(共産社會))를 건설하고 인간(人間)의 사회적(社會的) 갈등을 완전(完全)히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特)히 국제적(國際的) 환경이나 정치(政治)·경제적(經濟的)인 면(面)에서 많은 제약(制約)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한 경직(硬直)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이념(理念)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달성(達成)하지 못할 환상(幻想)이 아닐까 사료(思料)된다.

주해석(註解釋)

- 1) Steinkühler, Manfred(hrsg.), Eurokommunismus in Widerspruch, Analyse und Dokumentation, (Köln, 1977), pp. 389
- 2) Wolfgang, Leonhard, Der Eurokommunismus, die Herausforderung für Ost und West, (München, 1978)
- 3) Wolfgang Leonhard, Sowjetideologie heute, (Fvankfurt, 1962) pp. 124ff
- 4) Enrico Berlinguer, Der historische Kompromuß, (Berlin, 1976), pp. 13ff
- 5) Kel us von Beyme, "Sozialer Wandel in Kommw nitischn Parteien, "in : Der Bürger in staat, Heft, 2. (guni, 1978) p. 115-5.
- 6) Manfred Spieker (hrsq.), Der Eurokommunismus, Pemokratie oder Diktatur ? (Stuttgart, 1979), pp.30-40
- 7) 상동(上同), pp. 30-40
- 8) Wolfgang Leonhard, Evrokommunismus, Herausforderung fur Ost und West (Mlinchen, 1978), pp. 14-5
- 9) 상동(上同), pp. 15-6
- 10) 프랑공산당은 이 문제에 있어서 친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 11) Leonhard, 상동(上同), pp.19-20
- 12) 상동(上同). pp. 20-2
- 13) 유고는 유로코뮤니스트적인 성향의 정당이지만 의회주의 지향 유로코뮤니스트들과는 달리 유고 공산당은 자체관리 사회주의를 주장하므로 엄밀히 따져 유로코뮤니스트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 14) Leonhard, 상동(上同), pp. 22-4

봄을 맞으며



중위 고 종 봉
(제6546부대)

〈제6546부대〉 인간이면 누구나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된다. 대학 입학시험을 치르고 난 수험생은 합격통지서를 기다릴 것이고, 가정을 지키는 주부는 남편의 귀가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기다림은 시간이 흐르고, 그 기다림이 의미가 없을 때

것은 인간의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다. 작게는 한 사회구성원이 개인으로부터 크게는 한 나라 한 민족이 그들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 민족의 역사는 기다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어느 할머니의 생생한 이야기이다. 두 아들을 모두 징용에 보내고 하루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격동기 속에서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는 매일 저녁 두 아들을 위해 정성들여 밥을 지어 아랫목에 두고 밤이 새도록 담념어를 살피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일제가 물러가고 해방이 되어도 그 두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는 몇년전 매스콤을 통해서 6.25때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달라고 목에 명패를 걸고 여의도 거리를 났을 사람처럼 헤매이던 어느 할머니의 얼굴을 잊지 못한다. 어찌 이뿐이겠는가!

그 여인들의 기다림의 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 세월은 너무나 길었다.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내가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나의 사랑을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데 있다”고 했다. 한 사람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그 대상에 대한 무한한 기다림 속에서 키워졌다는 얘기일 것이다.

한 인간이 무엇을 기다릴 때 기다림의 대상보다 그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자세가 더욱 중요하다면 그 기다림의 자세는 사랑일 것이고, 군인으로서 이 민족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자기 위치 및 신분에 대한 창조적인 자기 점검일 것이다. 어느 곳에서건 일하고 있는 많은 인간들이 두려워 해야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시간이라는 괴물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형각화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는 무의미한 생활이 자리잡게 된다. 흐르



는 시간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창조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다림은 그 기다림 자체에서 많은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지난 겨울은 무척 길고 추웠다. 어느 겨울이나 그랬듯이 모든 생명 있는 사물은 춥고 삭막한 이 계절 속에 자기의 몸을 움츠리고 마치 죽은 사물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 움직이고, 또 다른 시간과 계절을 맞이 하기 위해 자기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 것이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다면 그 겨울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계절을 위한 준비와 휴식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봄은 모든 생명들이 다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을 시작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그 생명들의 모습은 작년에 왔던 그 봄의 모습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들이고 침체되고 움츠렸던 준비의 시간이 새롭게 창조된 생명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민족을 느낄 수 있고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 새롭게 피어난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 그 순간 과거의 괴로웠던 기억은 까마득하게 잊혀져 버리는 기쁨과 희열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완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같이 행동하는 우리 군인도 새로운 역사의 창조의 시대로 접어드는 이상의 2000년대를 향해 끊임없이 자신의 모습을 재정비하고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명을 죽이는 의미없는 형식적인 군대생활이 아닌 육체적인 괴로움과 정신적인 부담감 속에서 미래를 향한 창조적인 기다림의 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그 시인은 “설사 나의 사랑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도 나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 생명과 창조의 시간이라면 그 기다림은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군인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을 믿는다.

모든 생명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 다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봄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추위가 아직 가시지 않은 오늘도 나의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해 본다.

충과 효의 참뜻 알아
나라사랑 겨레사랑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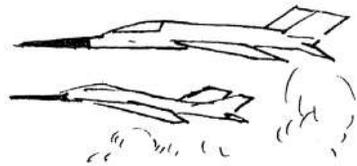
레이다 기지 예찬

준위 전 호 명
〈제3659부대〉

높고 높은 곳에서
하늘을 향해 둥글게
바람을 가르는 한 점
물체조차도
기술을 발휘하여 척척
적과 우리를 식별하는 빠꼼이

구름 위에 바람을 타고
비행접시처럼 날을듯
위풍도 당당하게
빙긋이 미소하는 「레이다」 기지
하늘의 불침번 방공관제는
항시 전장입니다.

산은 산대로 푸르고
하늘은 하늘대로 푸른 조국
마음도 푸른 병사들이 모여
잘 훈련된 솜씨로
과학의 테이블을 주시하면
아하! 이것이 파수꾼인 것을
엄동설한에 대지는 차겨워도
이어지는 마음은 뜨거워
잠시도 소홀함이 없는 공군이
그리움으로 바라다 봅니다.
하늘을 향해 둥글게
내 조국, 내 사랑을....



시(詩)

연가(戀歌)

대위(大尉) 이성호(李聖鎬)
〈공본 정훈감실〉

내가 만일
은일한 실(絲)올이라면
당신의 여린 가슴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빛살 고운 천이 되겠어요.

내가 만일
초록빛 희망이라면
어디든 당신의
가벼운 발치 위의
투명한 하늘이 되겠어요.

내가 만일
유년(幼年)의 뜰이라면
당신의 베갯모에
소롯이 쌓이는
작은 향나무 그림자로
가만 가만히
그대를 깨우겠어요.
내가 만일
먼나라의 왕자(王子)라면

한삼 먼저 물어버리는
어린 원정(園丁)으로
그대 곁에 서겠지요.

석양(夕陽)의 붉은바람이 깔리는
도심(都心)의 지붕 위에선
만나러 가는
바람이었다가
낮고 고른 풍금(風琴)소리로
그대의 눈시울을 적시고
금강석(金剛石)처럼
부신 밤의 한 때
아름다운 세상엔
이름(달(達)) 꿩이잖는
별빛같이
맑은 눈을 뜨겠어요.



내가 겪은 6·25

6·25 체험 수기



준위 문 종 진
(제3252부대)

올해로써 6·25 36주년을 맞는다. 그 치욕의 역사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미 36년이란 세월이 지났으니 유수와 같은 해와 달의 무상함을 탓할 수는 없는 모양이다.

나는 6·25 세대에 속한다. 그 당시 내 나이 12세. 우리 세대들은 민족의 험난한 시련 속에서 무자비한 전쟁의 상황아래 기아와 전율, 공포를 맛보아야 했고 처절한 골육상잔의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려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지를 못했다.

나는 적 치하 3개월에서 공산당의 반민족적 파렴치한의 정체를 절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었다. 10대의 소년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체험이었고 상상을 넘는 현실의 비극의 참상은 지금도 그 악몽이 가시지 않고 남아있음은 너무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후유증일 것이다.

약 3개월에 걸쳐 우리 마을에서 자행한 살인행위,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역사적 살인마 장본인들이 지금도 그 흉칙한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더 광분하고 있음을 우리는 추호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나치 독일인들이 유대인을 무차별하게 처형하는 장면을 영화나 TV에서 익히 보아왔다. 그러나 그것은 이민족끼리의 살인극이었지만, 내가 겪은 6·25의 살인행위는 한 민족의 살인행위로서 그 원통함을 어디에다 호소할 것인가.

그때 우리 동네의 가구가 약 천여호에 달했다. 농촌의 인구치고는 제법 방대한 촌락이었다. 반농 반어촌인 우리 평화로운 동네에 빨갱이가 들이닥쳤다. 들어오자마자 곧 처참한 살인행위가 시작되었다. 일단 반동으로 낙인찍힌 사람들을 잡아내어 인민재판에 회부하여 반 김일성 분자, 자본주의 앞잡이로 몰아세워 몇명씩 철사줄에 묶어 어디론가 데리고 가면 영영 돌아올 줄을 몰랐다.

그 가족, 재산은 몰수당하고 엄중한 감시하에 숨을 못쉬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슴살이를 한 일자무식들이 빨강완장을 어깨에 두르고 공산당으로 둔갑하여 몽둥이를 휘두르며

제 주인들을 때려잡기 시작했다. 하루 아침에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이 동네 저 동네에서 사람들이 죽어갔다. 매일 사람잡아가는 일이 계속되고 온 동네가 살벌한 도살장으로 변해가니 피난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감시가 심하니까 밤에만 하나 둘씩 빠져 나가기 시작했다. 재산이고 땅이 문제가 아니었다. 당장 목숨이 살아야 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 빠져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재수없이 걸려든 사람들은 반동분자로 몰려 처형당하는 사태가 늘어만 갔다.

청소년들은 의용군에 끌려가고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소위 세뇌공작을 시도해 봤지만 들어먹히지 않았다. 갈수록 피바다는 가열되어 가고 피난의 숫자는 많아져 갔다. 죽음을 각오한 피난이었다. 이판사판 죽을 바에는 도망치다가 죽자는 것이었다. 국군이 들어오기 전에 빨갱이들에게 먼저 당한다는 강박관념이 주민들의 지배적인 생각이었다. 하룻밤만 자고나면 이 집 저집이 쓸쓸이 비어 있었다. 그 지독한 칠월, 그 해마다 가뭄이 온 대지를 집어삼키었고 피를 본 빨갱이들은 미친개처럼 날뛰며 선량한 농민들을 처형했던 것이다.

온 들판이 무성한 잡초로 꽉 차버렸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이 되었고 밭곡식은 다 타서 이글거리는 땃벌에 녹초가 돼버렸다. 농민들 하나 열선거리지 않았다. 언제 끌려가 죽을지 모르는 판국에 농사가 필요 없었다. 설사 농사일을 본다 해도 결국은 빨갱이 배때기나 채워주는 꼴이 보기 싫어 아예 포기해버린 것이었다.

어머님이 피난을 간다고 하셨다. 갈 곳이란 첩첩산중 밖에 없다고 하신다. 백이숙제처럼 고사리를 캐어 먹든지, 산 열매를 먹든지, 소나무 껍질을 벗겨먹든지 여하튼 산 중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다는 결론이었다.

우리가 정든 집을 떠나던 그 날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떠오른다. 보리가루 몇 대를 등에 짊어진 나와 어머니는 어둠을 이용하여 막 동구 밖을 나서는데 마침 장충을 맨 괴뢰군 두 놈이 불쑥 나타나 길을 막고 있었다. 한 놈이 『동무들 지금 이 밤에 어데로 가나?』 하고 묻는다. 순간간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지 않아도 기겁에 싸인 나로서 대답이 금방 나올 수가 없었다. 한동안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나를 제치고 그 놈 앞에 다가서더니 『우리집 아버지가 지금 원두막에서 밥을 지키고 있는데 낮부터 밥을 못먹여 죽이라도 끓여주려고 가는 길입니다.』 하고 말했다. 그 놈은 반신반의 하는 태도로 한창거리고 있더니 『틀림이 없소?』 『예,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빨강 가보시오』 하더니 두 놈은 우리를 놔주고 가버렸다. 모자는 긴 한숨을 쉬고 선 뒤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하늘이 도와준 피난길이었다.

우리는 그 날 새벽녘에야 산중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 산중에는 상당수의 피난민들이 몰려와 있었다. 비록 초근목피의 생활이었지만 살기등등한 빨갱이 꼴을 안 본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개중에는 라디오를 소유한 사람도 더러 있어서 때때로 새로운 정보같은 것도 들을 수 있었다. 국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개시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인민군은 곧 패전하여 철수한다는 소리도 들었다. 근래에 제트기들이 나타나 괴뢰군 진지를 폭격한다는 풍문도 들었다. 우리는 산

속에서 국군이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드디어 국군이 우리 마을에 입성했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 의심하면서도 반가움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었다. 모두가 얼싸안고 울었다.

우리는 하산하여 집에 도착했다. 온 동네 집집마다 태극기가 펠럭이고 있었다. 모두가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 그 때의 감격. 온 동네가 축발이 되어 버렸다. 복귀가 저지른 죄상, 살인, 약탈, 방화, 어른들은 이구동성으로 일제 때에도 이러하지는 않았다. 이전 빨갱이라면 치가 떨린다고 저주하고 있었다. 공산당의 잔인함을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이다.

6·25전쟁. 그 치욕스러운 전쟁, 12세 소년의 6·25는 처절하기만 했다. 수 많은 사람들이 죄 없이 죽어 갔고 피끓는 청소년들이 생사를 모른채 행방불명이 되어 버렸다. 어떤 사람은 몽둥이에 맞아 병신이 되어 버렸고 어느 아낙네는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 정신병자가 됐다. 참호 속에 갇힌 인사들이 공산당의 화장으로 불타 죽었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러 죽였다. 그 원혼들이 유령이 되어 날이 꾸무러한 날이면 슬피 통곡한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마을의 비극이 이러 했거늘 전 국토가 빨갱이 수중으로 들어가 이러한 동족의 비극을 자아냈으니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던 6·25의 비극이었다.

나는 6·25의 산증인이다. 나는 그 때의 암담한 역사를 영원히 기록할 것이다.

3년이란 전쟁 참화 속에서 득과 실은 무엇인가.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았다.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자유를 수호하다 숨진 우방과 우리 국군의 희생이 있었다. 전쟁 미망인, 전쟁고아, 남북으로 흩어진 이산가족, 온 산하에 피로 물들인 국군의 전공도 조국통일의 기원도 수포로 돌아가고 휴전선만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니 분통이 치밀어 오른다. 36년 전 그 민족분열의 괴수 김일성 도당이 지금도 잔존해 있고, 그때 6·25보다 더 악랄한 전쟁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우리는 그 놈들에게 속아왔다. 양두구육의 탈을 쓴 이중 인간들에게 너무나 많이 속아왔다. 지금 이 시간도 복귀는 무장간첩을 내려보내 우리의 안보를 엿보고 있다. 나는 항시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불안한 자세이다.

데모도 좋고 장발, 복장, 무승 자율화 뭐든지 좋다. 팝송도 좋고 디스코도 좋다. 국가경제도 이쯤되었으면 운택해 졌고 자유도 향락도 누릴만큼 누린다. 이 나라에서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50년대 '60년대 우리 때에는 세세 연년 춘궁기 보리고개를 한(恨)으로 살아왔고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전후의 국가재건에 진력해 왔었다. 사실 오늘의 경제번영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오늘의 물질적 풍요로움은 누가 거저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의 이 철통 같은 방어태세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휴전선 155마일 바로 호앞에는 최선에 장비로 무장된 북괴 특공대가 우리의 헛점을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자. 6·25가 지금의 세대들에게는 하나의 환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로 얼룩진 한 부모, 한 형제들이 이념의 갈등으로 빚어낸 부자지간의 살인 행위가 전설로 생각하는가. 환상도 전설도 아니다. 어린 12세 소년의 눈앞에 나타난 이 나라 이 민족의 엄연한 비극의 현장이었다. 보리가루 몇 되를 지참하고 산속

을 찾아가는 12세 소년의 비극이 아직도 생생하질 않은가.

오늘의 젊은 지성인들이여! 그대들은 부모 잃은 설움을 보았는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당해 보았는가. 사흘동안 굶주려 배고픈 설움을 당해 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절박하게 느낀 설움 중에 이 세 가지만은 골수에 사무친다.

나는 오랜 세월을 공군에 몸 담아 왔다. 한 세대를 군에서 보냈다. 참으로 세상은 격세지감을 금치 못한다. 그 옛날 휘발유 드럼통으로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 수출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수출 몇 백달러가 고작인 그 때에, 지금은 300억불을 넘어섰다. 얼마나 변모해 버렸는가. 한 30~40년 사이에 국가경제는 성장해 버렸다.

오늘의 이 시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고도의 물질문명과 사치스런 향락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정말로 안락한 삶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기우가 있다면 우리의 안보 태세이다. 우리의 안보태세 점검은 정말로 완벽한가? 나는 6·25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 중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이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반공의식이라고 서슴없이 내세우고 싶다. 만약 우리가 공산당의 실상을 접해보지 못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세계 제일의 반공국가로 각광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6·25는 우리에게 이울배반적인 역사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6·25와 나, 그 민족의 상처투성인 6·25는 나에게 여러 가지로 암시해 주는 것이 있다. 하나의 형식적인 구호로만 6·25를 생각한다면 이처럼 위험한 장난은 없다. 다시는 불행한 역사의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 반공정신을 생활화하여야 하겠다.

6·25와 나

36주년 6·25를 맞은
장병들의 각오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중위 조 익 래
(제5718부대)

나는 1960년생이다.

푸른 제복을 입고 정병강군, 필승공군의 일원으로 군문에 들어온지도 어언 2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6·25란 거대한 사건과 나와 세월의 격차는 10년인 셈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6·25라는 무형의 존재(存在)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나는 무엇을 얻는 것일까? 어린 시절의 6·25는 단순한 흥미거리였으며 표어와 포스터 속의 붉은색과 탱크와 대포로 대표되는 글과 그림과의 만남이었던 것 같다. 물론 어린 나이라는 제약 요소도 있었지만 6·25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족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북괴공산집단과 중공군에 대한 비분강개식(式) 가슴만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또한 6·25를 직접 몸으로 겪은 6·25 전세대의 부모님이나 선배들을 통해 얻어들은 간접 체험으로서 6·25가 얼마나 큰 민족의 비극이며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것 뿐이지 실상 나에게 커다란 그림자를 드리우지는 못했던 대상이었다. 그러나 학업을 마치고 군(軍)에 들어오고, 또한 몸소 국방의 역군으로서 조국이 처한 현실을 바로 보게 되었을 때 그 동안 내 자신이 그동안 너무 몰랐고, 주관적으로만 생각했었다는 오류를 발견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죄지는 자」 같은 마음의 아픔이 젖어왔다.

6·25는 민족의 비극이요, 다시는 이 땅에 재연되지 말아야 하는 커다란 아픔이요 상처다. 또한 6·25의 성질은 악을 추종하는 강자와 그 악을 용납시킨 또 다른 강자와 강자들 속에서 스스

로의 약점과 분열을 드러내 놓고 자신의 운명을 헤쳐 나가지 못했던 약자가 얻은 최악의 결과였다. 그 결과 우리 민족과 산하는 36년이 지난 지금도 아픈 상처를 간직한 채 이를 악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다. 6·25가 드리운 회색빛 그림자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국토의 분단이다. 옛날 고구려인들이 보면 가슴을 치고 통분해야 할 일이 바로 삼천리 금수강산을 보조차 못하고 붉은 이리떼들에게 38선 이북을 넘겨준 일일 것이다. 이 얼마나 치욕적인 일인가? 이것은 책임이야 어디에 있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요, 시대적 사명이다. 단순히 금강산의 절경이 어떻고 백두산 천지(天池)가 어떻고 평양냉면의 맛이 어떻고 하며 새 세대의 어린이들에게 사진이나 말로만 들려주어야 하는 이 아픈 만큼 6·25가 우리들 가슴에 못을 박은 상처가 어디 있을까?

둘째는 정든 고향을 등져야 했던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이다. 이들의 애절한 사연과 헤어진 혈육을 만나보기 위한 간절한 기원과 절규는 누가 보상해야 할 것인가?

오래 전의 일이다. 아마 내가 필요한 서적을 구입하려고 청계천 책방을 기웃거린 날은 구정(민속의 날) 전날 밤이었다. 하지만 구정이어서 그런지 거의 모든 책방이 문을 닫아 버린채 엮고 거리는 한산하였다. 책을 살 수 없다는 작은 실망감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철시한 책방의 대열에서 오직 한 곳만이 불빛을 내어 뽐고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니 책방이름은 「평양서림」, 머리칼이 온통 은빛인 할아버지가 돛수 높은 안경을 쓴 채 고문(古文)집을 읽고 있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책을 살 수 없는 책방이었지만 내일 아침이 구정인 금요일 밤에 유독 이 「평양서림」만이 문을 열어 놓은 것에 대한 서점주인인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떨쳐 버릴 수는 없었다.

“할아버지! 단 책방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원일이세요? 내일이면 구정인데……” “은 내레 갈데가 있어야지, 집은 너무 설렁하구……” 이렇게 시작된 할아버지와 대화는 대충 이러한 할아버지의 사연을 알게 하였다.

할아버지는 6·25발발 전에 평양에서는 알아주는 알부자요, 수집상이었다. 그러나 6·25가 터지자 30살의 나이로 4살 먹은 외아들(할아버지 말로는 어쩔 수 없이 외아들이 되었다고 한다)을 업고 아리따운 각시와 고향 사람들, 그리고 평양 대동강을 등지고 38선을 넘었다고 한다. 그 뒤 결혼(재혼)도 않고 통일이 되어 그리던 각시(할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각시라고 했다)를 만나고자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며 공부를 시켰고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에미없는 자식소리 듣기 싫고 통일되면 각시한테 자랑하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어 정성껏 아들을 키웠고 아들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결혼하여 잘 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은 아직도 고향인 평양(피양)이 보고 싶고 지금은 할망구가 됐을 각시가 그리워 지금도 꿈만 꾸면 평양의 대동강 모란봉이 보이고 각시가 보인다고 하며 노안답지 않게 굵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 안섶을 뒤적이며 꺼낸 것은 누렇게 낡은 결혼기념 사진이었고 그 속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얼굴과 곱게 치장한 각시의 얼굴이 있었다.

“젊은이, 나 피양가고 싶네 외로와 못 살겠구만, 내일이 구정인데 어디 갈 곳이 있어야지, 만날사람이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나와서 청승이나 떨고 있다네……” 6·25가 발발한지 36년이 지난 지금 칠순이 다 된 할아버지의 소망 앞에 6·25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이 한 많은 평양 할아버지의 거칠어진 손을 맞잡고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째는 잊혀져가는 6·25에 대한 구세대(전전(前戰)세대)와 신세대(전후세대)의 단절감이라 하겠다. 공산주의와 북괴공산당의 위험성과 만행을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전후세대들은 선배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이룩해 놓은 물질문명의 혜택 속에 어쩔 수 없이 이완되어 6·25를 하나의 과거지사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으며 여기에 또 다른 6·25가 재연될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설마」라는 안이함과 현실부정적인 시각이 교정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보지 못한다면 그 누가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6·25가 남긴 심각한 후유증과 비극의 그림자는 아직도 살아있으며 내일을 예측키 어려운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은 조국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하겠다.

나는 군인이다. 또한 조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할 젊은이다. 6·25는 우리와 같은 젊은이들에게 생생히 살아있어야 할 실험교재요, 증언이 돼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의 현실을 역사 속에서 통찰할 수 있는 이성과 지혜가 필요하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평양 할아버지」를 비롯한 일천만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고 또 다른 6·25의 재발을 막기 위해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이제 또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는 6·25를 맞으며 이제는 장년이 된 상처투성이 「6·25」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데 온국민이 합심 단결해야겠다.

대한민국 공군의 일원이요, 피끓는 젊음이 있는 나는 물론이다.

6·25가 남긴 것

중령 이석규
〈제3591부대〉

“아빠! 옛날에는 배가 고프면 라면이라도 끓여먹어야지. 왜(?) 끓였어요?”하고 어느날 국민학교 5학년짜리 장남인 준석이가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은 교육목적으로 6·25전후의 우리의 가난했던 사회상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들려준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않아 다시 아버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다. 교육이 학교 선생님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겪었던 일들과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 적에 보고 느낀 일들을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내 아들 준석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내가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어쨌든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지는 못하였다. 이야기 중 “쌀이 없어서 밥을 굶게 되었다”라는 아버지의 말에 “쌀을 사야지!” “그 당시는 돈이 없었던다.” “돈을 벌어야지……” “옛날 사람들은 모두 게을렀었던 것 같아!”하고 나에게 일침을 놓았다. 아버지로서 자식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게도 느껴졌지만, 이해시킨다는 것도 어렵게 느껴졌다. 무엇을 이야기하여 줄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격세지감(隔世之感)!” “이것이 세대차이구나!”하고 내 아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자식을 이해시키지 못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감, 세대 차이가 바로 6·25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소산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한 번 6·25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6·25가 발발하기 전해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의 총성과 우리의 부모형제, 동족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일들이 지금까지 기억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국민학교 입학하기 2~3년 전 자유 우방국의 구호물자를 분배받던 일들은 생생히 기억된다. 구호물자라면 단어 자체도 별로 좋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좋고 나쁜 것을 생각하기에 앞서 우선 많이 분배받기를 원했던 것이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주위환경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전쟁의 잔해 위에 헐벗고 굶주린 우리 동족에게 구호물자라는 것이 구세주와 같이 느껴졌던 당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세대라면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이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 때보다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생에 대한 욕망이 더 강렬해지는 것과 같이, 휴전 후 우리의 부모형제들은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리면서 삶의 의지를 더 강하게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인(先人)들은 구호물자에 의존하면서도 곳곳에서 출몰했던 공산주의 잔당들을 잘도 싸워 이겼다. 우리는 공산당과 싸우느라 여념이 없었겠지만, 구호물자를 보내준 우방국에서는 우리 나라가 비참하게 폐허가 된 모습과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을 사진과 필름에 담았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도와주어야 할 것을 호소하면서 비참한 광경을 소개했을 것이다. 이 얼마나 우리 민족의 수치인가? 다시는 이 강산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은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일본은 36년동안에 우리 민족에게 “개인은 강하나 모이면 약하다”라는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을 심어주었다. 이 굴욕의 역사적 아픔이 채 아물기도 전에 우리 민족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한 민족은 전쟁을 겪은 이유만으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할 민족이 아니었다. 일본과 서구의 많은 선진국가들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오늘의 꽃을 피운 것과 같이 우리들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세대들도 서구의 선진국민들 보다 더 좋은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동족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다른 국가의 경우보다 더 많은 피를 흘려야 하였고 더 많은 파괴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것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찾고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부수었던 것이다.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 피해를 많이 당한 우리나라에 보내준 우방국의 구호물자와 원조는 더없이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6·25 후의 많은 우방국의 원조를 내일을 향한 건설에는 소홀하게 사용하였던 것이다. 당시에는 우방국에서 보내주는 구호물자와 미국의 무상원조는 우리 민족에게 삶의 의지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원조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달 두달이 지나고 일년 이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위정자뿐만 아니라 국민들 모두가 이 원조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였던 것이다.

원조가 계속되고 안 되고, 많고 적고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원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어느 언론인의 글이 생각난다.

「기자와 거지는 사흘만하면 평생 버릴 수 없는 직업이 된다」는 말이다.

원조라는 것이 너와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조건없이 주어지는 원조이었기에 당시에는 받는 것만 좋아하였지, 남이 주는 것에 의존하며, 구걸하여 먹고 살아가는 거지와 같은 상황임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 민족이 우리나라를 보고 생각할 때는 거지 국가, 거지 민족으로 보았을 것이다. 우리의 과거 '50년대를 회상해 보면, 원조에 의하여 살아온 우리의 처지가 거지들의 생활상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는가? 6·25가 우리에게 준 크나큰 상처! 이 어찌 돌이켜 생각하지 않을 일인가? 우리 세대 뿐만 아니라 후세에도 6·25와 같은 비극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우수함을 단합과 건설로써 결실을 맺어 언제든지 복귀를 앞서가야 할 것이다.

6·25는 우리 민족의 많은 목숨을 앗아갔다. 특히 젊은 청년들의 생명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외국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남자 특히 사내 아이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사실일 것이다. 내가 어렸을 당시에 자식을 그것도 아들을 많이 낳은 부모가 표창을 받았던 일들이 생각난다.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남자들이 잃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서 키울 때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더 없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자식에게 매를 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귀여운 자식에게 매를 주고, 미운 자식에게 밥을 주라」고 하는 우리들의 속담이 생긴 것같이 생각된다. 먹을 것이 부족한 당시 미운 자식이 굶주릴 것을 생각하여 밥을 주라한 것과, 아들선호사상에서 자식이 탈선할 것을 우려하여 매를 주라고 말한 옛 할아버지들의 말씀이 당시 사회상의 단면을 설명해 주는 것 같다.

사랑하는 애인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이, 사랑하는 자식을 위하여 부모가 대신 노력하고 헌신하는 것과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적인 미덕인 것으로 우리의 선조들은 생각해 왔다. 반면,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부모가 편안히 쉬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도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인 것으로도 생각하여 왔다. 이러한 좋은 우리들의 습관은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을 자식이 옆에서 보고 느끼게 되었던 옛날에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따르는 우리의 습관이 잘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6·25를 통하여 우리들의 사회상이 바뀌게 되었고, 급속한 사회 변천이 자식과 부모들의 생활방식을 바꾸게 하였다. 즉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의 고생을 몸소 느끼면서 생활하였으나, 70년대와 '80년대의 고도성장은 자식들이 부모의 어려웠던 과거를 생각하거나, 체험할 겨를이 없게 하였다.

젊은 세대들이 사고를 하게 되고, 사회적인 성장을 할 때는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큼 사회적인 부를 축적하였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였던 것이다. 생활의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게 된 젊은 세대들은 배우기 쉽고 편리한 서구의 자유방임적인 사고방식과 생활태도를 익히게 되었다. 이미 자식과 부모의 자라온 생활이 다르게 되었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개구리는 물에서 생활하고 올챙이는 물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이해 못하는 것이다.

6·25는 나에게 나와 자식간에 “격세지감(隔世之感)!” 세대차이를 갖게 하였다. 모든 사회의 소요와 젊은이들의 반발은, 나(우리)와 내(우리)자식이 서로 이해하여 올챙이와 개구리가 아니라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한 이해와 화합이 이루어져야겠다.

어느 소년의 죽음

군무원 강 위 철
(제2762부대)

작년에 있었던 남북이산가족 상봉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하나의 큰 아픔이었다. 세계가 하나로 되어 단 몇 시간이면 태평양을 건너서 유럽이다, 미국이다 마음놓고 갈 수 있지만 지척지간인 내 형제동포가 살고 있는 우리 땅이 가장 멀고 먼 갈 수 없는 곳이 되어 버렸다니 생각만 해도 비극이다.

갈 수 없는 것만 하여도 가슴아픈 일인데 한 핏줄끼리로의 가슴에 총을 겨누고 죽어야 했던 과거는 더욱 더 쓰라린 것이다.

지금은 한 세대가 훨씬 지난 세월이 흘렀지만 아련한 아픔 속에 가슴 저 밑에서 번져오는 과거가 주마등처럼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중학교 다니던 시절 할아버님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밤으로 밤으로 가던 기억.

일월산 밑 하늘 아래 첫동네라는 우리 마을에도 빨갱이는 나타났다. 처음에는 마치 자기네들이 구세주인양 달콤한 말로 무지하고 순박한 주민들을 꾀었다. 하루이틀이 지나자 그네들의 본성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다. 모든 주민들을 서로 서로 감시케 하며 자유를 박탈해 갔다. 이에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좀 덜하겠지 생각하시고 우리 가족을 이끌고 충청도 계룡산 밑으로 야간도주를 했다. 하지만 빨갱이 있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로.

밤은 참으로 싫었다. 밤만 되면 주민들을 모아 사상교육이니 노래니 하면서 밤새도록 주민을 괴롭혔다.

언제 이웃사람과 웃으면서 정을 주고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날마다 한숨짓는 어른들의 모습은 나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라곤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질곡과 암흑의 시간이었다.

그해 무더운 여름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생각나는 악몽이 있었다. 나는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러다녔다.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 아이들 이름은 잘 몰랐지만 우리는 어울려 마을 앞 개울로 먹감으로 갔었다.

대여섯명쯤 될까, 우리는 낮에는 아이들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놀았다. 먹감도 집으로 돌아오

는 길이었다. 그때 마침 인민군 한명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그때 한 아이가 무심코 “저기 빨갱이 지나간다”하고 소리쳤다

그러자 말을 탄 인민군은 뒤를 돌아보면서 “어느 간나새끼야”하고 눈을 부라렸다. 그러자 소리친 아이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 그러자 인민군은 허리의 권총을 빼서 그 아이를 향해 총을 쏘면서 말을 몰았다. 우리들은 겁이 나서 빨빨이 도망을 갔다. 나는 겁에 질려서 집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그날 밤은 꼬박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했다. 새벽에 살그머니 집을 나와 그 장소로 가 보았다. 거기에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어린 소년은 말발굽에 이리저리 채인 자국과 함께 머리에 관통상을 입고 죽어 있었다. 주위에는 피자국이 엉겨 있었다. 아직도 어리다면 어린 나에게는 너무나도 무섭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길로 집으로 돌아와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도 않고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이렇게 무덤고 지루한 긴 여름을 보낸 후 우리 국군들이 빨갱이를 쫓으면서 북진할 때 비로소 집 밖으로 나와 쫓겨가는 빨갱이를 보면서 국군아저씨 만세하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 그제서야 어린 나로서 처음으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벌써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해마다 여름이면 그해의 처참했던 광경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소년이 죽지 않았다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40대 후반의 신사로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단란한 삶을 영위하고 있을 걸 하면서 한 순간이나마 그 어린 소년의 명복을 빌어 본다.

화합하여 더욱 안정

단합하여 힘찬 전진

좌담회(座談會)

귀순(歸順) 조종사(操縱士)는
증언(證言)한다 (I)



좌담회(座談會)

때 86. 3. 15
 곳 공군본부 정훈감실
 참석자 대령 정낙현
 소령 이웅평
 대위 이성호(사회)

사회 :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분께서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소령님께서도 최근 학업에 전념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해로서 36번째 맞는 6:25에 관하여 돌이켜 생각해 보고, 앞으로 우리 장병들이 이같은 민족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각오로 맡은 바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할 것인지 두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분 다 북한에서 생활하시다가 자유를 찾아 귀순하신 분들로 평소 우리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략) —

◎ 6:25 발발 직전 북괴는 사전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각종 무기와 장비를 늘리고 공격적 체제를 다듬는 등 총력을 기울였는데 당시 그들의 전쟁준비 상황은 어떠했는지 특히 북괴 공군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낙현 대령 : 북괴는 애초부터 침략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기본전략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 지상군 3개사단과 경비여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각 사단은 보통 중국으로 건너가 연안(延安) 지방에서 중공군에 가담하여 장개석의 국부군과 전투한 바 있는 장교와 하사관으로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획한 개전시기가 임박해지자 한국인으로 조직된 중공군 제164사단과 제166사단이 중국을 출발 1949년 7월 20일 압록강을 건너 비밀리에 입북하여 북괴군 제5 사단과 제6사단을 창설하였고 1950년 5월에는 중공군 제12사단은 북괴가 인수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밟아 북괴는 1950년 6월 10개 사단에 1개 전차여단, 5개 경비여단으로 총병력 15만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정보장교들이 북괴의 공군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괴 공군이라고 해봐야 YAK기와 IL기 등 몇대에 불과하여 위협적인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으나 전쟁 초기 수원근방에서 미공군에 격추된 북괴공군 소좌로부터 입수한 정보와 후일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들은 개전초 YAK-7B, YAK-11, IL-10 등 120대가 넘는 전투기와 연습기 25대 각종 항공기 30대 등 200대에 가까운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고 우리는 연락기 몇대에 불과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전쟁의 주범은 누구였는지 쉽게 드러납니다. 북괴가 보유하고 있었던 항공기는 모두 소련제이며 전투기 중 일부는 개전직전에 도입한 것입니다.

북괴공군 조종사들은 상당수 일본 항공계에서 전투경험을 가진 조종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북괴가 양성한 풋내기들이었고 심지어 비행시간이 채 10시간이 넘을까 말까한 신참들도 다수 끼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들이 얼마나 전쟁준비를 서둘러 했으며 급조된 저급수준인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전 당시 북괴공군 사령부 내에는 15명의 소련장교들이 모든 작전을 지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괴공군의 제반시설을 언급해 보자면, 일제시대에 일본군이 건설한 기지를 대부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이 중 몇개는 전쟁발발 직전에 북괴가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평양, 신의주, 원산, 연포기지는 완전포장된 활주로와 수리창, 유지고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새로 건설한 신막비행장도 제반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남침음모를 꾸미는 북괴에게 대대적인 군사원조를 하면서도 원산에 있던 수리창 시설을 해방자라고 자처하는 소련군이 철거해 갔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현재 북괴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는 항속거리가 짧아 200마일의 전투행동반경을 가지고 있으며 IL-10 전투기만이 한국남단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같은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던 북괴공군은 전쟁초기 UN군이 참전하기 전까지 우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우세한 공군력과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 6·25 당시 북괴가 결정적으로 패퇴하게된 동기가 제공권을 우리측에 빼앗겼던 탓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 북괴 공군력 현황은 어떠했습니까?

이웅평 소령 : 사실 전쟁초기 기세 등등하게 밀고 내려오던 북괴군이 우리가 전력을 재정비하고 UN군이 속속 전투에 투입됨에 따라 전선이 고착상태에 빠지자 그들은 무엇보다도 공중지원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UN공군이 참전한 이후부터는 제공권을 완전 상실하여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공중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고 패주만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에서 김일성이 6·25 당시 제공권을 빼앗겼던 것이 패전의 원인이라 보고 애통해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후일 김일성은 그의 아들 김정일을 동독공군사관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곳에 적응하지 못한 김정일이 퇴교당하여 되돌아 오고 말았을지라도.

그들의 소위 “조국해방전사(戰史)” 등을 보면, 거짓말 투성이인데, 전쟁을 3단계로 나누어 휴전선 부근 전투교착기인 52년도부터 휴전협정에 이르는 시기, 즉 3단계에서는 그들이 청천강 이북의 제공권을 완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북괴공군 참패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가져 보자는 식의 거짓 주장이고 실제로 그들이 얼마만큼 위기에 몰렸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증명할 수 있습니다만, 특히 그들의 조종사 양성 기관인 비행학교가 만주 연길시로 쫓겨가는 비참한 상태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행훈련이 제대로 될 리 없고 비행시간이 채 10시간도 못되는 신출내기들이 조종하는 전투기가 제대로 공중전을 펼칠 수 있을리가 만무합니다.

정낙현 대령 : 그들은 개전초기 YAK-11을 주력기로 삼아 공격해 왔으나 이에 맞서 아군측이 F-80으로 대응하여 격퇴시키자 전쟁말기 MIG-15를 소련으로부터 제공받아 전세를 바꿔보려고 했고 곧 우리의 F-86F가 대응하여 백전백승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의 거짓선전을 이야기해 보자면 우리가 6·25를 일으켰다는 북침설의 근거로도 삼고 있는 주장인데 '50년 6월말 그들은 수원비행장을 공습하여 우리 전투기 140여대를 파괴하여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입니다. 당시 우리 공군이 140여대에 이르는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것을 통채로 부숴 놓았다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이쯤에 이르고 보면 희극의 극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투기를 한 기지에 140여 대씩이나 모아 놓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폭격당하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들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만큼씩 전쟁준비를 해왔다면 전쟁초반에 후퇴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 북괴는 6·25동란을 우리의 북침에 의한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끝내 굽히지 않고 있는데 그들의 소위 ‘남조선의 북침설’은 어떠한 근거와 내용입니까?

이웅평 소령 : 사전 소련으로부터 적화통일, 남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은 '50년 6월 25일 새벽 이미 우리에게 대한 선제공격을 시작해 놓고 북한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하여 떠들어 댔습니다.

즉, ‘남조선 군대가 6월 25일 기습공격을 시작했다. 모든 인민들은 조국해방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니 앞장서라. 남조선의 기습침략으로 우리가 처음 10km후퇴를 했으나 곧 반격하여 38선을 넘게 되었다. 서울함락은 시간문제다’라는 선동연설을 했던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의 선전에 속아 그대로 믿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6·25 직전 텔레스 미 국무장관의 전방시찰 모습을 담은 사진을 소위 남조선 북침설의 증거로 제시하

고 미국이 이승만을 앞세워서 침략전을 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공격지시서라는 것도 그럴듯하게 만들어 그들의 선전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6월 25일 당시 많은 국군이 휴가 중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조선이 국군에게 휴가를 주는 척하여 공격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위장하려 했으나 실제로 병력의 이동이었다고 모략합니다.

북괴의 6·25관련 선전책자인 “조국해방전쟁의 경험과 교훈”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적화통일을 이루지 못한 원인과 참패의 요인을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공략해서 3일만에 완전 장악을 했으나 공격부대의 협동작전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38선을 넘어 육상으로 내려오는 지상군과 웅진반도에서 출발하여 서해안 쪽으로 상륙해 들어와 서울을 포위하려는 의도였다는 것인데 상륙부대가 제대로 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첫번째 과오이며 일단 서울을 점령해서 약 일주일 동안 그 이남에 대하여 적극적인 공격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이 두번째 과오라고 합니다. 수도 서울을 함락시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는 동안 우리의 방어전선이 구축되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한강을 도하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꾸물댔기 때문에 신속히 전쟁을 끝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최근에 와서도 그때 일을 상기하고 억울해 합니다. 지난 '82년에도 김일성이 당시 북괴 사령관이었던 최용건을 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나는 최용건 동무의 과오를 일생동안 잊지 못한다. 한강을 넘어 계속 공격하지 않고 우물거려서 결국은 놈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준게 아니냐. 도하장비가 부족했다고 하지만 당시 상황으로서는 서울주민의 집이라도 허물어 뗏목을 만들어 공격을 계속했어야 한다’고 한탄했습니다.

◎ 최근 북괴가 구걸외교 행각을 통하여 소련으로부터 MIG-23을 도입하는 등 공군력 보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단 유사시 이들을 초전에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무엇입니까?

이용평 소령 : 지난 '78년 9월이라고 기억되는데 김일성이 북괴 공군사령부 사령관급 지휘관부 회의에서 이렇게 떠들어 댔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은 전투조종사를 현재보다 2~3배 이상 양성해야 하는 것이다.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비행기를 제공해 줄 나라는 얼마든지 있지만 조종사가 없으면 큰 일이 아니겠는가. 내가 6·25때에도 스탈린 동무를 만났는데 그가 IL-28 40여대를 줄테니까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을 폭격하라고 했지만 조종사가 부족하여 못했다. 지금도 중동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유사시 항공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우수한 조종사가 먼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중동 여러 나라에 가서 공군지원을 하는 것은 상호부조하는 계모임과 같은 것이다. 중동전에 참전한다는 것은 헛된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괴는 중동전에 일종의 용병을 파견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동국가에 고용되어 군번

을 받고 월급도 받으면서 이스라엘과 공중전도 벌이는 것이지요. 모두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란-이라크 전쟁에도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대리전쟁도 서슴없이 하고 있지만 이제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촌의 망나니요 가장 호전적인 집단인 북괴의 정체를 대부분 알고 있어서 그들을 추방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괴가 이미 실전배치하기 시작한 MIG-23기에 대한 도입계획은 '70년대 말부터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최신예기 MIG-23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각만큼 두려운 것이 못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훌륭한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장비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운용하는 인간의 기술, 기량, 정신력 등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들은 우리가 훨씬 기량에 있어서 앞선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들의 무기와 장비, 기술, 전략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그들의 기습공격을 격퇴함은 물론이고 애초에 도발의욕을 꺾어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수년전에 우리는 국력발전에 힘입어 국산 전투기를 생산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전 국민의 관심이며, 대통령 각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F-16이 연내 실전배치 된다면 우리 전력도 크게 향상되어 MI-23을 포함한 어떠한 북괴기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낙현 대령 : 북괴가 기습공격을 해올 때 초전에 분쇄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저는 이러한 면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현대전은 분초를 다투는 상황이므로 적의 기습을 해올 때 얼마만큼 이를 재빨리 포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빨리 전술 대응조치를 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상대방에 대한 선제공격을 결코 감행할 수 없다는 것이 명시된 평화적 헌법이고 보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한정된 셈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공격을 당한 다음에 대응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공격을 당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따라서 항상 그들의 기습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 경계심을 조금도 늦출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북괴기가 우리 영토를 조금이라도 침범할 시에는 여지없이 분쇄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기는 것이요 살길입니다.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은 적군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공격의사를 갖고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하루전 또는 한시간전 적들의 공격개시 직전에 선제공격을 가하여 재기불능으로 만들었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고도로 발달한 정보체제를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고 항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았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 북괴 공군의 전기전술 가운데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우리 공군이 보강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라고 봅니까?

정낙현 대령 : 북괴공군의 전기전술이 우리보다 훨씬 우월하다거나 특별히 경계해야 할 만큼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적화야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도 못할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비행장을 일시 공습하여 봉쇄하는 그들의 작전 가운데 화학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잔인한 집단인 그들이 능히 저지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화학무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같은 화학전에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AN-2 등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야음을 틈타 저고도 비행으로 특공 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입니다. 이것은 '86, '88 양 스포츠제전 등 우리가 도약 발전하는 이 시기에 못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는 격으로 후방교란을 주목적으로 하는 작전에 해당됩니다. 십 수년전 1.21사태나 올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보다 훨씬 대규모의 기습도발을 예상해 볼 수 있다면 비단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군, 전국민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시급히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용평 소령 : 저는 북괴공군의 유격전을 더욱 연구해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공산당의 기본전술 가운데에도 항상 중시되고 있는 이 유격전의 개념은 그들이 정규전만으로는 상대방을 대적할 수 없을 때 적절한 대책으로서 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격전을 좀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기 역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후방기지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게 조금씩 조금씩 타격을 주는 소규모 기습작전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타격이 쌓이면 드디어 상대방은 작전수행이 불가능하여 무너지게 된다는 전략입니다. 특히 북괴공군의 공중매복전, 기습전, 사냥전, 교란전 등의 전략전술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간파하고 있는 합시다만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공군력을 장비(또는 무기)와 함께 사상(우리들로 말하면 정신전력에 해당되리라고 보는데)을 절대적 요소라고 보는데 반하여 우리는 장비 또는 무기와 아울러 기술기량을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언급된 이야기 입지만 북괴공군은 공격무기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우리처럼 충분한 실전훈련을 통한 기술기량 향상을 꾀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론적인 면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들의 헛점을 간파하고 자신감을 갖되 결코 경솔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우세를 믿고 자만하며 오만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는 옛 교훈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 지난번 2월 진보총 중공조종사가 귀순하게 됨으로써 중공기로는 벌써 6번째인데, 그들이 필사적으로 우리 땅으로 망명해 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가 보장되는 곳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봅니다. 특히 북한 조종사들의 우리 한국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 것입니까?

정낙현 대령 : 근자에 중공기 귀순이 잇달아 있었습니다. 사회자의 말씀처럼 우리나라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특히 중공과 같이 최근 서구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에서는 그 인식도가 훨씬 높겠지요. 북에서도 이러한 물결을 언

제까지나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 사회는 안밖으로 굳게 닫혀 있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대한민국은 험벗고 굶주리며 미국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있다고만 믿습니다. 지난번 남북이산가족 재회때 평양에서 어떤 국민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북괴조종사들은 당성이 강하고 성분이 좋다는 자로 구성되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우리 땅이 살기좋은 곳이라는 것을 안다고 해도 감히 입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상적으로 빈틈을 주지않기 위하여 철저히 감시 통제하고 가족관계 등으로 얽어 매놓는 정도가 훨씬 심합니다.

이용평 소령 : 제가 북괴공군에서 생활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우리 공군에 관한 것인데 조종사는 모두 정예분자로만 조직된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즉 모두가 지주, 자본가, 유력자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서 보니까 국군은 국민의 군대 그리고 모든 국민의 자제들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었습니다. 또한 사기도 높고 단결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북괴군이 일견 사상적으로 잘 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은 불만 투성이입니다. 특히 군 복지나 사기면에서 그러합니다. 이를테면 조종사 대기실 같은 곳을 보면 거칠게 대패질한 의자에 아무렇게나 페인트 칠을 해 놓고 그 위에서 몇 시간이고 대기하는 것입니다. 티 테이블이나 소파같은 것을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물자부족으로 허덕거리고 도난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문자 그대로 거지군대이지요.

이곳에서의 경험인데요. 우리 부대 정화조에 오물이 차서 곧 넘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손으로 문든지 처분해야 할게 아니냐고 말했더니 다른 분이 연락만 하면 시청에서 곧 치워준다고 했고 그런 것을 치울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니까 걱정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조금 있으니까 시청의 차가 와서 깨끗이 수거해 가더군요. 북에서는 저를 비롯한 조종사들이 항상 오물청소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군 사기를 높이는 것이야 말로 전력강화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놀란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군 복장(軍服裝)만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갖춰져 있는데 그들은 여름용, 겨울용 2벌 뿐입니다. 그리고 보급수준이나 대우를 받는 정도를 보면 우리 장교가 그들 사령관 못지 않는 높은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북괴공군의 불만은 개인적인 시간은 가질 수 없다는 데에도 있습니다. 평상 근무시간 이외에도 밤 10시까지 전술토의다, 당학습이다, 정치학습이다 하여 붙들어 매어놓고 잠시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조종사와 그 가족들에게도 작업량이 배당됩니다. 이를테면 돼지사육인데 조종사들도 늦게 귀가하여 돼지 밥먹이기, 돼지우리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갈탄을 배급받아 연탄찍기를 하고 목욕은 부엌에서 끓인 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실정이니 우리처럼 레저활동이나 스포츠 같은 것을 즐길 시간이 있었습니까?

◎ 머지 않아 '86, '88대회 등 우리 민족의 결핍된 역량을 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대제전이 열릴 예정인데 이 기간은 또한 상대적으로 열등감에 쌓인 북괴가 제2의 6·25와 같

은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도발 가능성과 도발의 형태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정낙현 대령 : 북괴는 '86, '88의 스포츠 제전을 아주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86이 잘되면 '88이 더 잘 되고 이 양대회를 통하여 우리의 국제적 지위향상은 물론이고 그들과 더 이상 좁힐 수 없이 커다란 국력격차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저지 방해하는 책동을 하리라 봅니다. 정말 이제부터라도 더욱 긴장하여 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주시해야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도발을 책동할 것이니까요.

이응평 소령 : 김일성은 자신이 죽기전에 꼭 남북통일을 이루겠다고 그동안 무수히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위험한 인물인 김정일은 김일성에게 효도하는 셈치고 전쟁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괴군은 그동안 언제라도 침략할 수 있는 장비, 무기를 비축해 왔습니다만 이제 노후 장비가 많이 생겨 새로 갈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하여 그들은 더욱 조바심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쓰지 못하게 되는 장비, 한번 써먹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도발형태는 전면전에 앞서서 간첩침투나 사회혼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 북쪽에서 생활했던 경험으로 공군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정낙현 대령 : 우리 장병들에게 저는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고 귀중한 것인지 항상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값진 피와 땀을 흘렸는지 생각하고 우리도 조국을 위해 몸 바칠 자세가 되어 있다면 제2의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괴군과 일대일로 맞서서 필사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배양하기 위해 우리 지휘관을 비롯한 전장병, 전장병, 군무원이 합심단결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응평 소령 : 저도 정대령님과 같은 견해입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우수한 국가제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자유국가라는 것을 체험해 보지 않고는 잘 모르는 것인지 몰라도 북에서도 생활해 본 저는 목숨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경제만 하더라도 그 발전속도나 물자의 국민충족도에서 감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쳐다볼 수 없을만큼 효율적이고 좋은 체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일각에서 신좌경 사상이니 소외계층이니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위험한 이론을 믿는 것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누가 뭐라해도 우리가 나갈 길은 우리 자신이 개척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방의 힘도 좋지만 냉엄한 국제현실에서 진정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단합하고 서로 아끼는 것이 오늘을 사는 민족적 지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험기(體驗記)

귀순(歸順) 조종사(操縱士)는 증언(證言)한다 (II)



이 글은 6.25 직전인 1950년 4월 28일 북괴(北傀) 공군(空軍)에 소속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脫出) 자유(自由)를 찾았던 이건순대령(李建淳大領)(예비역(予備役))의 6.25 당시 생생한 체험(體驗)을 문항(問項)에 따라 기술(記述)한 것임.

이 건 순(李建淳) 기(記)

북괴공군(北傀空軍)의 남침준비(南侵準備) 실상(實相)

항공(航空) 협회(協會)

북괴공군(北傀空軍)의 남침준비(南侵準備)는 8.15 해방직후(解放直後) 김일성괴뢰집단(金日成傀儡集團)이 북한(北韓) 땅을 강점(強占)하면서부터 착실(着實)하게 추진(推進)되어 왔다.

해방(解放)되던 해 평안북도(平安北道) 신의주(新義州)에서 일본군(日本軍) 출신(出身) 항공인(航空人)들이 주축(主軸)이 되어 “항공협회(航空協會)”를 창설(創設)하였는데, 김일성(金日成)을 명예회장(名譽會長)으로 추대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집단(金日成集團)이 이 협회(協會)가 앞으로 북괴공군력(北傀空軍力)의 모체(母體)가 될 것이라고 직감(直感)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 후 이 협회(協會)에 당시(當時) 만주(滿洲) 등지(等地)에 흩어져 있던 “소년항공양성소원(少年航空養成所員)”들이 흡수(吸收)되어 조직(組織)이 확대(擴大) 강화(強化)되었다. 이 소년항공양성소(少年航空養成所)는 만주(滿洲)에서 10대(代) 소년(少年)들에게 조종(操縱), 정비

(整備), 통신(通信) 등(等)의 항공관계교육(航空關係教育) 훈련(訓練)을 시켰던 것으로 여기서 한국인계통(韓國人系統)을 뽑아 이곳 항공협회(航空協會)에 편입(編入) 시킨 것이다.

해방(解放)되던 해 '45년(年) 10월(月)에는 역시 신의주(新義州)에서 한인(韓人)에 의한 첫 비행(飛行)이 있었다. 당시(當時) 신의주비행장(新義州飛行場)은 38° 선이북(線以北) 소련점령군(占領軍)이 일본항공기(日本航空機) 및 장비류(裝備類)의 집결(集結) 및 무장해제(武装解除)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김일성집단(金日成集團)은 소련점령군(占領軍)과 교섭하(交涉下)에 무장해제(武装解除) 항공기(航空機) 및 장비류(裝備類) 수종(數種) 및 품목(品目)을 양수(讓受) 받을 수 있었다.

소련군(軍)으로부터 물려받은 항공기(航空機)를 골라서 이활(李活)이라는 자(者)가 축하(祝賀) / 시위비행(示威飛行)을 하였던 것이다. 이 이활(李活)이라는 자(者)는 신의주(新義州) 대지주(大地主) 출신(出身)의 아들로써, 일제시대(日帝時代) 일본(日本)에서 민간비행(民間飛行) 학교(學校)를 졸업(卒業)하였고, 제(第)2차대전중(次大戰中)에는 일본군(日本軍)에 징집(徵集)되어 일본해군(日本海軍) 조종사 훈련소(訓練所)에서 촉탁교관(囑託敎官)으로 일하다 해방(解放)과 더불어 귀국(歸國)하였다. 그는 김일성공산치하(金日成共產治下)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自身)과 토지(土地)를 자진(自進) 헌납(獻納)함으로써 지주숙청(地主肅清)을 면(免)하고 다시 북괴공군(北傀空軍) 창건(創建) 간부(幹部)로 등용(登用)된 자(者)이다.

평양정치학원(平壤政治學院)

김일성집단(金日成集團)은 상기(上記) 항공협회(航空協會)가 장차(將次) 북괴공군(北傀空軍) 모체(母體)로서 충분(充分)히 가치(價值) 있음을 판단(判斷)하고 이에 정치(政治), 군사적(軍事的) 훈련(訓練)을 집중적(集中的)으로 실시(實施)하여 정규(正規) 북괴공군력화(北傀空軍力化) 시키기 위해, 1946년초(年初), 평양(平壤)과 진남포(鎭南浦) 중간지점(中間地點)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평양정치학교(平壤政治學校)에 입교(入校)시켰다. 이 때, 상기(上記) 신의주(新義州) 비행장(飛行場)에서 소련 점령군(占領軍)으로 물려 받은 일본제(日本製) 항공기(航空機)와 장비류(裝備類)도 같이 기차(汽車)로 수송(輸送)하여 항공군사학교(航空軍事學校) 교육용(教育用)으로 활용(活用)하였다.

한편, 이 평양정치학원(平壤政治學院)이라는 곳은, 북괴집단(北傀集團)에서 김일성(金日成) 다음의 제(第)2인자(人者)가 교장(校長)으로 재직(在職)하면서, 북괴공산집단(北傀共產集團)의 정치(政治) 및 군사간부(軍事幹部)를 양성(養成) 배출(輩出)시키는 북괴(北傀) 최고(最高)의 교육기관(教育機關)이었다.

이 학원(學院)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일제(日帝)가 종전말기(終戰末期) 일본본토(日本本土) 공습(空襲)을 피(避)하여 소개(疎開)된 항공기(航空機) 생산공장(生産工場)으로 건립(建立)한 “소화전공(昭和電工)”으로써, 그들은 이곳에서 AL기(機)를 정제(精製)하여 항공기(航空機)를

생산(生産)하여 전선(戰線)(주(主)로 만주(滿洲))으로 송출(送出)하기 위해 지은 대규모(大規模) 시설(施設)의 공장(工場)이었다.

평양정치학원(平壤政治學院)으로 흡수정착사업(吸收定着事業)을 끝낸 북괴집단(北傀集團)은 이곳에서 정식(正式)으로 북괴(北傀) 공군군관학교(空軍軍官學校) 운용체제(運用體制)로 돌입(突入)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本人)은 1946년(年) 10월(月) 북괴공군(北傀空軍) 군관학교(軍官學校) 제(第)1기생(期生)으로 입대(入隊)하게 되었다. 그때 본인(本人)은 고향(故鄉)인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원군(平原郡) 한천면(漢川面)에서 모교(母校)인 한천국민학교(漢川國民學校)(인민학교(人民學校))에서 교원(敎員)으로 있었다. 어느 날 면공산당세포위원장(面共產黨細胞委員長)이 본인(本人)을 찾아와 “2~3개월(個月) 동안의 단기강습소(短期講習所)”에 가보라는 기관공작(欺騙工作)에 속아서 지원(志願)했다. 이와 같이 감쪽같이 속아서 각처(各處)에서 지원(志願)한 수(數) 10명(名)을 평양(平壤)에 집결(集結)하여, 매우 엄(嚴)한 신체(身體) 및 학과시험(學課試驗)을 치루었는데, 이 때, 단기강습소(短期講習所)에 가는데 이와 같은 시험(試驗)이 왜 필요(必要)한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모두가 얼떨떨했으나, 모집자(募集者)들을 철저히(徹底)한 비밀(秘密) 속에 진행(進行)시키고 있었다. 우리 군(郡) 출신(出身) 응시자중(應試者中) 대부분(大部分)은 낙제(落第)되고 불과(不過) 몇 명(名)만이 합격(合格)했는데, 기중(其中) 본인(本人)도 합격자(合格者)에 끼어 평양정치학원(平壤政治學院)으로 인솔(引率)되었다. 본인(本人)을 비롯한 입교자(入校者)들은 “사람을 이와 같이 속이는 법(法)이 어디 또 있느냐” 등(等) 강력(強力)한 항의표시(抗議表示)를 하였으나 갖은 협박(脅迫)과 회유(懷柔)에 못건디어 그날부터 군관생도(軍官生徒) 1기생(期生)으로서의 생활(生活)을 시작하게 되었다.

입교(入校)하는 날 본인(本人)들은 전기(前記) 언급(言及)한 이활(李活) 부사령관실(副司令官室)로 불리어 가서 “우리는 동무들을 공군간부(空軍幹部)로 양성(養成)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라한 것이니 조금도 마음의 흐터짐 없이 학업(學業)에 정진(精進)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훈시(訓示)가 있었다.

그로부터 본인(本人)들은 신의주(新義州)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전(前) 항공협회원(航空協會員)들과 합류(合流)되어 1기생(期生) 생활(生活)에 들어갔다.

학과훈련(學科訓練)으로서는, 한인귀화(韓人歸化) 소련교수(敎授)들로부터 공산주의이론교육(共產主義理論敎育), 일본제항공기(日本製航空機)로 항공학과(航空學科) 및 실습교육(實習敎育), 그리고 초급(初級) Grider 활공훈련(滑空訓練)과 그밖에 군사훈련(軍事訓練) 등(等)이었다.

본인(本人)이 평양정치학원(平壤政治學院)에 입교(入校)한 때에 일본군(日本軍) 출신(出身)의 기성항공인(既成航空人)들도 강제징집(強制徵集)되어 왔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記憶)할 수 있는 인물(人物) 가운데에는 한국공군(韓國空軍) 작전사령관(作戰司令官)을 지낸 바 있던

윤응렬(尹應烈) 예비역소장(予備役少將)도 들어 있었다. 이들은 해방후(解放後) 고향(故鄉)에 돌아와 있다가 북괴당국(北傀當局)의 강제징집(強制徵集)으로 끌려온 것이다.

이들은 본인(本人)과 같은 항공문외한(航空門外漢)이 아니고 유경험항공인(有經驗航空人)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달리 일부(一部)는 지휘관(指揮官)/교관(教官)으로 임명(任命)되고 나머지는 교관중대(教官中隊)로 편성(編成)되어 별도(別途) 생활(生活)을 하였다.

이들은 거의 항공광(航空狂)들로서 소련점령군(占領軍)으로부터 물려 받은 일제항공기(日製航空機)를 타다가 수명(數名)이 추락사망(墜落死亡)하는 사고(事故)가 있었다. 그 주원인(主原因)은 연료(燃料)에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 소련으로부터 현대적(現代的) 항공연료(航空燃料)를 확보(確保)하지 못한 나머지, 일제(日帝)가 대전말기(大戰末期) 긴급대책(緊急對策)으로 마련한 송탄유(松炭油)를 썼기 때문에 비행중(飛行中) 별안간 연료(燃料) Pipe가 막혀 사고(事故)가 속출(續出)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비행중지조치(飛行中止措置)가 내려, 소련으로부터 신예기(新銳機)가 도입(導入)될 때까지 일절(一切) 비행훈련(飛行訓練)이 없었다.

용강비행장(龍岡飛行場)에서 연대편성(聯隊編成)

북괴공군(北傀空軍)은 1948년(年) 초(初) 평안남도(平安南道) 용강군(龍岡郡) 소재(所在) 용강비행장(龍岡飛行場)에서 비행연대(飛行聯隊)를 편성(編成)했다. 이날 동(同) 비행장(飛行場)에서는 소련군(軍) 조종사들이 자신(自身)들의 Yak-9과 IL-10전투기(戰鬪機)로 대대적(大)인 시위비행(示威飛行)을 마치고 나서 동(同) 항공기(航空機)들에 대(對)한 일반(一般) 공개관람(公開觀覽)도 있었다.

여기에 참가(參加)한 항공기(航空機)와 조종사들이 바로 일제(日帝)가 패전(敗戰)하기 수일 전(數日前) 청진(淸津) 등(等)으로부터 공습(空襲)하는데 참전(參戰)했던 바로 그 소련점령(占領) 공군부대소속(空軍部隊所屬)이었다.

이들은 그로부터 얼마 후(後) 평양비행장(平壤飛行場)으로 북괴공군(北傀空軍)이 이전(移轉)하여 본격적(本格的)으로 소련제(製) 신예기(新銳機)로 훈련(訓練)을 시작할 때, 이들 소련점령군(占領軍) 소유(所有) 항공기(航空機)와 조종사들이 그대로 북괴공군력(北傀空軍力) 양성(養成)에 동원(動員)되었던 것이다.

평양비행장(平壤飛行場)에서 본격적(本格的) 비행훈련(飛行訓練) 개시(開始)

북괴당국(北傀當局)과 소련 간(間)의 협정(協定)에 따라 1948년(年) 1월(月) 소련공군(空軍)이 평양비행장(平壤飛行場)에서 철수(撤收)하게 됨에 따라 북괴공군(北傀空軍)은 이곳으로 이전(移轉)하여 소련제(製) 신예기(新銳機)로 본격적(本格的) 훈련(訓練)에 돌입(突入)했다.

본인(本人)이 이곳에서 비행훈련(飛行訓練)을 받은 과정(課程)은 대략(大略) 다음과 같았다.

• L-4, L-5 초급훈련(初級訓練)/연락기(連絡機)로 감득비행(感得飛行)

당시(當時) 북괴공군(北傀空軍)에는 한국(韓國)에서 월북자(越北者)가 몰고 간 L-4, L-5기(機) 각(各) 1대(台)씩을 보유(保有)하고 있어, 본인(本人)들은 이것으로 1인(人) 2회(回)씩의 감득비행(感得飛行), 즉(即) “비행기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한 비행(飛行)을 받았다.

• 전투형기(戰鬪型機)를 복좌(複座)(교관석(教官席))으로 개조(改造)한 것으로 본격훈련(本格訓練)

위에 L-4, L-5기(機)에 의한 두 번의 감득비행(感得飛行)에 뒤이어 바로 전투형기(戰鬪型機)로의 본격적(本格的) 비행(飛行) 훈련(訓練)에 들어갔다.

본인(本人)이 알기로는 이와 같은 비정상적(非正常的) 비행훈련(飛行訓練)은 세계(世界) 어디서나 또 역사적(歷史的)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當時) 북괴당국(北傀當局)이 왜 이러한 비정상적(非正常的)인 훈련방식(訓練方式)을 취(取)해야만 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공산체제하(共產體制下)에서의 전형적(典型的)인 허위보고제도(虛偽報告制度)에 기인(基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은 그동안 일제항공기(日製航空機)로 기본훈련(基本訓練)을 마친 바 있으니 이제는 소련제전투기(製戰鬪機)로 훈련(訓練)에 돌입(突入)할 단계(段階)이다라는 허위보고(虛偽報告)를 소련당국(當局) 앞으로 제출(提出)함으로써 이런 결과(結果)를 빚었다고 본다.

두번째로는, 그들은 6.25결행(決行)이라는 시간표(時間表)에 쫓기는 나머지 이와 같은 속성방식(速成方式)을 택(挾)한 것으로 본다.

당시(當時) 북괴군(北傀軍)은 공군(空軍)을 제외(除外)한 여타(余他) 군부(軍部)는 매우 순조(順調)롭게 군사력양성(軍事力養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북괴공군(北傀空軍)은 이와 같은 비정상적(非正常的)인 속성방법(速成方法)을 취(取)한 것이나, 예상(予想)과 같이 별(別) 다른 성과(成果)를 올리지 못했다.

교관(教官)과 동승비행시(同乘飛行時)는 곤잘 하는 것 같았으나, 일단 교관동승(教官同乘) 없는 단독비행시(單獨飛行時)는 엄청난 사고속출(事故續出)이었다.

그것은 훈련생(訓練生)들의 비행경험(飛行經驗)의 절대부족(絶對不足)에서 오는 심적(心的), 기량적(技倆的) 미숙(未熟)으로 많은 사고(事故)가 연달았다.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중급훈련기(中級訓練機)로 후퇴(後退)하지 않을 수 없었다. Yak-18 중급훈련기(中級訓練機)를 써서 이착륙(離着陸), 항법(航法), 공중기동훈련(空中機動訓練) 등(等)으로 좀더 많은 숙련(熟練)을 쌓게 해야만 했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의 남침준비(南侵準備) 혈안(血眼)

북괴공군(北傀空軍)의 비행훈련(飛行訓練)이 가속화(加速化) 됨에 따라 평양비행장(平壤飛行場)을 비롯하여 부근(附近)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미림비행장(美林飛行場)에서 2개(個) 비행연대(飛行聯隊)의 훈련(訓練)을 받기에는 너무나 비좁아 포화상태(飽和狀態)에 이르고 있었다. 따라서 북괴(北傀)는 Yak-9기(機)로 편성(編成)된 추격기연대(追擊機聯隊)는 현(現) 위치(位置)에 남고, 본인(本人)이 속(屬)해 있는 IL-10기(機)로 편성(編成)된 습격기연대(襲擊機聯隊)는 함경남도(咸鏡南道) 함흥(咸興)의 흥남비료공장(興南肥料工場)을 건너 보고 있는 동해연안(東海沿岸)에 자리잡고 있는 연포비행장(連浦飛行場)으로 이동(移動)하여 부근(附近)에 위치(位置)하고 있는 선덕비행장(宣德飛行場)을 같이 쓰며 본격적(本格的)인 남침준비(南侵準備)를 위한 공군력양성체제하(空軍力養成體制下)에 돌입(突入)했다.

• 각(各) 연대(聯隊)에서 8명(名)씩을 선출(選出) 집중훈련(集中訓練)

북괴(北傀)는 지금 실시중(實施中)에 있는 군관(軍官) 1기생(期生)에 대(對)한 일률적(一律的) 훈련방식(訓練方式)으로는 6.25결행(決行)이라는 시기적(時期的) 요구(要求)에 맞출 수도 없고, 또한 소기(所期)의 훈련성과(訓練成果)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判斷)하여, 양개연대(兩個聯隊)에서 각각(各各) 8명(名)씩을 선발(選拔)하여 이들에게 집중적(集中的) 훈련(訓練)을 가(加)하여 소수(少數) 정예전투조종사(精銳戰鬥操縱士)를 양성(養成)해 내려고 하였다.

본인(本人)은 오랫동안 1기생(期生)의 학생장(學生長)인 특무상사(特務上士)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問題)없이 이 8명(名) Class에 선발(選拔)될 수 있었다.

이들 8명조(名組)에 대(對)해서는 타(他) 동기생(同期生)들과는 전(全)혀 다른 특별(特別) 시간표(時間表)에 의해 강도(強度) 높은 집중적(集中的) 훈련(訓練)이 취(取)해 졌음은 물론(勿論)이다.

본인(本人)을 포함(包含)한 8명조(名組)는 연대본부(聯隊本部)가 자리잡고 있는 연포비행장(連浦飛行場)보다는 부근(附近)에 자리잡고 있는 보다 넓은 선덕비행장(宣德飛行場)을 주(主)로 이용(利用)했다.

이곳에서 주(主)로 단독비행(單獨飛行) 과정(過程)을 집중훈련(集中訓練), 얼마 안가서 전원(全員)이 단독비행과정(單獨飛行課程)을 마치게 되었다.

물론(勿論), 여기에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엄청난 시행착오(試行錯誤)가 거듭되었음은 물론(勿論)이다. 즉(即), 앞에서도 언급(言及)된 바와 같이 갑자기 전투형기(戰鬥型機)로의 훈련돌입(訓練突入)이어서, 경험(經驗), 숙련(熟練), 심적(心的) 압박(壓迫) 등(等)으로 단독비행(單獨飛行) 조작시(操作時), 과다조작(過多操作) 등(等)의 부주의(不注意)로 항공기대파(航空機大破) 등(等)의 사고(事故)가 속출(續出)하여 하는 수 없이 중급기(中級機)로 후퇴훈련(後退訓練)으로 되돌아 가는 등(等)의 웃지못할 넌센스가 있었음은 물론(勿論)이다.

• 1949년(年) 12월(月) 평양비행장(平壤飛行場)에서 1기생(期生) 졸업식(卒業式)

1949년(年) 12월(月) 평양비행장(平壤飛行場) 옥외(屋外)에 마련된 식장(式場)에서 역사적(歷史的)인 북괴공군(北傀空軍) 군관(軍官) 1기생(期生) 졸업식(卒業式)이 김일성(金日成)을 비롯한 북괴집단(北傀集團) 중요인물(重要人物)들이 모조리 참석(參席)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 본인(本人)은 북괴공군(北傀空軍) 중위(中尉) 계급장(階級章)을 당시(當時) 교장(校長) 겸(兼) 공군사령관(空軍司令官)이었던 왕련(王連) 공군(空軍) 소장(少將)으로부터 받고 임관(任官)하였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은 군관생도기간중(軍官生徒期間中) 전투기단독비행과정(戰鬥機單獨飛行課程)을 마친 자(者)에게는 졸업(卒業)과 동시(同時)에 소위(少尉)아닌 바로 중위(中尉)로 임관(任官)시키고 있다.

본인(本人)은 졸업(卒業)과 동시(同時)에 비행중대장(飛行中隊長)으로 보임(補任)되었는데, 이것은 본인(本人)의 계급(階級)이나 서열상(序列上)으로 당연(當然)한 것이었다.

• 열차중(列車中)에서 중공팔로군(中共八路軍) 한인부대원(韓人部隊員)을 상봉(相逢)

1949년(年) 12월(月) 평양비행장(平壤飛行場)의 1기생(期生) 졸업식(卒業式)에 참석(參席)하기 위하여 평원선(平元線) 기차여행(汽車旅行)을 했다.

이 때 목격(目擊)한 한 가지 사실(事實)이 북괴(北傀)의 남침준비(南侵準備)와 직결(直結)되는 것이어서 잠시 언급(言及)하러 한다.

본인(本人)들이 탑승(搭乘)하고 있는 함흥방면(咸興方面)에서 평양(平壤)으로 행(行)하는 기차중(汽車中)에는 모택동(毛沢東) 팔로군소속(八路軍所屬)의 한인출신(韓人出身) 군인(軍人)들이 큰 집단(集團)으로 동승(同乘)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가 역전(歷戰)의 용사(勇士)인듯 가슴에 훈장(勳章) 몇개(個)씩을 달은 누비군복(軍服) 차림이었다. 우리를 일행(一行)은 하도 이상한 상봉(相逢)이어서 “도대체 누구며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더니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팔로군(八路軍) 한인출신(韓人出身)인데, 지금 고향(故鄉)에 휴가(休暇)간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본인(本人)들이 보기에는 이들은 하나 같이 군복(軍服)차림에 무장(武裝)을 하고 있어서 휴가(休暇)가는 군인(軍人)이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들은 원산(元山)을 지나 38°선(線) 가까운 곳에 모조리 하차(下車) 감쪽 같이 사라졌다. 이들은 38°선(線)에 배치(配置), 북괴인민군(北傀人民軍)을 도와 6.25남침감행(南侵敢行)에 있어, 그들 역전(歷戰)의 경험(經驗)을 살렸음이 틀림없다.

• 전투조종사(戰鬥操縱士) 양성(養成), 촉구(促求) 현수막(懸垂幕) 설치(設置)

북괴(北傀)는 1950년(年)에 접어 들면서 남침준비(南侵準備)를 위한 공군력강화(空軍力強化)에 발광(發狂)하고 있었다. 비행장(飛行場) 입구(入口)에는,

5월(月) 30일(日)까지 전투조종사(戰鬥操縱士) 30명(名)을 양성(養成)하자!!

라는 대형현수막(大型懸垂幕)이 내걸렸다.

그들은 훈련시간(訓練時間)을 1분(分)1초(秒)라도 더 짜내려고, 별(別)다른 일과시간 운용체제(日課時間運用体制)를 취(取)했다. 즉(即) 본인(本人)들은 졸업입관(卒業任官) 후(後)에도 사병(士兵)들의 내무생활(內務生活)과 같은 영내집단생활(營內集團生活)을 강요(強要) 당(當)하고 있었기 때문에 생도(生徒) 때와 똑같은 일과시간(日課時間) 생활(生活)을 해야만 했었다.

그러던 것이 특별일과(特別日課)로 바뀌면서, 아침 6시(時) 기상(起床)과 동시(同時) 빠른 시간내(時間內)에 신변정리(身辺整理)를 끝냄과 동시(同時), 식당(食堂)으로 달려가 바로 식사(食事)를 끝냄과 동시(同時)에 비행장(飛行場)으로 달려가 훈련(訓練)에 임(臨)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변칙일과(變則日課)를 함으로써, 종전(從前)과 같은 집단집합(集團集合), 행진(行進) 등(等)에서 소비(消費)되던 시간(時間)이 모조리 훈련시간(訓練時間)으로 대체(代替)되는 결과(結果)를 가져 왔다.

또한, 식사(食事)도 하루에 네번 먹이는 특별대우(特別待遇)였다. 즉(即), 점심과 저녁사이의 간식(間食)이 비행장(飛行場) 훈련장(訓練場)으로 운반(運搬)되어 그곳에서 훈련여가(訓練余暇)를 이용(利用)하여 먹는 것이었다. 또 김일성(金日成)이가 평양(平壤) 먼거리에서 이곳까지 1주일(週日)이 멀다하고 비행장(飛行場)으로 찾아와 훈련생(訓練生)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나는 동무들만 민소”하면서 격려(激勵)하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제반사실(諸般事實)들은 당시(當時) 북괴(北傀) 공군당국(空軍當局)이 남침결행(南侵決行)을 앞두고 얼마나 쫓기고 있는가를 단적(斷的)으로 입증(立証)해 주는 일들이었다.

당시(當時) 북괴군(北傀軍)은 공군(空軍)을 제외(除外)한 여타군부(余他軍部)는 100% 훈련과정(訓練過程)을 마치고 전선배치태세(前線配置態勢)를 완비(完備)한 상태(狀態)에 있었다.

그러나 공군(空軍)만은 사정(事情)이 다른 바 있었다. 즉(即),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직접(直接) 전투형기(戰鬥型機)로의 훈련돌입(訓練突入)으로 도중(途中)에 중급기훈련(中級機訓練)으로 후퇴(後退)하는 등(等)의 큰 시행착오(施行錯誤)가 있었음을 들 수 있다.

둘째로 들 수 있는 결정적(決定的) 요인(要因)은 훈련(訓練) 기상조건(氣象條件)의 악화(惡化)를 들 수 있다.

동해안(東海岸)으로 이전(移轉)한 본인(本人)들의 습격기연대(襲擊機聯隊)의 경우는, 동해안(東海岸)의 지형적(地形的) 조건(條件)으로 오전중(午前中)은 거의 해무(海霧)가 끼어 훈련진행(訓練進行)이 어려웠다. 더우기 본인(本人) 등(等)의 미숙훈련(未熟訓練) 단계생(段階生)들에게는 만일(萬一)의 사고(事故)를 위해 기상조건(氣象條件)이 엄격(嚴格)히 지켜지고 있었다.

본인(本人)은 그곳에서 IL-10기(機)로 폭격(爆擊), 사격훈련(射擊訓練) 과정(課程)을 밟던 중(中), 1950년(年) 4월(月) 28 0 IL-10기(機)로 연포비행장(連浦飛行場)에서 비행훈련(飛行訓練) 개시(開始) 직전(直前)인 아침 8시(時) 30분경(分頃) 비상이륙(非常離陸)하여 김해비행장

(金海飛行場)에 안착(安着)하여 대한민국(大韓民國)에 귀순(歸順)하였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의 제공권(制空權) 상실(喪失)

본인(本人)은 월남귀순(越南歸順)(1950년(年) 4월(月) 28일(日)) 직후(直後) 발발(勃發)한 6.25남침시(南侵時), 북괴공군기(北傀空軍機)들의 남침공격(南侵攻擊) 모습을 비상(非常)한 관심(關心) 속에서 지켜 보았다.

6.25가 발발(勃發)하던 당시(當時), 본인(本人)은 원소속부처(原所屬部處)였던 공군본부(空軍本部) 정보국(情報局)(지금의 정보참모부(情報參謀部))으로부터 신변보호(身辺保護)하기에 적격(適格)한 곳이라 하여 공군헌병대(空軍憲兵隊)로 옮겨, 공군중위(空軍中尉)로서 헌병중대장(憲兵中隊長)을 맡고 있었다.

6.25발발(勃發) 당일(當日)은 주번사관(週番士官) 근무중(勤務中)에 있었는데, 그 날 12시경(時頃) 돌연(突然) 북괴(北傀) Yak-9기(機) 1대(台)가 김포비행장(金浦飛行場)에 기총사격(機銃射擊)을 가(加)해 약간(若干)의 피해(被害)가 있었다.

주기중(駐機中)에 있던 민간여객기(民間旅客機)가 몇 곳에 피탄(被彈)되고 유류저장소(油類貯藏所)에서 소규모(小規模) 화재(火災)가 있었으나 곧 진화(鎮火)되었다.

6월(月) 27일(日) 여의도(汝矣島) 공군본부(空軍本部)에서 각급(各級) 부대지휘관(部隊指揮官) 긴급회의(緊急會議)를 열고 앞으로의 공군운명(空軍運命)을 논의(論議)하고 있을 때, 돌연(突然) 북괴공군(北傀空軍) IL-10 2대(台)의 여의도(汝矣島) 공군본부(空軍本部) 공습(空襲)이 있었으나 어렵없는 공격(攻擊)이어서 전혀 피해(被害)를 주지 못한 채 돌아갔다. 얼마 후(後) 2대 중(台中) 한 대(台)가 미군(美軍) F-80 Shooting Star 2대(台)의 협공(狹攻)을 받으며, 여의도(汝矣島)에서 한강대교(漢江大橋) 쪽으로 쫓기며 계속 공격(攻擊)을 받으며 도망(逃亡)가다 드디어 노량진(露梁津)쪽 산(山)에 충돌(衝突)하고 말았다. 이 IL-10기(機)에는 본인(本人)이 소속(所屬)되어 있던 습격기연대(襲擊機聯隊) 연대장(聯隊長)이 타고 있었다(최현각연대장(崔現珪聯隊長)).

같은 날 북괴공군(北傀空軍) Yak-9기(機) 2대(台)가 김포비행장(金浦飛行場)에서 철수중(撤收中)에 있던 외국대사관(外國大使館) 직원(職員) 및 가족(家族)을 수송(輸送)하기 위한 비행기의 공습(空襲)을 위해 날아오고 있었다.

이 때 상공(上空)에서 엄호비행중(掩護飛行中)에 있던 미군(美軍) P-38 쌍동기(雙胴機)에 북괴기(北傀機)가 먼저 공격(攻擊)을 가(加)해 왔다. 미군기(美軍機)들은 재빨리 구름 속으로 피(避)해 Radar사격(射擊)으로 순간적(瞬間的)으로 북괴기(北傀機)들을 모조리 보기 좋게 격추(擊墜)시켰다.

이 때도 북괴공군(北傀空軍) 비행대대장(飛行大隊長)인 일본군(日本軍) 출신자(出身者)가 비상탈출(非常脫出) 하였으나 심(甚)한 화상(火傷)으로 죽었다.

이상(以上)에서와 같이 동란(動亂) 최초기(最初期)는 구(舊) 일본군(日本軍)에서 상당(相當)

한 비행경험(飛行經驗)을 지닌 북괴공군(北傀空軍) 지휘관급(指揮官級)이 동원(動員)된 바 있으나 미군기(美軍機) 앞에서는 전(全)혀 상대(相対)가 되지 않았다.

인천상륙(仁川上陸)이 성공(成功)되어 서울을 향(向)해 진격(進擊), 김포비행장(金浦飛行場)이 탈환(奪還)됨에 따라, 본인(本人)은 정보국원(情報局員)으로 복귀(復歸)되면서, 전적(全的) 북괴공군상(北傀空軍相), 조사업무(調查業務)에 나섰다.

김포비행장(金浦飛行場)에는 많은 북괴기(北傀機)들이 공격(攻擊)받아 파괴(破壞)된 가운데서도 IL-10 2대(台)를 경미(輕微)한 정비작업(整備作業)도 마치지 못한 채 그대로 놓고 다급하게 도망간 것이었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미군(美軍)과 공동(共同)으로 해체작업(解体作業)을 하여 미본토(美本土) Wright-Petterson 기지(基地)의 “U.S Air Force Museum”에 운송전시(運送展示) 되었다.

그 후 북진(北進)과 더불어 백선엽장군(白善燁將軍)이 지휘(指揮)하는 제(第)1사단(師團) 선봉대(先峰隊)에 합류(合流)되어 평양공격전(平壤攻擊戰)에 참가(參加)했다. 여기에서 북괴공군(北傀空軍) 실상(真相)을 여지 없이 찾아볼 수 있었다.

평양시(平壤市) 탈환(奪還)을 눈 앞에 두고 주요(主要) 간선도로(幹線道路)를 따라 진격(進擊)하고 있었는데, 도로(道路) 한 가운데에는 북괴군(北傀軍) 군수품(軍需品)을 운반중(運搬中)이던 소달구지가 여기저기 쓰러져 있는 것을 목격(目擊)하고는 참으로 감개무량(感慨無量)한 바 있었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이 6.25남침준비(南侵準備)를 위해 소련으로부터 200여대(余台)에 달(達)하는 신예기(新銳機)를 도입(導入)하여 남한(南韓) 땅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큰소리치던 북괴공군(北傀空軍)은 이제 어디에 나가고 소달구지로 군수품(軍需品)을 운반(運搬)해야 한단 말인가. 그것도 그럴 것이 막강(莫強)한 UN공군(空軍) 앞에서의 완전(完全)히 제공권(制空權)을 빼앗긴 상황하(狀況下)에서는 비행기(飛行機)가 있다 하더라도 고양이 앞에 쥐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쟁(戰爭) 초기(初期) 얼마동안은 야간(夜間)에 한(限)하여 Truck에 최소한(最小限)의 조명(照明)으로 수송작전(輸送作戰)을 담당하였던 것이나, 그것마저 UN군측(軍側)의 야간비행활동(夜間飛行活動)으로 저지(沮止) 당(當)해 소달구지 운반(運搬) 신세(身勢)로 떨어지고 만 것이다.

평양탈환후(平壤奪還後) 머지 않아 원산(元山)에 선발대진입(先發隊進入)과 동시(同時)에 원산비행장(元山飛行場)에 T-6기(機)로 도착(到着)하였다. 북괴군(北傀軍)들은 퇴각(退却)하면서 활주로(滑走路) 사용(使用)을 방해(妨害)할 목적(目的)으로 활주로상(滑走路)에 학교교실(學校教室)에서 책상(冊上)과 걸상을 날라다 늘어놓고 있었다. 아주 저속(低速)으로 이리저리 피(避)해가며 착륙(着陸)하여 항공기(航空機) 격납고(格納庫)를 조사(調查)할 때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곳은 일제하(日帝下)에 건설(建設)된 곳으로서 산(山)을 파서 만든 대규모

모(大規模) 격납고(格納庫)였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은 만주지방(滿洲地方)으로 퇴각(退却)하면서 멀쩡한 전투기(戰鬥機)들을 이곳에 몰아 넣고 불을 지르고 도망(逃亡)갔던 것이다.

북괴(北傀)는 일찌기 패전(敗戰)을 직감(直感)하고 잔여병력(殘余兵力)이 만주(滿洲)로 도망(逃亡)갔던 것인데, 살아남은 항공기(航空機)로 도망(逃亡)가자니 항공기(航空機)가 격추(擊墜) 당(當)하는 것도 문제(問題)이지만, 조종사(操縱士)를 잃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상실(喪失)이 아닐 수 없었다. 그토록 많은 돈과 시간(時間)을 들여 양성(養成)한 조종사는 하루아침에 보충(補充)해 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비행기(飛行機)를 태우고 지상(地上)으로 도망(逃亡)갔던 것이다.

이상(以上)에서 언급(言及)한 몇 가지 사실(事實)만으로도 북괴공군(北傀空軍)이 얼마나 철저(徹底)하게 제공권(制空權)을 빼앗기고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의 초전(初戰) 분쇄책(粉碎策)

북괴(北傀) 김일성(金日成)은 남한(南韓)땅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겠다고 장담(壯談)하면서 저지른 6.25 남침전쟁(南侵戰爭)에서 제공권(制空權)을 철두철미(徹頭徹尾)하게 유린(蹂躪)당(當)하고 만주(滿洲)로 도망가야 했던 쓰라린 경험(經驗)을 가슴아프게 간직하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제(第)2의 6.25남침(南侵)을 획책(劃策)하고 있으면서 공군력(空軍力) 증강(增強)에 더 없는 힘을 쏟고 있다.

김일성(金日成)은 “내 옷을 팔아서도 비행기(飛行機)를 사다가 공군력(空軍力)을 양성(養成)해야만 된다”고 입버릇처럼 짓어대고 있다. 그는 최근(最近) 소련에게 북한영공(北韓領空) 통과권(通過權)을 넘겨주는 대가(代價)로 MIG-23기(機)를 대량(大量) 도입(導入)하고 있다.

이 소련기(機)의 북한영공(北韓領空) 통과권(通過權) 부여로 극동주변국(極東週邊國)에게 매우 심각(深刻)한 군사정세(軍事情勢)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국(韓國)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6.25전쟁시(戰爭時) 완전패망(完全敗亡) 일보전(一步前)에 북괴(北傀)를 구출(救出)해 준 생명(生命)의 맹국(盟國)이며 중주국(宗主國)인 중공(中共)이 받는 피해(被害)는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다시말해서 소련기(機)의 북괴영공(北傀領空) 통과(通過)로 중공(中共)의 황해연안(黃海沿岸)을 비롯한 국토(國土) 상당부분(相當部分)이 소련기(機) 포위망(包圍網)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공중주국(中共宗主國)에게 주는 피해(被害)가 심각(深刻)함에도 그들은 소련에게 북한(北韓)땅을 내주면서까지 MIG-23기(機)를 도입(導入)하고 있다.

이에 대비(對備) 1단(段) 유사시(有事時) 이를 초전(初戰)에 분쇄(粉碎)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전선(前線)의 국군(國軍)과 후방(後方)의 국민(國民)이 한덩어리로 굳게 뭉쳐 최강(最強)의 국민총전력(國民總戰力)을 흠어짐이 없이 발휘(發揮)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세계(世界)에서 그 유례(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잔악한 무리인 호전적(好戰的) 북괴집단(北傀集團)들이 빈틈만 있으면 남침(南侵)을 감행(敢行)하기 위해 호시탐탐하고 있는 이 때 우리 국민(國民)

들 내에서 국력(国力)을 분산(分散)시키려는 일부(一部) 물지각한 자(者)들의 행위(行為)는 심(甚)히 유감(遺憾)스럽기 짝이 없다.

둘째로는, 부단(不斷)하고 고도(高度)의 조기경보체계(早期警報體系)를 동원(動員)하여 북괴(北傀)의 기도(企圖)를 감시(監視)하며 이에 적절(適切)한 대비(對備)가 있어야 한다.

세째로는, 고도(高度)의 전기전술연마(戰技戰術練磨)를 부단(不斷)히 추진(推進)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미공군(美空軍)이 실시중(實施中)에 있는 「Red Flag, Green Flag」 등(等) 가상적기(假想敵機)와의 실제적(實際的) 시나리오 하(下)에서, 적(敵)의 최신(最新) 전기전술(戰技戰術) 환경하(環境下)에서 작전훈련(作戰訓練)에 적극(積極) 참여(參與)하여 일당(一當) 오(五) 내지 십(十)의 자신만만(自身滿滿)한 기량(技倆)을 배양(培養)해 나가야 한다.

네째로는, 최신기술(最新技術)의 적극(積極) 개발(開發)로 질적(質的) 우세(優勢)를 견지(堅持)해 나가야 한다. 북괴공군(北傀空軍)은 우리보다 수적(數的) 우위(優位)의 공군력(空軍力)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는 눈부신 경제발전(經濟發展)을 바탕으로 고도(高度) 기술(技術)의 군수산업(軍需產業)을 적극(積極) 발전(發展)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항공탑재정비(航空搭載整備)를 고도기술(高度技術)로 국산개발(國產開發)하여 수적(數的)인 북괴기(北傀機)를 압도(壓倒)해 나가야 한다.

북괴(北傀)의 북침설(北侵說)

북괴공산집단(北傀共產集團)의 6.25남침(南侵)이 있은 직후(直後) UN안보이사회(安理理事會)는 긴급회의(緊急會議)를 열고 북괴(北傀)를 침략자(侵略者)로 낙인(烙印)찍힘과 동시(同時) UN군(軍)을 파견(派遣) 참전(參戰)케 하였다.

그 밖에 북괴(北傀)가 남침(南侵)을 감행(敢行)하였다는 사실(事實)을 입증(立証)하는 북괴(北傀)의 작전명령서(作戰命令書)를 비롯한 증거(證據)가 수(數)없이 있다.

은 세계(世界)가 다 알고 있는 북괴(北傀)의 남침사실(南侵事實)에 대(對)하여 아직까지도 그들이 북침설(北侵說)을 고집(固執)하고 있는데에는 공산독재체제(共產獨裁體制) 자체(自体) 생리(生理)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원래 공산독재체제(共產獨裁體制)란 우리의 민주사회(民主社會)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양심(良心)이나 윤리(倫理), 도덕(道德), 사회규범(社會規範) 등(等)을 모조리 부정(否定)하는데에서 만 그 체제(體制)가 유지(維持)될 수 있는 것이다.

소련이 269명(名)의 민간인(民間人)이 탑승(搭乘)한 KAL 여객기(旅客機)를 무참히 공격(攻擊) 사망(死亡)케 하고도 아무런 양심(良心)의 가책(苛責)이나 사과(謝過) 한 마디 없는 것이나, 또한 북괴(北傀)가 제(第)3국(國)인 버마 랭군에서 친선방문중(親善訪問中)에 있는 국가원수(國家元首)를 비롯한 국빈(國賓)에 대(對)한 테러행위(行爲)를 저질러 북괴공작원(北傀工作員)이 생포(生捕)되는 등(等) 그 범죄사실(犯罪事實)이 여지 없이 드러나 당사국(當事國)으로부터 외교관계(外交關係) 단절(斷切), 국가승인(國家承認) 취소(取消) 등(等)으로 그 명백(明白)한

사실(事實)이 온 세계(世界)의 백일하(白日下)에 들어 났음에도 불구(不拘)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이 아직까지 한 마디의 사실(事實) 시인(是認)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하(人間以下)의 동물집단(動物集團)인 북괴(北傀)는 이와 같은 그들의 처사(處事)로 날이 갈수록 세계(世界)속에서 고립화(孤立化)의 길목을 달리고, 있다. 이제 그들이 북침설(北侵說)을 주장(主張)하던 말던 양식(良識)있는 이 지구가족중(地球家族中)에서 그들의 주장(主張)을 올바르게 믿을 자(者)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경계(警戒)해야 할 북괴공군(北傀空軍) 전술전기(戰術戰技)

우리의 공군(空軍)은 자유민주체제하(自由民主體制下)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북괴군(北傀軍)의 도발적(挑發的) 선제공격(先制攻擊)에 대비(對備) 해야만 하는 방어적(防禦的) 입장(立場)에 놓여 있게 되며, 이와 같은 전략전술적(戰略戰術的) 개념하(概念下)에서 싸워야만 하는 불리(不利)한 입장(立場)에 서 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적(敵)의 기습(奇襲), 기만작전(欺瞞作戰)을 막아낼 수 있는 만반(萬般)의 태세(態勢)를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고도(最高度)의 만반(萬般)의 조기경보체계(早期警報體制) 운용(運用)과 더불어 이에 따른 비상(非常) 출동태세(出動態勢)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둘째로, 필승(必勝)의 신념(信念)으로 확고(確固)하게 무장(武装)시키도록 정신전력강화(精神戰力強化)에 끊임없는 노력(努力)이 경주(傾注)되어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체제하(自由民主體制下)에서 생활(生活)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個人)의 자유(自由), 인간성(人間性)의 존중(尊重)이 최대한(最大限) 보장(保障)되는 체제하(體制下)에서 살고 있는 몸이다.

그러나, 이에 반(反)해 북괴공군(北傀空軍)은 공산독재체제(共產獨裁體制) 속에서 양성(養成)된 군(軍)이기 때문에 젓먹이 어린애 때부터 불타는 적개심(敵愾心)으로 무장(武装)된 이 세상(世上)에 두번 다시 볼 수 없는 잔악무도(殘惡無道)한 인간이하(人間以下)의 무리다. 그들은 이것만이 살길ियो, 이것만이 유일(唯一)한 진실(眞實)임을 신앙(信仰)처럼 믿고 있다.

이와 같은 불같이 용솨솨치는 적개심(敵愾心)으로 무장(武装)한 북괴공군력(北傀空軍力)과 싸우기 위해서는 보다 올바르게 그들을 알고 이와 대적(對敵)할 수 있는 정신력(精神力)을 배양(培養)하는 것이 무엇보다 긴급(緊要)하다.

이에 대(對)해 북괴공군(北傀空軍) 자신(自身)들도,

• 공군전기(空軍戰技)

북괴(北傀)는 고도(高度)의 통제체제하(統制體制下)에 있기 때문에 자유(自由)로운 훈련수행상(訓練遂行上) 제약점(制約點)이 있고, 또한 훈련자원(訓練資源)이 대한민국(大韓民國)과는 대비적(對比的)으로 제약(制約)받고 있어, 따라서 전기(戰技) 연마(練磨) 발전(發展)에는 다

소(多少)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事實)이나, 그러나 정신력(精神力), 전술(戰術)에 있어서는 북괴(北傀)가 월등(越等)하게 우세(優勢)하다고 자만(自慢)하고 있다.

그것은 공산독재체제(共產獨裁體制)에 따른 혁명전사(革命戰士)로서의 정신력(精神力)의 필연적(必然的)인 강점(強點)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전술(戰術)에 있어서는, 선제공격전략(先制攻擊戰略)에 따르나, 기습(奇襲)을 수반(隨伴)하는 다양(多樣)한 기만전술(欺瞞戰術) 등(等)을 자의적(自意的)으로 구사(驅使)할 수 있을 을 강점(強點)으로 자랑스럽게 내놓고 있다.

북괴(北傀) 조종사들의 대한민국(大韓民國) 인식도(認識度)

북괴공산집단(北傀共產集團)은 우리의 자유민주체제하(自由民主體制下)의 자본주의적(資本主義的) 사회(社會)를 근본적(根本的)으로 부정(否定)하고 이를 철두철미(徹頭徹尾) 파괴(破壞)하는 것만이 그들 체제(體制)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이를 위한 소위 적화혁명(赤化革命) 과업완수(課業完遂)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산정신무장(共產精神武裝)은 나이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교육(教育)받고 생활(生活)해오기 때문에 혁명전사화(革命戰士化) 정도(程度)는 우리들의 상상(想像)을 초월(超越)할 정도(程度)이다.

따라서 그들은 우리 공군(空軍)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자본주의(資本主義)의 노예(奴隸), 돈이나 물자(物資)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동물(動物)에 지나지 않는 존재(存在)로 보고 있다.

또한, 그들은 우리 사회구성(社會構成) 자체(自体)가 철저(徹底)한 가족중심(家族中心)으로 된 세포(細胞) 단위사회제(單位社會制)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시(有事時)는 조직(組織)을 헌신짝 같이 이탈(離脫)하여 가족(家族)과 같이, 자신(自身)들의 생명(生命) 안이(安易)를 찾아 지리멸렬(支離滅裂) 상태(狀態)에 빠져든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괴군(北傀軍)은 공산독재군율하(共產獨裁軍律下)에서 강제적(強制的)이며 타율적(他律的)으로 마지 못해 규합된 군대(軍隊)로서 일단, 독재(獨裁)의 통제력(統制力)이 약화(弱)화되며는, 타율(他律)에 의해 모여진 이들 무리들은 견잡을 수 없이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그 실례(實例)로 6.25전쟁시(戰爭時), 인천상륙(仁川上陸)이 되어, 남(南)쪽으로 진격(進擊)하였던 이들 북괴군(北傀軍)이 보급선(補給線)이 끊어지고 군지휘체계(軍指揮體系)가 무너지고 상태하(狀態下)에서의 그들의 무질서(無秩序), 사기저하(士氣低下) 모습을 우리는 잘 보아온 것이다.

두번째로, 그들은 우리 조종사들이 비행시간(飛行時間)이 많고, 비행기량(飛行技倆)도 뛰어난 을 목인(自認)하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言及)한 바와같이 우리 체제(體制)의 우월성(優越性)에서 온 강점(強點)으로서, 공산체제하(共產體制下)에서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조종사들은 자유(自由)로운 환경하(環境下)에서 자신(自身)들의 직분(職分)과 규정(規程) 범위내(範圍內)에서 열심(熱心)히 우리의 우월(優越)한 민주사회(民主社會)와 국민(國

民)들의 재산(財産), 생명(生命)을 보호(保護)하는 숭고(崇高)한 자율적(自律的) 정신력(精神力)으로 마음껏 자신(自身)들의 비행기량(飛行技倆) 향상(向上)에 노력(努力)할 수 있다.

이에 대(對)해 북괴공군(北傀空軍)은 6.25전쟁시(戰爭時) 몇 몇 미군 전투기(美軍戰鬥機)의 격추사실(擊墜事實)들을 자신(自身)들의 뛰어난 정신력(精神力)과 전술전기(戰術戰技)에 따른 것이라며 자화자찬(自畫自讚)하면서, 이것을 대대적(大大的)으로 그들의 교육지표(教育指標)로 삼고 있다. 따라서 결론적(結論的)으로는 정신력상(精神力上)으로는 돈 밖에 모르는 노예(奴隸), 자신(自身)의 생명(生命)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 전기전술상(戰術戰術上)으로도 형편(形便)없는 엉터리 군대(軍隊)라고 과소평가(過小評價) 교육(教育)되고 있다.

제(第)2의 6.25 도발(挑發) 가능성(可能性)

북괴공산집단(北傀共產集團)은 세계공산혁명(世界共產革命)의 일환(一環)으로서 남한(南韓)에 대(對)한 적화통일정책(赤化統一政策)을 한 시도 소홀하지 않고 밀고 있는 것이다.

최근(最近)들어 여러 가지 형태(形態)의 대화(對話)에 응(應)해 오는데는 인상(印象)을 주는 것도, 버마 랭군 테러 사건(事件) 등(等)으로 국제적(國際的)으로 고립화(孤立化)되어 가고 있는 고경(苦境)을 다소(多少)나마 해소(解消)해 보려는 의도(意圖)인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높은 경계심(警戒心)을 가져야 할 일은 김일성집단(金日成集團)이 우리의 대화(對話)에 응(應)해 오므로써, 우리는 국민(國民)들 사이에 김일성(金日成) 일당(一黨)들이 선량(善良)한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認識)을 주어 방심(放心)하게 하여, 우리 내부(內部)에 단결력(團結力)을 약화(弱)화시켜, 그 틈을 타서 공격(攻擊)의 기회(機會)로 노리자는 속셈도 다분(多分)히 있는 것이다.

여하튼 그들은 호시탐탐(虎視眈眈) 남침(南侵)의 기회조성(機會造成)에 여념(余念)이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GNP의 24%라는 세계(世界)에서 유례(類例)를 볼 수 없는 높은 군사비(軍事費) 지출(支出)로 국민(國民)들은 모두 아사직전(餓死直前)에 몰아넣으면서 남침군사력(南侵軍事力) 증강(增強)을 계속하여 오고 있다.

그들은 이들 군사력(軍事力)을 지하(地下) 요새화(要塞化)함은 물론(勿論), 전(全) 군사력(軍事力)의 65%를 전방(前方) 배치(配置)를 완료(完了)해 놓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군사력(軍事力)은 날이 갈수록 노후화(老朽化)해 가고 있으며, 또한 지하(地下)에 저장중(貯藏中)인 이들 무기류(武器類)의 부식화(腐蝕化) 역시 심각(深刻)한 문제(問題)이다.

더우기 우리 나라가 86, 88올림픽게임을 치르고 나면 우리는 세계(世界) 속으로 도약(跳躍)되고 선진화(先進化)로 달려게 된다.

또한 경제발전(經濟發展)도 더욱 가속화(加速化)되어 북괴(北傀)와의 군사력(軍事力) 균형(均衡)은 더욱 균등화(均等化)하게 되고 머지 않아 역전(逆轉)하게 된다.

이에 비(比)해 북괴(北傀)는 우리의 입장(立場)과는 정반대(正反對)의 길을 달리게 된다. 국제적(國際的)으로 고립화(孤立化), 경제성장(經濟成長) 격차(隔差), 군사력(軍事力)의 양(量), 질적(質的) 대등화(對等化)로 사태(事態)는 더욱 어려워져 영영, 남침(南侵)의 기회(機會)는 놓치고 말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86, 88대회(大會)를 계기(契機)로 어떤 형태(形態)로든, 도발(挑發)해 올 것으로 본다. 가장 가능성(可能性) 높은 방법(方法)으로서는,

- 국내(國內)에서의 테러행위(行爲)와 동시(同時)에
- 10만명(万名)이 양성(養成)해 놓은 특공군(特攻軍)을 동원(動員)하여 대대적(大대의)인 후방(後方) 해안선(海岸線) 침략(侵略)
- AN-2, 500MD 헬기(機)로 동원(動員)한 초저공(超低空) 특공군(特攻軍) 침투(浸透)
- 이상(以上)의 제(第)1단계(段階) 비정규전(非正規戰) 성과(成果)여부를 보아, 38° 휴전선(休戰線)을 통(通)해 그동안 비밀리(秘密理)의 구축(構築)해 놓은 땅굴을 최대한(最大限) 동원(動員)하면서 침공(侵攻)해 올 것으로 본다.

공군장병(空軍將兵)들에게 드리는 말씀

본인(本人)이 북괴공군(北傀空軍)을 탈출(脫出), 대한민국(大韓民國)에 귀순(歸順)한지 30여년(余年)이 지났다. 그동안 본인(本人)은 주(主)로 대한민국(大韓民國) 공군(空軍)에서 생활(生活)해 오면서, 많은 질문(質問)도 받고, 또한 많은 점(點)에 대(對)하여 느껴오고 있다. 우리 사회(社會) 각(各) 분야(分野)에서 반공교육(反共教育) 홍보(弘報)가 부단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반공의식(反共意識) 고취(高吹)에 이바지 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事實)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社會) 극히 일부(一部)에서는 이를 전폭적(全幅的)으로 수용(收容)을 못한 채 반신반의(半信半疑)하는 자(者)들이 있음은 또한 엄연한 사실(事實)이다. 그 한 예(例)로써,

「북괴내(北傀內) 군인복무(軍人服務)에 있어, 군복무기간(軍服務期間)이 8년(年) 내지 10년(年)이나 되고, 또한 몇 년(年)씩 외출(外出)한 번 나가보지 못한다」 이와 같은 엄연한 사실(事實)에 대(對)하여 액면(額面)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유민주사회(自由民主社會)와는 너무나도 판이(判異)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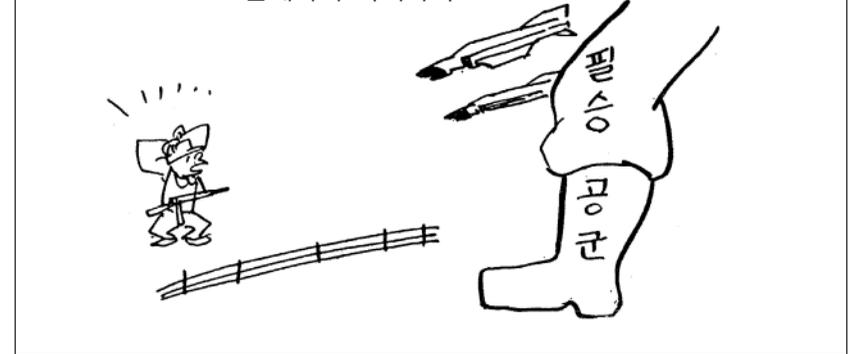
또한 북괴(北傀)의 잔악상(殘惡相)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다시 말해, 「인간(人間)이 어떻게 그와 같이 잔악(殘惡)할 수 있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산주의(共產主義) 이론(理論)의 내막을 덜 깨달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공산주의(共產主義)의 생리(生理)는 “계급투쟁(階級鬭爭)” 즉(即) 적대세력(敵對勢力)에 대

상기하자 6·25

분쇄하자 북괴야욕



(對)한 수단방법(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 철두철미(徹頭徹尾)한 투쟁말살(鬭爭抹殺)만이 자신(自身)들의 혁명적(革命的) 성취(成就)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적대세력(敵對勢力)에 대(對)한 무자비(無慈悲)한 적개심(敵愾心)을 최고도(最高度)로 고취(高吹)시켜야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공산체제(共產體制)를 전진(前進)시키는 유일무이(唯一無二)의 추진력(推進力)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사회(人間社會) 생활중(生活中)에서 무한(無限)한 「사랑」의 보금자리인 가정(家庭), 부모형제(父母兄弟)의 사랑을 의도적(意圖的)으로 파괴(破壞)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부모(父母)의 사랑으로부터 젖먹이 어린애 때부터 애들을 분리(分離)시켜 유치원에서 집단적(集團的)으로 적개심(敵愾心)에 불타는 혁명전사(革命戰士)를 양성(養成)해 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들이 몸 담고 있는 자유민주사회(自由民主社會)에서는 도저(到底)히 찾아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엄청난 이질사회(異質社會)인 북괴(北傀) 공산독재체제(共產獨裁體制) 사회하(社會下)에서 실제(實際)로 생활(生活)해 보지 못한 대부분(大部分)의 우리 국민(國民)으로서 그들은 내부(內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正確)히 파악(把握)하기란 참으로 어려움에 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잔악(殘惡)한 무리인 이들과 어떤 형태(形態)로든 반드시 싸워야 할 운명적(運命的)이며 숙명적(宿命的)인 속에서 살고 있는 만큼, 그들의 실상(實相)을 보다 정확(正確)히 파악(把握) 하는데 온 정성(精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제2의 6·25는 또 오는가?

공산주의 「전쟁론」 분석



홍 지 연
〈내외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약 력 ◇

전직 : 건국대·이화여대·단국대 교수
중앙정보부 경제담당 종합판단관
현직 : 한국 종교문제 연구회장
한국 산업사회문제 연구소장
내외정책연구소 연구위원

- 목 차 -

1. 서언
2. 6.25의 교훈
3. 공산주의의 본질
4. 공산주의의 전쟁론
5. 제2의 6.25의 가능성
6. 결론

1. 서 언

일반적으로 “6·25”는 『민족상잔의 비극』이라고 표현되고 있다. 사실, 그것은 우리 “한민족”의 처지로서는 그밖에 다른 어떠한 말로서도 표현할 수 없는 한스러운 울분의 표현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금 그러한 ‘비극’이 재발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버릴 수 없는 상황 아래 “제2의 6.25”를 걱정하며 그 재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형편에 놓여 있다. 물론, “제2의 6.25”가 없기를 바라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 억지”의 노력에 의하여 그 재발을 막지 않으면 아니 되며, 실지로 그것은 가능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세계 각국의 여러 저명한 “공산주의 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세계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없는 자는 바로 「김일성」이다』라는 점에 비추어 「김일성」 및 그에게 맹종하고 있는 추종세력이 어떠한 “영똥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영똥한 행동”을 할 위험성은 항상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이란 원래 그러한 특징이 있지만, 특히 아무런 경륜도 경험도 업적도 없이 하루 아침에 소련공산당에 의해서 그 “충실한 앞잡이”로 기용되어 권력자가 될 수 있었던 「김일성」은 심리학이 말하는 이른바 “편집질(偏執質)”의 성격을 지니고, 정신의학이 말하는 “편집병(偏執病)” 또는 “편집광(偏執狂)”의 증세에 걸려있는 것이 틀림없는 만큼, 우리는 “제2의 6.25”의 가능성에 대하여 언제나 명확한 기초판단의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불의(不意)의 사태”에 대한 만반의 전투적 및 정신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2. “6.25”의 교훈

이미 우리들은 “6.25”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제2의 6.25”의 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약간 번거로운 일이지는 하지만 새삼 그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무엇보다도 당시 우리나라는 군사력에 있어서 월등하게 열세였다는 사실이다. 북괴군이 소련군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항공기, 탱크, 각종 야포 등 전투장비와 무기의 지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군은 거의 무방비상태 였기 때문에 북괴군은 “51일 작전”에 따른 “전면 남침공격”에 “승산”이 있다고 보고 “불시(不時) 선제공격”을 감행해 왔던 것이다.

둘째, 당시 미국정부는, 극히 일부의 군장성을 제외하고는 “공산주의”의 “세계적화 계획”을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혹시 짐작하고 있던 정치인들도 그것에 단순한 “공산주의자들의 꿈”으로 간주하거나, 당시 소련의 군사력이 별것 아니었기 때문에 감히 어떤 군사적인 침공을 획책할 수 없을 것으로 앞잡고 있었다. 거기에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각국 공산당에 지령하여 이른바 “평화공세”를 취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어떤 군사적 침략을 자행하기 위한 “연막전술”의 방패막이라는 것, 즉 “위장평화”에 불과한 것이었던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고 있었다. 물론, 소련이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벌이지 않고 북괴를 이용하여 “대리침략전(代理侵略戰)”을 치루게 함으로써 “남조선 적화”를 감행할 것이라고는 더더구나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셋째, 당시 남한에서 활동하던 공산당, 「남로당」은 한국국민의 대다수가 공산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착각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해방 직후부터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학생들을 선동하여 “6.25” 전까지 무려 17,000여차례의 크고 작은 사건들, 폭동, 폭행, 방화, 관공서 습격, 살인, 테모 등등을 조성 조장해 왔었는데 북괴군이 무력남침을 감행하면, 상당수의 “민

중”이 호응하여 후방지역을 교란, 장악하고 일거에 “남한 적화혁명”을 성취시키게 될 것으로 오산하여, 북괴 「김일성」에게 그렇게 보고하고, 소련도 그렇게 믿게 만들었던 것이다.

네째, 「김일성」은 「스탈린」이 북괴군 군사고문관을 통하여 지령했던 이른바 “비밀 작전명령 제1호”에서 “7월 2일 04시 전면 공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을 앞당겨 “6월 25일 04시”에 북괴군이 전면 남침하도록 변경했었다는 사실이다. 즉 「김일성」의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남조선 무력적화”라는 소련공산당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게 만든 것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그야말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왜냐 하면 「스탈린」의 지령대로 “7월 2일”에 공격을 시작했더라면 “UN군의 참전”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김일성」이 왜 작전개시일을 제멋대로 변경했는지를 밝힐 필요도, 거를도 없지마는 어쨌든 「김일성」이라는 인간이 그야말로 “영똥한 독불장군”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의 경계심을 일깨우게 하는 것이다.

3. “공산주의”의 본질

“제2의 6.25”가 다시 일어 나게 될 것인가, 그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6.25”의 교훈과 함께 “6.25” 자체의 원인, 즉, “무력남침”을 자행했던 장본인들인 “공산주의자”들의 사상 및 행동의 원리인 “공산주의” 자체의 본질부터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여러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막상 “공산주의”란 무엇이나 하는 물음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은 어떤가? 그것을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의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국어사전』, 『우리말사전』에 적혀 있는 “공산주의 풀이”를 찾아 보는 것이다. 사전마다 약간씩 다르게 풀이되어 있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빈부의 차이없이 평등하게 하려는 사상』이라든지,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사상』이고, 그것들을 『실현시키려는 운동』으로 되어 있을 것이다.

만약, “공산주의”가 그런 사상이고 운동의 원리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반공”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오히려 ‘찬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 나부터 ‘찬성’하겠다.

물론, 그러한 사전들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는 “국어학자,” “언어학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속임수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들어 뿌려 놓은 책자들을 그대로 참고한 것 뿐이며, 결코 올바른 풀이는 아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가를 가장 간단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풀이했던 것은 「마르크스」와 「엔겔스」, 「레닌」과 「스탈린」과 같은 “진짜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들은 “공산주의”란 『세계지배 전략전술의 원리』, 즉 “세계지배의 방법론(方法論)”이라고 생각하고, 말했던 것이다. 이를테면, 오늘날 이 지구상에는 164개의 공산당들이 있는데, 이

들 공산당들이 발행하는 “당 기관지”에는 그 신문의 명칭보다 윗자리에 반드시 『만국(方國)의 프롤레타리아는 단결하라』라는 표어가 적혀 있다. 이 표어를 제일 처음에 만들어 사용했던 공산주의자는 바로 「마르크스」와 「엔겔스」였다. 1848년 2월에 발표했던 「국제 공산당」의 『공산당 선언』에서 이들이 사용한 이래 모든 공산당은 반드시 이 표어를 사용하고 따르게 되어 있다. “만국”이란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전 세계”라는 뜻이다.

따라서 “전 세계의 지배” 근본원리로 삼고 기본목표로 삼는 공산주의자들이 “6.25”를 획책했던 것은 “한국적화”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를 위한 하나의 “과정(過程)”이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북괴의 “한국 침공”에 대하여 UN이 “국제 경찰군”인 “UN군”을 조직하여 “한국 전쟁에 참전할 것”을 결의하고 그 대표적인 16개의 나라들이 “공동방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휴전 이래 미군은 “한국”에 계속 주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때, “제2의 6.25”의 가능성은 북괴는 물론이며 “공산주의국가들의宗主국(宗主國)”인 소련의 국가권력을 「소련공산당」이 쥐고 있는 한, 언제나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4. 공산주의의 전쟁론

물론, 공산주의자들의 “세계지배 계획”은 반드시 “전쟁”이라는 형태로, 이 방법 하나로서만 추구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무력 적화”와 아울러 “비무력(非武力)혁명”이라는 방법도 사용하는 이른바 “양면전술(兩面戰術)”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적화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국가의 형편과 국제적인 정세, 그리고 공산국가 자체의 형편 등등 이른바 “객관적·주체적 조건들”에 따라서 “무력” 또는 “비무력”의 적화전술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적화전술은 그들의 “전쟁론(戰爭論)”에 똑똑히 드러나 있는데, 잠시 참고하기로 하자.

「마르크스」는 한 나라의 적화는 물론이며 “세계지배”를 성취하는데 있어 “전쟁”의 효과를 특별히 강조했던 “전쟁주의자”였다.

『전쟁은 한 나라의 국민들을 시험한다. 미이러가 공기에 쏘이면 단번에 쏘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것과 같이, 전쟁은 이제 더는 생활력을 가질 수 없게 된 모든 사회제도에 대하여 죽음의 선고를 내린다』면서 전쟁이 적화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전쟁에 관한 논문들을 썼던 것이다.

특히 “유격전”에 대해서 『전쟁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기술이다』라고 말하여 그 전술에 대한 풀이를 한 논문 『혁명 및 반(反)혁명』을 발표했었는데, 그것은 “전쟁”에 대한 전술론으로서도 공산주의자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전술원칙으로 되어 있다. 즉, 「레닌」은 「마르크스」의 “유격전 기술”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는 논문을 발표했었다.

『전쟁과 유격전, 무장봉기는 정치투쟁의 특수한 형태로서 우리들(= 공산주의자들)이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수한 법칙에 따르는 것이다.…… 이 기술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였다.

가. 결코 전쟁을 함부로 시작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한 번 시작하였으면, 최후까지 버티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 결정적인 곳, 결정적인 때에 월등하게 우세한 병력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보다 우수한 준비와 조직을 가진 적이 우리를 격파하게 될 테니까.

다. 일단 전쟁을 시작하면, 최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언제나 공세를 취해야 한다. 「수세는 전쟁이나 유격전, 무장봉기의 죽음이다」.

라. 적을 불시에 기습공격하고, 언제나 적의 군대가 아직 분산되고 있는 동안에 호기를 잡아 야 한다.

마.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이것을 매일 매일(매시간) 획득하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신적인 우월」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운운, 즉,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와 같은 전술원칙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6.25”에 있어서 사용했던 북괴의 전술이 바로 이상과 같은 “공산주의 전쟁론”의 전술원칙에 입각했던 것이 분명해진다.

5. “제2의 6.25”의 가능성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제2의 6·25”는 다음과 같은 상황과 조건 아래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6.25” 즉, “새 6·25”의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

가. 가능성의 조건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산주의”의 본질이 “세계지배”를 기본목표로 삼는 “세계적화”에 있으므로 북한 공산집단이 분담하게 되어 있는 “남조선 적화, 지배”는 북괴 자체가 그 본질의 변화를 보지 않는 한 항상 언제까지나 추구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둘째, “6.25”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련 공산당이 미국에 대한 “간접적인 전쟁전술”로서 북괴를 “대리 공격군”으로 이용하려할 때, “제2의 6.25”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세째, 소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일성」의 “편집질(偏執質)”, 이를테면 『죽기 전에 반드시 남조선적화, 지배를 성취해야겠다』 든가, 「김일성」의 사망 후, 그 추종세력인 북괴군부가 「김일성」을 후계한 「김정일」에 대한 반발로 “남조선 무력적화”를 일으키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네째, 미국정부가 “용공적인 정치세력”에 의하여 집권됨으로써 “주한 미군의 철수정책”을 실시하였을 때, 북괴 뿐만 아니라 소련공산당도 “한반도 전역적화(全域赤化)”의 기회를 맞게 된 것으로 고무될 것이다.

나. 가능성이 없는 상황

첫째,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월등하게 강화되었을 경우, 즉, 군사력이 월등하게 증강되고, 경제성장과 발전이 월등하게 증진되며, 정치적 안정과 사회의 복지가 확고하게 보장되고, 국제적인 지위가 보다 넓고 높게 향상되면, 소련은 물론 북한 공산주의 집단은 “무력적화”를 단념하고, 새로운 형태의 적화, 즉 “비무력 적화”의 전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둘째,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 추종세력도 힘을 잃거나 퇴진함으로써 “공산주의”의 전략전술의 “양면성”에 따른 “비무력 적화”를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신봉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경우, 이들은 “무력적화”를 피하게 될 것이다.

세째,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에 있어서 “공산주의”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질을 보게 됨으로써 “세계지배”를 포기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하는 경우, “한반도 전역적화” 전략 자체가 포기될 것이며, 미소 간의 긴장도 해소될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미 중공에 있어서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소련에 있어서도 차츰 그 흔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경우는 북괴에 있어서도 「김일성」이 사망했을 먼 훗날의 시기일 것이다.

다. “새 6·25”의 위험성

첫째, 이 경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의 후방지역에의 “특수 게릴라”의 침투에 의한 교란 파괴전술인데, 물론 “국군” “경찰”, “예비군” 등으로 위장함으로써 “위장 내란”을 조작, 조성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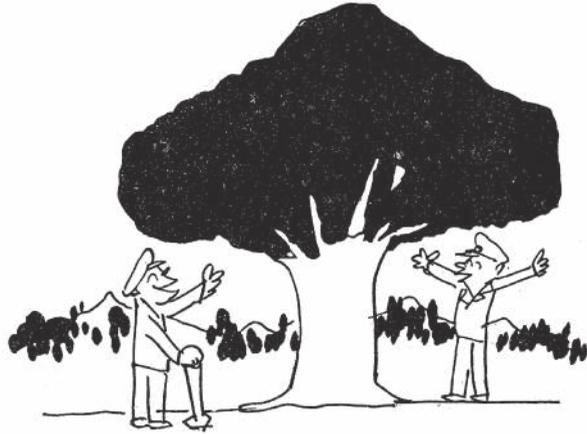
둘째, “10·26사태” 이후 돌발적으로 야기되었던 “광주사태”와 같은 폭동소요가 서울 또는 그 밖의 다른 대도시에서 발생되도록 선전선동하고 조성, 조장하는 “내란조성” 전술을 획책할 위험성도 없지 않다.

6. 결론

우리 나라는 세계 186개 국가들 가운데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인 53개 국가의 하나로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복수정당제”를 실시하고 있으면서도 유일하게 “공산당”만은 불법화하고 있는 “반공국가”이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의 처지에서 볼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최악질 반동 국가』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공국가”로서 아시아 대륙의 동북부에 딱 버티고 있다는 것은 “한반도 전역적화”에 의한 “일본적화”를 근원적으로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소련의 “서태평양 제패”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기본적인 장애요인이다.

소련이라는 “공산주의 종주국”에 의하여 급조되고 북한 땅을 지배하게 된 북괴 「김일성」으로서는 소련과의 이해일치(利害一致)가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조건이며, 따라서 “남조선 적화”

식 목 일



알뜰살림 심고가귀 푸른낙토 이룩하자

라는 소련이 자신에게 맡긴 '의무'에 충실할 수 밖에 없다.

즉,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세계지배"를 꿈꾸는 "공산주의자"들과 정면으로 대결하지 않으면 아니 될 역사적 및 지리적 조건 아래 국가의 자주독립과 국민의 생명, 재산을 보전하고, 민족의 "민주주의적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자체의 "국가안보"를 유지·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제2의 6·25"는 물론 또 다시 있어서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또 다시 있게 되지 않도록 "사전안보(事前安保)"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지만, 혹시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또 다시 "제2의 6.25"나 "새 6. 25"가 있게 된다면 치더라도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자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 서울에서 L·A까지 2시간에 -

중위 한 성 용(韓惺鏞) 역(譯)
〈공군 정참부〉

- 이 글은 항공(航空) FAN('85. 7), News Week('85. 12. 16),
Air Force Times('85. 12. 9)에서 발췌 번역한 것임 -

“저희 Orient Express를 이용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탑승하고 계신 여객기는 서울발(發) L.A도착 107기로서 L.A 도착까지는 2시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여객기에는 창문이 없어 유감입니다만 그 대신 승객 여러분들께서는 전방(前方) TV모니터를 통해 고도 11만(萬)feet상공에서 내려다 보이는 지구의 전경을 감상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本) 여객기의 속도(速度)가 마하 5에 이르게 되면 저희 승무원들이 여러분들께 약간의 음료수를 제공해 드릴 것 입니다. 시간관계상 식사하실 시간은 없을 것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승객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여객기의 상승 및 하강시에는 반드시 각자 여러분들의 좌석에 돌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본 여객기는 가속 및 감속시 발생하는 “G” 압력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특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편히 누워서서 아름다운 지구의 광경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승객들 및 항공우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신나는 가상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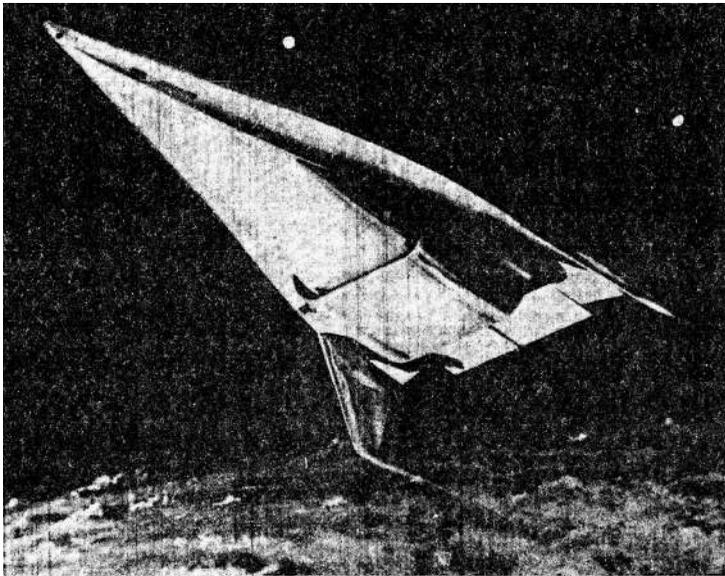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상상이 머지 않아 곧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이다. 21C형(型) 극초음속(極超音速)여객기는 놀라운 속력으로 여러 승객 및 화물을 지구의 반대편에 빠르고 안전(安全)하게 운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現在)의 콩코드 여객기는 겨우 Mach 2 정도의 속도(速度)만이 가능(可能)하나, 극초음속(極超音速) 여객기는 Mach 25 이상(以上)의 속도(速度)가 가능하여 영국 런던에서 호주의 시드니까지 공항 활주로를 이륙하여 다시 공항 활주로에 착륙하는데 단지 67분(分)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현재(現在) 미(美) 국무성(國務省)이 금년(今年) 1월(月) 착수할 예정인 대기권(大氣圈) 횡단(橫斷) 극초음속기(極超音速機) TAV(Trans Atmospheric Vehicle) 연구개발계획(研究開發計劃)은 이러한 모든 상상을 현실화(現實化)시켜 줄 것이다.

동(同) 계획(計劃)에는 3년간(年間)에 걸쳐 총 5억불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12개 항공우주산업체가 참가할 계획이다.

〈계획(計劃) 추진〉

극초음속기(極超音速機)에 대(對)한 상업시장(商業市場)이 불투명한 가운데 백악관 과학(科學)담당 고문 George Keyworth를 주축으로 한 막강한 항공우주(航空宇宙) 관련 원외



〈대기권 횡단 극초음속기 TAV의 가상도〉
- 출처(出處) : News Week '85. 12. 16 -

국(院外國)이 조직되어 동(同) 계획(計劃)을 추진 중에 있는데 동(同) 계획(計劃)에 필요(必要)한 자금중(資金中) 80%는 미국무성(美國務省)의 국방기술연구소(國防技術研究所)(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가 담당하며 나머지 20%의 비용은 미항공우주관리국(美航空宇宙管理局)(NASA)이 각각 부담할 예정이다.

실험용(實驗用) TAV 제작(製作)에는 20억~30억불의 비용이 예상되며, 1990년대 초에 가서야 최초 비행이 가능(可能)한 것으로 보인다.

TAV의 가상도 및 성능제원은 다음과 같다.

〈TAV의 제원〉

- 운용고도
 - 순항 비행시 : 120~150km
 - 정찰 요격비행시 : 30km
- 운항속도 : Mach 30(궤도비행시 필요한 최저속도 : Mach 25)
- 중 량 : 약 500t
- Payload : 약 2~10t
- 임 무 : 여객수송, 우주요격, 정찰공격 등

〈TAV의 특징(特徵)〉

○ TAV는 일반(一般) 항공기(航空機)와 같이 일반활주로에서 수평 이착륙이 가능(可能)하며 우주(宇宙)에서도 지상(地上)으로부터의 정교한 도움없이 자유(自由)로운 비행(飛行)이 가능(可能)하다.

○ 지구상 어느 곳이든지 2시간(時間) 이내(以內)에 도달하여 Payload에 따라 요격, 정찰, 공격 등 다양한 임무(任務) 수행(遂行)이 가능(可能)하다.

○ 소련(蘇聯)의 ASAT 대(對) 인공위성(人工衛星)은 발사(發射) 요격임무(邀擊任務)를 수행(遂行)

하기까지 약(約) 90분(分)이 소요(所要)되나 TAV는 수분 내 발사가 가능(可能)하다.

○ 비행고도를 약(約) 30km로 낮추어 적(敵) 폭격기, 순항 미사일 등에 대(對)한 요격(邀擊) 및 정찰임무(偵察任務) 수행(遂行)이 가능(可能)하다.

○ 우주(宇宙) 왕복선(往復船)은 비행후(飛行後) 재(再) 투입시 최소(最少)한 1개월(個月) 이상(以上)의 기간(期間)과 2억불 이상(以上)의 엄청난 비용이 소요(所要)되지만, TAV는 별도(別度)의 비용없이 수분 이내에 재비행(再飛行)이 가능(可能)하다.

○ 우주(宇宙) 왕복선(往復船) 발사(發射)비용(費用)의 1%만으로도 화물의 대기권 궤도에 운반(運搬)할 수 있어 현재(現在) 미국(美國)이 구상 중인 SDI 우주방어계획(宇宙防禦計劃)에 새로운 대안(代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 TAV 내(內)에 고성능(高性能) 레이더 및 Computer를 탑재하여 자력(自力)으로 정찰, 목표탐지 및 정밀공격수행이 가능하므로 지상(地上)의 C3I 체제(體制)가 파괴되어도 기계획(既劃)된 임무수행(任務遂行)이 가능(可能)하다.

〈TAV 개발현황(開發現況)〉

TAV를 개발(開發)하는 데는 적지 않은 기술적 장애가 가로놓여 있다.

우선 TAV의 대기권 돌입시 발생하는 대기마찰로 인한 고도(高度)의 열(熱)때문에 견고하고 내열성이 강(強)한 항공기(航空機) 동체(動體) 재료 및 정교한 냉각방식이 요구된다.

냉각방식에 대한 가능방안으로서 액체수소와 같은 저온 연료를 냉각제 및 추진연료로 사용(使用)하는 방안(方案)이 연구중(研究中)인데 항공기(航空機)의 겉표면을 통(通)해 흐르는 연료가 연소실 안으로 분사되기 이전(以前)에 기화되면서 항공기 표면을 냉각시켜주는 방법이다.

한편, 극초음속(極超音速) 비행시(飛行時) 가장 문제가 되는 엔진은 Airturbo ramjet으로 알려진 Hybrid engine이 사용(使用)될 예정(豫定)으로 있는데 저속(低速)운행시는 공기(空氣)가 연료와 혼합되기 이전에 공기(空氣)를 압축시키기 위해 터빈을 사용하나 고속(高速)에서는 내입(內入)하는 초음속(超音速) 기류(氣流)의 엄청난 힘이 압축기 역할(役割)을 담당함으로써 마하 16에 이르러 로켓트 파워는 항공기를 궤도진입에 필요(必要)한 속도(速度)인 마하 25로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엔진에 대해서는 연소율이 매우 높은 연료와 초음속 기류 사이의 정확한 통제(統制)가 요구(要求)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초 고성능 컴퓨터에 의한 대규모 열 역학적 계산에 의해 가능(可能)하게 될 것이다.

현재(現在) 캘리포니아주 Sacramento에 있는 Aerojet General Corp에 의해 개발 중에 있는 Airturbo ramjet 로켓트 항공기 엔진은 사실(事實)상 1949년에 이미 고안된 바 있다.

미국은 당시(當時) 소련의 첫 인공위성인 Sputnik 발사에 당황한 나머지 미사일 발사용 캡슐 개발을 선호 동(同) 로켓트 항공기엔진 제작계획을 취소한 바 있다.

※ 1958년 제작되었던 X-15는 당시 354,000피트의 고도로 마하 6.7 세계적인 극초음속 비행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당시 X-15의 조종사이자 극초음속 항공기의 주창자인 Scott Crossfield씨(氏) (현(現) 64세(才))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8년 NASA를 창설하였을 당시 기술분야에 있어 커다란 실수를 범하였다고 당시 미국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우주개발은 이제 미사일 제작 광신자 및 독일인(독일인 이주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이끄는 로켓트 과학자들을 지칭) 과학자 수중에 들어 갔다.”고 주장하며 우주왕복선(宇宙往復船)(Space Shuttle)과 같은 Rocket Vehicle은 원래 비경제적이라 지적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사실(事實)로서 현재(現在) 거액의 비용(費用)을 들여서 우주(宇宙) 왕복선(往復船)이 운반하고 있는 연료 중 78%가 산소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매우 어리석

은 방법이라고 Scott Crossfield는 주장하고 있다. 대기권의 20%가 산소이며 대기권 내에서는 아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산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극초음속 항공기 계획도 아무런 비용없이 무상으로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상업시장이 매우 좁은 것으로 보인다. 적재량은 한정되어 있으며 탑승권 구매가격도 엄청나게 비쌀 것이다. 또한 엄청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용도 많이 들 것이다.

하여간 엄청난 제작비용으로 인해 극초음속 대기권 횡단기 TAV의 상업성(商業性)은 그다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오늘날의 장거리 수송기가 서기 2000년(年)경에는 새로운 형태의 초음속 항공기로 대체될 것이 예상되므로 TAV 제작추진은 적어도 항공기 Design분야에 있어서 신세대(新世代)의 장(章)을 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出處) : • 항공(航空) FAN '85. 7.
- News Week '85. 12. 16
- Air Force Times '85. 12. 9

미국(美國)의 차기(次期) 전투기(戰鬥機) 개발계획(開發計劃) (2)

군무원 이 건 순(李建淳)
〈공본 정참부〉

- 이 글은 Flight International ('84. 10. 20)에서 발췌 번역한 것임 -

- 목 차 -
4. Avionics의 결합(統合)
 5. 새로운 Engine
 6. Digital Control
 7. 전투(戰鬥) 자동화(自動化)
 8. 조종석(操縱席)의 목표자료작도(目標資料作圖)

4. Avionics 통합(統合)

차기(次期) 전투기(戰鬥機)의 avionics는 VHSIC(초고속처리집적회로(超高速處理集積回路)) 기술(技術)을 활용(活用)하여 Common module blocks로 avionics를 구성(構成)시키게 되어 :

- 높은 신뢰성(信賴性)
- 저정비(低整備) 소요(所要)

의 통합(統合) avionics 체계화(體系化)하게 하는 것이 주요적용(主要適用) 주안점(主眼點)으로 추진(推進)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공군(美空軍)에서는 이미 “Pave Pillar 통합(統合) Avionics 개발계획(開發計劃)”을 차기전투기기본설계(次期戰鬥機基本設計) 단계(段階)에 앞서서 본격적(本格的)으로 개발추진(開發推進)하고 있다.

중래(從來)의 전투기(戰鬥機) 설계방식(設計方式)에서는 avionics에 대(對)한 설계비중(設計比重)은 기체(機體)나 추진기관설계(推進機關設計) 보다 낮아서, avionics설계(設計)는 이들 설계(設計)가 다 끝난 후 끼워 맞추는 식(式)이 되어 완벽(完璧)한 통합적(統合的) 설계(設計)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事實)이었다. 그 결과(結果) 72대(台) 편성(編成)의 F-15기(機) 1개(個) 비행단운용(飛行團運用)을 지원(支援)하기 위해서는 6대분(台分) 이상(以上)의 C-141B수송기(輸送機) 하물분(荷物分)의 avionics 부품(部品) 등(等)의 지원장비(支援裝備)가 별도(別途)로 필요(必要)하는 실정(實情) 등(等)이 일어나고 있다.

중래(從來)의 전투기(戰鬥機) 설계방식(設計方式)에서는 avionics에 대(對)한 설계비중(設計比重)은 기체(機體)나 추진기관설계(推進機關設計) 보다 낮아서, avionics설계(設計)는 이들 설계(設計)가 다 끝난 후 끼워 맞추는 식(式)이 되어 완벽(完璧)한 통합적(統合的) 설계(設計)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事實)이었다. 그 결과(結果) 72대(台) 편성(編成)의 F-15기(機) 1개(個) 비행단운용(飛行團運用)을 지원(支援)하기 위해서는 6대분(台分) 이상(以上)의 C-141B수송기(輸送機) 하물분(荷物分)의 avionics 부품(部品) 등(等)의 지원장비(支援裝備)가 별도(別途)로 필요(必要)하는 실정(實情) 등(等)이 일어나고 있다.

“Pave Pillar” 통합(統合) Avionics 개발계획(開發計劃)

이는 종전(從前)까지는 개별적(個別的) 기능(機能)을 갖던

- 항법(航法)
- 지형추종(地形追從) 및 회피(回避)
- 위협(威脅) 상황(狀況)의 탐지(探知), 식별(識別) 및 회피(回避)
- 목표(目標) 탐지(探知) 및 추적(追跡)
- 무기발사(武器發射)
- 전자전(電子戰)

등(等)의 제반(諸般) 기능(機能)들을 통합작용(統合作用)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統合的) avionics기능(機能)은 VHSIC가 좀 더 저렴(低廉)하면서도 고기능화(高機能化)함으로써, 가능(可能)하게 할 것인데, 이로써 통합(統合) avionics화(化)한 차기전투기(次期戰鬥機)는 일일(日) 출격율(出擊率)이 현용일선기(現用一線機)에 비(比)하여 50%증대(增大)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 통합(統合) avionics system은 VHSIC의 공통(共通) modules family를 써서 Blocks 방식(方式)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예(例)를 들어서

- Radar의 경우는
 - Vector array Processor와 연산기억(演算記憶)의 공통(共通) modules로써 대부분(大部分) 구성(構成)하게 되며
 - radar 자체(自体)가 갖는 특유(特有)한 modules이라는 것은 1~2가지에 불과(不過)한 것이다.
 - 공통(共通) modules는 타(他) avionics 임무(任務)에도 공동(共同) 활용(活用)될 수 있기 때문에, Pave Pillar 개발계획(開發計劃)으로 등장(登場)하게 될 신기술(新技術)의 통합(統合) avionics system품(品)은 손상(損傷), 고장율(故障率)이 경감(輕減)하게 될 것이다.

광섬유기술(光纖維技術)이 활용(活用)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databus는 현용(現用) 1553B multiplex digital databus보다도 고속(高速), 고기능(高機能)의 것으로 등장(登場)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databus로 연결(連結)하게 되도록 현재(現在) 개발중(開發中)에 있는 common modules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초고신뢰성(超高信賴性) radar
- 발전(發展)된 전장관리체계(戰場管理体系)
- Integrated inertial reference assembly.
- 통합전자전(統合電子戰) 체계(体系)
- 통합지형접근 / 수정(修正) system(Integrated terrain access/ retrieval/ system)
- 조종(操縱) / 추력(推力) controls.
- 조종석내(操縱席內) 제반(諸般) controls/displays 여기에는, color graphics와 Voice Command 등(等)의 control도 포함(包含)된다.

각(各) avionics장비품(裝備品)들도 서로 공통(共通) modules를 사용(使用)하게 되어, spares취급(取扱)도 크게 용이(容易)하게 된다. Built-in self-test 방식(方式)으로 개발(開發)되기 때문에 미숙련자(未熟練者)들도 야외(野外)에서 고장품(故障品)을 손쉽게 교환(交換)할 수 있게 된다. 고장(故障)난 modules는 특별(特別)히 해야 할 필요(必要)가 있을 경우를 제외(除外)하고는 버리게 된다.

또한 modules을 bus에 그냥 삽입(插入)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Cable이나 connectors 등(等)의 필요량(必要量)이 90%나 경감(輕減)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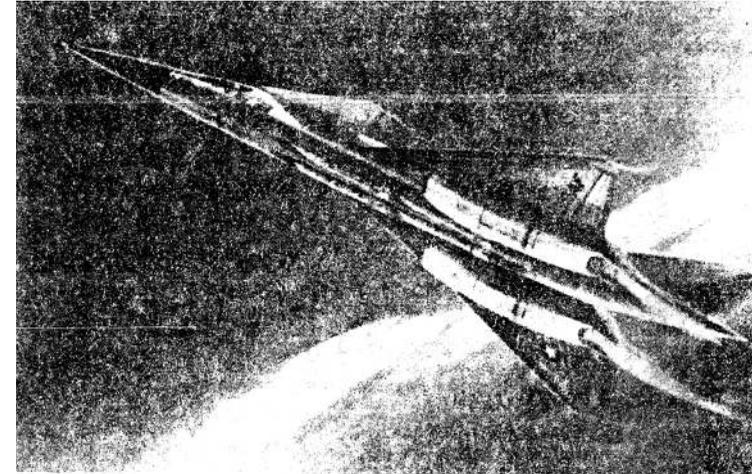
그런데, 오늘날의 avionics 고장(故障)의 50%이상(以上)이 이들 cable이나 connectors 원인(原因)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현재(現在)의 F-16기(機)에 이와 같은 Common modules를 적용(適用)하였을 경우, 전체(全体) 정비소요량(整備所要量)에서 avionics분야(分野)가 점(占)하는 정비소요(整備所要) 40%에서 4%로 격감(激減)시키게 될 것이다. 이로써 :

- 정비요원(整備要員)이 감소(減少)되고
- 복잡(複雜)한 시험장비(試驗裝備)를 갖춘 중간정비소(中間整備所)가 불필요(不必要)하게 되고 Boeing사(社)의 ATF 제안품(提案品), 비행임무(飛行任務) 적응성(適應性) 주익(主翼) (MAW) 과 기체밀착무기(機體密着武器) 적재기술(積載技術)이 도입(導入)되고 있다.
- 거대(巨大)한 양(量)의 Spare Parts양(量)도 경감(輕減)하게 될 것이다.

현재(現在) 개발중(開發中)인 “Pave Pillar통합(統合) avionics 계획(計劃)”은, F-15, F-16기(機) 등(等) 일선(一線) 전투기(戰鬥機)는 물론(勿論), 해군기(海軍機), 그리고 육군(陸軍)의 신형(新型) LHX경(輕) Hel기(機) 등(等) 광범위(廣範圍)하게 적용(適用)하게 될 것이다.

이 Pave Pillar Systems을 '87년중(年中) F-16기(機)에 적용(適用) 시험(試驗)토록 개발(開發)이 추진중(推進中)에 있는데, 이것이 성공적(成功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들 적용기(適用機)들의 운용비(運用費)가 크게 절감(節減)될 것이다.



Boeing사(社)의 ATF 제안품(提案品), 비행임무(飛行任務) 적응성(適應性) 주익(主翼) (MAW) 과 기체(機體) 밀착무기(密着武器) 적재기술(積載技術)이 도입(導入)되고 있다.

5. 새로운 Engine

미공군(美空軍)의 현용(現用) 일선전투기(一線戰鬥機) Engine인 F100 은 무려 17년전(年前)에 설계(設計)된 것이다. 그 후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Engine개발계획(開發計劃)들이 추진(推進)되어 왔다 :

- ATEGG (Advanced Technology Gas Generator)
- JTDE (Joint Technology Demonstrator Engine)
- APSI (Aircraft Propulsion System Integration)

등(等)의 개발계획(開發計劃) 추진(推進)으로 새로운 engine 기술(技術)들을 습득(習得)하기에 이르렀다.

미공군(美空軍)/해군(海軍)이 공동(共同)으로 추진중(推進中)에 있는 JAFE(Joint Advanced Fighter Engine) 개발계획(開發計劃)은 위와 같은 제반(諸般) 개발계획(開發計劃) 추진(推進)에서 습득(習得)된 새로운 engine기술(技術)들을 활용(活用)시키는 개발계획(開發計劃)인 것이다. 이 공동개발계획(共同開發計劃)의 목표(目標)는

- 현용(現用) F 100 engine보다 추력(推力) / 중량비(重量比)가 대폭(大幅) 향상(向上)되고
- 신뢰성(信賴性)과 내구성(耐久性)은 희생(犧牲)됨이 없이 오히려 높게 한다.

이와 같이 매우 엄격(嚴格)한 작전요구조건(作戰要求條件)이 성능시범시작(性能示範試作) engine 계약사(契約社)인 General Electric과 Pratt & Whitney사(社)에게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 engine 개발(開發)이 성공(成功)하게 되면, 전(全) engine수명기간중(壽命期間中) 유지운영비(維持運營費)가 대폭(大幅) 경감(輕減)하게 될 것이다.

양계약사(兩契約社)들은 지난 '83년(年) 9월(月) 각각(各各) 2억(億) 300만불(萬弗)의 개발비(開發費)로 향후(向後) 50개월(個月) 기간(期間)으로 새로운 성능(性能) 시범(示範) engine 시작(試作) 계약(契約)을 추진(推進)하고 있다. 미공군(美空軍)은 이 계약추진(契約推進)으로 현용(現用)engine보다 대폭(大幅) 개량화(改良化)된 engine이 출현(出現)하게 될 것으로 큰 기대(期待)를 하고 있다.

• 미공군(美空軍)의 새로운 engine에 대(對)한 기대(期待)는 :

- 이 새로운 engine을 장착(装着)한 ATF는 현용(現用) F-15 / F 100에 비(比)하여, 50-100% range 증대(增大)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 비(非) A/ B추력(推力)으로 초음속순항(超音速巡航) 비행(飛行)과 공중전(空中戰)이 가능(可能)하게 되며
- STOL(Short Take-Off and Landing)이 가능(可能)하게 될 것이다 :
- 추력(推力) / 중량비(重量比)는 현용(現用) F100이 7.8 : 1인데 비(比)해 10:1정도(程度)의 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 이와 같은 큰 잉여(剩餘) 추력(推力)으로 가속시간(加速時間) 단축(短縮)은 물론(勿論) 상승율(上昇率)이 약(約) 30%증대(增大)하게 될 것으로 기대(期待)하고 있다.

• Stealth기술(技術)

저탐지성(低探知性), 즉(即) Stealth기술(技術)의 강요(強要)로 새로 개발(開發)될 engine은 :

- 거의 완전(完全) 무연성(無煙性) engine이 될 것이며 또한
- 공기흡입구(空氣吸入口)와 배기구(排氣口)는 radar나 적외선(赤外線) 탐지량(探知量)을 극소화(極小化) 시키도록 설계(設計)하게 될 것이다.
- 비(非) A/B초음속(超音速) 순항비행(巡航飛行)과 이차원(二次元) 추력지향(推力指向) 가능(可能) 노즐 등(等)도 이 Stealth 기술적(技術的) 관점(觀點)에서 높이 평가(評價)하게 될 것이다.

• STOL F-15와 ATF

Pratt & Whitney사(社)에서는 2차원(次元) vectoring nozzle engine을 장착(装着)한 STOL F-15기(機)를 오는 '88년(年) 첫 비행(飛行)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발계약(開發契約)을

추진중(推進中)에 있다.

이 항공기(航空機)는 A/B추력(推力)을 thrust vectoring 기술(技術)을 써서

- 단거리(短距離) 이륙(離陸)과

- 전투기동력(戰鬪機動力)

을 크게 향상(向上)시키게 될 것이며 또한

- dry thrust를 송추진(送推進)시켜 단거리(短距離) 착륙(着陸)을 가능(可能)시킬 것이다.

→ 이 STOL F-15기(機)는 ATF기(機)와 같이 1,500X50Ft정도(程度)의 활주로(滑走路)에서 작전가능(作戰可能)하게 될 것이다.

• JAFE engine개요(概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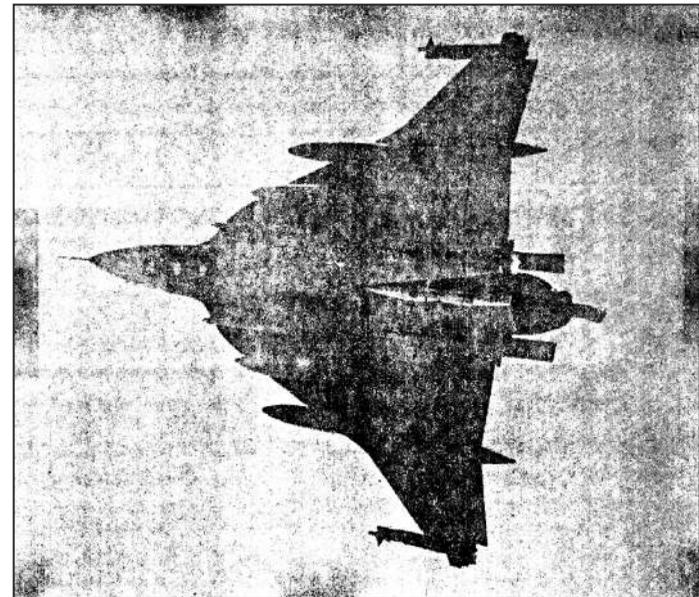
Joint Advanced Fighter Engine을 대략(大略)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 core압력비(壓力比)는 그리 높지 않은 중정도(中程度)의 것이 될 것이며

- fan을 고압비(高壓比)

- turbine 입구정도(入口程度)를 높게 하여 초음속순항비행(超音速巡航飛行)이 가능(可能)토록 높은 dry 추력(推力)을 발생(發生)케 할 것이다.

- 최대(最大) dry추력(推力)을 28,000Lb정도(程度)로서 이는 현용(現用) F100 engine의 배



General Dynamics사(社)가 개발중(開發中)인 F-16 XL

(배)의 치(值)이며, bypass비(比)는 0.3 또는 그 이하치(以下值)가 될 것이다.

- Parts수(數) 격감(激減)

JAFE engine의 Parts수(數)는 현용(現用)F100 engine에 비(比)해, 약(約) 60%가 적은 것이 될 것이다. 또한

- 고압(高壓) Compressor는 5~6단(段)에 불과(不過)하며

- turbine은 1단(段)

- Computer를 활용(活用)한 공역학적(空力學的) 설계(設計)로 chord폭(幅)이 종전(從前)것보다 넓고 더욱 작은 수(數)의 Compressor blades의 것이 될 것이다.

- 또한, engine의 신뢰성(信賴性)이 크게 향상(向上)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단결정재(單結晶材) (single- crystal) blades, 분말고가압(粉末高加壓) 금속합금(金屬合金)(Powder-metalalloy) 등(等)의 새로운 기술(技術)로 engine제작(製作)을 가능(可能)하게기(機)할 것이다.

- 고장간(故障間) 가동시간(稼動時間)(Mean Time Between Failures : MTBF)도 현용(現用)것 보다, 4~5배(倍)가 높은 400시간(時間) 정도(程度)가 될 것이다.

• JAFE 개발계획(開發計劃)

- 초도시험(初度試驗)은 1986년(年)

- 약(約) 860시간(時間)의 core 및 emgine 시운전(試運轉) 실시(實施)하게 되며

- 250시간(時間)의, 시험(試驗)은 가속비행(加速飛行) 임무용(任務用) Power시험(試驗)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typical mission profiles를 short cycles로 압축(壓縮)한 방식(方式)으로 실시(實施)하게 될 것이다.

- GE와 PW의 양사중(兩社中) 1개회사(個會社)가 최종선정(最終選定)되어, 10~15억불(億弗) 정도(程度)의 본격개발계약(本格開發契約)에 들어가게 되며, 개발(開發) engine은 약(約) 14,000시간(時間)의 시운(試運)을 거치게 된다.

6. Digital Control

ATF의 flight control system은 어느 정도(程度)의 손상(損傷)을 입고도 기능비행(機能飛行)을 계속할 수 있는 소위(所謂) “damage- tolerant”의 것이 될 것이며, 또한 높은 신뢰성(信賴性)을 갖게 될 것이다.

- flight control, Propulsion 및 Weapon system들이 서로 통합적(統合的)으로 운용(運用)하게 되어 많은 기능(機能)들이 자동화(自動化)하게 되어 Pilot들의 Work- load를 크게 경감(輕減)해 주게 될 것이다.

- 미공군(美空軍)은 이미 실용(實用) 및 기술시범개발계획(技術示範開發計劃)들을 통(通)하여 4중(重) 및 3중(重) 여유성(余裕性)(redundancy)을 갖는 analogue 및 digital flyby-

wire control기술(技術)의 경험축적(經驗蓄積)을 해오고 있다. 미공군(美空軍)에서는 최신(最新) 일선기(一線機)로 취역(就役)하게 될 F-16C형기(型機)에 이 4중(重) digital flight control system을 채용(採用)하게 된다.

- 그러나, ATF/ F-16로 3중(重) digital flight control기술(技術)을 실험(實驗)해본 경험(經驗)에 따르면 3중(重)것이 4중(重)것 보다 고장간(故障間) 가동시간(稼動時間)이 25% 더 긴 것이 입증(立証)되고 있다. 또한 3중(重)쪽이, 자력수복기능(自力修復機能)(self- repairing) flight controls나 전자(電子) 구동적(驅動的) 측면(側面)에서 볼 때도 유리(有利)하게 작용(作用)하고 있다.

- 자기수확기능(自己修復機能)을 갖는 flight control system을 갖추게 되면, 전장(戰場)에서 손상(損傷)을 입거나 또는 actuator의 고장(故障) 등(等)으로 일부조타기능(一部操舵機能)이 상실(喪失)되었다 하더라도, 항공기자체(航空機自体)나 Pilot를 잃어 버리는 재난(災難)을 막아 준다.

이와 같이 일부(一部) 15 flight control기능(機能)이 잃게 되려는 기능(機能)이 살아 있는 control surfaces로 하여금 자동적(自動的)으로 기능(機能)이 보정(補正) 되도록 flight control system이 재형성(再形成)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들은 생각보다 그리 복잡(複雜)한 것이 아니다. ATF의 경우는 canard나 또는 vectoring nozzle 등(等)을 구비(具備)하게 되면 flight control system상(上)의 여유성(余裕性)은 더욱 확대(擴大)하게 될 것이다.

- 미공군(美空軍)의 추산(推算)에 따르면 지금의 전투기(戰鬪機)들이 실제전투(實際戰鬪)에서 37mm대공포(對空砲)를 맞게되면 그 생존율(生存率)은 10%이내(以內)가 될 것이나, 위에 self-repairing control system의 전장손상보정(戰場損傷補正) 조치(措置)로 그 생존성(生存性)은 10배(倍)나 향상(向上)되어, 임무(任務) 포기율(拋棄率)은 1%이내(以內)로 억제(抑制)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이 self-repairing flight control system을 system이 어떤 damage를 입었을 때, 잔존조종능력(殘存操縱能力)에 대(對)하여 pilot에게 자동적(自動的)으로 알리게 된다. 이 경우 Pilot는 4단계(段階)의 생존조치(生存措置)를 취(取)하게 된다 :

(1) 최상(最上)의 경우는, 손상(損傷)을 입은 조종기능(操縱機能)이 system내(內)에서 자체수복(自体修復) 소정(所定)의 비행임무(飛行任務)를 계속 수행(遂行)하게 되는 경우이다.

(2) 다음으로는 비행성능(飛行性能)의 감퇴(減退)에 따라, 본래(本來)의 비행임무(飛行任務) 아닌 대체(代替) mission을 수행(遂行)하게 되는 경우이다.

(3) 제(第)2단계(段階) 비행임무(飛行任務) 수행(遂行)도 불가능(不可能)할 상태하(狀態下)에서는, 최기(最奇) 아군기지(我軍基地)에 귀환(歸還)하여 생존성(生存性)을 확보(確保)한다.

(4) 그것도 불가능(不可能)한 상태(狀態)에서는 아군(我軍) 영공(領空)까지 최대한(最大限)

강행(強行) 비행(飛行)하여 비상탈출(非常脫出)하는 방법(方法)을 취(取)한다.

- Pilot에 처한 경보장치(警報裝置)는 오보발생(誤報發生)을 엄격(嚴格)히 제한(制限)하도록 마련된 인공정보(人工情報)(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活用)한 조종장치(操縱裝置)의 자기진단체계(自己診斷體系)와 연결(連結)되어 있다. 자기수복체계(自己修復體系)의 주목표(主目標)는 flight control system의 신뢰도(信賴度)를 증대(增大)시키려는데 있다. 동시(同時)에 정비간가동시간(整備間稼動時間)을 증대(增大)시키려는 목적(目的)도 있다. 현용(現用) 일선전투기(一線戰鬥機)의 flight control system의 고장간(故障間) 평균가동시간(平均稼動時間)(MTBF)은 35~40시간(時間)이다. 그러나 실제적(實際的)현실적으로 사소한 결함(欠陥)이 생길 경우도 flight control system의 완전화(完全化)를 위하여 정비(整備)를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실(實)은 그 가동시간(稼動時間)이 10~20시간(時間)에 불과(不過)한 실정(實情)에 있다.

- 이 Self-repairing system의 설치(設置)가 성공적(成功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flight control Surface기능(機能)의 취급(取扱)을 software base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와 같은 다중적(多重的) hard ware 방식(方式)으로 여유성(余裕性)을 갖는 flight control system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flight control 개념(概念)따르면 3중(重) system으로서도 종래(從來)의 4중(重) system의 여유성(余裕性)에 비(比)해 동등(同等) 또는 그 이상(以上)의 안전성(安全性)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flight control system의 actuator의 동력원(動力源)을 종래(從來)의 유압방식(油壓方式)에서 전기식(電氣式)으로 전환(轉換)시킴으로써, 삼중방식(三重方式)으로 할 수 있어 종래(從來)에 비(比)해 고장(故障)에 대비(對備)한 여유성(余裕性)을 갖게할 수 있다. 현용(現用)은 유압(油壓)과 전기(電氣)의 복합방식(複合方式)으로 되어 있어서, 양방식(兩方式) 채택(採擇)에 따른 고장(故障) 대비(對備)하기 위하여 actuators 구조(構造)가 매우 복잡(複雜)하게 된다. 전기식(電氣式)인 경우는 완전(完全)한 삼중방식(三重方式)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유성(余裕性)을 갖게 됨과 동시(同時) 구조중량(構造重量)의 감소(減少) 및 신뢰성(信賴性)을 증대(增大)시키는 이점(利點)을 가져오게 된다.

7. 전투자동화(戰鬪自動化)

ATF의 개발목표(開發目標)는 원래(元來)가 현(現) F-15기(機)가 갖는 제공기능(制空機能)을 발전적(發展的)으로 향상(向上)하여 교체(交替)하려는데 있는 것이나 미공군(美空軍)에서는 이 ATF의 개발당초(開發當初)부터 공대지(空對地) 전투기능(戰鬪機能)도 발휘(發揮)할 수 있도록 개발(開發)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從來)까지 수동식(手動式)으로 이루어져 오던 전투임무수행방식(戰鬪任務遂行方式)이 대폭적(大幅的)으로 자동화(自動化)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특별(特別)히 한 명(名)의

Pilot만으로

• 공대공(空對空) 전투임무비행시(戰鬪任務飛行時) 동시다목표(同時多目標) 처리(處理)의 가능(可能)은 물론(勿論)

• 고도(高度)의 적전자전(敵電子戰) 환경하(環境下)에서도 야간공대지(夜間空對地) 작전임무수행(作戰任務遂行) 등(等)이 대폭(大幅) 자동화수행(自動化遂行)될 수 있도록 중점개발(重點開發)하게 될 것이다.

- 지난 '84년(年) 말경(末頃)부터 실시(實施)하고 있는 AFTI/ F-16의 제(第)2단계(段階)(phase II) 시험(試驗)의 주과제(主課題)는 전투자동화(戰鬪自動化)의 평가(評價)이다.

- 이 AFTI/ F-16시험기(試驗機)가 장비(裝備)하고 있는 주요(主要) 전투자동화(戰鬪自動化) 관련체계품(關聯體系品)으로서는 :

• 삼중(三重)의 여유성(余裕性)을 갖는 flight control system.
• 원방향목표추적(圓方向目標追跡)(angular target tracking)의 정확성(正確性)을 높일 수 있는 FLIR sensor

• laser rangefinder
• 360° coverage가 가능(可能)할 radar altimeter.
• 발사직전(發射直前)에 살포기내(撒布器內) munitions의 fuze를 자동적(自動的)으로 목표물(目標物)에 따라 교체가능(交替可能)한 system.

등(等)의 system들이 탑재(搭載)되어 자동화(自動化) 시험(試驗)된다.

- 자동전투화(自動戰鬪化)의 관건점(關鍵點)은 지난번 IFFC F-15기(機)를 통(通)하여 성공리(成功裡)에 시험(試驗)된 바 있는 조종(操縱) 및 화력통제(火力統制)의 통합운용(統合運用)(Integrated Flight and Fire Control system)이 된다. 그런데 이번 시험(試驗)하게 되는 AFTI/ F-16기(機)는 F-15에서 시험(試驗)된 것보다 더욱 발전(發展)된 것으로서 :

• 목표기(目標機)와의 접전(接戰),
• 무기발사(武器發射)
• 이탈기동(離脫機動)

등(等)이 완전(完全) 자동화(自動化)된다.

- 한편, 공대지(空對地) 작전임무수행(作戰任務遂行)에 있어, AFTI/F-16기(機)의 자동기동공격체계(自動機動攻擊體系)(Automatic Maneuver Attack System : AMAS)는 :

• 비행경로(飛行經路)와 자세(姿勢)의 조정(調整)
• 공격유도(攻擊誘導)

등(等)의 자동화(自動化)가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Pilot는 :

• 목표탐지(目標探知), 식별(識別) 및 공격계획(攻擊計劃) 수립(樹立)
• 위협(威脅) 회피기동(回避機動)

등(等)에 전념(專念)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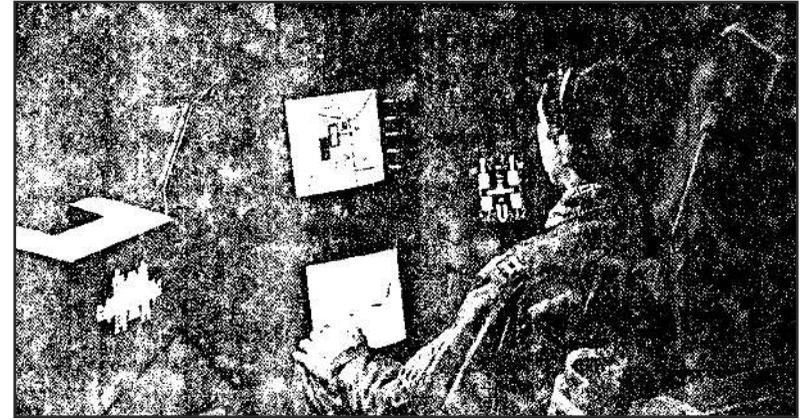
- 맨 처음 radar가 탐색(探索)한 지상목표물(地上目標物)을 FLIR가 이를 포착(捕捉)하게 되며, 이와 동축작용(同軸作用)을 하는 laser장치(裝置)가 정확(正確)한 목표위치(目標位置)를 파악(把握)하여 이 자료(資料)를 관성항법체계(慣性航法體系)에 입력(入力)시키게 된다.

- 기계획(既計劃) 외(外)의 목표물(目標物)은 helmet에 장치(裝置)된 조준장치(照準裝置)를 써서 수동적(手動的)으로 포착(捕捉)하여 이를 FLIR와 laser off boresight에 지향(指向)시키게 된다.

- 일단 목표(目標)의 정확(正確)한 위치자료(位置資料)가 관성항법체계(慣性航法體系)에 입력(入力)시키게 되면 공격기(攻擊機)는 자신(自身)을 감추면서 은밀히 목표(目標)에 접근(接近), 목표(目標)를 재확인(再確認)할 때까지 최대한(最大限) 지형지물(地形地物)을 활용(活用)하면서 목표물(目標物)에 다가선다. laser장비(裝備)는 계속적으로 목표(目標)의 거리(距離) 측정(測定)을 하여 AMAS가 자동적(自動的)인 fuze setting과 무기발사(武器發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AMAS를 활용(活用)하면 기동중(機動中)에도 정확(正確)한 무기발사(武器發射)가 가능(可能)할 뿐만 아니라 수평(水平), 강하비행(降下飛行) 및 loft-turn시(時) 등(等)에도 정확



AFTI/F-16기(機) 시험비행(試驗飛行) 과정(過程)에서 computer가 작도(作圖)한 digital map이다. 이 그림에서 도로망(道路網) 등(等)이 잘 나타나 있다.



특이(特異)한 단좌전투기(單座戰鬥機) 좌석내(座席內) 모습이다. 여기에,

- graphic displays
- programmable keyboards
- voice command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正確)한 폭탄투하(爆彈投下)가 가능(可能)하게 된다.

- 공대공(空對空) 임무(任務) 비행시(飛行時), IFFC AFTI/F-16기(機)는 자동(自動) 또는 반자동적(半自動的)으로 목표기(目標機)와의 고속교차율(高速交叉率)(high crossing rates)로의 교전(交戰)을 가능(可能)하게 한다. radar 또는 helmet 장치(裝置) 조준기(照準機)로 목표기(目標機)가 포착(捕捉)되면 이를 체계(體系)로 이관(移管)시켜 flight control system으로 하여금 기관포(機関砲)가 목표물(目標物)에 정대(正對)할 수 있어 조종오차(操縱誤差) 수정(修正)을 하도록 지령(指令)을 내린다.

- 미공군(美空軍)에서는 AFTI/ F-16시험계획(試驗計劃) 이후(以後)에도 공격기(攻擊機)들이 통합(統合), 자동적(自動的)으로 지형추종(地形追從) / 회피(回避) 및 위협환경(威脅環境) 회피(回避)할 수 있는 기술(技術) 개발(開發) 및 시험(試驗)을 계속하여 나갈 계획(計劃)으로 있다. 이에 따르면, 수직적(垂直的)인 지형추종(地形追從)과 횡적(橫的)인 지형(地形) 회피(回避) 기동(機動)이 동시적(同時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이와 동시(同時)에 위협(威脅) 회피기동(回避機動)이 능동(能動) 및 수동적(受動的)인 대항책(對抗策)에서 파괴억압(破壞抑壓)에 이르기까지 선별적(選別的)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은 기동행위(機動行為)를 위해서는 radar, FLIR 및 위협(威脅) 경보수신장치(警報受信裝置)를 비롯하여 digital방식(方式)의 삼차원(三次元) 위치지도(位置地圖) 자료(資料)들이 서로 유기적(有機的)으로 연계작용(連繫作用)하게 됨으로써, 이와 같은 고도(高度)의 정밀기동(精密機動)을 가능(可能)케 하는 것이다.

8. 조종석내(操縱席內)의 목표자료작도(目標資料作圖)

ATF는 1명(名)의 Pilot로 조종(操縱)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가능(可能)하게 하기 위해서는 Pilot는 종래(從來)의 “System operator” 개념(概念)에서 “system manager” 개념(概念)으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system manager의 관리수법(管理手法)은 오로지 여러 가지의 controls와 displays 외(外)는 없다. 오늘날 cockpit에 도입가능(導入可能)한 여러 가지 개발기술중(開發技術中), 그 적용(適用) 가능성(可能性)이 높은 것으로서는 :

- color graphic display formats로써
- keyboard로 재(再) program이 가능(可能)하고
- one-touch방식(方式)이 예민(銳敏)하고, 음성지령(音聲指令)으로 작동(作動)되는 switch방식(方式)이 지금 적용(適用) 검토(檢討)되고 있다.

- 미공군(美空軍)이 지금 추진중(推進中)에 있는 작도(作圖) 및 상호작용통신업무(相互作用通信業務)의 마이크로컴퓨터 적용(適用) 기술개발계획(技術開發計劃)(Microcomputer Applications of Graphic and Interaction Communications : MAGIC)에서는

- 수직(垂直) 및 수평(水平) 그리고 전술(戰術) 작전(作戰) 상황(狀況) 전시용(展示用) (vertical, horizontal, tactical situation displays)으로 컴퓨터작성(作成)의 그림 도형(圖形) (pictorial formats)방식(方式)의 활용(活用)을 검토중(檢討中)에 있다. 이 개발계획(開發計劃)에서는 또한 :

- 적정자료(敵情資料)의 저장관리(貯藏管理)
- engine 및 제반(諸般) systems의 status displays
- displays를 통(通)한 통신방식(通信方式)
- 예민(銳敏), 재(再) program가능(可能)한 keyboards
- display screens
- 음성지령(音聲指令)에 의(依)한 조작(操作)

등(等)의 제반연구항목(諸般研究項目)들이 개발검토(開發檢討)되고 있다.

또한 이 MAGIC계획(計劃)은 단좌(單座) cockpit적용(適用)을 원칙(原則)으로 개발(開發)되고 있다.

- MAGIC개념(概念)으로 조종석(操縱席)을 꾸미게 되면 :

- 지금까지의 side consoles(cockpit양측(兩側)에 배치(配置)된 계기류반(計器類盤)는 모조리 제거(除去)되고 이들의 기능(機能)은 cockpit 전방(前方)에 설치(設置)될 displays상(上)에 전시(展示)하게 될 것이다.

• 현용일선전투기(現用一線戰鬪機) cockpit내(內)에 설치(設置)되어 있는 90%의 dials나 controls들이 제한(制限)된 수(數)의 원색(原色) 음극선관(陰極線管)(color cathode-ray tube) 평면액정(平面液晶) 전시반(展示盤)(flat-screen liquidcrystal displays)으로 대체(代替)하게 될 것이다.

- 위에서 언급(言及)된 새로운 모습의 cockpit 설계(設計)모습은 우선 AFTI/ F-16시험기(試驗機)에서 그 선을 보이게 될 것인데 이 항공기(航空機)에서는 각(各) systems의 기능수행별(機能遂行別) 매우 정교(精巧)하게 설계(設計)된 head-up/ head-down display formats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 AFTI/ F-16기(機)에서는 또한 음성지령(音聲指令) 조작(操作) system의 기능시험(機能試驗)도 받게 된다. 이번에 적용시험(適用試驗)될 항목(項目)들은 비행임무수행상(飛行任務遂行上) 결정적(決定的) 영향(影響)을 미치지 않는 사항(事項)들로써 예(例)를 들어서 :

- 통신연결(通信連絡)
- 항법(航法)
- 자료저장관리(資料貯藏管理)

등(等)이 될 것이다.

- 합성음성기법(合成音聲技法)을 활용(活用)한 pilot에 대(對)한 음성경보(音聲警報)(voice warning)는 pilot가 cockpit 밖을 내다보고 있어 cockpit 내(內) 계기류(計器類)를 볼 수 없을 때 좌석내(座席內) 이상상황(異常狀況)을 경보(警報)한다.

- 음성지령(音聲指令) 조작(操作) 기능(機能)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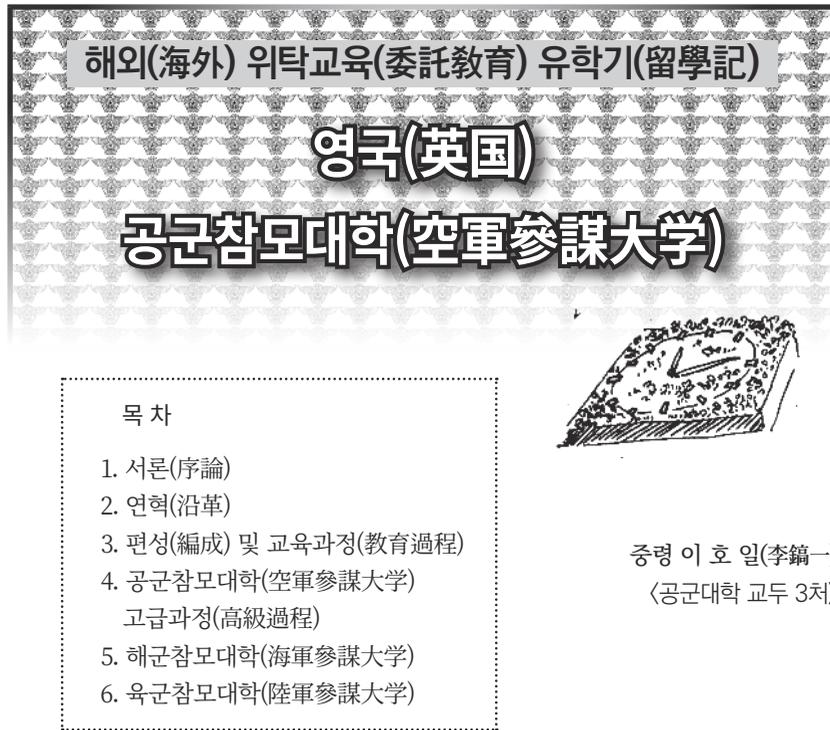
- head-up display monitoring이나
- 일상적(日常的)인 cockpit기능(機能)의 controls 등(等)을 모두 수행(遂行)할 수 있도록 조직(組織)되고 있다.

- AFTI/ F-16제(第)1단계(段階) 성능시험(性能試驗)에서는, 매(每) 임무비행당(任務飛行當) 해당음성지령(該當音聲指令)을 36개(個) 언어(言語)를 수록(收錄)하여 시험(試驗)하게 된다. 시험비행여건(試驗飛行余件)은 최대(最大) 5g까지의 지속선회상황하(持續旋回狀況下)에서 음성지령(音聲指令)의 신뢰도(信賴度) 여하를 시험(試驗)받게 된다. .

- 한편, '85년(年) 7~8월(月) 사이로 계획(計劃)되어 있는 제(第)2단계(段階) 시험비행시(試驗飛行時)는 전투작전(戰鬪作戰) 관련(關聯) 음성지령(音聲指令) 성능(性能)을 시험평가(試驗評價)받게 될 것이다.

뜻모아 86 성공

힘모아 88 성공



목 차

1. 서론(序論)
2. 연혁(沿革)
3. 편성(編成) 및 교육과정(教育過程)
4.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 고급과정(高級過程)
5. 해군참모대학(海軍參謀大學)
6. 육군참모대학(陸軍參謀大學)



증령 이 호 일(李鎬一)
《공군대학 교두 3처》

1. 서론(序論)

영국공군참모대학(英國空軍參謀大學)은 「살몬드」(Sir John M. Salmond)에 의하여 1922년 「안드오버」(Andover)에서 창설(創設)되었으나 실제적인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참모교육(參謀教育)의 필요성(必要性)을 느끼고 영국정부(英國政府)나 국방성(國防省)에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의 설립(設立)을 건의(建議)한 사람은, 「미첼」(W. Mitchell), 「듀헤」(G. Douhet)와 함께 항공력(航空力) 창시(創始)의 삼거두중(三巨頭中)의 한사람인 「트렌차드」경(Sir. Hugh M. Trenchard)였다. 「트렌차드」는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창시자(創始者)이며 영국공군(英國空軍)을 발전(發展)시킨 인물(人物)로 널리 알려져 있다. 원래는 육군장교(陸軍將校)로 1892년(年) 임관을 하였으나 「미첼」 처럼 자비(自費)로 조종술(操縱術)을 배운 후, 육군항공대(陸軍航空隊)로 편입하였다.

1914년(年) 8월(月), 영국(英國)이 제일차세계(第一次世界) 대전(大戰)에 참전(參戰)할 당시의 항공전력(航空戰力)은 아직 유년기(幼年期)에 불과했었다. 항공기(航空機)는 정찰(偵察)과

연락임무(連絡任務) 등에만 사용(使用)되어 지고 있었다. 당시 이러한 사실(事實)을 안 「트렌차드」는 보다 적극적(積極的) 공세정책(攻勢政策)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최초의 공중전(空中戰)과 적(敵) 지상군(地上軍) 목표물(目標物)에 대한 공격(攻擊)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1917년(年)에는 미국(美國)으로부터 파견된 「미첼」 소령을 만나, 그와 함께 근무하면서, 미래의 항공사상(航空思想)을 나누기도 하였으며, 특히 「미첼」의 항공전략사상(航空戰略思想)은 「트렌차드」의 독일에 대한 전략폭격개념(戰略爆擊概念)은 육군(陸軍)과 해군(海軍)의 항공대(航空隊)를 통합(統合)시켜 공군성(空軍省)과 영국공군(英國空軍)을 창설(創設)시켜 주게 되는 중요(重要)한 결과(結果)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트렌차드」의 항공사상(航空思想)으로 창설(創設)된 영국공군(英國空軍)은 제(第)일차대전(一次大戰) 후 육군성(陸軍省)과 해군성(海軍省)의 비판(批判)과 논쟁(論爭)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제이차대전(第二次大戰) 당시의 Battle of Britain에서의 승리를 괄목(括目)할 만한 것이었다. 그후 「트렌차드」의 후예(後裔)들은 영국공군(英國空軍)을 세계(世界)의 최고(最高)수준의 공군(空軍)으로 유지(維持)하여 왔으며, '50년대(年代)까지만 하여도 그 기초(基礎)가 되는 항공공업력(航空工業力)도 세계(世界)를 주도(主導)하는 영국(英國)의 대표산업(代表產業)이라고 자타(自他)가 공인(共認)할 수 있었다.

그러나 '60년대(年代) 이후 거듭되는 경제불황(經濟不況)으로, 국방조직(國防組織)의 축소(縮小) 재편성(再編成)이 있자, 공군(空軍) 자체가 축소(縮小)되면서 영국(英國)유일의 전략핵공격군(戰略核攻擊軍)이었던 V-Bomber도 해군(海軍)의 Polaris 잠수함대로 전략핵공격력(戰略核攻擊力)을 넘겨주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다. 그러나 공군지휘부(空軍指揮部)와 영국항공산업계(英國航空產業系)가 지속적인 노력(努力)을 한 결과(結果), Tornado 항공기(航空機)를 생산배치(生産配置)함으로써 대영제국공군(大英帝國空軍)의 면모를 다시 갖추어 가고 있다.

더구나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지휘관(指揮官)들은 현대(現代)에 있어서 나날이 발전(發展)되어 가는 무기체계(武器體系)에 적응(適應)하기 위해서, 이를 운용(運用)해야 할 중견간부(中堅幹部)의 교육(教育)은 군(軍) 발전(發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認識)하고, 지금도 「트렌차드」의 항공사상(航空思想)부터 현대(現代)의 우주무기체계(宇宙武器體系)의 적용(適用)에 이르기까지 잠시 날개를 접고 앉아 읽고, 생각하고, 쓰고 토론(討論)하는 과정(課程)의 참모교육(參謀教育)을 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는 필자(筆者)가 1년간 수학했던 영국공군참모대학(英國空軍參謀大學)의 교육제도(教育制度)를 소개(紹介)하고, 아울러 영국(英國)의 해군(海軍)과 육군참모대학(陸軍參謀大學)에 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紹介)하고자 한다.

2. 연혁(沿革)

영국공군참모대학(英國空軍參謀大學)은 대략 London에서 서쪽으로 25mile 떨어진 Berkshire주 Bracknell 이라는 소도시에 위치(位置)해 있으며, 주변에는 Windsor Castle

과 영국(英國)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인 Sandhurst가 있고, Oxford대학(大學)이 근교에 있다. Bracknell은 인구(人口) 5만 정도의 조그만 도시로서 2차대전(次大戰)을 전후하여서는 공관계로 거주하는 인원(人員)이 전부였으나 현재(現在)는 British Aerospace, 3M 등의 대기업이 들어서면서 공업(工業)도시로 공업(工業)단지가 조성(造成)되어 발전(發展)을 이루어 가고 있다.

현재 Bracknell에 위치(位置)한 참모대학(參謀大學)은 1922년(年) Andover에서 창설(創設)되어 5명의 교관(教官)과 20명(名)의 학생(學生)으로 출발(出發)하여 1년과정(年課程)으로 운영(運營)되었으나, 2차대전(次大戰)의 발발에 따라 3개월(個月) 과정(課程)으로 줄여 운영(運營)하던 중, Andover 기지(基地)의 특성(特性)상 독일공군(空軍)에게 노출되어 폭격의 위험성이 커지자, 당시 영국제이전술공군사령부(英國第二戰術空軍司令部)이던 현재의 Bracknell로 이동되었으며 1945년(年) 전쟁(戰爭)이 끝나자 10개월(個月) 과정(課程)으로 정상 환원되었다. 1947년에는 영국(英國)과 영연방국가(英聯邦國家)의 참모교육(參謀教育)의 필요성(必要性)에 의거 Andover와 Bracknell에 2개의 참모대학(參謀大學)을 운영(運營)하여, Andover에서는 일부 영국공군장교(英國空軍將校)와 영연방(英聯邦) 및 아랍제국의 학생(學生)들을 수용하고 Bracknell에서는 영국장교(英國將校)들만으로 구성 운영(運營)하였으나 전후 국방예산(國防預算)의 삭감으로 인하여 2개(個)의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이 1970년(年) Bracknell에 통합(統合)되었으며 지금까지 고급과정(高級課程)만 76개(個) 차수를 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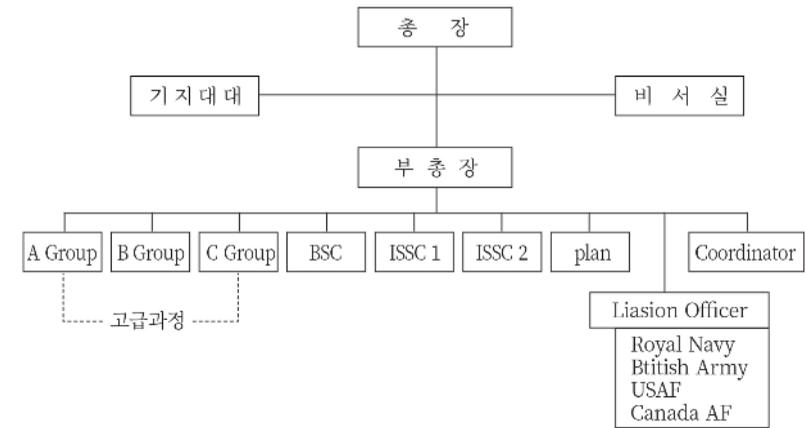
3. 편성(編成) 및 교육과정(教育課程)

영국공군참모대학(英國空軍參謀大學)은 2성장군(星將軍)이 총장(總長)으로 영국공군(英國空軍) 전체(全體)의 지휘참모교육(指揮參謀教育)에 대(對)한 책임을 지며, 영국공군(英國空軍)의 교육(教育) 군수자원관리(軍需資源管理)를 담당하는 공군지원사령부(空軍支援司令部)(RAF Support Command) 산하의 교육(教育) 담당 부사령관의 지시(指示)를 받는다,

영공대(英空大)의 교육(教育)관계는 1성장군(星將軍)인 부총장의 책임(責任)하에 개인통신과정(個人通信課程)(ISSC : Individual Staff Studies Course), 초급참모과정(初級參謀課程)(BSC : Basic Staff Course), 고급참모과정(高級參謀課程)(ASC : Advanced Staff Course)의 3개(個) 과정(課程)을 운영(運營)한다. 인사행정(人事行政)관계는 학교비서실(College Secretary)에서 관장하고, 기타 후방지원은 기지지원대대장(基地支援大隊長)(Station Commander) 산하의 각 중대(中隊)에서 담당하게 된다.

교육과정(教育課程)은 앞에서 언급한 3개(個)의 과정(課程)을 중심(中心)으로 운영(運營)되나 그외에 초급지휘과정(初級指揮課程)(JOCC : Junior Officer Commanding Course)으로서 장교(將校)로 임관과 동시에 비겐힐(Viggen Hill : 장교후보생교육대)이나 크란펠(RAF

영국공군(英國空軍) 참모대학(參謀大學) 편성(編成)



Cranwell : 영국공군사관학교(英國空軍士官學校)에서 받게 되는데 전장교(全將校)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초급지휘과정(初級指揮課程)의 교육목표(教育目標)는 초급지휘(初級指揮) 업무에 능통 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專門知識)을 함양(涵養)하고 지휘능력(指揮能力)을 계발(啓發)하는데 두고 있다. 교육과목(教育科目)은 Command Environment, Theory of Command, Application of Command, Management Tools, Administration에 대(對)하여 실시하며 그중 Application of Command가 40%로서 중점적(重點的)으로 교육(教育)을 받게 된다.

개인통신강좌과정(個人通信講座課程)(ISSC : Individual Staff Studies Course)은 우리의 현행 ECI와 비슷하나 2년 동안 실시하며 국외파견자를 포함하여 연간 900명(名) 정도를 교육(教育)시킨다. 교육목표(教育目標)는 초임소령급 장교(將校)들로 하여금 참모(參謀) 업무 절차를 계발(啓發)시키고, 영국공(英空軍)의 통일(統一)된 문서작성능력(文書作成能力) 및 문제해결능력을 부여함에 있다. 학습과목(學習科目)은 Written Communication, Reasoning and Problem Solving, NATO and UK Defence Policy, Employment of Airpower, Britain's role in the modern world이며 개인학습(個人學習)은 주당 4~6 시간을 개인적(個人的)으로 계획(計劃)하도록 하여 년(年)40주(週) 학습(學習)하도록 하고 있다.

초급참모과정(初級參謀課程)(BSC : Basic Staff Course)은 통신과정을 끝낸 소령(少領)급 장교(將校)들이 입과(入課)하여 1개월(個月)간 교육(教育)을 받으며 년간(年間) 8개(個)차수를 운영(運營)하며, 차수당 인원(人員)은 24명(名)으로 교육(教育) 목표(目標)는 계급에 적합한 지휘참모(指揮參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目標)를 두고 있다. 교육과목

(教育科目) Communication, Project Control, Computer Application, Cost Accounting, Organisation Principle이나, Verbal/ Written Communication 이 전체(全体)의 70% 정도를 차지해 문서(文書)나 구두(口頭)의 의사전달(意思傳達) 위주로 진행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課程)이 끝난 장교(將校)들은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최고(最高)의 교육(教育)인 고급참모과정(高級參謀課程)에 입과(入課)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고급참모과정(高級參謀課程)에 대(對)해서는 다음 장(章)에서 자세하게 설명(說明)하고자 한다.

4.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 고급과정(高級課程)

고급과정(高級課程)의 교육목표(教育目標)는 선발된 장교(將校)들로 하여금 그들의 현재급(現階級)에서 지휘(指揮) 및 참모보직(參謀補職)에 적합(適合)하고 나아가서는 장차 상위보직(上位補職)에 대비할 수 있게끔 군(軍)의 고등교육(高等教育)을 실시함에 있다. 고급과정(高級課程)의 입과자(入課者) 선발은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인력관리소(人力管理所)(PMC : Personnel Management Center)에서 장교(將校)로서의 소양과 그동안의 업무수행능력(業務遂行能力), 개인통신강좌과정(個人通信講座課程)이나 초급과정(初級課程)의 성적을 고려해서 상위보직(上位補職)이 가능한 우수한 장교(將校)만 서열순으로 추천해서 입과(入課)를 시킨다. 그러므로 일단 고급과정(高級課程)을 수료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영국학생장교(英國學生將校)들은 일선부대의 대대장(大隊長)이나 국방성(國防省), 공군성(空軍省)의 참모(參謀)부서로 보임을 받게 된다.

고급참모과정(高級參謀課程)은 예비과정과 44주(週)의 본과정(本課程)으로 구분되는데, 모국어가 영어(英語)가 아닌 학생(學生)은 8주간(週間)의 Preperary Term에서 축소한 ISSC과정(課程)의 내용(內容)을 분임장 주관하에 공부하고, 영국공군(英國空軍)이 아닌 영국(英國)의 육(陸)·해(海) 군장교(軍將校)나 영연방국가(英聯邦國家) 또는 영어(英語)권의 학생들은 Pre Study Period라고 해서 2주간(週間) 영국공군(英國空軍)에 대(對)한 내용(內容)의 교육(教育)을 받아, 본과정(本課程)에 입과(入課)할 영국장교(英國將校)들과 비슷한 지식수준에 맞추어, 본과정(本課程)에 입과(入課)시킨다. 본과정(本課程)은 3개(個)의 학기(學期)로 구분되며, 8부(部)로 나뉘어져 공부하게 된다. 입과자(入課者)는 매년(每年) 91명(名)으로 이 중 1/3은 외국학생(外國學生)들이 차지하고 있고 3개(個)의 Group, 13개(個)의 분임으로 나뉘어져 있다.

참고적으로 1985년(年)에 입과(入課)한 77차 고급과정학생(高級課程學生)은 영국공군(英國空軍)이 55명(名), 해군(海軍) 및 육군(陸軍)이 각 3명(名), 국방공무원(國防公務員) 2명(名)과 나머지 28명(名)의 외국학생(外國學生)으로 구성(構成)되어 있었다. 8개(個)의 부(部)로 나뉘어져 있는 교과과정(教科課程)은 개인지도(個人指導) 교수제도(教授制度)에 의한 발표(發表)와 토론(討論), 각종 강의(講義)와 현지시찰(現地視察) 그리고 학생들의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별(部別) 시간배정(時間配定)

	Lecture	Visit	Exercise				계
			Written	Spoken	Tutorial	Reading	
Oral/Written Com.	3.0		50.5	27.5	21.0	9.0	111.0
Problem Solving	8.5		2.0	0.5	8.5	10.5	30.0
Leadership/management	10.5	13.0		10.0	2.0	4.5	40.0
Air Power	79.5	42.0	85.0	30.5	37.5	90.5	365.0
UK Defence Policy	32.5		0.5	7.0		21.5	61.5
NATO	21.0	52.5	5.5	6.0	61.0	1.5	146.5
Joint Service	72.0	13.0	7.5	56.0	9.5	6.0	164.0
Geo/Political Studies	10.5			12.0		16.5	39.0
계	237.5	120.5	151.0	148.5	139.5	160.0	957.0

가. 의사전달(意思傳達)(Oral/Written Communication)

1부(部)는 의사전달(意思傳達)에 대(對)한 내용(內容)으로 참모(參謀)로서의 문서(文書) 및 구두(口頭)로 효과적인 의사전달능력(意思傳達能力)을 부여하기 위하여 보고서나 문서(文書)를 작성(作成)하고, 기작성문서를 가지고 어떤 점이 잘 되고,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 수정을 해보는 연습과, 3회와 연설(演說)을 통해서 연설문(演說文)의 조직과, 전달능력(傳達能力), 연단 태도에 대해서 담당분임장이 일일이 지적(指摘), 수정(修正)해 주어 학생의 미비점을 보완해 준다. 또 이 기간(期間)을 통해서 속독법(速讀法)을 배우고 표준화(標準化)된 문서(文書)나 참모건의서(參謀建議書) 작성능력(作成能力)을 쌓아가게 된다. 1부(部)에서의 과제부여(課題賦與) 연습은 복잡한 문제(問題)가 얹힌 기지건설(基地建設)공사 문제(問題)와 작전기지선정(作戰基地選定) 문제(問題)를 학생에게 주어 지휘관(指揮官)에게 간단명료하게 요약(要約)보고하는 연습을 하여 지휘관(指揮官)으로 하여금 문제(問題)를 인식(認識)하고 해결(解決)할 수 있도록 조언(助言)하는 참모(參謀)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실제연습을 함으로써 장차, 상위부서(上位部署)의 참모(參謀)로서의 능력(能力)을 키워나가도록 유도해 준다. 이러한 구두(口頭)나 문서(文書)의 의사전달(意思傳達)연습은 전과정(全課程)을 통하여 거의 매일 수행된다. 각부별(各部別)로 과목(科目)은 틀리지만 매일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고, 쓰고 이야기하는 과정(課程)의 연속(連續)이다. 이러한 이유(理由)에서인지 고급참모(高級參謀) 과정(課程)의 필수선행조건인 ISSC과정(課程)에서는 쓰는 것이 강조되고 초급과정인 BSC에서는 말하는 것 위주로 진행(進行)된다.

나. 문제해결(問題解決)(Problem Solving)

2부(部)는 문제해결(問題解決)의 방법(方法)에 대(對)한 교육(教育)으로 주(主)로 Computer 교육(教育) 위주로 진행(進行)된다. 참모(參謀)로서의 건의(建議)는 체계적(体系的)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각종 골치아픈 지적활동(知的活動)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사결정(意思決定) 지원(支援)을 위해 Computer를 잘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공군(空軍)의 업무(業務)가 단순한 수치 이외의 복잡한 자료처리를 필요(必要)로 하며 더구나 현대전(現代戰)은 빠르고 효과적인 의사결정(意思決定)을 요하고 있기 때문이며 오늘날의 전쟁(戰爭)은 새롭고 가공할만한 무기체계(武器體系)와 상호전력의 우열관계 등은 작전(作戰)상의 중대문제(重大問題)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기동성(機動性)의 증대(增大)로 작전참모(作戰參謀)나 지휘관(指揮官)은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意思決定)을 내려야 하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處理)를 해야 하고 실제로 군(軍)에 도입(導入)되어 있는 Computer에 대(對)해서 알아야 하고 또 이를 잘 이용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전쟁(戰爭)에서의 승패(勝敗)가 결정(決定)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 지휘관리(指揮管理)(Leadership and management)

3부(部)는 Leadership과 Management에 대(對)한 연구(研究)로서 장차 공군장교(空軍將校)로서의 각종(各種) 자원(資源)을 활용(活用)하여 문제(問題)를 해결(解決)하고 응용(應用)할 수 있도록 학생(學生)들에게 지휘관리(指揮管理)이론이나 적용분야(適用分野)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知識)을 부여하는데 그 목표(目標)를 두고 있다. 이 기간(期間)에는 Trade Union이나 British Industry의 Manager들이 와서 강의(講義)를 하고 영국공군(英國空軍)의 인력관리 센터를 방문하여 인력관리 절차를 이해하게 되고 British Industry를 방문하여 민간조직(民間組織)과 군조직(軍組織)과의 지휘관리(指揮管理)의 차이점을 배운다. 이러한 방문(訪問)이 끝나면 영국(英國)의 각종(各種) 기업(企業)의 Manager들을 100여명 참모대학(參謀大學)에 초대하여 분임(分任)당 4~5명(名)씩 분임토의(分任討議)에 참가하게 된다. 특히 노사(勞使)간의 문제(問題)가 많은 영국(英國)으로는 경영자집단(經營者集團)의 Management 와 노동자집단(勞動者集團)의 Leadership이 중요(重要)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對)한 해결책(解決策)을 상호(相互) 조언(助言)하면서 토론(討論)을 전개(展開)해 나간다.

라. 공군력(空軍力) 운용(運用)(Principle of Airpower and Role of the RAF)

4부(部)는 Air Power에 대(對)한 내용(內容)으로 전체(全体) 참모대학(參謀大學) 교육(教育)의 1/3 이상인 365시간으로 80여 시간의 강의(講義) 90여 시간의 개인연구(個人研究) 및 130여 시간의 제반 공군력문제(空軍力問題)에 대(對)한 개인(個人)이나 집단연구발표(集團研究發表) 등이 포함되며, 4부(部) 기간(期間) 동안 주영(駐英)·미공군기지전학(美空軍基地見

학) Strike Command, British Aerospace 사(社) 등 견학(見學) 이라기 보다는 해당 사령부(司令部)나 항공산업(航空產業)에 관련된 부서(部署)를 방문(訪問)하여 공군력(空軍力) 재구성(再構成)에 대한 문제점(問題點)을 상호토의(相互討議)하는 것이 주목적(主目的)으로 견학(見學) 전에 충분한 지식을 개인연구(個人研究)시간을 통하여 습득(習得)하고 많은 질문거리를 준비하여 가지고 간다. 그리고 연구발표(研究發表)는 소련의 작전장교(作戰將校)의 입장에서 영국본토공격계획(英國本土攻擊計劃)을 수립함으로써 영국본토(英國本土)의 방공(防空)의 문제점(問題點)을 도출하며 작전지원문제(作戰支援問題)로서는 1984년 실제로 영국(英國) 자체에서 유럽지역에서의 전면전 발발시에 대비하여 실시했던 군수지원작전(軍需支援作戰)이었던 Exercise-Lionheart 기동훈련(機動訓練) 결과를 가지고 16명 정도로 구성된 집단(集團)이 세부작전(細部作戰)에 따른 제반 문제점(問題點)을 검토(檢討)하여 발표(發表)를 하게 되는데 발표(發表)시에는 영국국방성(英國國防省)의 군수(軍需)담당자들이 와서 경청을 하고 학생들이 도출(導出)한 문제점(問題點) 및 해결방안(解決方案)을 가지고 함께 토의(討議)를 하게 된다.

마. 국방정책(國防政策)(Defence Policies)

5부(部)는 영국(英國)의 국방정책(國防政策)에 관한 내용(內容)을 연구(研究)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강의(講義)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국방장관(國防長官)을 비롯한 군(軍)의 권위자(權威者)들과 국방(國防)에 연관된 외교(外交) 정치(政治) 및 경제(經濟)의 전문가(專門家)들이 와서 강의(講義)를 하게 된다. 또한 NATO 국가(國家)의 외교관(外交官)들이나 무관(武官)이 와서 자국(自國)의 외교(外交)와 국방정책(國防政策)에 관해서 소개(紹介)한다. 이러한 강의(講義)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英國)의 방위백서(防衛白書)(Statement on the Defence Estimate)를 검토하고 삼군(三軍)의 정책(政策), 국방구매(國防購買) 무기판매(武器販賣) 등에 대해서 각 분임(分任)별로 연구발표(研究發表)를 하게 된다. 한개의 Group이 4개의 분임(分任)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분임별(分任別)로 다른 주제(主題)를 갖고 전체(全体) Group에서 토의(討議)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TC(Long Term Costings)에 대한 분임연구(分任研究)를 한다. 현재(現在)의 전력(戰力)규모를 가지고 앞으로 20년간(年間)의 예산(予算)이 배정(配定)되면 배정(配定)된 예산(予算)을 가지고 2005년(年)까지의 공군장기발전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현재(現在)의 적의 위협 및 아공군의 취약점을 분석(分析)하고 앞으로의 적의 무기체계(武器體系) 발전(發展)추세에 따라 공군(空軍)의 예산(予算)을 재분배(再分配)하여 전력규모를 설정(設定)하는 계획(計劃)으로서 2개월(個月) 정도 걸리는 대규모(大規模) 종합연습(綜合練習)이다.

바. NATO 연구(研究) (NATO and The UK)

6부(部)는 NATO에 대해서 146시간 정도 연구(研究)하게 되며 기간중(期間中) 화란과 독일의 공군기지(空軍基地)를 방문(訪問)하여 현지(現地)에서 직접 보고 의문사항(事項)에 대해서는 상호토론(相互討論)을 한다. 강의(講義)는 프랑스, 화란, 독일, 이태리와 스페인의 참모대학

장(參謀大學長)이 와서 그들의 관점에서의 NATO 동맹체제에 관해 강의(講義)를 하고 미국(美國)의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과 캐나다의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의 일부 교관(敎官) 및 학생(學生)들이 영국공군참모대학(英國空軍參謀大學)을 방문(訪問)해 1주(週)가량 함께 생활(生活)을 하면서 NATO에 관한 토의(討議)를 하게 된다. 토의기간(討議期間)이 끝나면 Theater Warfare Exercise 라고 하여 일주일간 학생(學生)들은 청·홍군으로 나뉘어 현재(現在)의 Central Europe의 NATO와 Warsaw Pact의 전력(戰力)을 갖고 Computer War Game을 실시하게 된다. 제 각기의 경력(經歷)에 의거 전쟁계획(戰爭計劃)을 하고 실제(實際)로 운용(運用)을 함으로써 NATO 공군력(空軍力)의 강점(強點)이나 약점(弱點)이 도출(導出)되고 군수지원상(軍需支援上)의 문제점(問題點)을 이해하게 된다. 매년 가장 큰 문제점(問題點)으로 대두되는 것이 작전(作戰)으로는 NATO 공군기지(空軍基地)의 생존성문제(生存性問題)가 대두되고 있어 NATO 공군기지(空軍基地)의 분산 및 전개기지운용(展開基地運用)의 필요성(必要性)을 느끼게 되고 군수지원(軍需支援)에 있어서는 신속성 있는 전술전투지원대의 지원(支援)이 도출(導出)되고 있다. 이러한 전술전투지원대의 개념(概念)은 전진기지에 보급은 무장 Hel기와 공정전투요원을 동반하여 Hel 기로 신속히 보급을 한다는 개념(概念)으로 지원(支援)의 기동성(機動性)이 요구(要求)된다는 것이다. 또한 NATO의 개념(概念)이 방어위주에서 긴장고조시에는 선제공격(先制攻擊)의 개념(概念)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결론(結論)이 도출(導出)되지만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전쟁역지수단에 의거한 정치적(政治的)인 문제(問題)로 종결되고 만다.

사. 3군합동작전(軍合同作戰)(Royal Navy, Royal Marine, Army and Joint Activities)

7부(部)는 전체과정(全體課程)의 18% 정도를 차지하며 4부(部)의 공군력(空軍力) 운용(運用) 다음으로 강조해서 교육(敎育)을 하는 부분(部分)으로 영국(英國)의 여건이 해양국(海洋國)이라는 지리적(地理的)인 여건 때문에 모든 작전(作戰)은 해육공(海陸空)의 3군합동작전(三軍合同作戰)으로 이루어진다. 영국(英國)은 건국 이래 몇 차례의 위기(危機)를 맞았지만 최근의 포클랜드전쟁을 비롯하여 해군(海軍)의 선전(善戰)에 의하여 극복한 적이 많았다. 이 기간(期間) 동안에는 3군(三軍)의 참모대학(參謀大學)이 함께 모여 합동(合同)으로 실시하는 행사(行事)가 많다. 해군(海軍)의 날인 Sea day에는 해군(海軍)의 Portsmouth기지(基地)에서 3군(三軍)의 참모대학생(參謀大學生)들이 해군(海軍)의 각종기함을 타고 대잠전 공해합동작전(空海合同作戰) 화력시범 등을 보게 되며 육군기지견학(陸軍基地見學)은 독일주둔 영국육군(BAOR : British Army of The Rhine) 기지를 방문(訪問)한다. 이때는 영국(英國)의 3군참모대학생(三軍參謀大學生) 전체(全體)가 함께 4일동안 생활(生活)하여 독일기갑사단과 영국육군(英國陸軍)의 화력시범 및 기동훈련(機動訓練)을 관람한다. 이러한 방문(訪問)이 끝나면 다시 참모

대학생(參謀大學生)이 육군참모대학(陸軍參謀大學)에 함께 모여 합동작전(合同作戰)에 대하여 분임연구발표(分任研究發表) 위주로 세미나를 하게 되며 NATO 남부지역에서의 가상우발상태를 가정하여 3군합동기동대(三軍合同機動隊)를 편성(編成)하여 미국(美國)의 지원군(支援軍)이 올 때까지의 전개작전계획(展開作戰計劃)을 수립하는데 지휘통제부터 부대이동 후방지원 교전규칙까지 세분(細分)하여 분임원(分任員) 모두에게 과제(課題)를 주어 종합작전계획(綜合作戰計劃)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전쟁중(戰爭中)에는 육해공군(陸海空軍)의 상호협조(相互協助)없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키는데 그 주안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3군참모대학(三軍參謀大學)의 합동분임토의(合同分任討議)는 과정중(課程中) 2회 정도 이루어지는데 연사들은 NATO 총사령관 NATO북부 / 남부사령관 영국(英國)의 국방장관(國防長官)과 영국(英國) 제2정당의 국방위원장 등 실무의 최고권위자(最高權威者)들이 강의(講義)를 하게 된다.

아. 지정학(地政學)-경제연구(經濟研究)(Geo-Political and Economic Studies)

8부(部)는 지정학(地政學) 및 경제(經濟)에 관한 연구(研究)로서 전과정기간(全課程期間)을 통하여 실시하는데 그때 그때 일어나는 시사성(時事性)있는 문제(問題)를 놓고 한 학생이 의장이 되어 분임(分任)이나 필요(必要)에 따라 시사성(時事性)이 큰 것으로 전쟁연구(戰爭研究)의 대상(對象)이 되는 것은 집단(集團)으로 토의(討議)를 하게 된다. 예를 들면 PL0의 테러에 대한 것이라든가 미·소간의 군축회담(軍縮會談) 핵문제(核問題)에 관해 토의(討議)를 하는데 집단(集團)으로 할 경우에는 논쟁(論爭)(Debate)이라고 하여 논제(論題)에 대(對)한 찬성론자(贊成論者) 2개집단(個集團)으로 분류(分類)하여 찬성(贊成)이나 반대(反對)하는 이유를 조직적(組織的)이고 논리적(論理的)으로 발표(發表)하도록 하여 상대(相對)를 설득(說得)시킬 수 있는 설득식 연설을 전원 모두에게 시켜 장차 큰 국방문제(國防問題)에 있어서 자신의 주장(主張)이 옳다고 하면 끝까지 관철(貫徹)시킬 수 있는 의사전달능력(意思傳達能力)을 부여한다. 이러한 토론(討論)을 통하여 외국장교(外國將校)들은 영국인(英國人)의 의식구조(意識構造)를 알게되고 의무(義務)에 대(對)한 말없는 이행(履行)이나 자유(自由)속에서의 규율(規律)을 이해하게 된다.

5. 해군참모대학(海軍參謀大學)

영국해군참모대학(英國海軍參謀大學)은 전함(戰艦)이 바람에서 동력으로 목조선에서 철선으로 바뀐 1873년 London 동쪽에 위치한 Greenwich Palace에서 창설(創設)되었으며 영국인(英國人)들이 지금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Painted Hall of Greenwich”라는 참모대학(參謀大學)의 장교식당(將校食堂)을 갖고 있다. Painted Hall 은 17세기 초 WREN에 의거 설계(設計)되고 John Fothergill경에 의하여 Paint된 것으로서 지금도 참모대학(參謀大學) 학

생(學生)의 식사시간(食事時間)을 제외하고는 일반관광객(一般觀光客)에게 개방(開放)되고 있으며 부근에는 해양박물관(海洋博物館) Greenwich 천문대(天文台)가 있어 영국인(英國人)들에게는 해군참모대학(海軍參謀大學)이라기 보다는 관광(觀光)명소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편이다. 해군참모대학(海軍參謀大學)은 육군(陸軍)이나 공군(空軍)과 달리 1년(年)에 1월(月)과 6월(月) 2개(個) 차수가 입과(入課)하며 2개학기(週)로 구분된 27주(週)를 운영(運營)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차수당 60명(名)으로 구성(構成)되며 15~20명(名)이 외국장교(外國將校)와 영연방학생(英聯邦學生)으로 구성(構成)되어 있다. 본과정(本課程)에 입과(入課)하기 전 영국(英國)의 해군학생(海軍學生)을 제외하고는 직접 영국(英國)해군의 작전함(作戰艦)을 타고 2주(週) 동안 해군기지(海軍基地) 견학(見學) 및 해상생활(海上生活)에 대한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외국학생(外國學生)들도 영국해군(英國海軍)에 대(對)한 경험을 위하여 일주일가량 작전함(作戰艦)을 타도록 교과과정(教科課程)에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과정(本課程)에 입과(入課)하기 전 모든 외국장교(外國將校)나 타군장교들은 영국해군(英國海軍)에 대(對)한 모든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얻도록 하여 영국해군장교(英國海軍將校)와 동등(同等)한 지식(知識)을 갖도록 하여 입과(入課)시키고 있다. 본과정(本課程)에 입과(入課)하자마자 첫 4주간은 개인학습(個人學習)으로 학교(學校)에 출근하지 않고 통신강좌(通信講座)로 1일 8시간의 개인학습(個人學習)을 하고 나머지 23주(週)는 중간의 10일 동안 휴가를 제외하고 2개(個)의 학기로 구분 운영(運營)되고 있다.

학교관사는 모든 학생(學生)들에게 입주(入住)기회가 주어지나 교과과정(教科課程) 자체가 영국해군(英國海軍)의 특성상(特性上) 빈번한 이사를 줄여주고 자녀교육의 문제점(問題點)을 해결(解決)하기 위하여 월요일 12:00에 시작하여 금요일 12:00시에 강의가 끝나 주말은 3박 4일 정도가 보장된다. 따라서 외국학생(外國學生)이나 해외기지(海外基地)에 근무했던 학생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주말통근을 이용하고 있어 영국(英國) 해군(海軍)의 참모교육(參謀教育)의 중요성(重要性) 인식(認識)과 함께 해군(海軍)자녀들의 교육문제(教育問題)나 이사문제 등 해군가족의 불편한 점을 덜어주는 등 영국해군(英國海軍)의 세심한 고려를 엿볼 수 있다.

교과과정(教科課程)은 영국(英國)의 육군(陸軍)이나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과 비슷하나 기간(期間)이 다른 참모대학(參謀大學)에 비해 2~3개월(個月) 짧은 관계로 인해 타참모대학에 비해 더많은 과제(課題)가 부여된다. 특히 모든 학생(學生)들은 개인(個人)이나 분임(分任)별로 Task Force Deployment, Future Naval Technologies, Navy Long Term Costings 와 NATO에 대(對)해 연구발표(研究發表)를 하며 대잠전 해상방공작전(海上防空作戰)이나 STUFT(Ship Taken Up From Trade) 등에 대(對)해 새로운 개념적용연습(概念適用練習)을 한다. 해군참모대학(海軍參謀大學)의 견학(見學)및 방문(訪問)은 Industry, Media, EEC와 SHAPE 본부(本部) BAOR(British Army of Rhine) 화력시범 참관 등으로 독일, 벨기

에, 화란 등을 방문(訪問)한다.

개인대외활동(個人對外活動)이나 사교활동(社交活動)도 참모대학(參謀大學)의 중요(重要)한 부분(部分)으로 강연자(講演者) - 주로 대외부서(對外部署)의 전문적(專門的)인 지식(知識)을 가진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나 학계(學界)의 권위자(權威者) - 들과의 점심이나 저녁식사 정장(正裝)을 하고 고유예식에 의거하여 3~4시간 정도 진행(進行)되는 만찬(晚餐)인 Dining-in Night, Ladies Guest Night, Annual Tri-Service Dinner 등으로 사회의 명사들과 접촉시킴으로써 장차 지휘관(指揮官)이나 참모(參謀)로서 갖추어야 할 영국(英國)의 전통적(傳統的) 기사도(騎士道)를 함양(涵養)하는 훈련(訓練)을 한다. 특히 마지막 날은 First Sea Lord의 강연으로 참모대학(參謀大學)을 수료(修了)하며 대부분(大部分)의 학생(學生)들은 국방성(國防省)이나 해군성(海軍省)의 참모부서(參謀部署)로 가거나 일부(一部)는 바다로 돌아가 본연(本然)의 임무(任務)를 하게 된다.

6. 육군참모대학(陸軍參謀大學)

영국(英國)의 육군참모대학(陸軍參謀大學)은 1801년 창설(創設)되어 현재(現在)는 London에서 서쪽으로 30mile 정도 떨어진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인 Sandhurst 내(內)에 위치(位置)하고 있다. 육군참모대학(陸軍參謀大學)의 상징(象徵)은 올빼미가 칼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올빼미는 지혜(智慧)의 여신(女神)인 Minerva를 상징(象徵)하고 같은 전쟁(戰爭)의 신(神)인 Mars를 상징(象徵)하는 것으로서 학교(學校)의 Motto는 Tam Marte Quam Minerva(As much by Mars As by Minerva)로서 참모대학(參謀大學)에서 일정 기간(期間) 동안 전쟁(戰爭)의 지혜(智慧)를 배우고 연마하여 실제 전쟁(戰爭)에 적용(適用)하여 승리를 한다는 의미(意味)로서 장차 승리(勝利)를 위한 준비(準備)를 한다는 것이다.

교육과정(教育課程)은 Junior Command and Staff Course와 Army Staff Course의 2가지로 구분(区分), 운영(運營)되고 있어 Junior Command and Staff Course는 26세에서 29세의 장교(將校)로서 초급대위들이 입과(入課)하여 Formation Commander로서의 자질(資質)과 참모업무(參謀業務)를 배우고 The Army Staff Course는 31에서 33세의 대위나 소령이 입과(入課)하며 전입과(全入課) 대상자의 40%만 선발 입과시켜 참모교육(參謀教育)을 실시한다.

The Army Staff Course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고급참모과정(高級參謀課程)으로 매년(每年) 1월(月)에 시작해서 12월(月)에 끝나는 1년(年) 과정(課程)으로 차수당 180명(名)으로 구성(構成)되며 50명(名)의 외국학생(外國學生) 및 학군학생(學軍學生)으로 국방공무원(國防公務員)도 포함된다. 고급과정(高級課程)에 입과(入課)하게 되는 영국육군장교(英國陸軍將校)들은 선행조건(先行條件)으로 중부지방에 위치(位置)한 Shrivenham에 있는 Royal Military College of Science에 1년(年) 정도 입과(入課)하여 Military Technology에 대한 기본교육

(基本教育)을 받고 고급과정(高級課程)에 입과(入課)하게 된다. Royal Military College of Science에서의 교육(教育)은 사관학교(士官學校)에서의 전공과목(專攻科目)이나 학위(學位)에 의거하여 3개(個) 집단(集團)으로 나뉘어 운영(運營)하며 기타 요구(要求)에 의거하여 몇 명 정도는 RMCS에 입과(入課)하는 대신 주독 영국군의 통역을 위한 독일어과정에 입과(入課)하기도 한다. RMCS에서의 교과과정(教科課程)은 고급과정(高級課程)을 위한 준비기간(準備期間)으로 무기체계(武器體系)의 기본이론(基本理論)과 적용(適用) 그리고 미래(未來)의 무기체계(武器體系) 적용(適用) 가능성(可能性)에 대(對)해서 연구(研究)한다,

육군참모대학(陸軍參謀大學)의 본과정(本課程)은 6부(部)로 나뉘어져 Tactical Principles and Doctrine에서는 국내안보문제(國內安保問題)부터 전면핵전쟁(全面核戰爭)에 이르기까지 Operations, Staff·Duties, Training에서는 작전(作戰)이나 특별참모업무(特別參謀業務)의 절차(節次)를 Intelligence와 Geo-Politics는 국제정세(國際情勢) 등 영국(英國)의 대외적(對外的)인 안보문제(安保問題)에 대(對)해서 연구(研究)하고 Administration은 군수문제(軍需問題)의 제반사항(事項)과 평시전비태세유지(平時戰備態勢維持)에 대(對)해서 Leadership과 Command Studies는 주로 학생(學生)들 간에 개인연구(個人研究)내지는 집단연구(集團研究)로서 전쟁(戰爭) 전장(戰場)과 Leadership에 대(對)해서 연구발표(研究發表) 위주로 진행(進行)된다.

마지막으로 Joint Studies로서는 공군(空軍) 및 해군참모대학(海軍參謀大學)과의 합동(合同)Seminar 운영(運營) 및 NATO 지휘관(指揮官)들이 강의(講義)로서 전체(全体)의 20% 정도를 합동작전연구(合同作戰研究)에 할당(割當)하여 운영(運營) 하고 있다. 일련의 과정(課程)이 끝나고 일단 수료(修了)를 하게 되면 모든 학생들은 영국국방정책(英國國防政策)의 방향(方向)이나 현대(現代)의 다양(多樣)한 전장(戰場)에서의 무기체계(武器體系)의 적용능력(適用能力) 등의 제반 참모업무(參謀業務)에 대(對)한 능력(能力)을 구비(具備)하게 된다. 이러한 영국육군(英國陸軍) 참모대학(參謀大學)의 교육과정(教育課程)은 군(軍)의 참모(參謀)나 지휘관교육(指揮官教育)에 부응(副應)하여 발전(發展)되어 가는 과학무기체계(科學武器體系)에 적응(適應)하기 위한 교육(教育)에 더 중점(重點)을 두는 방향(方向)으로 발전(發展)되어 가고 있다.

7. 결론(結論)

이상(以上)에서 영국(英國)의 참모대학(參謀大學)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필자(筆者)의 관점(觀點)에서 영국참모대학(英國參謀大學) 교육(教育)의 특성(特性)을 몇 가지로 나누어 보고 끝을 맺고자 한다.

첫째, 철저한 선발개념(選拔概念)에 의한 교육(教育)으로 중견간부(中堅幹部)의 정예화(精銳化)를 이룩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군대학(各軍大學)의 교육목표(教育目標)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참모대학(參謀大學)의 군사전문교육은 현(現) 임무수행상 필요(必要)한 지식(知識)과 차

상위(次上位) 직무지식(職務知識)이나 기술을 습득(習得)키 위해 실시(實施)되는 교육(教育)으로 보직(補職) 진급(進級)과 더불어 인사관리(人事管理) 체계상(體系上)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공군참모대학(空軍參謀大學) 수료 후 거의 대부분의 영국학생(英國學生)들은 일선부대의 지휘관(指揮官)이나 국방성(國防省)의 참모부서로 발탁 기용되어 자부심(自負心)을 갖고 소신껏 일한다는 것이다.

둘째, 개인개발(個人啓發) 위주의 교육(教育) 및 평가제도(評價制度)를 들 수 있다. 참모대학(參謀大學)의 교수방법(教授方法)은 영국(英國)의 민간대학(民間大學)처럼 철저한 개인지도 교수제도(Tutorial System)이다. 학생 개개인을 상대로 담당분임장이 직접 지도하여 학생 스스로가 자발적(自發的)이고 창의적(創意的)으로 연구(研究)할 수 있도록 하는 참모업무(參謀業務)에 대한 훈련(訓練)이다. 평가(評價)역시 학생(學生)의 생활(生活) 전체가 평가(評價)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즉 언어 행동 외양(外樣), 대인관계(對人關係), 문제해결(問題解決)의 명석도(明皙度)와 합리성(合理性) 등 학생(學生)의 전체적(全體的)인 면(面)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장래의 훌륭한 지휘관(指揮官)이나 참모(參謀)로서의 능력(能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삼군합동작전(三軍合同作戰)에 대(對)한 중점적(重點的)인 교육(教育)을 들 수 있다. 각참모대학(各參謀大學)의 고급과정(高級課程) 중 20%가 삼군합동작전(三軍合同作戰)에 관한 내용(內容)으로 삼군(三軍)의 균형적인 발전(發展)과 상호이해를 위해 과정(課程) 중 삼군대학(三軍大學) 고급과정(高級課程)의 학생(學生)들이 함께 모여 Symposium이나 Seminar를 실시한다. 특히 각군대학(各軍大學)에는 상호간 교환 교관(敎官)을 유지해 각군대학(各軍大學) 간의 협조(協助) 또는 교육(教育)의 연계성(連繫性)을 유지하고 있다.

네째, 참모대학(參謀大學)의 교육(教育)과 실무(實務)와의 철저한 연계성(連繫性)을 들 수 있다. 군(軍)의 존재가치(存在價值)는 전쟁(戰爭)에 있어서 승리(勝利)에 있고 승리(勝利)와 패배(敗北)는 전쟁(戰爭)을 지도(指導)하는 각급지휘관(各級指揮官)과 이를 보좌하는 참모(參謀)들의 능력(能力)에 따라 결정(決定)되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영국(英國)의 참모대학(參謀大學) 교육(教育)은 철저하게 실무(實務)와 연관을 두고 사고(思考)하며 실제문제를 놓고 해결(解決)하는 연습(演習)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군본부(空軍本部)나 사령부(司令部)의 주요 참모보직에는 서로 다투어 그해 영공군대학(英空軍大學) 고급과정(高級課程)을 나온 장교(將校)들을 원하고 있다.

우리의 공군기본교리(空軍基本敎理)에서도 “현대전(現代戰)의 승패(勝敗)는 무기체계(武器體系)의 우열(優劣)과 운용요원(運用要員)의 기량(技倆) 그리고 전투의지(戰鬪意志)에 의해 좌우(左右)되며 그들의 정예화(精銳化)는 교육훈련(敎育訓練)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라고 설파(說破)하였다. 또 모든 국가(國家)는 군사전문직에 대하여 교육(敎育)과 훈련(訓練)을 받은 장교(將校)들이 지도(指導)하는 강력한 군대(軍隊)를 필요(必要)로 한다.

더구나 2000년대(年代) 지향(指向)하고 있는 우리 공군(空軍)에 있어서 항공력(航空力)에 관계(關係)되는 여러 가지 문제(問題)는 그 질(質)과 양(量)이 급속(急速)히 팽창(膨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군력(空軍力)을 운용(運用)해야 할 지휘관(指揮官) 및 참모(參謀)의 교육(教育)이 그 중요성(重要性)을 더해가고 있다. 우리 공군대학(空軍大學)도 1956년(年) 7월 15일 여의도기지(基地)에서 정식으로 창설(創設)된 이래 30년(年) 동안 많은 발전(發展)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발전(發展)을 위해서 지휘참모(指揮參謀) 교육(教育)의 중요성(重要性)을 인식(認識)하고 중견급장교(中堅級將校)들의 전문적(專門的) 지식(知識)과 기술(技術)을 증진(增進)시키는 교육(教育)의 투자(投資)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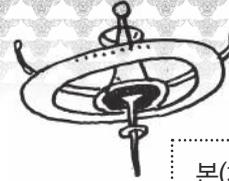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現在) 운영(運營)되는 우리 공군대학(空軍大學)의 제도(制度) 발전(發展)에 여기 소개(紹介)한 영국참모대학(英國參謀大學)의 교육제도(教育制度)가 다소(多少) 미흡하나 참고(參考)가 될 수 있으면 한다.

분수지킨 생활 속에

자신크고 나라큰다

붉은 별들의 전쟁(戰爭)

소련(蘇聯)의 전략방위구상(戰略防衛構想)



본(本) 내용(內容)은 1985년(年) 가을호(號) Asia-Pacific Defense FORUM에 영국상원(英國上院) 국방위원회(國防委員會) 위원장(委員長)인 Alan Lord Chalfont가 “Red Star Wars”란 제목(題目)으로 기고(寄稿)한 것을, 독자(讀者)들의 이해(理解)를 돕도록 완역(完譯)한 것이다.

*역자(譯者) 주(註)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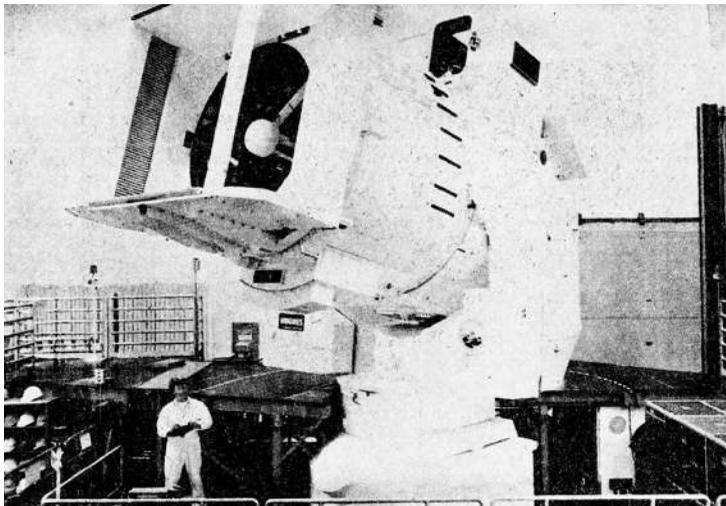
중위 임 충 식(任忠植)
〈공본 정참부〉

소련(蘇聯)은 영국(英國)과 달리, 자국(自國)의 전략방위연구(戰略防衛研究) 내용(內容)을 외부세계(外部世界)에 선전(宣傳)하지 않는다. 만약(萬若), 소련이 그들이 추진(推進)하고 있는 전략방위구상(戰略防衛構想) 내용을 공개(公開)했었다면, 미국의 별들의 전쟁(戰爭) 계획(計劃)을 “위험(危險)하고, 안정(安定)을 깨뜨리며 그리고 도발적(桃發的)”이라고 매도(罵倒)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1984년에 핵위협(核威脅)에 대항(對抗)하여 평화(平和)를 추구(追求)한다는 소련 과학자(科學者) 협회(協會)의 실무위원회(實務委員會)가 보고서(報告書)를 발간(發刊)한 바 있는데, 이 보고서는 우주체제(宇宙體制)가 너무 경비(經費)가 많이 들고, 기술적(技術的)으로 도달(到達)하기가 어려우며, 또 현재(現在) 서방국가(西方國家)에서 선거유세(選舉遊說)의 초점(焦點)이 되고 있는 전략방위구상(戰略防衛構想)(Strategic Defense Initiative : SDI)에 반대(反對)하는 논쟁(論爭)에 의해 쉽사리 무력화(無力化)될 수 있다고 결론(結論)짓고 있다. 하지만 1985



BISON 폭격기(爆撃機)의 등에 실린 소련(蘇聯)의 우주왕복선(宇宙往復船)의 상상도(想像圖)



미(美) 해군(海軍)의 빔(Beam) 조준기(照準機). 이 실험적(實驗的)인 체계(體系)는 비행중(飛行中)인 목표물(目標物)을 추적(追跡)하여 선정(選定)된 목표성(目標成)에 강력(強力)한 레이저 빔(Laser Beam)을 발사(發射)하도록 설계(設計)되어 있다.

년(年) 1월(月)에 소련 과학학술원(科學學術院)의 Nikolai Basov는 소련이 미국의 전략방위구상(戰略防衛構想)(SDI) 계획(計劃)과 실제(實際)로 경쟁(競爭)을 한다면 과학기술상(科學技術上)의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公言)했다.

SDI가 위험하고 도발적이며 안정을 저해(沮害)하거나 또는 아무 쓸모가 없고, 비용(費用)이 많이 들며 또 쉽사리 무력화(無力化)될 수 있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도달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소련 군사(軍事)과학자들이 충분히 개발(開發)할 수 있다고 하든간에 소련은 실제로 SDI를 추진(推進)할 능력(能力)이 없다고 주장(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Nikolai Basov의 증언(証言)은 상당히 고려(考慮)할 가치(價值)가 있다. 왜냐하면 그가 양자전자공학분야(量子電子工學分野)의 연구(研究)로 1964년(年)에 노벨상을 수상(受賞)했으며, 또한 소련 전략방위계획(戰略防衛計劃)을 막후(幕後)에서 추진해 온 핵심인물(核心人物) 중(中)의 한사람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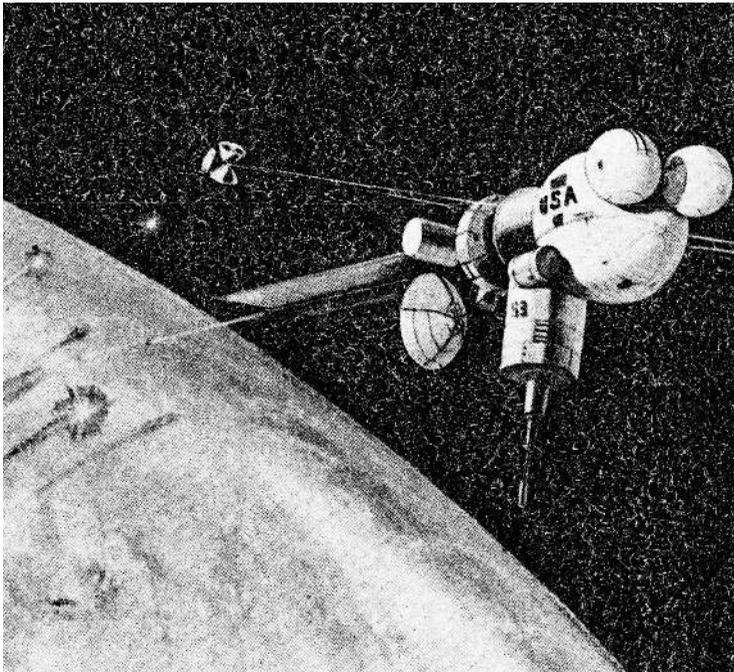
실제로, 전략방위(戰略防衛)에 대(對)한 소련의 태도(態度)가 이처럼 모순(矛盾)돼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간단(簡單)한 명제(命題)가 받아들여 진다면 쉽게 설명(說明)될 수 있다. 즉, 소련은 우주(宇宙)에 기지(基地)를 둔 방위체제(防衛體制)에 관한 비밀연구(秘密研究)를 오랫동안 해왔으며 이제는 서방(西方)의 과학기술 산업상(產業上)의 하부구조(下部構造) 및 경제자원(經濟資源)으로 뒷받침되는 비슷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事實)이다.

소련이 전략방위연구(戰略防衛研究)를 하는데 있어서 중점(重點)을 두고 있는 주요(主要) 과학기술분야는 “지향성(指向性) 에너지(Directed Energy)”라고 알려져 있다. 이 Directed Energy에는 미사일을 겨냥하여 그것의 표면(表面)을 침투(浸透)하고, 그것의 유도체제(誘導體制)와 탄두(彈頭)에 피해(被害)를 입히는 전자기(電磁氣) 방사선(放射線)의 강력(強力)한 빔(Beam)인 레이저와 미사일의 전자부품(電子部品)과 회로(回路)에 피해를 주도록 설계(設計)된 레이더의 파장(波長)과 비슷한 파장(波長)으로 전자기(電磁氣) 방사선(放射線)을 방출(放出)하는 무선주파무기(無線周波武器), 그리고 고(高) 에너지 가속기(加速器)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서 목표(目標)미사일 내부(內部) 깊숙이 열피해(熱被害) 또는 기계적(機械的)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차적(二次的)인 핵(核) 효과(效果) 또는 X-ray 효과(效果)를 주는 소립자(素粒子) Beam도 포함(包含)된다.

소련의 레이저 무기(武器) 연구(研究)는 1960년대(年代) 초(初)에 시작(始作)된다. 현재 이 연구는 Nikolai Basov와 1964년에 노벨상을 공동(共同) 수상(受賞)했던 Alexander Prokhorov를 포함한 소련 최고(最高)의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에 의해 수행(遂行)되고 있다.

최근(最近) 수년간(數年間)에 나온 서방측(西方側)의 정보보고서(情報報告書)에 따르면, 소련은 여러 분야(分野)에서 최소한(最小限) 미국과 같은 수준(水準)으로 발달(發達)했으며, 군사적(軍事的) 응용(應用)을 위한 레이저 기술과 같은 분야에서는 미국을 앞지른 것으로 되어 있다. 소련은 이미 지상(地上)에서 시험(試驗)을 마친 대위성체제(對衛星體制)(현재로서는 유일

대기권(大氣圈)으로 재돌입(再突入)하는 핵무장(核武裝)한 우주선(宇宙船)을 우주(宇宙)에 떠있는 전자기(電磁氣) Railgun으로 요격(邀擊)·파괴(破壞)하는 장면(場面)의 상상도(想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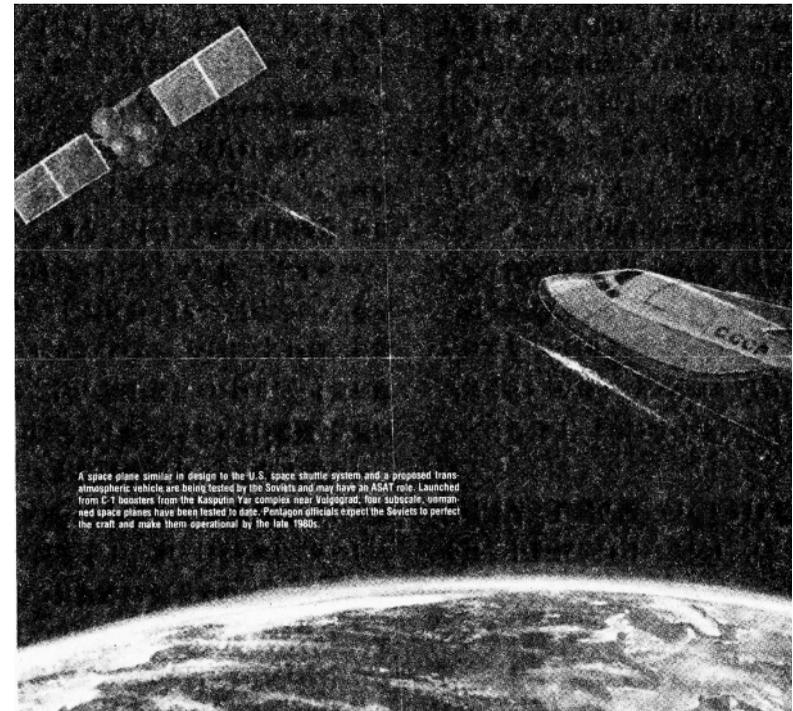
(唯一)함을 갖추고 있으며, 어떤 정보판단(情報判斷)에 의하면, 금세기(今世紀) 말(末) 이전(以前)까지는 우주체제(宇宙體制)를 운용(運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소련의 연구 및 개발이 레이저 기술분야에 치중(置重)해 온 경향(傾向)이 있기는 하지만, 소립자(素粒子) Beam 분야에서도 비약적(飛躍的)인 진보(進歩)가 이루어졌다. 핵(核) 가속기(加速器)에 대(對)한 연구가 평화적(平和的)인 목적(目的)을 위해 통상적(通常的)인 고(高)에너지 물리학(物理學)에 응용되는 것이 분명(分明)하기는 하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使用)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마이크로파(波) 무기 분야에 있어서도 소련의 기술은 최소한 미국 수준에 도달(到達)해 있다.

그러나 소련의 전략(戰略)에 대해 심도(深度)깊게 연구해 온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놀라운 게 아니다. 소련은 상호확실파괴전략(相互確実破壞戰略)(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 개념(概念)을 한번도 수긍(首肯)한 적이 없다. 소련의 전략가(戰略家)들은 그들의 전략기획(戰略企劃)이 NATO와 바르사바 조약기구(條約機構) 간(間)의 어떠한 전쟁

도 결국에는 핵전쟁(核戰爭)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계산(計算)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은 끊임 없이 강조(強調)해 왔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효과적인 방위(防衛)야말로 믿을만한 전쟁 억제력(抑止力)의 필수불가결(必須不可缺)한 요소(要素)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理由)로 소련은 NATO의 어느 국가(國家)보다도 민방위(民放衛)에 중점을 두어 왔고, 모스크바를 현재로서는 유일(唯一)하게 운용(運用)되고 있는 탄도(彈道)미사일 방위체제(防衛體制)로 보호(保護)해 왔으며 최근에는 더욱 새로운 방어체제를 구축(構築)했고, 나아가서는 우주궤도(宇宙軌道) 및 지상발사(地上發射) 대위성체제(對衛星體制)를 발전시켜 왔다. 게다가 소련은 대규모 위상(位相) 조정(調整) 레이더(Phased-array Radar) 체제를 구축(構築)했는데, 이것은 서방(西方) 관계 기관에 의하면 대탄도(對彈道)미사일 협정(協定)에 위반(違反)되는 것이다. 또한 소련은 어떤 종류의 서방진영(西方陣營) 탄도미사일은 요격(邀擊)할 수 있는 지대공(地對空) 미사일 체제(體制) (SA X12)를 전개(展開)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소련 과학자와 군사(軍事) 계획관(計劃官)들이 우주(宇宙)에 바탕을 둔 전략방위체제(戰略防衛體制)에 대(對)한 심도(深度)깊은 연구를 수행(遂行)해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물론, 소련은 이러한 사항(事項)을 대통령(大統領)이 발



표해야 하는 정치(政治)체제를 갖고 있지도 않고 또한 이러한 사실이 발표된다 하더라도 “Star Wars”라는 표제하(表題下)에 이것을 비판(批判), 반대(反對)하는 기사를 실을만한 언론(言論)체제도 갖추고 있지 않다.

성공적(成功的)인 군축협상(軍縮協商)을 위해서 미국이 전략방위연구계획(戰略防衛研究計劃)을 중단(中斷)해야 한다고 주장(主張)하는 사람은 레이건 대통령(大統領)이 1983년(年) 3월 23일 전략방위구상(戰略防衛構想)(SDI)에 관해 연설(演說)한 지 채 한달도 못돼서 이 SDI계획을 비난하는 서한(書翰)이 뉴욕 타임즈지에 등장(登場)했었다는 것을 상기(想起)해야 할 것이다. 이 서한은 200명이 넘는 소련 과학자들에 의해 서명(署名)됐었는데, 전략방위(戰略防衛)의 개념(概念), 자체(自体)를 전적(全的)으로 부정(否定)하는 강력(強力)한 내용의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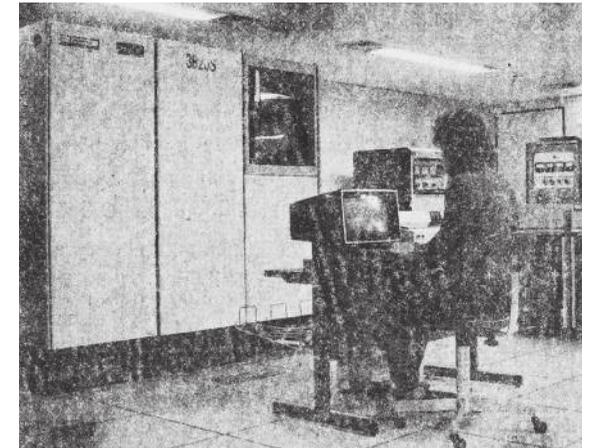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간과(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 Basov와 Prokhorov를 포함(包含)한 서명인(署名人)들 중의 다수(多數)가 소련의 전략(戰略)미사일 체제(体制), 군용(軍用) 항공기(航空機) 및 핵잠수함(核潛水艦) 설계(設計)에 평생(平生)을 몸 바쳐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더욱 흥미있는 사실은 소련 과학학술원(科學學術院) 부회장(副會長)이자 소련에서의 “Star Wars”의 항공사업(航空事業) 핵심인물(核心人物)인 Evgeny Velikov도 여기에 서명(署名)했다는 점이다.

교양(敎養) · 과학(科學)

근거리(近距離) 통신망(通信網)
(Local Area Network)에 대하여



소령 이 석 호(李錫浩)



- 목 차 -

1. 근거리 통신망의 출현
2. 근거리 통신망의 구성방식
3. 근거리 통신망의 전송매체
4. 근거리 통신망의 실제적인 구성방법
5. 근거리 통신망의 실례

1. 근거리 통신망(LAN)의 출현

1946년 컴퓨터가 세상에 나타난 직후인 1950년대에는 컴퓨터가 매우 크고, 가격이 고가이었으며 복잡한 기계로서 몇몇 숙련가들에 의해서만 조작되었다. 즉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일을 모두 모아 순서에 의해서 한사람의 일이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사용하는 배치처리 시스템으로만 운영되었다 <그림 1>.

1960년대에 이르러 Operating System의 개발과 더불어 시분할방식(Time Division)에 의해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한 대의 컴퓨터와의 상호통신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는 한대이나 여럿이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

중앙시스템에 저속선로를 통하여 Dump(무지능)터미널을 연결하므로써 사용자들은 컴퓨터와 대화(Input, Response, Output)를 통해서 각기 다른 문제들을 동시에 직접 처리할 수 있고 이의 정보처리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 컴퓨터 이용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저렴한 가격의 미니컴퓨터가 정착되었다. 이용자들은 보다 넓은 응용범위를 갖는 화일, 프로그램, 축적장소(Memory), 주변기기(Peripheral Device)들을 공유함으로써 장거리 뿐만 아니라 각 부서 간의 데이터를 교환하길 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데이터 교환은 Dump 터미널을 컴퓨터에 연결하는 것보다 더 고속, 고용량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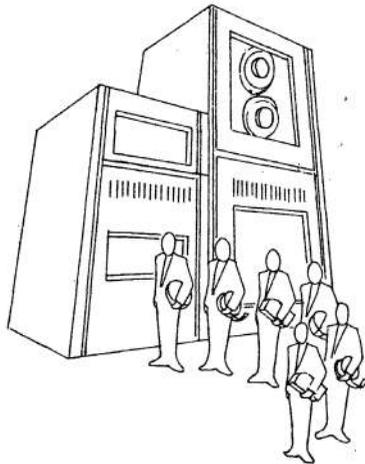


그림 1. 1950년대 : 배치처리(여기서는 직접 통신을 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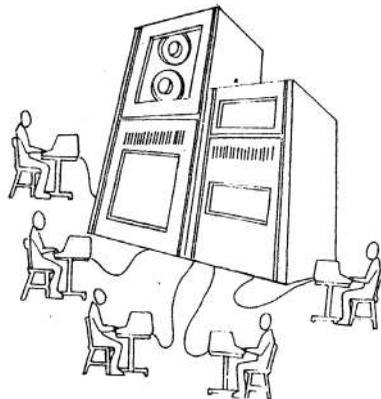


그림 2. 1960년대 : 시분할처리(터미널대 컴퓨터간의 저속통신)

분산된 미니컴퓨터들을 서로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자료를 교환할 수 있게 각 컴퓨터 간의 통로를 설치함으로써 중앙컴퓨터를 설치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다.

즉 각 단말기(컴퓨터, Telex)들이 서로서로 효과적인 네트워크로서 연결될 때 하나의 메인 프레임이 처리하는 업무량보다 더 많은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체제를 갖추어서 정보교환 및 업무분산처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네트워크라 하며 지역적으로 0.1~10km 이내의 지역적 제한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근거리 통신망(Local Area Network)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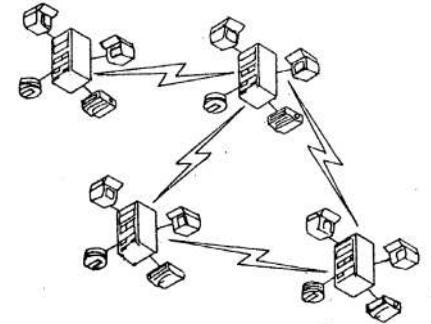


그림 3. 1970년대 : 분산처리, 미니컴퓨터를 이용한 네트워킹(터미널대 컴퓨터대 컴퓨터와의 통신 및 장거리 통신기술의 개발)

여기서 제시한 근거리 통신망의 응용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사무실 : 음성과 데이터의 통합통신이 전자우편, 문서처리, 서류분배, 음성축적과 같은 O.A(사무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 대학 : 집중화 혹은 분배처리 장비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워드 프로세싱과 같은 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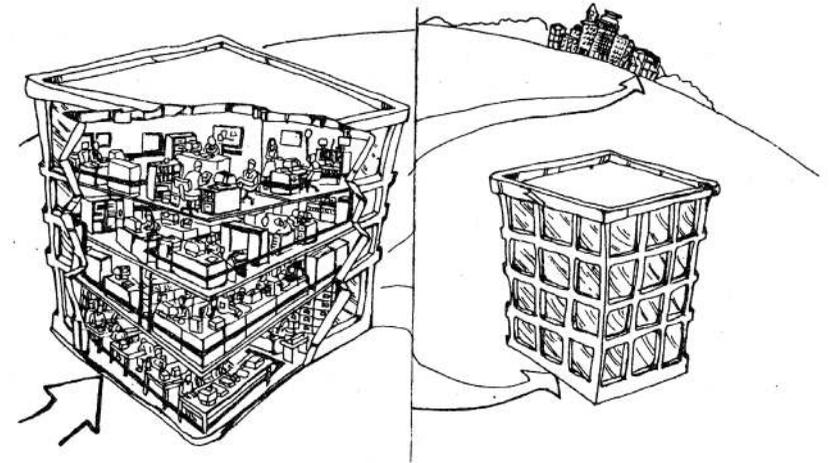


그림 4. 1960년대 : 근거리통신망(자원공유의 종합정보, 개발 및 다른 LAN 처리를 가능케 하였으므로 고속 근거리통신기술과 장거리통신망과의 연결을 가능케 하였다.)

목적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 공장 : CAD/CAM(Computer Aided Design/Computer Aided Manufacturing), 로봇, 수치제어, 제조공정과 같은 자동제조기술을 점차 추구하고 있다.
- 연구소 : 통신망은 실험에 대한 분배 공정제어를 도운다.
- 병원 : 환자의 회복상태, 상황조회, 진단에 이용된다.
- 유통업체 : 주문과 재고관리 시스템에 이용된다.

2. 근거리 통신망의 구성방식

네트워크는 통신기술과 컴퓨터와 발전으로 컴퓨터를 개발하는 회사마다, 그 회사 개발상품의 특성에 따라, 혹은 사용자의 업무 특성에 따라 몇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근거리 통신망의 구조는 스타형, 링형, 버스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스타형 구조 : 이는 몇개의 Point to Point(지점간) 통신방식으로 접속되고 있으며 중앙의 Hub 에서 Hub까지 트래픽(음성 신호 및 Data라고 할 수 있음)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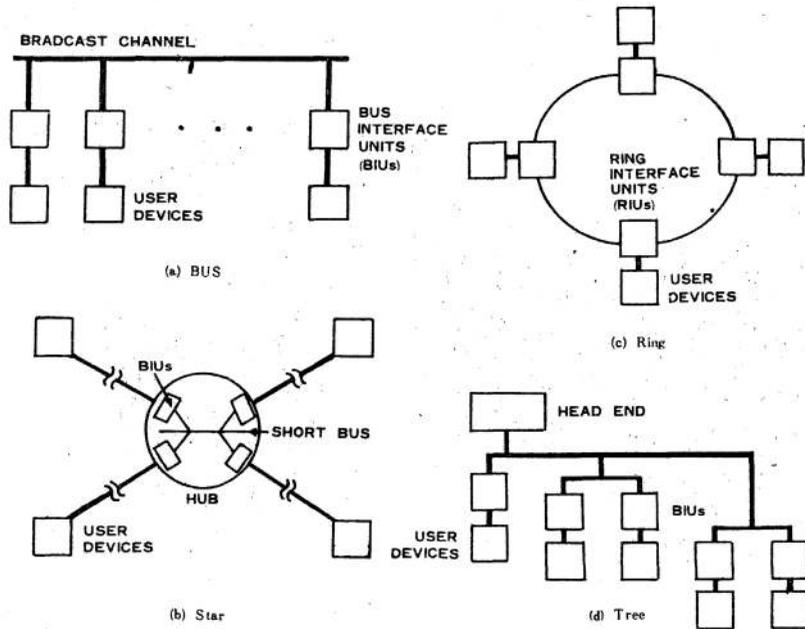


그림 5. LAN의 각 구조

여기의 Hub는 각 기기들을 공유하는 교환기를 내장하고 있다.

- 트리형 : 많은 상호연결된 전송링크로 구성되며 Head End 쪽으로 모든 데이터 정보를 전송한다. Head End는 마찬가지로 각 연결된 기기로부터 전송된 정보를 처리하여 똑같은 루트를 통하여 각 기기로 보내게 된다.
- 링형 : 능동 재생기(Ring Interface Unit : RIU)에 연결된 Point to Point 전송 링크로 구성되며 RIU는 데이터소스에 가깝게 위치하여 짧은 역세스션로에 의해 이들 각 기기에 연결된다. 여기에서 정보는 능동재생기를 거쳐 단일방향, 즉 링방향으로 순환하게 된다.
- 버스구조 : 하나의 기다란 전송채널로서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전송되며 각 기기들은 Bus Interface Unit(BIU)를 통해 접속되어 있다.

3. 근거리 통신망의 전송매체

전송매체는 네트워크에서 상호연결 노드에 쓰여지는 물리적 채널을 제공한다. 즉 전화선과 같은 와선, 동축 케이블(Coaxial) 그리고 광파이버(Fiber Optic)와 같은 Bounded 매체와 방송신호와 같은 Un-Bounded 매체로 분류된다. 여기서는 Bounded 매체에 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가. 와선

본래 전화통신에 쓰여졌던 선로 유형 가운데 하나였으며 구매전화와 데이터 전송을 위한 주요 매체이다. 선은 주로 구리로 만들어지고 전화공사에 의하여 막대하게 쓰여졌던 관계로 가장 저렴한 매체이며 보편적으로 이용 가능한 장비가 많다.

전화 통신망에서 이 매체를 통한 일반적인 데이터 전송 속도는 대개 회선교환선로에서 2.4kb/s 이고 임대 전용선로에서는 4.8kb/s이다.

이러한 와선은 300~9.6kb/s에서 동작하는 저속 데이터 장비에 많이 쓰여진다. 그러나 와선은 많은 양의 전기적 간섭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오류를 발생시키며 비화가 중요할 때에는 압적인 문제가 된다.

나. 동축 케이블(Coaxial Cable)

동축 케이블은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고 전기적 간섭에 대해 높은 면역성을 갖는 고속의 데이터 속도와 낮은 에러율을 제공한다. 이는 하나의 케이블에 많은 통화를 다중화(Multiple) 시키기 위한 전화 통신망, 특히 장거리 통신망에 널리 쓰이며, 지상에 설치된 수천개 럼선로에 대한 필요를 감소시켜 준다.

넓은 대역폭과 낮은 에러율은 비용 대 효과면에서 이용율이 높아지고 또한 이러한 동축 케이블을 위한 전송 콘트롤 및 설치, 연결을 위한 기술개발이 되어 다양한 TAP, Splitter, Repeater

등을 이용함으로써 쉽게 확장, 분기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동축 케이블의 대용량, 낮은 오율 그리고 구성의 용통성(확장 및 분기능력)때문에 근거리 통신망에 있어서의 대중적인 매체가 되어 있다.

다. 광 파이버(Fiber Optics)

광 파이버는 플라스틱 또는 유리로 만들어지며 어떠한 응용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성능의 전송매체로서 작용한다. 동축 케이블의 500MHz에 비하여 3.3GHz에 달하는 넓은 대역폭을 갖고 있다.

- 1 Gb/s 이상의 데이터 속도가 제공된다.
- 오율이 매우 낮다(109당 1비트)-에러 검출 및 재전송(Overhead)가 제거될 수 있다.
- 광 파이버 전송은 전기적 또는 전자기적 간섭에 의하여 방출되지 않고 비화성이 보장된다.
- 가볍고 작아서 공간과 무게를 줄일 수 있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광 파이버지만 송신기, 수신기 그리고 코넥터 기술, 다중화 능력이 뒤지기 때문에 아직은 LAN에 이용함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상호 간의 고속 및 대용량의 Point to Point(지점간) 링크에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광 파이버를 위한 송·수신 기술 및 부가장비가 개발되면 곧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4. 근거리 통신망의 실제적인 구성방법

여러 장비(단말기)들을 연결하여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교환하기 위한 방법에는 세 가지(PBX, Broadband·LAN, Baseband LAN)가 있으나 여기서는 PBX와 그의 발전 형태인 CB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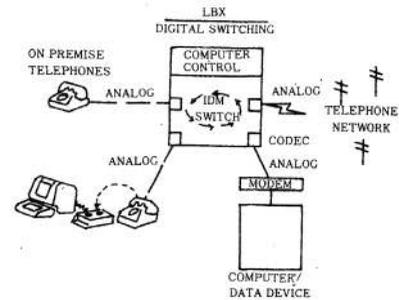


그림 6. PBX 통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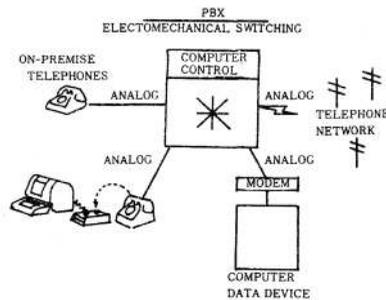


그림 7. CBX 통신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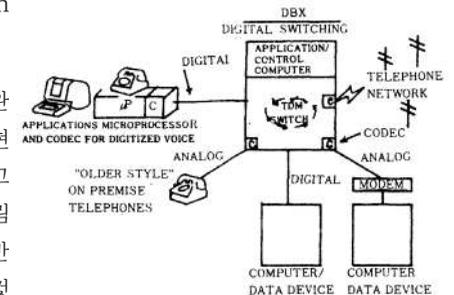


그림 8. DBX 통신망

DBX를 소개하겠다.

가. PBX(Private Branch Exchange)

PBX는 최초로 수동식 교환대로부터 시작되어 점차 교환기술과 PBX 기술의 발전으로 스트로저 교환기와 같은 전자식 교환기가 등장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교환양의 필요없이 자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크로스바 교환기가 개발되었다. 또한 데이터 통신 수요가 급증하자 컴퓨터간 통신을 위하여 전화망과 PBX망의 임대 전용회선을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신호형태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뎀과 같은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 <그림 6>은 오늘날까지 이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PBX 망으로서 여기서의 모든 신호는 아날로그로서 아날로그 신호는 물론 디지털 신호까지도 모뎀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나. CBX(Computerized Branch Exchange)

CBX란 전자식 교환기를 이용 가능한 채널을 할당하고 교환하기 위해 TDM(Time Division Modulation) 방식을 이용하는 완전 디지털화된 컴퓨터 교환기로 대체한 것이다.

앞에서 설명한 PBX는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형태로 그 장치 내에서 변환되지만 <그림 7>에서 보이듯이 CBX에서는 음성신호(아날로그)가 교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어야 하고 데이터 장비로부터의 신호는 모뎀을 거쳐 아날로그로 전송되고 수신기에서 다시 디지털로 바뀌어야만 CBX 교환기 내에서 처리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환은 CODEC(Coder/Decoder)칩을 이용하고 있다.

CBX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교환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환기에 디지털 신호를 직접 연결할 수는 없으며, PBX 보다 더 많은 변환을 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CODEC 칩이 비싸기 때문에 교환기 부분에 집중시켜 놓고 TDM 메카니즘으로 분산하여 CODEC를 이용하고 있다.

다. DBX(Digital Branch Exchange)

PBX와 CBX는 이제 DBX라 불리우는 완전 디지털 방식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몇몇 업체에서 DBX 시스템을 제조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고가의 장비이다. <그림 8>에서 보듯이 TDM교환기가 사용되지만 교환기에 연결되는 선로의 신호가 어느 것은 디지털이고 어느 것은 아날로그라는 점

이 다르다. CODEC칩이 전화기에 부착되어 음성 신호를 디지털로 다시 디지털 신호를 음성신호로 변환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CBX와 DBX는 데이터 통신이라는 측면에서 신속한 디지털 교환 기술로서 선로의 이용효율을 더욱 개선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5. 근거리 통신망의 실례

K 사의 근거리 통신망은 컴퓨터 통신 이외에도 같은 Cable 상에서 다른 주파수를 이용하여 영상, 음성, 제어 등을 할 수 있다.

- 화재 / Gas 감지 등의 보안시스템
- Energy 관리 시스템
- T. V 감시 시스템
- 지역 내의 Tele-Conferencing
- 교육용 영상시스템
- 음성시스템

K사의 근거리 통신망은 연구소에 Head-End가 있고 부속공장 및 본사까지를 연결 광범위하게 운용하고 있으며 FA 및 OA용의 Software를 개발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1층과 2층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Line을 네트워크(LAN)라 볼 수 있으며 공장 및 본사로의 연결은 장거리 통신에 의한 네트워크 연결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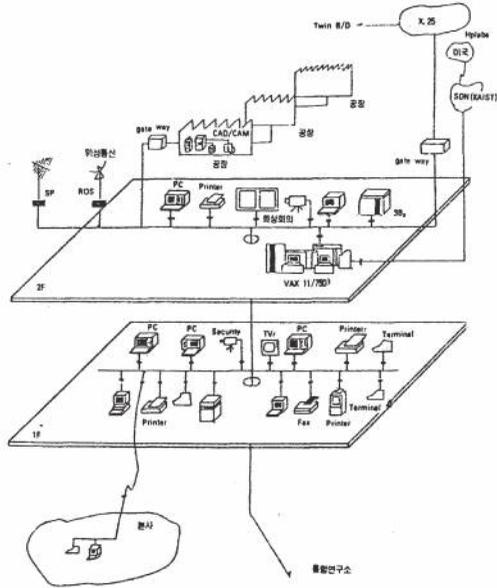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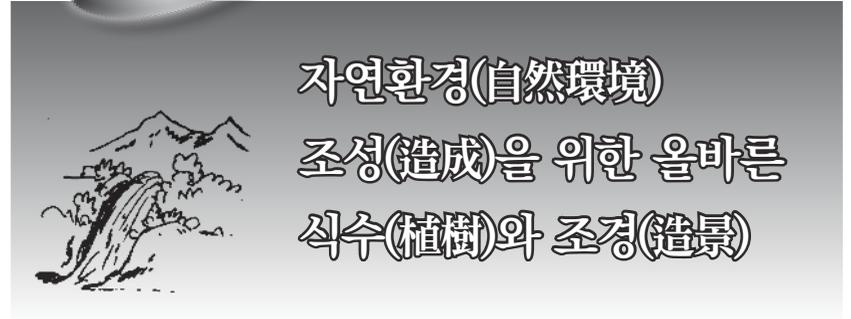


그림 9. K사의 LAN Layout

교양(教養) · 상식(常識)



강 준 일

(교수(教授)·서울대 환경대학원)

- 목 차(目次) -

1. 서언(序言)
2. 공공(公共)을 위한 조경(造景)
3. 보행자(步行者) 공간(空間)에 관한 문제
4. 결어(結語)

I. 서언(序言)

전국의 나무들이 전 국민의 정성과 산림녹화(山林綠化) 의지(意志), 그리고 정부의 지속적인 산림정책에 힘입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나고 있다는 근자(近者)의 신문 보도를 보고 참으로 반가운 마음이었다. 한때는 「민동산의 나라」라는 오명까지 들어야 했던 우리나라지만 멀지않아 우리 산지(山地)도 산림이 울창한 선진국형(先進國型) 산지(山地)가 될 것이라고 산림(山林)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나무의 성장(成長)에 가속도(加速度)가 붙어 성장이 놀랍게 빨라지고 있는 것은 수목(樹木)이 이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무의 1년 성장 속도가 60cm를 넘을 경우 가장 이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완전히 조성되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85년(年) 표본조사결과 소나무 성장 속도가

62.5cm가 넘어 10년(年) 뒤에는 우리나라 산지도 수목이 울창한 인공조림(人工造林)의 선진 국형(先進國型)으로 변모(變貌)될 것으로 본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앞으로의 조림정책(造林政策)도 국토(國土)의 단순(單純) '절대녹화(絶對綠化)'에 서 벗어나, '산림(山林)의 자원화(資源化) 및 육림(育林)'으로, 그리고 균형(均衡)과 조화(造化), 미(美)를 아울러 갖춘 인공조경(人工造景)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심으면 된다는 식(式)의 식목(植木)은 경제원칙에 어긋나며, 육림(育林)에도 많은 손길이 가기 어려워 볼품없는 산림(山林)을 만들고 만다.

그래서 가까운 주위환경부터, 대중(公衆)이 자주 접(接)하는 장소부터 식재(植栽)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고(本稿)에서는 장차 우리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써야 할 공공(公共)을 위한 조경(造景)(주로 공원(公園)), 그리고 보행자(步行者)를 위한 공간(空間)의 조경(造景)에 관(關)하여 논(論)해 보고자 한다.

덧붙이고 싶은 말은 선진경제대국(先進經濟大國)이라고 빠지는 일본(日本)도, 사회간접자본 중(社會間接資本中) 공용녹지(公用綠地) -특히, 도심(都心)의 공원(公園) 절대면적- 로 본 선진(先進)척도는 구미(歐美) 각국(各國)에 순위(順位)가 밀려 세계 30위(位)에도 못끼는 것임을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산지(山地) 뿐만 아니라 가까운 우리 생활 주변 환경에 대한 조경(造景)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지 가히 짐작이 가는 것이다.

II. 공공(公共)을 위한 조경(造景)

공공을 위한 조경의 시초(始初)는 고대(古代) 그리스의 아고라(Agora)라고 불리는 광장(廣場)의 설치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시장터로서의 역할에 있었을 것이나, 이 광장이 시민의 공공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로마시대의 포룸(forum)도 시민의 공공생활을 위한 중심적 시설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중세(中世)에는 길드에 의해 경영되는 원지(園地)가 있었다고 하나, 이러한 원지(園地)는 휴식을 취하기 위한 자리라기 보다는 공동경작(共同耕作)을 주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르네상스시대로 내려와서는 별장(別莊)(Villa)의 정원(庭園) 또는 루이(Louis) 14세의 정원(宮苑) 등이 시민을 위해 개방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은 그 정원 전체를 항상 대중을 위해 공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유자의 권력과 재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때와 장소를 제한해 가면서 공개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베르사이유궁원(宮苑)을 비롯한 규모가 큰 정원에 자르댕(Jardin) 또는 파르크(Parc)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과 같은 정원이나 공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석이 가해진 정도에 따라 궁전이나 대저택(Chateau)을 둘러싸고 있

는 부분을 자르댕, 그곳으로부터 떨어진 넓은 부분을 파르크라 이름지어 구분한데 지나지 않은 듯 하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공원이라는 개념에 어울리는 시설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19세기로 접어들어서부터이며, 런던의 하이드 파아크(Hyde Park), 리젠트 파아크(Regent Park), 켄싱턴(Kensington) 파아크, 세인트 제임스 파아크(St. James Park), 파리의 킬리리원(園)(Jardin des Tuileries), 뤁상부르원(園)(Jardin Laxemboury), 몽소 공원(Parc Monceau), 뷔테 쇼몽공원(Parc de Buttes Chaumont), 베를린의 프리드리히스하인(Fridrichsha.in), 로마의 보르게제원(園)(Giardino Borghese)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현대공원(現代公園)으로서의 요소를 갖춘 최초의 공원은 1857년 미국 뉴욕시(市)에 설치된 센트럴 파아크(Central park)이다. 이 공원의 설치와 설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옴스테드(F. L. Olmsted:1822~1903)로서 이것을 계기로 하여 미국은 세계에 있어서의 공원계(公園界)의 선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340ha에 이르는 이 대공원은 명칭 그대로 뉴욕 시민(市民)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데,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나 기마도로(騎馬道路) 따위도 갖추어져 존재녹지(存在綠地)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이용녹지(利用綠地)로서도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이 공원이 설치되면서 주변의 지가(地價)가 등귀하여 시(市)의 조세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공원설치를 위하여 투자한 경비는 충분히 보상되고도 남음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센트럴 파아크는 뉴욕시(市)의 시민생활에 큰 공헌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탄 여러 도시가 이것을 본받아 넓은 공원을 설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공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한발 더 나아가 공원 사이를 이어놓기 위한 파아크 웨이(Park Way)에 의해 소위 공원계통(公園系統)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은 국립공원(國立公園)의 창설을 비롯하여 광역공원계통(廣域公園系統)이나 동적(動的) 후생(厚生)을 위한 공원의 설치 등으로 공원계에 있어서 항상 선도자적인 구실을 하여 왔다. 광역공원계통은 시내의 공원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도시주변 일대에 포함시키는 대구역(大區域)의 공원계획을 뜻하며, 유럽이나 동양 여러 나라에 비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쉬운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하나, 오늘날 문화 국가라면 좋거나 나쁘거나 광역 공원 계통의 설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비추어 볼 때, 19세기 말 미국의 보스턴을 중심으로 하여 일기 시작한 이 착상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보스턴시(市)는 광역 공원 계통의 설치에 앞서서 아동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어 놓았으며, 금세기 초엽에 시카고에 조성된 운동공원(運動公園)은 이용자를 성인층에까지 확대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원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되풀이 되었으며, 그 취지는 옴스테드 시대처럼 공원을 정적(靜的)인 후생(厚生)에 주안을 둘 것인가, 아니면 동적 후생이 도시공원(都市公園)으로서 중요시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 논쟁의 종결을 보기 위해서는

긴 세월이 걸리지 않았다. 그 까닭은 어느 정도의 크기를 가진 공원에서는 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충족시킬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위에서 소개한 센트럴 파아크는 정적 후생을 위해 축소된 공원이었으나, 후일 동적 후생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개조되었으며, 또한 정적 후생을 위한 공원과 별도로 동적 후생을 위한 유희장이나 운동공원을 조성하여 각기 그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 성격의 공원이 상존(相存)함으로써 공원에 부여된 사명이 완수될 수 있다는 쪽으로 중론이 기울어졌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대공원(現代公園)의 발달 과정에서는 미국이 그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나, 한편 유럽에서는 유럽 나름대로 나라마다 녹지조성(綠地造成)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과 독일에서의 그것이 볼 만하다.

영국에서는 예로부터 시(市)·읍(邑)·면(面)의 공유지(共有地)를 부근 주민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자리로 이용하는 풍습이 있었으나, 인구가 늘고 문화가 향상됨에 따라 그것만을 가지고는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1848년(年)에 공중보건법(公衆保健法)을 제정하여 그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이 공공유보장(公共遊步場)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이 설치된 것은 공중 보건법이 대폭 개정된 1925년 이후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法)이 개정된 뒤에도 당분간 공공을 위한 공지(空地)는 주로 정적(靜的) 후생(厚生)을 위해 설계 이용되었고, 미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 도시의 공원은 모든 연령층과 계층의 요망에 응할 수 있도록 정적(靜的)과 동적(動的) 양면의 시설이 균형있게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강해진다.

영국의 녹지(綠地)계획 가운데에서 특기될 만한 것은 하워드(E. Howard: 1850~1928)의 제창에 의해 실현된 전원도시(田園都市)이다. 19세기 후반에 식견이 높은 공장주들에 의해 전원단지(田園團地) 주택계획이 수립되었으나, 하워드는 ‘도시(都市)와 전원의 결합’을 지향하여 광대한 교외의 환경적 잇점과 대도시의 사회 및 문화적 잇점을 결부시키는 한편, 토지의 사유를 배제한 공동체중심의 전원 도시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그의 이러한 구상에 의해 레치 워드(Letch Worth) 웰린(Welwyn)을 비롯한 몇몇 전원 도시가 런던 교외에 생겨났는데, 이것은 오늘날의 녹지대(綠地帶)(Green Belt)의 착상과 결부되는 것이라 하겠다.

튀넨(Thunen)의 ‘고립국(孤立國)’이 주로 산업 경제적인 견지에서 제창된 데 대해, 하워드의 견해는 도시와 지방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육체적 정신적인 면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또한 그의 구상이 실현되었다는 점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서 그의 탁견에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독일(獨逸)의 조경(造景)은 제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하여 비약적인 발달을 이루어 놓았으며, 그 후 독일은 비로소 고유의 조경수법(造景手法)을 확립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패전국인 독일은 국력회복을 위한 기본 방침을 국민 체위의 향상에 두어 그 한 방법으로

서도 시(市)의 공원과 녹지의 정비에 온갖 힘을 기울였으며, 당연한 귀추로서 양적으로도 유럽의 공원계(公園界)를 선도하는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우선 명실 공히 대전 후 독일의 조경계(造景界)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폴크스파르크(Volkspark)를 들지 않을 수 없으며, 그 제창자 루드비히 레서(L. Lesser)가 말하듯이 폴크스파르크는 전국민의 공원이며 그곳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녹지이다. 이 공원은 푸르름이 적은 도시에 설치되며 그 면적은 대략 10ha 이상이다. 또한 센트럴 파아크를 시조로 세계 여러 나라의 규모가 큰 공원이 자연풍경식(自然風景式) 위주로 꾸며진 데 대하여 폴크스파르크는 각기 주어진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각 부분이 정연하게 구획되어져 있으며, 설비라는 면에서 볼 때 미국이나 영국의 공원이 추종할 수 없는 훌륭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일광(日光), 공기욕장(空氣浴場)(Licht- Luftbad)이나 음천장(飲泉場)(Trink-halle) 등 특수한 시설을 볼 수 있다. 공업도시 에센의 구르거파르크는 1933년의 ‘푸르름의 주간(週間)(Grüne Woche)’에 개원(開園)된 것으로서 동적 후생과 정적 후생을 위한 각 구획에는 각기 훌륭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대부분의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폴크스파르크를 신설하였고, 때로는 정적 후생에 중점을 둔 시타트파크(Stadtspark)도 설치되었다.

독일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태어난 기능주의적인 조경 수법이 제2차대전을 겪고 난 오늘까지 계승되어 있으며, 그 한 면모를 조경전람회(造景展覽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시투트가르트 교외의 킬레스베르크(Killesberg) 또는 베를린의 메세 겔렌데(Messe Gelände)에서는 해마다 조경 전람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그곳에서는 관공청을 비롯하여 많은 조경업자들이 최선단을 걷는 조경소우를 벌이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독일에서는 분구원(分區園)(Kleingarten, Allotment Gardens)이 급격히 발달된다. 분구원(分區園)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서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같은 주지(主旨)로 꾸며진 일이 있으나, 1930년대의 독일의 분구원(分區園)의 성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독일의 분구원(分區園)은 대전기간 동안 시민에게 있어서 식량생산을 위한 귀중한 자리가 되는 한편, 정부가 조성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발달에 박차가 가해졌던 것이다.

따라서 베를린을 비롯한 각 도시의 곳곳에서 분구원(分區園)을 찾아볼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성황이 계속되고 있다. 원래 분구원(分區園)은 라이프찌히의 의사였던 시레버(Schreber) 박사가 제창한 바와 같이, 국민 특히 대도시의 주민의 보건을 위해 설치된 것이기는 하나, 2회에 걸친 대전 중 그것이 예기치 않았던 식량생산을 위한 자리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분구원(分區園)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육체의 건강과 정신의 정화면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베를린과 같은 주택사정이 불량한 도시에서는 주말대재(週末帶在)의 원칙을 벗어나 상주하는 주택으로 변해버린 것도 적지 않다. 그러나 건폐율(建蔽率)은 원래 정해진대로 있고 대부분의 공지는 소채나 과수의 재배를 위해 쓰이고 있으므로 본래의 목적을 다하고 있는 한편, 도시의 녹지(綠地)로서의 효능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그 이외에도 공장의 녹화나 학교원의 설치 등 공공 조경면에 있어서 볼만한 것이 많으나, 폴크스파르크나 분구원(分區園)과 함께 독일의 조경사상(造景史上) 특기되어야 하는 것에 도시림(都市林)(Stadtuald)이 있다. 1935년에 제정된 연방자연보호법(聯邦自然保護法)(Reichsnaturschutzgesetz)이 도시림을 삼림공원으로 보존하고 후생적 이용을 위하여 이것을 개발하는데 구실을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존과 개발은 각 도시의 주변에 울창하고 아름다운 수림이 과거부터 가꾸어져 있었던 독일에서만 실현이 가능했던 것으로서, 이것은 오늘날 독일에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 광역녹지계획(広域綠地計劃)의 일환인 전원풍경(田園風景)(Furlandschaft)의 개발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高速道路)(Autobahn)의 조경이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이외에도 유럽의 여러 선진국과 캐나다, 중남미 각국 등지에서는 볼 만한 도시공원(都市公園)이 적지 않다. 그러나 위의 세 나라가 도시 공원과 녹지문제(綠地問題)에 있어서 세계의 선도자적인 구실을 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은 공원은 도시가 팽창되고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함께 성장 분화되어 간 것으로서 현대(現代) 도시(都市)의 복잡하고도 지나치게 큰 규모로 자라난 도시기구상(都市機構上)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공공시설의 하나로 등장된 것이다. 특히 자본주의의 부산물로서 대도시가 형성되어 감에 따라 도시 속에 산재하는 공원의 사회적 의미는 매우 중요해졌을 뿐만 아니라, 공원에 대한 시민의 요구 또한 한층 더 확대되어 도시근교에 자리잡은 레크리에이션에 이용될 수 있는 경승지(景勝地)에까지 미치게 되었다. 따라서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자리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교외지는 점차적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원의 형태를 갖추게 되고 이것이 자연공원(自然公園)으로 발달해 간다.

한편 산업혁명 이후 기계화라는 생산수단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공업생산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기는 하나, 이에 따르는 천연자원의 가속적 개발과 공장부지의 조성은 여러 고장에서 자연환경(自然環境)과 경관(景觀)의 파괴라는 결과를 초래해 놓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18세기 중엽 유럽에서 태어난 자연 환경과 향토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상은 자연적(自然的) 경관지(景觀地)를 지정하여 모든 인위적 계획으로부터 자연을 보호하여 이것을 자손만대에 물려주는 한편, 시민의 야외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으로 삼으려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태어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상은 기계문명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던 미국에서 최초로 그 열매를 맺어 1865년에 현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요세미티 계곡(溪谷)과 말리포사의 거수림지대(巨樹林地帶)가 캘리포니아주의 주립공원(州立公園)으로 지정되었다. 그 뒤 원시적인 경관을 가진 엘로우스토운 지역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하여 국가에서는 그 자연경관(自然景觀)의 특이성과 가치를 인지(認知)하여 그 광대한 지역을 영구히 국민 전체가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1872년 국립공원제도를 법으로 제정하여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놓았으며, 오늘날에는 29개소의 국립공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탈리아가 미국의 국립공원을 본떠 국립공원을 설정하였으나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협소한 국토를 고도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규모가 큰 국립공원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따라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주로 자연보호에 중점을 둔 소면적의 자연공원을 설정하는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1931년에 국립공원법을 제정하여 종전(終戰) 전에 이미 12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었고, 1958년에는 국립공원법을 발전 해소시켜 자연공원법(自然公園法)을 공포하였다. 오늘날에는 26개소의 국립공원과 48개소의 국정공원 및 280여개소의 도도부현립(都道府縣立) 공원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3년에 공원법(公園法)이 제정 공포되어 1967년에 최초로 지리산(智異山)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오늘날에는 12개소의 국립공원과 10개소의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다.

III. 보행자(步行者) 공간(空間)에 관한 문제

오늘날 조경(造景)의 계획 대상은 넓은 분야에 걸쳐 산재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이러한 계획된 조경 공간 속을 산책(散策)하고 달리며, 앉거나 배회하면서 행동을 계속하여 간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공간 속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며, 또한 조경계획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하는 공간, 즉 보행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이것을 보행자(步行者) 공간(空間)(Pedestrian Space)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에 대해 전혀 고려가 가해지지 않았으며 어디까지나 자동차 위주의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재인식되어 인간 위주의 공간이 모든 조경계획(造景計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보행자 공간은 거주구(居住区) 규모는 물론, 도시 규모와 나아가서는 국토 규모로까지 이어져 나가는 모든 공간 속에 일관적으로 체계 있게 존재해야 하는 기초공간(基礎空間)이다.

이들 공간은 보도, 통학로, 자연 보도, 부울리바아드(Boulevard: 나무가 줄지어 심어진 유보도(遊歩道)) 따위와 같이 선적(線的)인 존재일 때가 있는가 하면, 공원, 광장, 몰(Mall), 번화가, 해안 등과 같이 면적(面的)인 존재일 때도 있다. 계획면에 있어서는 이것들이 일정한 서열 밑에 계통화되고 체계화되어 있을 것이 이용 공간의 성격상 바람직한 것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는 기성 도시의 공간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이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린이들의 놀이 형태이다. 즉 어린이의 놀이는 일정한 공간 속에 오래도록 머무는 일이 없으며, 공원에서부터 가로의 보도로, 보도로부터 골목길로, 그리고 다음 광장이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가면서 놀이의 종류 또한 장소에 따라 차례로 바뀌어 간다. 이러한 종류의 움직임은 모두가 보행자(步行者) 공간(空間)위 망상조직(網狀組織)에 따라 행해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서 이것을 의식적으로 계획해 놓은 것이 주택단지 속의 공간이다. 즉, 해방 직후에는 4~5

층의 건물을 4시간의 터 일조(日照)를 얻을 수 있도록 줄지어 배치해 좁은 단지 속에 정량적(定量的)으로 계산된 규모의 어린이 놀이터를 일정한 간격으로 무늬를 그리듯이 배치해 갔으며, 제 2단계로 접어들어서는 자동차의 물결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단지의 주축에 따라 중심부에 보행자(步行者) 전용도로(專用道路)(Pedestrian Way)를 설치하고 아동공원이나 유치원은 보행자 전용 도로에 붙여 배치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수법이 고안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이러한 경향이 한층 더 확장되어 차량이 가로지르는 따위의 위협이 전혀 없는 보행자(步行者) 전용도로(專用道路)가 단지 안에 아메바(Ameba)와 같은 부정형(不整形)의 생김새로 퍼져나가면서 곳곳에 놀이 기구나 가로비품(街路備品)(Street Furniture)을 알맞게 배치한 공간이 놀이를 위한 공간의 구실을 한다. 그곳에서 거리가 떨어진 동(棟)사이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의 지선(支線)이 길게 뻗어나가 그곳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터와 이어지는 꾸밈새가 실시되고 있다.

보행자 공간이 도시 규모로 확장된 것이 공원 계통을 구성하는 공원과 도로공원(道路公園) 또는 부울리바아드나 광장, 모울 등이고 지방 또는 국토 규모로 확장될 때는 자연공원과 자연보도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국토를 중형하는 두 개의 자연보도에 대한 계획이 추진 중에 있다. 이것이 완성되는 날에는 국민보건에 지대한 기여(寄与)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이나 국토방위(國土防衛)라는 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IV. 결어(結語)

그동안 벌거숭이 강산으로서 험벗고 메말랐던 우리나라가 '60년대 이후부터는 거국적인 애림운동(愛林運動)으로 녹색혁명(綠色革命)을 일으킨 뒤 주목할 만큼 산이 푸르러졌고 이제는 환경조경(環境造景)과 경제적(經濟的) 가치(價值)를 고려하여 식수(植樹)와 육림(育林)을 해 나가리만치 새로운 단계에 접어었다고 본다.

군(軍)·병영(兵營)에서도 해마다 많은 장병들이 식목에 투입되어 부대주변에 나무를 심고 자연에 조화(調和)되고 군사시설을 가리기 위한 위장 식수가 잘 된 부대도 있고 아직 잘 되어있지 않은 부대(部隊)도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난날 부대주둔지는 자연환경(自然環境)과 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자연을 훼손하여 인공적(人工的)으로 부지를 넓히고 조경하여 뚜렷하게, 또 식별이 용이하게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본다.

자연과 조화해서 자연의 생김새를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숙영지(宿營地)를 조성(造成)한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공중이나 기타 목표에서 보호(保護)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앞서 살펴 본 외국(外國)의 조경정책(造景政策)과 같이 앞으로 우리도 공원(公園)이나 휴식공간(休息空間)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하고 특히 그러한 공공장소(公共場所)에 대한 집중적인

식수(植樹)를 해야 하리라고 보며, 병영(兵營)에서도 '단순(單純) 식수(植樹)'의 차원(次元)을 넘어 경제수종(經濟樹種)의 선택적인 식수(植樹)와 균형(均衡)있는 조경(造景)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우리 강산을 더 아름답고 쓸모있게 가꾸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산업혁명(産業革命)의 시대(時代)에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의무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강산, 우리의 자연을 내뿜듯이 아끼고 보호하는 정신은 바로 국토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이며 애국심(愛國心)이라는 것을 끝으로 강조하고 싶다.



기가 막힌 관상

- 장병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하여 -

중령 이정남
(공군 군종감실)

관상장이 관상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실세없이 떠들었다. “관상을 보고 가시오. 틀림없습니다. 한번만 보면 어떠한 인생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때 그곳을 지나치던 한 익살꾼이 관상장이 곁으로 접근하며, “이보시오 관상장이. 내가 한번 댁의 관상을 봐 드리리다”하고 익살스럽게 접근하였다.

“그것이 무슨 소리요?” 어이없는 듯 관상장이 묻자 “나야말로 틀림없이 관상을 보는 기막힌 재주를 가지고 있으.” 그러자 관상장은 “그럼, 어디 내 관상을 좀 봐주시오” 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 익살꾼은 “당신의 관상은 관상장이 되어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지금까지 외친 그런 말을 실세없이 토하는 그런 관상이오” 했더라.

군종장교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전력과 관련하여 기가 막힌 관상을 봐 줄까 한다. 독자 여러분의 관상을 봐준다고 할까 겁이 난다.

카네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흥미있는 세가지 화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재산·종교이다”라고 했다. 성에 의해서 우리는 생을 창조하고 재산으로 유지하며, 종교에 의해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가장 흥미 있는 세가지 화제 중 인생과 종교에 대해 몇마디 할까 한다.

제가 봐드리는 관상은 독자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해주지 못하기에 진실된 마음으로 독자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드리고 싶을 뿐이다.

오랜 세기를 거쳐서 많은 철인들이 그리고 문인들이 인생을 철학적이요, 문학적인 주제로 삼아왔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는 수학적인 진리처럼 명확한 해답을 한두마디로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도저히 어떤 수학적인 결론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생의 뜻이 깊어지고 더 값스러운 것이 될지 모른다.

어찌됐던 인생이란 남의 얘기가 아닌 나의 삶과 직결된 문제요, 나라는 존재까지 여부를 결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경솔히 다룰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세월에 쫓기고, 일에 쫓기어 사는 우리들은 삶의 여유를 잃기 싫고 땅에 애착하다 보니 하늘을 우러러 볼 기회가 적었던 것 같고 생각해 볼 기회도 적었던 것 같다. 그럼 우리의 대선배들이 남겨 놓은 인생의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스쳐나가 보자.

인생은 뭐냐? 인생은 나그네길이요, 가시밭길이요, 일장춘몽이요, 초로와 같고 또 심한 표현으로 말짱 황이요, 도루묵이라고 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인생을 가볍게들 논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것도 일차 목을 축이면서 말이다. 이 얼마나 허탈감을 주는 말들이냐? 이러한 것이 진정한 인생의 전부라면 하루라도 살 맛이 없고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고생고생하며 살 이유가 없다.

“하숙생”이란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은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없이 흘러서 간다.

의미를 새겨 보면서 마음 속으로 불러보기 바란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의 가사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 노래를 애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감을 주기때문이 아닐까? 인생은 하숙생, 그 여정은 나그네길.....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허무한 인생에 도전해 보려고 한다.

나그네 길이니 가시밭 길이니 하는 것은 인생행로가 고달픈 것이고 어디론가 정처없이 길을 떠나는 고달픈 나그네 길! 그나마도 가시를 헤쳐야 하는 가시밭 길일진대 이렇게 봤을 때 인생은 너무나 부정적이고 실의에 찬 내용인 것 같다. 또 한편 일장춘몽이니 초로니 하는 것은 나그네 같은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나마도 하룻밤 꿈처럼 또는 아침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처럼 수명이 짧은 인생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또한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조차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보다 높은 삶의 뜻을 지니고 있고 드높은 가치의 차원을 염원한다. 이것이 인간이다.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은 서서 걷는다는 것이며,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자유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 양심이 있는 것, 웃는 것. 그리고 최후에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동산에서 하느님께 죄를 짓고 수치심을 깨달아 몸을 가린 점이다. 인간은 수치심을 가진 하나의 동물이다. 생태학적으로 봐서 동물과 크게 다른 점은 뭐냐? 하면 동물은 머리가 죄다 몸동이 옆에 붙어 있지만 사람의 머리는 유일하게 위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다.

누워 있으면 옆에 붙어 있지 않느냐고 따진다면 뭐라 답변할 수 없지만 말이다.

결국 이것은 뭘 말하는고 하니 비록 인간은 세상에서 밥을 먹고 일하며 피곤을 느끼는 인간이지만 하늘을 그리워 하는 인간, 두 발은 땅을 딛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이란 뜻 아니겠는가? 인간은 감각세계에 살고 있지만 물질을 초월하는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찾는 예컨대 자유를 찾고, 평화 정의를 운운하고, 진·선·미를 논하고, 인생을 얘기하고,

종교를 논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인생은 일장춘몽과 같이 허무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반문해 보고 싶다.

생명은 죽기를 싫어한다.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 신부인 저나 독자들도 다 마찬가지다. 바로 여기서 세네카의 말이 생각난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오래 오래 살려고 발버둥칠게 아니라 옹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인생의 출처를 모르고 그것의 알맹이를 모르고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놓고 때론 비판을 하게 되고 인생의 존엄성을 망각하기도 하고 제멋대로 주관대로 살아 보려고 한다.

더우기 우리 목숨, 우리 삶이 여러 개가 아닌 이래봐도 저래봐도 좋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니다. 첫번째 제가 봐드리는 관상은 독자들이나 저나 우리 각자는 온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이기에 각자의 삶은 최대의 유일회적인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연습삼아 살아서도 안 될 삶이요, 연습 삼아 살아 봐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어느 누가 인간을 종교적인 동물로 규정을 했지만 저는 종교인이기에 종교에 지극한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강조하고 싶다. 종교얘길 하면 마음으로부터 거부반응을 느끼는 분들도 있으리라 본다. 예로부터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도 많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자도 많았고, 또 한편 신을 엉뚱하게 종교인을 이상하게 곡해하는 사람도 많았다. 솔직히 이 글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으리라.

예컨대 심지어 니체는 “신은 죽었다.” 랫셀은 “신은 없다.” 사르트르는 순진난만한 어린애가 무서운 페스트병에 걸려 신음하는 것을 보고 신을 부정해 버렸다. 종교를 비난하고 무시하고 종교에 관심 별로인 사람들도 상가집에 가서는 명복을 빈다고 하는데 명복을 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이며, 누구에게 왜 비는지를 모르겠다.

반면에 데칼트는 “아무도 신을 부정할 수 없다.” 고백록의 저자 성 아오스당은 33년 동안 인생을 방황하면서 쓴맛 단맛을 골고루 맛보고 얼룩진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자기 고백록에서 “오! 하느님, 우리 영혼은 당신을 위해서 창조됐으니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안식이 없나이다. 주님, 우리는 당신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끝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시인 괴테는 “인간의 모든 갈망은 참으로 하느님께 대한 갈망인 것이다”라는 진리를 갈파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을 규정하기를 “실존적으로 유한한 존재이며 지향적으로 무한한 존재이다”고 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절대자 하느님을 인정하고 저의 전 인격을 걸고 살아가는 성직자 중 하나이요, 수십 억 신앙인 중 한 사람이다. 군중신부 생활하면서 신앙에 관심이질 만한 사람에게 성당에 나오셔서 종교생활 할 마음은 없습니까? 질문하면 대부분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근대 생활이 워낙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또는 달콤한 세상맛을 보고서 나중 늙으막에 가서 믿어 볼 생각입니다. 그때가서 부탁드릴테니 잘 보살펴 주십시오.” 하는 얘길 종종 듣게 된다.

여기서 광세의 제자요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갈파한 파스칼이 무신론자들에게 한 유명한 말을 인용 전달해 보겠다. 파스칼은 신앙문제를 앞에 놓고 누구보다도 정신적인 갈등과 진통을 치른 지성인이었는데, 드디어 그는 신을 인정하고 신앙을 찾는 겸손한 철인이 되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무신론자들에게 이르기를 “무신론자는 경솔한 신앙가들이다”고 했다. 즉 뚜렷한 근거없이 신이 없다고 믿어 버린다는 뜻이다. 즉 지레짐작으로 신이 없다고 믿어 버리는 것이다. 또 어떤 이는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마음 속에 신의 부르짖음이 강하기 때문에 일종의 반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했다.

간략하게나마 인생의 의미의 종교를 얘기하면서 하나의 종교를 올바르게 진지하게 선택하여 생활하는 종교인이 되어 보자고 부르짖고 있다. 강요가 아닌 독자들의 진실된 마음에 겸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 말마따나 인생은 제멋에 사는게 인생인데, 제멋대로 사는게 인생인데 한다면 뭐라 할 말이 없다. 예를 들어 보자. 시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벽에 거는 시계, 책상 위에 두는 시계, 팔목에 차는 시계 등 재료도 생김새도 다양하다. 이 많은 시계들이 어떠한 모양으로 만들어졌는지 그 시계가 시계로서 긍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시계의 참 목적이 시간을 바로 가리킨다는 이것 하나 밖에 없다. 1,532종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로 인생이란 것이 가치를 지니고 완전히 긍정되기 위해서는 그 참목적을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나름이란 말은 어디까지나 나름이요 주관적이요 부분적이요 피상적인 것이다. 둘 더하기 둘은 넷이라고 하는 한가지 답 이외에 다섯 혹은 여섯은 제 나름대로 말할 수 있고 쓸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리는 아니다. 저는 종교인이다. 저는 하느님을 제나름대로 제주관대로 제멋대로 믿지를 않는다. 또 내나름대로 가르치지도 않는다.

철학상으로나 그 진리의 진실성으로나 객관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믿고 싶은 것을 버리고 참진리로 제나름을 바꾸었을 뿐이다. 자기 나름대로 믿고 가르치는 종교가 우리 주변에 있긴 하지만 말이다. 제나름이란 말이 표현상 편리한 말마디이긴 하지만 제나름대로 인생을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두번째 봐드리는 관상이다.

우리가 일컫는 정신전력은 한마디로 꼬집어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신작용은 아주 복잡적이다. 정신전력을 신앙전력과 관계맺어 생각해 볼 때 군인들에게 있어 신앙은 올바른 인생관, 사생관 확립은 물론이요 신앙은 무한한 정신력의 원천이라고 자신있게 강조하고 싶다. 믿음은 자기 삶의 방향의 근본적인 재정립인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가 뭐가 종교란 말마디를 어원측면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종교(宗敎)할 때 종(宗)은 마루중이요 모든 것의 중심 근본 핵심을 뜻하는 한자어이다. 문중의 근본되는 집을 종가, 종가의 만손자를 종손, 큰집의 만며느리를 종부, 문중의 높은 어른을 종정, 역대임금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종묘라 한다.

이렇게 봤을 때 종교(宗敎)는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기본되는 가르침이요, 근본되는 진리이다. 옛말에 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이요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요 수도지위교(修道之謂敎)이니라 했다. 이 말의 뜻인즉 하늘이 명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이미 새겨진 인간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덕이요, 이 도를 더욱 빛나게 같고 닦는 것이 종교(宗敎)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동양사상에 있어서도 인격의 도야에 세가지 단계를 두었다. 주어진 본성대로 사는 인간과 본성을 넘어서 윤리도덕을 예찬하는 인간, 윤리도덕을 넘어서 소위 종교적인 고차원적인 인간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교육자 페스탈로찌는 말하기를 “종교는 인간을 다듬는 근본이다.”했다. 톨스토이는 “종교를 인생의 한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전연 종교가 없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충효(忠孝)를 부르짖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우리지만 효도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속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요, 충(忠)은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국민이 국가에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고 볼때 종교(宗敎)는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절대자에게 해야 될 마땅한 도리라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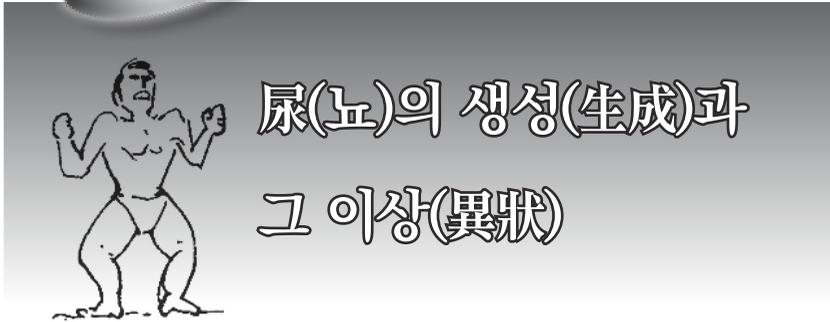
간략한 말마디로 종교를 정의해 본다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 생명과 사랑의 관계, 하느님과 인간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말하고 행동할 때 자신에게 충실하기를 바라고 삶에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보기 위해 몇마디 인용하고자 한다. 플라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산다는 그것이 아니라 잘 산다는 그것이다.”했고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잘 살지 아니 한다면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나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그 잘 산다는 것이 또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고 했다. 라틴어 격언에도 모든 일에 목적을 바라 보라고 했다.

군대조직 안에 신앙전력을 통해 정신전력강화에 일익을 담당토록 개신교, 불교, 천주교 성직자들이 파견되어 있다.

성직자이긴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나약한 인간본성을 지녔기에 부족을 느끼고 인간으로서의 한계성마저도 체험하면서 생활하고 있지만 군대 안에서의 종교생활 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본다. 군성직자들을 위하고 돕는 길은 3개종파 기성 종교인들이 생활화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꾸준히 보여 주는 길이라 본다. 어떤 맑스주의자들은 “예수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2,000년전에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우리 관심 밖의 일이다. 단지 우리는 오늘날 어디에 진실된 크리스찬들이 있고, 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되묻고 싶을 뿐이다”했다.

종교에 대한 세속적인 비난의 대표자인 니체는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그들의 구세주를 믿기를 원한다면 왜 그들 자신은 좀 더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 않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인도의 간디 성웅은 “나는 그리스도(부처)를 좋아하지만 크리스찬(불교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부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변의 비신자들이 종교인을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개신교, 불교, 천주교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충분한 그리스도인, 불교인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한다. 군 안에서의 종교인들과 성직자들도 이같은 외부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봄이 좋을 것이다. 군성직자들이 종교인을 진실로 위하고 사랑하는 길은 올바른 종교교육과 신앙생활지도에 있다 하겠다. 우리의 군종장교로서의 직분이 생의 직업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장병의 봉사자로서 위로부터 불림을 받아 이 직분에 맡김을 받았다는 성소(聖召)의식이 투철해야 되겠다고 본다. 믿음이란 지식이 아니다. 하나의 표현방식이나 사고 방식도 아니다. 믿음이란 생활방식이고 오로지 나날의 삶 가운데 실천에 옮김으로써만이 신앙은 성장될 수 있고 성장되어 지는 것이다.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어떤 악세사리나 삶의 한 방편이 아니라 사람의 뼈대요, 본바탕이요, 쫓대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인들이 군대 안에 있다면 그 군대 또한 막강한 군대일 수 밖에 없으리라. 기가 막힌 관상을 본다는 게 종교에 대한 상을 두서없이 피력한 듯 하다. 지금껏 독자들에게 했던 그 어느 한마디라도 마음을 깨우쳐 주어 마음 속 깊이 지니고 있는 진실의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희생에 대한 보람을 얻게 될 거라 믿으며 시인 괴테의 말을 인용하여 관상보기를 끝마치겠다. “우리의 모습과 사람됨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尿(뇨)의 생성(生成)과 그 이상(異狀)

대위 이윤수
〈항공의학연구원〉

만일 각자의 집에 하수도가 막혔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허드렛 물이 고이고 나중에는 그 고인 물이 썩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하수도가 있으므로 인하여 쾌적한 주위환경 속에 별다른 불편없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 신체 내에도 이런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비뇨기관으로 체내에서 신진대사에 의해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여 주는 배설기관의 하나이다.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비뇨기계통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가의 여부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이다. 만일 그 기능이 며칠간 만이라도 저하된다면 사망에까지도 이르게 된다.

비뇨기계통은 각각의 맡겨진 역할에 따라 4개의 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여과를 담당하는 신(腎), 둘째는 신에서 형성된 요를 방광으로 보내는 요관(尿管), 셋째는 요를 저장하여 두는 방광(膀胱), 마지막으로 저장하여 두었던 요를 방광에서 체외로 내보내는 요도(尿道)가 있다(그림 1).

〈신의 해부학적 위치와 기능〉

신은 후복벽의 복막 뒤에 좌우 한개씩 놓여 있으며 크기는 약 3 X 6 X 12cm 정도이며, 무게는 약 150gm 정도이다. 각 신의 후방은 배근(背筋), 측방과 전방은 제11, 12늑골과 복강 내 장기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어 경한 복부외상이나 중등도의 복부외상으로 신까지 손상을 받는 일은 드물다. 옆이나, 앞에서, 신에 강력한 외력이 가해질 경우에는 신실질(腎實質)에 열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런 국소 해부학적 위치는 신이 생명유지에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호된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중요한 신의 기능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가 체내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이요, 둘째가 혈장의 성질을 화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정상으로 유지시키는 조절기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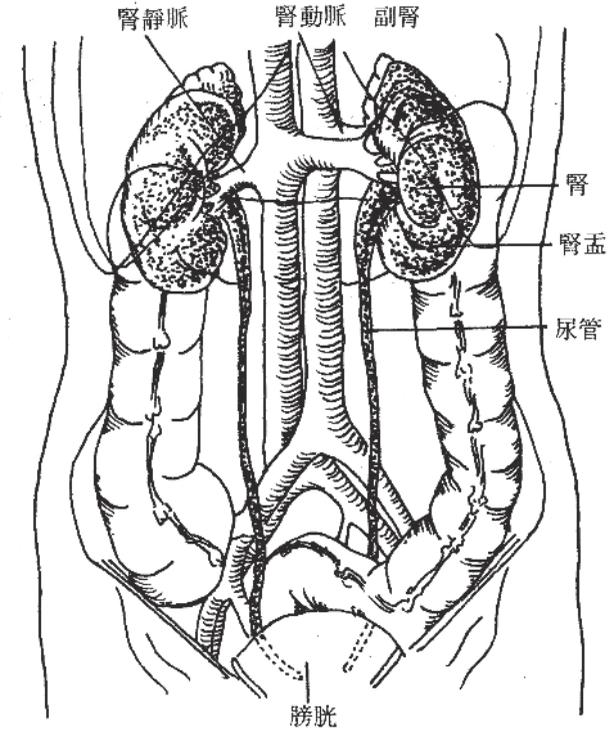


그림1. 신의 국소 해부(전면)

뇨(尿)의 생성(生成)

양측 신에는 약 2,400,000개의 신원(腎元)이 있다. 이 신원은 신기능을 표시하는 하나의 단위조직으로, 여과기 역할을 하는 사구체(絲球體)와 여과된 물질이 통과하면서 소변으로 농축되어지는 세뇨관(細尿管)으로 구성된다. 요의 생성은 이 여과기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며 단백질을 제외한 성분이 모두 여과된다.

신을 흐르는 혈류량은 체중이 70kg인 정상인의 경우 1분간 심박출량이 약 5,600ml이라고 할 때 이중 1/5인 1,200ml가 양측 신으로 흐르게 된다. 양측 신의 무게는 체중의 0.5%에 지나지 않으나 혈류량은 무려 심박출량의 1/5에 순환되어 지는 것이다. 이때 순환되는 혈류량은 24시간 동안에 약 1,800ℓ이며 사구체에서 여과된 요의 양은 180ℓ이다. 그러나 이 180ℓ의 요를 그대로 소변으로 배출된다고 하면 사람은 하루종일 소변만 보고 있어야 할 것이며 모자라는 수분의 보충을 위하여 계속 물을 먹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은 신기하

게도 여과된 액이 긴 세뇨관을 통과하면서 대부분의 수분과 당, 아미노산, 전해질 등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선택적으로 재흡수한다. 그의 전혀 불필요한 요소 등과 세뇨관에서 분비되는 일부 물질이 합쳐져서 체외로 나오는 것이 요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체외로 나오는 요는 요형성에 직접 관여되는 비뇨기계통의 이상은 물론 혈액성분이나, 순환기계통의 이상들도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수분섭취, 음식물과 일반대사와 중간대사에 따라 좌우되며, 요의 양, 색, 냄새, 조성, 반응 등이 건강상태에는 정상범위에 있으나 이상이 있으면 이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배뇨의 경로와 기전

신을 통해 배출된 요는 후복벽에 위치한 요관을 따라 방광에 고이게 된다. 고여진 요가 일정량에 도달하기까지는 방광내압은 거의 상승되지 않는다. 방광의 용량은 개인차가 크며 환자가 강한 요의를 느낄 정도로 충만된 방광용적을 최대방광용적이라 한다. 정상인에서 방광용적은 300~500cc 로서, 방광이 차면 신경계에서 배뇨하도록 작용한다. 배뇨(排尿)는 방광배뇨근(排尿筋)의 수축으로 방광경부가 크게 열림으로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방광경부(膀胱頸部)에 있는 괄약근(括約筋)은 이완한다. 이로써 배뇨가 시작되는데 정상에서는 배뇨시간이 약 15초가 된다.

배뇨시 요선(尿線)의 굵기와 양은 방광내압과 괄약근의 기능과 요도의 내경같은 단순한 물리적 법칙에 좌우된다. 정상배뇨압은 약 80mmHg이다. 압력이 적어지든지 괄약근에 이상이 있든지 요도내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요선의 방출력이 감퇴되어 방울방울 떨어지고 요선이 가늘어지고 오줌줄기가 꼬이든지 갈라진다(그림 2).

정상적인 소변량과 횡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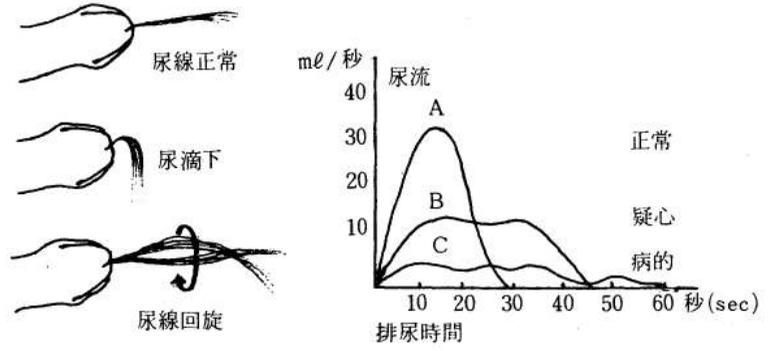


그림 2. 요선의 변화와 요선 측정 : 요류량 측정

소변량은 대체로 체중에 비례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많고 소아가 어른보다 많다. 어른의 소변량은 24시간에 보통 1,200~1,500ml 혹은 1ml kg/hr 정도이며 1~6세까지의 어린이의 소변량은 500~1500ml 정도이다.

하루에 보는 소변횟수는 수분 섭취량, 수분 배설량, 기온, 운동, 정신적 영향 등으로 변동이 많다. 처음 출생시에는 약 10회, 3~4살에는 약 9회로 차츰 감소하여 12살 이상이 되면 성인과 같이 4~6회로 된다. 주간에는 야간에 비해 5~6회 정도이며 야간에는 0~1회 정도이다.

그러나 신기능이 나빠지면 이 비례가 바뀔 수 있으며 어린애들의 경우 야뇨증 등을 볼 수 있다. 소변의 양과 횟수는 정상인에서도 먹는 것 마시는 것, 소화과정, 신진대사의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많다. 그외에도 기온이나 운동에 따라서 땀 입김 등으로 내뿜는 수분량이 달라지고 순환기나 신의 기능 여하에 따라 수분조절 정도에 의해 소변량이 변동하기 쉽다. 그러나 24시간 소변량이 2,500ml를 넘으면 요량의 증가로 보는데 이것은 신질환에 의한 신의 농축, 기능저하, 이뇨제 복용, 과음, 추위, 뇌하수체종양, 당뇨병 및 요붕증에서 볼 수 있다.

요량의 증가(다뇨(多尿))와 빈뇨(頻尿)는 다르다. 빈뇨란 요량에 관계없이 횡수가 느는 것으로 이는 방광염, 신우염 및 전립선 비대증 때 온다.

24시간 요량이 600ml 이하이면 횡뇨(乏尿)라 하여 요량의 감소로 보는데 일단 주의를 요한다. 마시는 수분의 양이 적다든지 혹은 출혈 구토 고열 땀 등으로 탈수되든지, 또는 부종 대상불능의 심장질환 및 급성신염 등에서 볼 수 있다.

요의 형성이 정지된 것을 무뇨(無尿)라고 말하며, 소변이 배설되는 경로가 막혀서 발생하는 요폐(尿閉)와 구별돼야 한다. 척추손상, 70mmHg 이하의 혈압강하 급성신염 및 요로의 완전폐쇄같은 경우에 볼 수 있다. 요량이 감소되었다 혹은 소변이 안 나온다 하는 것은 앞에서 기술한 요의 생성 및 배출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즉 심장에서 혈액을 신으로 보내주어야 하고 신에서 여과 및 농축되어져 하수도 역할을 하는 요관, 방광 및 요도를 통해 배출되는 것이다. 심장에서 요도로 나오는 과정의 어느 한 군데에 이상이 생기면 요량과 감소 및 무뇨를 나타낸다.

만일 요의 배설이 안 된다면?

요의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내에 노폐물이 축적되며 전해질산염기 평형의 장애 및 수분대사 장애를 동반하며, 식욕부진, 구토, 기면, 혼수 등의 증상 및 신체 각 부위에 이상을 가져 온다. 또한 무뇨가 수일간 계속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까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능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노폐물의 생성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을 제한하며, 생성된 노폐물을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인공신(人工腎)이나 복막투석(腹膜透析)을 이용하여

보존요법을 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은 환자의 혈액이 여과지 역할을 하는 반투과막(半透膜)을 통하여 전해질이나 당이 포함되어 있는 관류액 내에서 대사교환하는 것이다. 최근 1950년 최초의 신이식술의 성공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이식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역시 많은 신부전증 환자들이 인공신장기를 돌리며 신장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는 꼭 건강한 생체(生體)의 신장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체(死體)에서도 가능하며 외국의 경우 신장의 제공을 시체로부터 얻는 경향이 많아졌다. 우리나라도 자기의 영혼은 떠나더라도 자기의 육신은 많은 불행한 사람을 위해 쓰여지도록 자신의 장기(臟器)를 기증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

요의 정상소견은?

신선한 요의 반응(PH)은 대개 산성이다. 심한 발한에 의한 농축뇨의 상태에서나, 열이 있을 때나, 육식을 한 후 체내 단백대사가 높아질 경우에는 산성도는 높아진다. 또 방광 내 감염에 의해 세균의 번식이 있을 경우 요소가 세균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요는 알칼리성으로 된다. 이럴 때는 특징적인 암모니아 냄새가 나는데 이는 마치 청소를 잘 하지 않은 소변기나 밤새도록 방치해 둔 요강에서 나는 냄새와 같다. 따라서 신선한 정상 요에서는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없으나 간혹 신선한 요에서도 이런 냄새가 나는 것은 대개 폐쇄성 방광염의 경우이다. 남자의 경우 여자와 달리 전립선이라는 성선이 있으며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전립선의 비대를 가져오며 심하면 요폐증을 유발한다. 여기에 감염이 동반될 경우 마치 하수도가 막히면 물이 고여 썩는 것처럼 요의 저류로 인하여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 요에서 신냄새가 나는 것은 당뇨병 환자에서 흔히 요 중에 아세톤 등을 배설하는 경우에 일어나며 이런 경우는 환자가 숨을 쉴 때도 과일냄새가 난다.

신선하게 배뇨된 정상체온을 가진 노는 주로 연한 미색 즉 벗 짙색으로 나타나며 투명하다. 힘든 육체운동과 땀을 흘렸거나 발열 후의 농축뇨는 호박색을 띠며 요량이 많고, 비중이 낮은 요는 무색이다. 소변에 혈액이 섞이면 그 양에 따라 적색, 갈색계통의 색을 나타내며 용혈되면 차츰 흑갈색으로 변해 간다. 황색, 녹색 또는 황갈색을 띤 경우는 담즙의 존재를 의미하며 흔들면 노란색의 거품을 보인다. 또한 복용한 약제에 의해서 오렌지색, 붉은색 등의 요를 볼 수 있다. 적혈구와 관계없이 붉은 색의 요가 나올 경우는 고기를 먹은 후 요 중 betacaganin의 배설, 근육손상 후 Myoglobinmia 혹은 혈구파괴로 인해 Hemoglobinmia 등이 있다. 그러나 일단 소변의 색이 붉은 색을 띤 경우 혈뇨와의 감별을 위해 현미경적 소변 검사를 요한다.

신의 농축능력을 알아보는 것으로 요비중(尿比重) 측정이 있다. 요의 비중은 용해된 물질의 무게를 나타낸 것으로 신기능장애가 있는 경우는 요의 농축력이 감소되어 비중이 낮아지며 이것을 저장뇨라고 한다.

그외 사구체의 투과력 이상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요단백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비뇨기과 질환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요중 백혈구나 적혈구의 함량이 많은 경우에도 단백배설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실제 중요한 것은 이런 혈구세포없이 단백뇨만 나타나는 경우이다. 그의 심한 운동을 하거나 발열 등에 의해서도 일과성 단백뇨를 보일 수 있다.

당뇨는 대부분 혈중 당의 농도가 180mg/dl 이상일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흔한 질환으로 당뇨병이 있다. 당뇨병은 체내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부족에 의하여 당대사 장애를 수반하는 질환으로 과량의 당을 배설하기 위하여 요량이 증가될 뿐 아니라, 요의 비중도 높다. 이 병은 여러 신체 각 부위에 합병증을 수반할 수 있으며 비뇨기계의 이상으로 신유두괴사, 반복되는 요로감염,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있을 경우 당뇨병의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혹 아스피린, 비타민씨, 항생제 등의 약제를 과량복용시 위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표 1).

요 중에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유기질과 무기질이 존재한다. 이 중에는 요산(尿酸), 수산염(修酸鹽) 및 인산염(磷酸鹽) 등이 있다. 이들은 항상 소량씩 정상에서도 발견되나 이들의 배

표 1. 사구체 신염성 단백뇨와 혈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질환들

<p>주요 단백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뇨병성 신질환 (diabetic nephropathy) - 만성 신우신염 (chronic pyelonephritis) (단백뇨<3g/일) - 아밀로이드신 (amyloid kidney) (흔히 신증후군을 동반) - 루푸스 신염 (lupus nephritis) - 양성 신경변증 (benign nephrosclerosis)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 <p>주요 혈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낭종(renal cyst), 낭종신(cystic kidney) - 혈응고 장애 (coagulation disorder) (thrombopenia 등) - 신결석 (renal stone) - 신유두 괴사(papillary necrosis) (간질성 신염의 경우) - 결핵 (tuberculosis) <p>종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로 국소 출혈 (Osier 병)
--

설이 많아지면 각각 요산뇨, 수산뇨, 인산뇨라고 한다. 정상상태에서는 용액상태로 뇨에 녹아있으나, 병적인 상태에는 집뇨계에 나와서 유기물 등에 부착되어 미세결석(微細結石)을 형성한다. 대부분의 미세결석은 자각증상없이 요의 배출되는 힘에 의하여 배설된다. 그러나 이것이 신유두(腎乳頭)나 신배(腎杯)의 점막에 부착되어 남아있게 되면 결정타의 핵으로서 작용하여 이 주위에 다른 염류가 더 부가되면서 점차 자라 육안적 결석이 된다.

요 중에 백혈구가 나타날 때 이를 농뇨(膿尿)라고 하며, 비뇨기계의 염증을 의미한다. 육안적 농뇨의 경우는 요의 혼탁으로 인하여 뿌옇고 투명하지 않다. 백혈구덩어리가 있으면 덩어리나 실같이 뭉쳐지는데, 이것이 오래되면 백색침전물이 된다. 요로감염은 혈행성(血行性), 임파성(淋巴性), 상행성(上行性)으로 올 수 있으며 서로 연관성이 있어 어느 한곳에 감염시 요의 배출경로를 따라 퍼져 나가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요배양검사 및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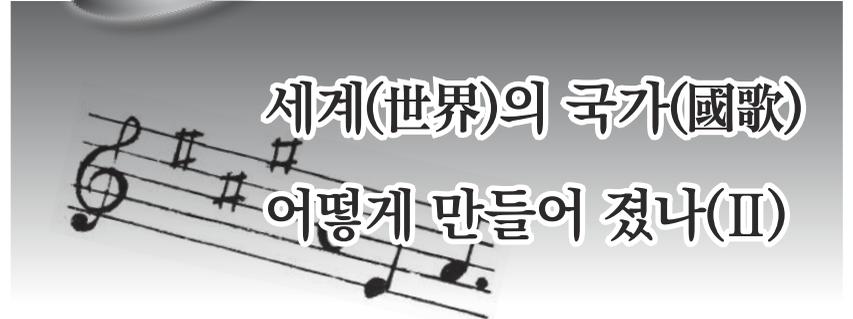
혈뇨(血尿)의 중요성

현미경이나 육안으로 볼 때 요 중에 관찰되는 혈구가 있다면 혈뇨라고 하는데 혈뇨가 나온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비뇨기계통의 심각한 질병을 의미한다. 육안적 혈뇨(肉眼的 血尿)에 있어서는 요의 색깔이 혼합된 혈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다. 현미경적으로는 적혈구가 2개 이상 보일 경우 이상소견으로 간주한다. 혈뇨가 배뇨의 처음인지 마지막인지에 따라 초기혈뇨(初期血尿) 또는 종말혈뇨(終末血尿)라고 한다.

그러나 남녀에 관계없이 어느 연령층에서나 특별한 증상없이 지속적인 혈뇨가 있을 경우에는 좀 더 관찰 및 다른 검사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중년층에서 별다른 증상이 없이 혈뇨를 보이거나 소변을 본 후 속내의에 혈흔이 보인다고 하면 즉시 비뇨기와 전문의와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경우 방광암이나 신장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암의 조기발견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하여 널리 인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하여 미루다가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채 병원을 찾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요검사는 비뇨기계의 이상은 물론 혈액성분이나 순환기 계통의 이상들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 신체에는 2개의 신장이 있고 각각 약 백만개 이상의 신원이 있어 이중의 약 1/4만 완전하여도 생명유지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요검사나 신기능검사에 아무 이상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비뇨기계 질환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검사와 병행해야 한다.



- 민주주의식의 영원한 찬가 -

중위 윤 덕 현(尹德鉉)
(제3639부대)

4. 영국군의 집중포화 속에서 만들어진 미국의 성조기

1931년 3월 3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성조기」(The Star-Spangled Banner)가 정식국가로 채택되었다. 이전에는 미국에 공식적인 국가는 없었고, 미국의 애국가에 해당되는 「콜롬비아 만세」(Hail Columbia)와 「양키 두들」, 영국 국가의 선율에 맞추어 부른 「우리의 조국」, 그것은 당신(하느님)의 것(My Country'tis of thee)이 비슷한 인기를 누리면서 불려졌다. 이외에도 영국 국가의 가사를 바꾸어 만든 「신이여 아메리카를 구하소서」, 「신이여 13주를 구하소서」, 「신이여 대통령을 구하소서」 등과 같이 여러 변형들이 나타났다. 『우리의 조국, 그것은 당신의 것』은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S.F 스미드 목사(1808~95)가 가사를 썼다. 어느 날 스미드의 하버드 동창생인 O.W. 홈즈가 그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 명성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나? 나는 6천만 명의 국민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쓰는 일이라네.”

그가 24세 되던 해 앤드버 신학교에 다닐 무렵, 미국의 음악학교의 창시자 로웰 메이슨이, 친구가 독일서 가져 온 악보들을 스미드에게 보여 주었다. 여기서 그가 자극을 받아 애국적인 노랫말을 쓸 마음을 먹은 것이다. 완성된 가사가 로웰 메이슨에게 보내졌고, 이 노래는 뉴욕의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독립기념주일(1932. 7. 4)에 어린이 합창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노래는 미국에서 「아메리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다.

1798년 여름, 미국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교전이 한창일 즈음, 「콜롬비아 만세」가 작곡되었다. 프란시스 홉킨스의 아들 조셉은 변호사 겸 미국 태생의 최초의 시인, 작곡가이다. 조셉이 작곡한 「콜롬비아 만세」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악장을 지냈던 필립 파일의 편곡으로 미국 「대통령 찬가」로 유명하게 되었다.

미국국가 「성조기」의 내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한 신사가 말보로에서 체포된 그의 친구를 영국부대로부터 풀어 주기 위해 파독센트의 어귀까지 갔다. 그는 발티모어에 대한 공격계획을 입수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다는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파타스코 어귀까지 해안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나 그도 마침내 영국군의 포로가 되었다. 그는 영국군 프리깃 함 갑판에서 맥헨리 요새의 포격광경을 보아야 했다. 영국 해군대장은 몇 시간 안에 도시 전체가 함락될 것이라고 떠벌려 댔다. 1814년 9월 14일, 그가 갑판 위에서 바라본 맥헨리 요새의 성조기는 그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다. 지난 밤에도 지칠 줄 모르고 곳곳하게 펄럭였던 성조기. 그는 해가 저서 깃발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석양을 배경으로 휘날리는 성조기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날 밤 벙쳐오는 감동을 한 편의 시에 옮겼다. 이 가사는 곧 영국 작곡가 J. S. 스미드(1750~1836)의 노래, 「하늘에 있는 아나크레온에게」의 선율에 붙여졌다.』

이 미국신사는 바로 프란시스 스코트키(1779~1843)이고, 그의 친구는 빈즈 박사로 둘 다 발티모어 출신이다. 이 가사의 원본은 뉴욕 골동상가에서 2만 4천 달러에 팔렸다.

캐나다의 국가는 두 개가 있다. 온타리오주의 학교에서 1877년부터 불려 온 「단풍잎이여 영원하리」는 1867년 국민학교 교장 알렉산더 무어(1830~1906)의 작곡이다.

『옛날 영국 해변에서 용감한 영웅 윌프가 왔네. / 그가 캐나다 땅에 영국 국기 꽂았다. / 여기서 깃발과 우리 궁지도 펄럭이고 / 사랑으로 모두 뭉쳤다. / 신이여 여왕을 구하시고 / 단풍잎이 영원하도록 축복하소서. 오 캐나다, 우리의 조국..... 우리 영원히 그대 지키리』

프랑스계 지역에서 인기있는 「오 캐나다」는 원래 세례요한을 찬송하는 노래였으나 캐나다 연대에서 공식국가로 채택했다.

5. 하이든, 모짜르트, 구노 등이 작곡한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國歌)

하이든의 「황제」 4 중주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서독의 국가도 독일에서의 정치변동에 따라 많은 가사 수정과정을 겪었다. 원래 「신이여 프란츠 황제를 도우소서」로 시작되는 가사는 영국 국가에 자극을 받아 독일제국의 대법관 로렌츠 레오폴트하쉬카(1749~1827)의 것이다. 하이든은 여기에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크로아티아 민요선율 하나를 갖다 붙였다. 1848년의 혁명 와중에 지은 A. H. 호프만(1798~1874)의 가사를 붙여 「최고의 독일」, 독일로 불려졌으며 이것은 곧 1922년 독일의 정식 국가(國歌)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시에서 나타난 정치성을 이유로 그가 교수직을 박탈당하기까지했다.

6. 조국 독일을 위해 / 통일과 정의의 자유를 / 우리 모두 이 목표들 이룩하세 / 통일과 정의의 자유는 / 행복의 심부름꾼.

1933년부터는 이 노래와 함께 나찌당가도 불려졌다. 나찌당가의 가사를 쓴 호스트 베셀(1907~30)은 당시 학생이었다. 베를린에서 폭풍부대 장교로 있을 당시 그는 공산당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때문에 3명이 나찌의 손에 죽어야 했다. 1950년 연방공화국은 호프만의 원시 1절과 3절을 바꾸었다. 서독에는 이외에도 「라인강가의 보초병」, 「오 독일」, 「그 이름 높다」, 「나는 프로이센인」과 같은 애국가가 있다. 하이든은 늙어서 자신의 선율을 피아노로 즐겨 연주했으며, 프랑수아즈 비엔나를 침공했을 당시 죽기 직전에도 이 곡을 연주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1590)를 자랑하는 네덜란드는 「빌헬름스」, 「여왕찬가」라는 제목의 노래를 국가로 사용하는데, 작곡자는 미상이다.

스위스의 국가는 가사가 모두 4개 국어로 되어 있고 공식제정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의 나라」, 「강의 나라」, 「들의 나라」로 시작되는 오스트리아의 국가는 모짜르트 곡이다. 모짜르트는 원래 이 곡을 그의 「메이슨 칸타타」 K.623'에 덧붙여 만들었다. 유고슬라비아와 폴란드는 전통민요에서 선율을 따서 만들었고, 둘은 서로 비슷하다. 영국에 뒤이어 오래된 국가의 전통을 자랑하는 덴마크, 「군인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은 아일랜드, 샤를루 구노가 작곡한 바티칸, 이 외에도 스페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네덜란드, 원래 외설적인 가사가 붙었던 민요선율을 사용하는 스웨덴의 국가가 있다. 터키의 국가도 국기를 노래하고 있다.

『두려워 말아라 / 심홍색 깃발은 색깔이 바래지 않으리니/그것은 조국을 위해 불타오르는 심장 / 그것은 영원히 빛날 조국의 별』

1830년 브리셀에서의 시위 동안에 작곡된 벨지움의 국가 「브라방송」(Brabacons)은 브라방 주의 용병대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헝가리의 국가는 기독교적 분위기를 자아내는 가사를 담고 있다.

『적과 싸울 때 보호하소서 / 슬픔과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희망찬 변영의 날들을 주소서 / 모든 과거와 미래가 이 민족이 지은 죄의 댓가입니다.』

1946년에 제정된 이태리 국가는 1847년에 작곡되어 1860년 「가리발디 장군」이 부르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널리 불려졌다.

『이태리의 형제들이여, 이리는 깨었도다. 스피치오의 투구를 썼도다. / 신이 주신 승리는 어디에? / 로마의 노예여, 멍치자. / 이태리가 부르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도다.』

못솔리니는 정권을 잡은 후 옛날 왕정 때의 국가를 고집했다. 토스카니니가 「라지오비네자」의 지휘를 거부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러시아에서의 최초의 국가는 「신이여 황제를 구하소서」로 「A. P. 로보프」의 작곡이다. 이전에는 영국 국가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로보프의 곡에서도 영국 국가의 영향을 찾아 볼 수 있다. 1917년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노래는 국제공산당가(Internationale)로 바뀌어졌다. 이

가사를 쓴 사람은 파리의 부두노동자인 포티에이다. 1944년 1월 1일 소련은 이 노래를 폐지하고, 립스키 콜사코프의 제자이며 붉은 군대 합창단 지휘자였던 A. V. 알렉산드로프가 「소련의 찬가」라는 국가를 새로이 제정했다.

7. 독립전쟁의 와중에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남미의 국가(國歌)들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독립전쟁 이후 민족문화의 형성기(1750~ 1900)에 작곡되었다.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그들의 민족 문화와는 거의 무관하게 유럽에서 이주해 온 작곡가들에 의해 이태리나 독일방식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이다. 콜롬비아의 국가는 이태리에서 자신의 오페라단이 파산하자 보고타로 이주해 온 테너가수가 작곡했다. 칠레의 국가는 처음에는 칠레 땅을 한번도 밟지 않은 스페인 사람의 작품이었으나 칠레, 스페인 간에 평화조약체결 이후 칠레 본국인이 다시 작곡했다.

『칠레 너 맑고 푸른 하늘, 부는 달콤한 바람』

멕시코시티에서 공모하여 제정한 멕시코의 국가는, 미국에 우연히 정착하게 된 스페인 사람의 작품이다. 엘살바도르의 국가는 이태리인 후안 아베를레가 작곡했으며, 파나마의 국가는 원래 스페인 이주자가 작곡한 학교용 노래이다.

쿠바 독립전쟁 때 바야모 전투에서 독립군이 구아나바코아 마을로 들어올 때 시골의 밴드리더가 자발적으로 작곡한 쿠바의 국가는 『전장터로 나가세, 바야모 사람들아』로 시작된다. 아마투어가 즉흥적으로 작곡하여 공모당선된 우루과이의 국가는 도니젠티의 오페라 「루크레치아 보르지아」에 나오는 뱃노래와 매우 비슷하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살던 음악선생이 쓴 것으로 구식 이태리 오페라풍이다. 남미의 국가 중 가장 긴 곡이다.

1822년 9월 7일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하자, 그날 저녁 5시 반에서 9시까지 페드로 1세 자신이 작곡한 브라질의 국가는, 상파울로에서 그날 밤에 열린 애국행사에서 황제 자신의 노래와 합창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그가 퇴위한 다음에는 다른 곡으로 개정되었다.

남미에서 가장 맨 먼저 국가를 채택한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마르세이유」를 국가로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혁명전쟁 동안 작곡된 것이다.

『굴레를 벗어 던지고 / 법을 존중하는 민중에게 영광 있으라』

코스타리카의 국가에는 매우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 1853년 영·미 사절단이 산 호세에 도착했을 때, 대통령은 이들 귀빈을 감동시키기 위해 환영식에서 국가를 연주하기로 결심했다. 그 전에는 국가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당시 그 나라 최고의 음악가인 쿠티에레스에게 국가를 작곡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는 작곡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면서 망설였다. 마침내 투옥된 그는 불쌍하게도 부르기 쉬운 노래 한 곡을 짜낼 때까지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코스타리카와 국가이다.

8. 베에토벤 제9번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 주제를 편곡한 짐바브웨의 국가(國歌)

시인 타고르가 작사, 작곡한 인도의 국가는 1950년 채택되었다. 인도음악의 선율을 연상케 하는 이 노래는 민속적 색채를 강하게 풍긴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마을을 통치하고/ 인도의 운명을 주장하도다. / 당신의 이름은/ 편잡·신드·구지랏·마라타·드라비드·오릿사벵골 사람의 마음 속에 있도다』. 이란의 국가는 1933~ 79년에 「왕이여 만세」가 불려졌으나, 팔레비의 퇴위, 호메이니의 등장으로 현재 공식적 국가는 없다. 「희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가는 전통민요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온주의 운동에서 많이 불려졌다. 「스메타나의 몰다우」 주제와 매우 비슷하다.

『아직 마음 깊숙이 숨어 있지만 /유태인의 영혼은 동방의 시온을 갈망하도다. /시온과 예루살렘 땅에서 / 우리의 땅에서 자유민이 되는 / 2천년 동안 품어 온 꿈은 / 아직 잃지 않았다』

『삼민주의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로 시작되는 자유중국의 국가는 원래 국민당의 당가였다. 손문(孫文)의 가사에, 곡은 공모하여 정한 것이다. 일본의 국가는 궁정 악사 히로모리 하야시의 작곡으로, 군악대장 엑케르트가 편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티끌이 모여 바위가 되도록 /그 위에 이끼가 두껍게 길 때까지 / 평화로운 제국이여 수천년 동안 영원하라』

해방전에는 영국 식민지 로디지아로 알려졌던 잠바브웨는 1965년까지 영국의 국가를 사용했다. 현재는 베토벤의 9번교향곡 마지막 악장의 주제를 편곡하여 국가로 쓰고 있다.

중공의 국가는 1932년에 작곡되어 1949년에 제정되었다. 가사가 집단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탄자니아의 국가도 집단창작에 의한 가사를 가지고 있다.

9. 1936년 6월 초에 안익태에 의해 작곡된 우리의 애국가

우리나라의 국가는 대한제국에서 비롯된다. 대한제국의 국가를 「프란츠 엑케르트」가 작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1896년에는 두 개의 애국가가 서울 장안에서 불려졌다. 9월 9일 새문안교회의 고종 탄신축하예배에서는 영국 국가를 그대로 번역하여 불렀다.

『눕흐신 상주님 자비론 상주님 긍휼히 보쇼셔 /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오주여 이 나라 보우하쇼셔』

올드랭 사인의 선율에 맞추어 부른 애국가가. 11월 21일 독립문 정초식에서 불려졌다.

『성자신성 오백년을 우리 황실이요/산고수려 /동반도는 우리 본국일세/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 조선사람 조선으로 길이 보존하세』

이외에도 안창호의 「거국가(去國家)」, 「망국가(亡國家)」, 「대한혼가(大韓魂歌)」와 같은 애국가가 있었다.

위의 애국가에서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애국가의 후렴이 이미 이때부터 불려졌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애국가의 가사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도산 안창호의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안익태에 의해 베를린 올림픽이 열린 1936년 6월 초순에 작곡된 「애국가」는 일제 말엽의 독립운동에 불씨를 던졌음에 틀림없다. 가사에 나타나는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 나라 만세』는 영국국가의 『God Save The Queen』,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자주 나타나는 『Long Live The King(country)』 같은 구절에 해당된다. 굳이 분류하자면 애국가는 자연을 노래한 국가에 포함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1948년에 국가에 해당하는 노래로 채택된 애국가는 현재까지 사용되면서 개정의 논란이 잦았다. 애국가 개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1) 애국가가 원래 불가리아의 민요를 엑센트 위치만 바꾸어 인용한 것이며 (2)가사가 일본 국가의 긍정성 (티끌→바위→이끼)과 비교할 때 너무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3) 엑센트와 선율에서 음악적인 약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개정 반대론자들은 (1) 어차피 남북통일이 되면 새로운 국가를 제정할 것이고 (2) 40여 년간 계속 불리어 온 노래를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입장이다.

위에서 우리는 세계의 국가(國歌)의 유래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간단히 결론을 대신하자면 (1) 국가제정의 움직임은 19세기에 세계적으로 나타난 민족의식의 발전에 기인한다. (2)전투, 혁명을 노래하는 국가는 음악이 사회적 통제수단으로서의 역동성을 갖는다는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3) 「찬가」의 형태로 만들어진 국가는 종교와 정치의 상호연관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편집후기(編輯後記)

○…‘인간생애(人間生涯)의 최고(最高)의 날은 자기의 사명(使命)을 발견하는 날’이라고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터는 외쳤습니다. 인간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감이 우리를 성실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들며, 우리를 진지(眞摯)하게 살도록 해줍니다. 작은 일과(日課)에서도 우리의 위치를 거듭확인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월남이 패망한지 10수년이 지났지만 그들이 지금껏 가르쳐 주는 역사적 교훈은 호국외지가 없는 국민에게는 아무리 강한 군대와 무기를 주어도 자신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이 오면 맨주먹으로 붉은 피 흘리며 조국수호를 위해 생명바친 호국영령(護國英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職分)을 다하고 시대적(時代的) 사명(使命)의식(使命意識)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克服)해야 할 것 입니다.

○…「공군(空軍)」 197호가 나오기까지 많은 장병과 각계 각층의 인사가 도와 주었습니다. 아직 아쉬운 점도 많으나 여러분의 관심과 지도로 더욱 알찬 내용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장병 투고(將兵 投稿) 환영

「공군(空軍)」은 공군(空軍) 유일의 장병교육(將兵教育) 및 교양지(教養誌)이며 장병 여러분 자신이 꾸미는 잡지입니다.

평소 병영생활과 자신의 일과(日課)를 통하여 느끼고, 일어나는 일들을 정리하여 보내주거나, 군발전(軍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등을 모아 투고하면 소중한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게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예작품(文芸作品)도 물론 환영합니다.

투고요령(投稿要領)

- 매수(枚數) : 200자 원고지 20~40매 정도 단, 논문(論文)은 제한 없음
- 마감일자 : 제한 없음
- 보내실곳 : 서울 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사서함 10호 정훈감실 「공군」 담당. (우편번호 151 - 01)
- 채택된 원고는 소정의 교료를 지불합니다.

3,700

제목 : 공군지 197호

1986년 4월 15일 인 쇄
1986년 4월 20일 발 행

발 행 :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 쇄 : 공 군 교 재 창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공군지에는 군 보안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으나, 부지불식 중에 적의 전략정보에 이용될 수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은 그런 일 없도록 책자 취급과 보관에 각별한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